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발행인 · 김재철

편 저 · 김명남 외 30명

발행일 · 2008년 12월 31일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1803호

전 화 · 02-6000-4326~7

팩 스 · 02-6000-4328

홈페이지 · <http://www.changpogo.or.kr>

공 급 · 도서출판 수막새

이 책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행문 발간에 즈음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커다란 물결의 흐름 속에서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표와 가치관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해상 활동으로 우리 역사를 빛낸 장보고 대사를 재조명·평가하여 그의 진취적인 기상과 대외지향적인 사상을 널리 알리고,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꿈을 심어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장보고 대사는 1200년 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바다로 진출해 그 당시 세계의 전부였던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한손에 거머쥐고 한·중·일 삼국의 무역을 주도하며 멀리 이슬람까지도 교역을 하는 등 한반도를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키웠던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선각자요 위대한 해양개척자입니다.

우리 기념사업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해상왕 장보고를 역사와 전기 속의 인물이 아닌 교육현장과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친근한 위인으로서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표로서 국민속에 자리 매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청소년 역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의의를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새시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다 널리 알리고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 답사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탐사탐방기를 공개 모집하여 그중 일부의 글을 선정하여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한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본 기념사업회의 사업에 관심이 크신 인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선생님들 체험이 보다 널리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현장의 체험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의 발간에 앞서 답사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답사단의 강의를 맡아 솔섬수범해 주신 참여 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8. 12. 23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철

## 차례

### 산똥일기 · 13

✎ 인천 부마초등학교 김명남

###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서 나를 찾자 · 36

✎ 대전 대신고등학교 한대호

### 미래 장보고의 부활을 꿈꾸며 · 52

✎ 안산 본원초등학교 정임순

### 푸른 바다에 실린 해상왕 장보고의 꿈길을 따라 · 68

✎ 대구 고산초등학교 심현석

### 장보고의 海洋 大國이여! · 82

✎ 대구 구남여자정보고등학교 김용만

### 해상왕 장보고 장군과 함께한 5박 6일 · 107

✎ 포항 문충초등학교 원정호

### 시대를 앞서 간 개척자, 장보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 120

✎ 인천 심곡초등학교 임육

### 21세기 해신 장보가 부활한다 · 131

✎ 인천 명현중학교 김미경



눈앞에 거대하게 탄생한 장보고를 그리며 · 150

✎ 서울 화계초등학교 이순례

여행에서 답사로, 신라인에서 세계인으로 · 158

✎ 청주 청석고등학교 이재학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 170

✎ 거제 거제중학교 정진률

200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 197

✎ 대전 산성초등학교 차민경

새로운 만남으로의 여행 · 211

✎ 진주 문산초등학교 황인혜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226

✎ 국토해양부 정권일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서 떠난 여행 · 244

✎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박원규

휴머니스트 해상왕 장보고와의 만남 · 252

✎ 강릉 강릉고등학교 한권중



200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 265

✎ 청주 용암중학교 김봉식

장보고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 279

✎ 경주 양동초등학교 유영애

장보고 유적 답사 보고 · 290

✎ 서울 상계고등학교 이수일

인간 장보고를 만나다 · 300

✎ 광주 금호고등학교 천효정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일기 · 312

✎ 부산 부곡여자중학교 정혜숙

200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 323

✎ 서울 연남고등학교 안상욱

낮선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 장보고를 만나다 · 334

✎ 안산 경수중학교 안신애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348

✎ 서울 신도봉중학교 이은상



장보고의 바다, 우리에게도 미래인가? · 358

평택 한광중학교 김해규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 370

여수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 이상묵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 기행문 · 380

서울 창원초등학교 김재은

새로운 장보고의 탄생을 바라며 · 390

서울 관악중학교 진춘자

장보고의 숨결을 따라 · 403

경북 영덕 남정초등학교 최제일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찾아서 · 428

인천 중앙초등학교 김문경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445

부산 사남초등학교 이현주



##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인솔 교수님들

| 차수 | 일자            | 인솔 교수                                      | 메일                                                                    |
|----|---------------|--------------------------------------------|-----------------------------------------------------------------------|
| 1차 | 7. 23 ~ 7. 28 | 부산외국어대학교 권덕영<br>해군 충무공수련원 고경석<br>국민대학교 장창은 | dykwon@pufs.ac.kr<br>nakom@hitel.net<br>onionjang@hanmail.net         |
| 2차 | 7. 30 ~ 8. 04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겸<br>명지대학교 김덕원<br>국민대학교 장일규     | kimck@aks.ac.kr<br>saryun84@hanmail.net<br>cig85@hanmail.net          |
| 3차 | 8. 06 ~ 8. 11 | 서강대학교 허부문<br>숭실대학교 이유진<br>국민대학교 남무희        | seomseok@freechal.com<br>yilee002@hanmail.net<br>muheenam@hanmail.net |
| 4차 | 8. 13 ~ 8. 18 | 대구대학교 윤재운<br>동국대학교 김병곤<br>경북대학교 이영호        | hiswoon@hanmail.net<br>kbgon1@hanmail.net<br>lyh0025@hanmail.net      |





## 01 신통일기

인천 부마초등학교 김명남

### 1. 드디어 만났다

“아빠 뭐해?”

“응, 뭐 좀 찾을 게 있어서.”

딸은 힐끗 모니터를 쳐다보며, “또, 장보고야?”라고 묻는다.

밤에도 잘 놀아주던 아빠가 매일 컴퓨터에 앉아만 있으니 심심한지 딸 아이는 내 팔을 잡아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둘째 승래가 입술을 실룩이며 투덜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니터만 쳐다본다.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된 후 퇴근하면 집에서 새로운 일이 하나 생겼다.

먼저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보고 관련 자료들과 김문경, 윤재운, 김영술 교수님의 장보고에 대한 논문을 읽는 것을 시

작으로 나는 1200년 전의 장보고를 불러내어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 어눌하게 시작된 대화는 자료를 하나씩 모으며 답사일정표대로 검색하면서 장보고와 산동성에 대하여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말문이 트이자 자료는 쌓였고, 궁금증은 차츰 꼬덕임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공간이었다. 수업 중에 지도를 펴 놓고 설명하면 아이들이 그나마 재미있게 몰두했던 기억이 났다. 우리 역사 교육은 시간에만 치중하여 공간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한 배경인 공간을 쫓아 나의 지도 찾기가 시작되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우리는 주로 시간에만 몰두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는 따분하고 과거의 고리타분한 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먼저 산동성 지도와 중국 지도를 검색해 보고 마음에 드는 지도 몇 개를 구해 지도를 따라가며, 역사적 사건을 접목시키며 나름대로 장보고와 대화를 이어갔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사건이 일어난 흐름을 파악하니 한결 가깝게 장보고를 비롯한 중국 역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런 대화 덕분에였을까! 7월 30일 저녁,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중국 스다오(石島, 석도) 행 화동훼리 호가 파도를 밝기 시작하자 마치 쇄빙선이 얼음을 깨고 스르륵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우리 답사단을 실은 배가 공사 중인 인천대교를 저 멀리에 둔 지 오래되자 섬들이 하나씩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해는 바다를 주홍빛으로 물들였고, 갈매기 떼는 뱃길을 뒤따르며 몸을 펄럭였다. 갈매기들은 새우깡을 던지는 아저씨와 먹이를 던지는 승무원 아가씨를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었다. 갈매기 떼가 날아오르는 바다는 저녁노을에 점점 붉게 물들었

다. 하늘에 걸린 구름도 각양각색의 모양을 뽐내고 있는 순간, 가물거리며 서해 섬과 바다와 하늘은 해무에 잠긴다. 이 변화무쌍한 바닷길을 1200년 전 장보고와 그를 따르던 신라인들은 부푼 꿈을 가득 안은 채 건너갔으리라.

식당에서 선상 세미나가 열린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주최 측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관계자의 당부말씀과 답사여행이 어떻게 도와주실 교수님 소개가 끝나고, 한국한 중앙연구원 김창점 교수님의 <장보고와 그 정신의 현대적 의미>라는 강의가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배 안에서 하는 선상 강의였다. 장보고는 천 년을 내다본 미래인이었다는 설명과 더불어 신라 하대 정치상황과 우리나라 성씨의 유래, 옛날 중국으로 가는 바닷길의 종류, 드라마 해신의 오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보고의 성공 비결 등등을 설명해 주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답사팀들이 어떤 마음으로 답사를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준 강의였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캄캄한 바다를 슬쩍 건너다 보고 선실로 들어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엇그제 아빠 혼자만 중국 간다면 서 눈물을 펄펄 쏟던 둘째 승래가 떠올랐다. 엄마와 형과 잘 지내고 있지. 엄마 핸드폰으로 ‘아빠, 나 승래야 중국 잘 갔다 와. 메롱 ㅋㅋ’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면서 눈을 붙인다.

## 2. 새벽을 맞는 기쁨

흔들림이 미약하게나마 느껴지는 선상 침대에서 겨우 눈을 붙였는가 싶었는데 배는 어느덧 목적지인 스타오에 도착했는지 걸음을 멈췄다. 아침을 맞는 스타오 항을 보고 싶어 갑판에 올랐다. 눈에 비친 중국 스타오

항의 첫 느낌은 딱딱함 속에 꿈틀거림이었다. 솟으려고 하는데 뭔가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을까. 입국 수속을 받을 때까지 그런 무거움이 몸을 감쌌다.

수속을 마치고 답사 기간 중 우리가 타고 다닐 버스에 오르니 무거움은 차츰 사라졌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현지 가이드와 이번 답사 여행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명지대학교 김덕원 교수님의 소개를 시작으로 답사단들도 각자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말 한마디씩을 하며 자기소개를 했다.

드디어 첫 답사지 진시황 사당인 시황묘 도착.

흐린 날씨에 바닷바람까지 불어 옷자락이 펄럭였지만 답사하기에는 피약별보다 훨씬 좋은 날이었다. 도착한 시황묘는 꾸며놓은 모습이 딱 관광지 풍경이었다. 우리나라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지나게 되는 일주문과 같은 입구가 딱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기원전 219년, 진시황이 순례할 때 심복인 이사에게 명하여 쓰게 한 진동문(秦東門)이었다. 화려하게 세워놓은 진동문은 거대했고 인위적인 관광지라는 느낌을 풍겼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서 계단으로 오르니 세월의 때가 묻은, 정말로 옛 절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시황묘가 눈에 들어왔다.

일주사, 시황전, 천후궁, 등공사 등등 부속 건물이 팔려 있는 시황묘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진시황을 기념하는 사찰로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시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성산봉은 하양파라는 바다를 한눈에 아우르는 탁 트인 곳에 자리 잡아 답사객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셔주었다.

다시 버스로 잠깐 이동하니 이번 답사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둔 장소 중 하나인 성산두에 도착했다. 일명 ‘천진두(天盡頭)’라고도 하는데 예부터 천진두라 했는지 아니면 전임 총서기인 후야오방(胡耀邦)이 이곳에서

‘天無盡頭(천무진두, 하늘이 끝나는 곳)’라는 휘호를 남겨서 생긴 이름인지 물어볼 걸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 최동단 바닷가로 제일 먼저 해상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 중국의 희망봉으로도 잘 알려진 성산두. 강태공이 주 무왕을 도와 천하를 얻은 후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며 진시황이 두 번이나 순수했던 곳이며, 한 무제도 기원전 94년에 제사를 지낸 성산두. 사마천이 쓴 《史記》에는 ‘최거제동북우(最居齊東北隅)’라고 적힌 성산두. 그리고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 그래서 화려했던 백제를 역사의 뒷골목으로 사라지게 했던 시발점이 된 바로 그 성산두에 섰다.

두 팔 가득 뺏고 온 몸을 나무처럼 쭉 펴고 저 멀리 아득하기만 했던 신라 땅을 고대하며 뱃길로 바닷길을 뚫었던 그 신라인들이 보였다. 아니 웅대한 꿈을 안고 뱃길을 열었던 그 신라인이 여기 성산두에 왔다. 내가 바로 여기에 왔다.

진시황과 좌우로 이사, 서복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 바로 근처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세운 한중우호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비문에는 ‘성산두는 중국의 끝이나 꿈이 아니며 멀리 보이는 한국과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태양과 같은 곳’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1200년 전 해상무역을 통해 동아시아를 주름잡으며 해상왕국을 개척했던 장보고가 거기 수없이 있었다. 우리 모두 120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3시간 30분이 넘게 버스를 타고 봉래로 향했다. 이동 중에 우리 2호차 답사 안내 강의를 맡은 명지대학교 김덕원 교수님이 중국인들의 시간 개념은 2시간 이내면 잠깐 가는 것이고, 4시간 정도면 조금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지금 우리가 버스로 달리고 있는 시간은 중국인들에겐 단지 조금 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위로하듯이 말했

다. 지도에서 보면 중국은 닭 모양인데 산둥성은 닭 가슴살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닭 가슴살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인 허따꺼는 산둥성에는 논밭과 산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이 산이요, 밭이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옥수수 밭은 강릉 고향에서 부모님이 농사짓는 옥수수 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드넓었다. 가도 가도 옥수수 밭이 이어졌는데 밭이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창 밖으로 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산이 없다니, 저기 보이는 저 산은 중국인들에겐 언덕이나 둔덕 혹은 고갯마루쯤으로 보이는 건가 하는 의문이 일었다.

그렇게 드넓은 들판을 보면서 중국식 시간 개념으로 조금 가니 봉래각에 도착했다. 2007년 중국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 돈 16억 원을 넘게 들여 대대적인 보수, 수리로 재정비했다는 것을 중국에 가기 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갔는데 정말 잘 꾸며져 있었다.

매표소 입구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오성홍기를 꽂고 물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배들이었다. 입장표에는 인간선경 봉래각(人間仙境 蓬萊閣)이라고 쓰여 있었다. 봉래를 중심으로 좌우로 발해와 황해가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선경(仙境)으로 불릴만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맡은 김덕원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진다. 황학루, 악양루, 등왕각과 더불어 중국 4대 유명 누각으로 꼽힌다는 것과 몇 년 전에 이 봉래각 앞바다에 신기루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모 TV방송인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 나왔다는 것 등등을 흥미롭게 들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봉래라는 이름은 중국 전설에 동쪽 바다 한복판에 신선이 산다는 봉래·방장·영주의 삼신산(三神山)에서 나온 것으로 한 무제가 신선산을 보려고 이곳에 왔으나 보지 못하고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蓬萊)'라

고 명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봉래 앞바다에 신기루가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장표에 적힌 인간선경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중국 국보급 보호문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봉래는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북이 동남동녀 수천 명을 이끌고 동쪽바다로 불로초를 구하러 출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관광구 동쪽에 등주수성이 있는데 등주는 봉래의 옛 지명으로 732년 9월 발해 장군 장문휴가 수군으로 이곳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등주자사인 위준을 죽인 곳이 바로 이 등주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의 배경으로 선묘가 뛰어내려 죽은 후 용이 된 바닷가도 바로 이 등주이다.

아, 영주 부석사에 있는 선묘각의 그 당나라 처녀가 여기 봉래 바다에서 죽어 용이 되었구나. 다음에는 ‘선묘’의 영정이 걸린 선묘각에 한 번 찾아가봐야겠다.

송대(宋代)에 이곳에 전함이 머무를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고, 명나라 때는 바닷가에 성을 쌓아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말 그대로 물의 성인 수성(水城)으로 만들었다. 바다에서 성 안으로 배가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성의 구조를 보니 해안 군사 방어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요새지로 충분했다. 성곽에서 풍기는 인상과 성곽에 있는 포대를 보니 4학년 담임 때 현장학습을 갔던 강화도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안으로 더 들어가니 술에 취한 채 각자 범보를 갖고 만경창파를 가르며 바다를 건너 그 전설의 여덟 신선이 술에 취해 있는 상이 있었다. 그리고 소동파 사당에는 좌측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글씨가 있었다. 소동파가 술에 취해서 쓴 글씨라고 하는데 대가의 작품이라고 생각

되어서인지 대단해 보였다. 뒤쪽으로 가니 명나라 때 장군으로 왜구를 물리친 척계광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니 등주 고선박물관으로 들어섰다.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은 등주 항만 정리 작업 중에 출토된 원나라 시기 해군 전선(戰船)으로, 실제 5:1 비율로 복구한 배였다. 이것은 중국 근래 발견된 중대한 문화재 중 하나라고 한다. 들뜬 마음을 바다에 가라앉히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랐다.

이제 또 이동이다. 조금만 가면 된다. 3시간 걸리는 거리의 웨이팡(濰坊, 유방)으로 오늘밤 숙박하는 도시이다. 웨이팡은 인구 800만이 넘는 도시라고 하는데, 해마다 4월이면 ‘유방국제연축제’가 열리는 ‘연’의 고향이라고 한다. 밤에 도착해서 보니 거리의 가로등이 나비 모양의 연이었단다. 도시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가로등이다.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건물 사이로 드문드문 불 켜진 것과 대조적으로 거리는 붉은 나비들이 줄맞춰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춤추고 있었다. 참, 오늘밤 우리 홍래, 승래는 엄마와 올림픽 축구팀 호주와의 평가전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잘 보고 왔는지 궁금하다. 일기 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혹시 비 맞지는 않았는지. 답사를 떠난 지 이틀째인데 시간이 훌쩍 가 버린 느낌이다.

이곳 중국에서 이동 시간이 긴 탓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몸을 뒤척거린다. 수많은 나비가 어둠을 밝힌다. 오늘밤은 나도 나비가 되리라. 장자의 호접몽이 아닌, 바다를 꿈꾸는 나비가 되리라. 나비가 되어 바다를 건너 너희들에게로 가리라.



### 3. 그날이 오면

쯔보(淄博, 치박)로 향하는 버스 안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킨 강태공을 시조로 하는 제나라 수도 임치였던 곳 쯔보이다. 춘추전국시대 강성했던 제나라 역사박물관과 제경궁 순마갱을 보고 오후에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탓에 마치 상상의 산, 신선들의 산 쯔으로 여겼던 태산에 오른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덕원 교수님이 설명을 덧붙인다. 순마 288필이 나란히 두 줄로 누운 자세로 발견된 순마갱의 말은 전마(戰馬, 전쟁 시 사용하던 말)로 모두 수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덤 주인인 제경공과 태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봉선이란 태산의 산정에 올라 토단을 쌓고 천신인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봉(封)과 태산 줄기의 양보산(梁父山)으로 내려와 지신에게 제사지내는 선(禪)이 합쳐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왕들이 신에게 제사지낸 적이 있는데, 요즘 봉선의 맥락에서 북한산 진흥왕순수비를 진흥왕봉 선비라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드디어 오늘 첫 답사지인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도착했다. 박물관 건물 위로 제국 역사박물관(齊國歷史博物館)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다. 춘추시대 첫 패자가 된 제 환공과 그를 도운 관중의 동상이 나란히 있었다. 그 사이에 서서 사진 한 장 찰각! 그리고 손무와 손빈, 제위왕, 제나라 시조인 강태공의 동상도 있었다.

제나라 수도 임치의 도시 모습 모형, 풍요롭게 느껴진 제나라 유물들과 모형으로 빚은 생활모습, 돼지 오줌보로 축구하는 모습, 또 말이 아닌 소가 전쟁터에서 전차를 끄는 모형이 인상 깊었다. 진흙에서 싸우는 것이라 말보다는 소가 더 유리했다고 한다. 제나라는 강태공의 강씨에 의

해 세워졌지만 중간에 전 씨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강제(姜齊)와 전제(田齊) 역대 왕들의 계보를 적은 세계표가 있어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것도 사진 몇 장 찰칵!

이번엔 순마갱이다. 완전 시골 마을에 있었다. 입구는 박물관 분위기라기보다 식당 같았다. 유리관으로 보호된 순마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말뼉들이 두 줄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조명이 어두웠다. 인간의 잔혹성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을까! 말들을 보며 권력의 폭력성이 느껴졌다.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한 의식이었겠지만.

어제도 태산에는 비가 내렸다 한다. 오늘도 치박에서 태안으로 오는 동안 비가 내렸다. 그렇지만 태안에 도착할 즈음, 하늘은 언제 비를 뿌렸는가 싶게 맑은 하늘을 우리에게 펼쳐보였다. 교수님 말로는 태산은 1년 중 맑은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이 훨씬 많다고 한다. 2007년 중국 국가측회국에서 측정한 태산 높이가 1,532.7미터이니 산 아래 땅과는 다르게 변화무쌍한 날씨겠지.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당연히 인터넷에서 본 사진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아무 근심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나는 행운아였다.

점심을 먹고 태산에 가는 셔틀버스로 옮겨 탄 후 계곡을 따라 달렸다. 태산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내가 사진으로 보았던 입구가 아니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다. 아무래도 입구가 달라서 현지 가이드에게 인터넷으로 뽑아온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더니 사진의 위치는 태산 정문 쪽이고 우리가 올라온 이곳은 태산의 후문이란단다. 어쩐지 사진 속 모습은 찾을 길 없더라.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가는 게 웬지 아쉬웠다. 일행들이 모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산 안내도 앞에서 김창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

중국은 오행사상의 영향으로 산악신앙의 형태로 오악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태산은 그중 동악으로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의식을 거행했기에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특히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전국을 순행하면서 여기 태산에 올라 봉선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그 후 한 무제, 당 현종도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오악이 있었다면서 신라의 오악을 소개했다. 신라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했다고 한다.

신라 북한산 진흥왕순수비가 서울 북한산 꼭대기인 비봉에 있는데 신라 시대 어느 백성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비석을 보고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을 다짐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던진다. 그래서 요즘은 아마도 북한산 진흥왕순수비도 봉선의식의 하나였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6학년 담임을 일곱 번 하면서 반 아이들과 일곱 번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갈 때마다 포석정을 들렀는데 처음에는 입구 안내간판이 포석정이었다가 어느 해 갔더니 경주 포석정지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 포석정이라는 건물이 없으니 포석정지가 맞으리라. 문제는 포석정이 신라 왕들의 놀이터나 제사를 지내는 장소냐를 두고 논란인데 점점 제사 장소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경주 포석정지도 호국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것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견훤이 쳐들어오자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임금은 포석정으로 피신하고 거기서 호국제사를 지내던 중에 급습을 당했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든다.

태산 정상(옥황정)의 옥황묘 앞의 수많은 자물쇠는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표식이라고 한다.



태산 정상(옥황정)의 옥황묘 앞. 수많은 자물쇠는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표식이라고 한다.

강의를 다 듣고 태산 정상으로 향한다. 1987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복합문화유산, 즉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태산.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티끌 모아 태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의 주인공인 태산. 우리들 무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태산. 바로 그 태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찌 흥분되지 않겠는가.

태산에 왔다는 흥분감에 가슴에선 이미 글월 두 개가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공자의 유적지가 있는 곡부에 못 간 아쉬움으로 떠올려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논어 한 구절인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를 되뇌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다. 그러고 보니 내가 태산에 온 게 아니었다. 태산이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그 때 태산이 나를 찾아 온 것이었다. 태산은 정말 있었다.

또 하나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이 가슴 언저리를 줄곧 맴돌았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

이, 바로 그런 날이 오늘이리라.

태산에 오르니 이 더운 여름날 아이들과 종일 씨름하고 있을 아내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운 사람. 이 떨리는 감격을 나에게 선물해 준 사람. 나를 여기 태산으로 이끈 사람.

#### 4. 묻혀버린 왕국, 햇살 아래 서다

지난밤 태안에서 다시 치박으로 이동하여 숙소로 들어왔다. 늦은 밤이라 피곤함으로 호텔 이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에 보니 우리가 묵은 호텔 이름은 제도호텔로 중국식으로 제도대주점(齊都大酒店)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뜻은 제나라 도읍지 호텔이리라. 중국에서 주점은 호텔이나 큰 식당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낚시의 달인! 지략가의 달인 강태공. 그 강태공 사당으로 간다. 사당 앞에서 이번엔 김덕원 교수님의 전체 강의가 있었다. 강태공의 지략으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졌고, 주 무왕이 강태공을 제나라 제후로 임명하여 제나라 시조가 되었으며, 강태공에게서 나온 성씨가 100개가 넘는다는 설명과 우리나라도 강씨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 일부 문중에서 강태공을 시조로 떠받들고 이곳 강태공 사당에 비석까지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강태공이 묻힌 무덤은 주나라 관례로 강태공이 원래 섬겼던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무덤 주위에 묻었다고 전해지나 봉분이 없어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한다. 여기에는 강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묻은 의관총이 있어 그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지어 기린다고 한다.

사당으로 들어가니 흰 수염을 한 강태공이 우리를 반긴다. 뒤쪽으로

더 가니 경주에 있는 무덤 크기만 한 의관총 주변으로 여러 비문들이 있다. 한 바퀴를 도니 1988년에 세운 강태공의관총 표지석이 있었다. 나에겐 주위의 여러 비문들의 글씨보다 ‘姜太公衣冠塚’ 여섯 글자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 의미를 되살려 그 옆에 서서 사진기록을 남겼다.

이번엔 임치 중국고차박물관이다. 중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차마(車馬) 유적이라한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구리로 된 마차와 남북조시대 소가 끄는 우차(牛車)였다. 중국 역대 차량을 복원하고 진품을 집중시킨 박물관이었다.

다시 한 시간 정도 달려 청주박물관에 왔다. 산둥성 청주는 우리나라 충북 청주의 맑을 淸이 아닌 푸를 청의 靑州이다. 박물관 앞 계단에 모여 1호차 해설을 맡은 국민대학교 장일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 산둥성의 역사와 산둥성을 가로지르는 황하 유역의 문명,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과 당나라 때 청주 일원을 중심으로 이정기(李懷玉, 본명 이회옥) 일가가 4대 60년간 통치했던 역사적 의미를 실타래 풀듯 술술 풀어낸다.

설명을 들으니 오기 전 읽은 김문경 교수님의 논문이 떠올랐다. 그 논문에선 이정기 세력이 비록 ‘제(齊)’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당나라와 맞섰다. 그러나 이정기의 제나라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당나라에 대항하는 반당세력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설명은 이정기 일가가 세운 제나라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듯하다. 두 관점 사이에서 나는 판단이 쉽지 않다.

설명은 계속 이어진다. 당 현종 때 양귀비 오빠인 양국충과 이란계 돌궐족 후예인 안녹산 간의 권력투쟁으로 시발된 안녹산의 난이 발발하자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군사적 지방분권화가 강화된다. 이때 번진이던 이정기 일가가 산둥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 세력을

떨치게 되었고, 소금 생산 등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경제력까지 갖추게 되어 4대 60년간 독립적인 세력으로 나라 이름까지 제나라로 칭하면서 통치하게 된다.

이때 당나라 쉬저운(서주) 절도사 휘하 주력부대에 있던 장보고가 이정기 후손 이사도 세력을 물리치는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산둥성은 다시 당나라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후 장보고는 전공을 인정받아 무령군 소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다시 평화적인 시기가 찾아오고 장보고는 더 이상 군대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에 적산법화원을 설립하여 신라인을 비롯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까지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삼고 신라방, 신라소등으로 자치조직체를 체계화한다. 그러면서 장보고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인재를 뽑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체무역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박물관에는 3만여 점의 문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중 1천여 점이 국보급 문물에 속한다. 청주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문물들이 비교적 많기에 중국 고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실물자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강의를 마치고 드디어 관람이다. 겉보기는 평범한 박물관 같은데 들어가니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많았다. 우리나라 불상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량과 크기, 문물 종류별, 각 시대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 특히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활약상도 전시되어 있어 내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번 답사팀이 청주박물관으로 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혀버린 왕국 제(齊), 이정기가 죽자 그 아들 이납이 세운 나라, 제. 문혀버린 왕국이 이제 서서히 햇빛을 보고 있었다. 이정기 일가의 제나라가 당조에 이탈한 반당세력이든 새로운 정치체계를 형성한

왕조이든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부럽기까지 하다. 아쉬운 발걸음으로 차에 오른다.

점심을 하러 웨이팡으로 향한다. 중국 땅이 워낙 넓어 산둥성 하나가 한반도의 1.5배라고 한다. 그러니 다음 일정을 위해 길을 재촉한다. 점심을 마친 우리는 또다시 대장정의 길에 오른다. 중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도시. 웨이하이(威海, 위해). 산둥반도 북단에 위치하며 청 해군 북양함대의 군항이 있었던 도시이다.

1398년에 명나라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여 웨이하이웨이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1898년에 영국의 조계지로 되었다가 1930년 10월에 회수되어 웨이하이웨이 행정구로 설치되었다. 1945년에는 위해위시로 불렸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위해시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며칠이나 산둥성 고속도로를 달리고 여러 도시를 거쳤으나 사람도 자동차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여기 웨이하이 시내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북적인다. 차도 많아 신호에서도 대기한다. 차도 밀린다. 우리나라 변화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인구는 25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란다. 우리 답사 객들 얼굴에 화색이 돈다. 오랜만에 만나는 번잡함 그리고 북적거림.

아무래도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인지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몇몇 일행들과 호텔 옆 해안가에서 야경을 보았다. 그리고 같은 방 쓰는 선생님과 낯선, 그러나 눈에 익은 한산한 밤거리를 걸었다. 뻑뻑한 답사 일정에 도시의 거리를 산책하듯 걷기는 처음이다.

호텔로 돌아와 TV를 켜니 우리나라 방송이 나온다. 뭉치로 쏟아지는 폭우로 몇몇 지역은 물난리를 겪고 있는 화면이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 와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내 가슴에서 빗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느낀다.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적산법화원. 이번 답사 여행



의 꼭짓점이자 대미(大尾)인 적산법화원에 간다는 사실에 어린 아이가 소풍가기 전날 밤 마치 잠을 뒤척거리듯 들뜬 마음으로 밤을 건넌다.

## 5. 마침내 태양은 떠오르리라

몇 년 전 최인호 소설가가 장보고의 발자취를 쫓는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본 적이 있다. 답사하는 지난 3일 동안 버스로 이동할 때 바로 그 다큐멘터리를 주최 측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하여 보여주었다.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순간, ‘어, 저거 옛날에 내가 봤던 건데’ 하는 생각과 더불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TV를 보면서 중국에 장보고가 세운 사찰인 적산법화원이 나왔는데, 그때 적산법화원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TV 화면에서 우람하게 보여 지던 적산법화원은 나에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의 싹을 틔우게 했다. 장보고를 따라, 장보고의 유적을 따라, 장보고가 만든 길을 따라 세계 곳곳을 누비는 작가 최인호처럼 나도 한 번 누비고 싶었다. 장보고가 만든 길을 전부는 못 가지만 가장 중요한 길 중 하나인 적산법화원에 발을 딛는다. 오늘 드디어 꿈 하나를 이룬다.

중국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 식사.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이어서 그런지 뷔페식 식단은 우리 입맛에 맞았다. 모두들 반가움에 모처럼 포근한 아침 식사를 했다. 호텔과 면해 있는 바다를 보며 이번 답사의 대미를 장식할 유적지인 적산법화원이 있는 스다오로 향한다.

버스 안에서는 또다시 김덕원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진다. 마치 내가 대학생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적산법화원이 세워지고 난 후 당나라에 살던 고구려와 백제 유민 그리고 신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한 발짝

나아갔는지, 또 적산법화원이 세워지고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뱃길이 어떻게 발달되어 갔는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로 서로 존재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들의 귀를 깨운다.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듯 현지 가이드인 허따꺼는 차창 밖을 가리켰다. 가리키는 쪽을 보니 산마루에서 빛을 내뿜듯 앉아 있는 거대한 동상, 적산명신상이 보였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탄성과 탄성들!

입구에 도착하니 마침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스다 오치산여행경구(石島赤山旅行景區)’로 지정하여 중국 내 자국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의 관광특구 같은 곳으로 이 안에 적산법화원이 있는 것이다.

답사 기간 함께 했던 2차 답사단 90여 명 전원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먼저 장보고기념탑으로 오른다. 장보고기념탑은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두 꼭대기 부분을 서로 고리모양으로 묶어놓았다. 한·중 양국 간 우호를 다진다는 의미라고 한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백제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새로운 춘추전국시대인 오늘, 장보고와 같은 인물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다.

우리 답사단은 장보고기념탑 옆에 앉아 1호차 해설을 맡은 장일규 교수님 강의를 듣는다. 햇살은 우리들의 이마에서 등줄기를 따라 뜨겁게 구르고 있었지만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세우고 눈동자는 강의하는 교수님에게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또 하나의 장보고를 연상하게 했다.

장보고가 적산법화원을 세울 때 그 중심 사상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신라로 돌아가 완도에 청해진을 세운 기본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세계화, 다문화의 관점에서 우리들은 장보고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 등등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장보고 전기관(우리는 장보고 기념관이라 부르지만 중국은 장보고 전

기관이라고 부르나 보다)이라고 쓴  
입구로 들어가니 제일 먼저 눈  
에 띠는 것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  
하고 우뚝 서 있는 장보고 동상  
이었다. 비록 중국풍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용맹한 눈빛  
을 뿜는 자태는 위풍당당했다.  
높이 8미터, 무게 6톤의 동상  
에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장보  
고는 한민족의 영웅, 평화의



적산법화원에서 신라인들의 한가위날 모습을 그린  
그림(장보고 기념관)

사자일 뿐 아니라 해상무역왕으로서 영예로운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라  
고 새겨져 있었다.

건물의 배치 구조는 '口'자 구조로 전부 5개의 전시실이 있었는데 드  
라마 '해신' 포스터며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 시절을 나타낸 그림, 부조,  
초상화 등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는데, 한가위날 많은 신라인들이 적산법화원에 모여  
신라말로 노래하고 신라춤을 추며 고국의 명절을 그대로 이어가며 결속  
을 다지는 그림이었다.

내가 볼 때는 이 그림 하나가 1200년 전 적산법화원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 같아 보였다. 분명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신라인들의 마을인  
신라방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신라방에는 고구려나 백제 유민도 분명 함  
께 어우러져 살았을 것이었다. 모두들 고향을 잃거나 떠난 한민족들로  
서로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었을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장보고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까 버스에 탄성을 지르며 봤던 적산명신상으로 오른다. 기념관 뒤쪽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니 광장이 나오고 그곳 바로 위에 적산명신상이 우리를 굽어보고 있다. 거기서 한참을 적산명신상을 올라다 보았다. 저 적산명신은 누굴까? 혹시 장보고 아닐까? 일본에는 신라명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다는데, 저 명신도 적산을 지켜주는 장보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계단을 천천히 올라 적산명신상 앞에 섰다. 어마어마하다. 적산명신상 시선은 분명 황해를 보고 있다. 저 바다 건너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신라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원래 명신상을 세울 때 일본 승려 엔닌의 동상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앞바다가 뿌옇게 보였다. 앞에 펼쳐진 항구, 우리가 배에서 내렸던 항구, 또다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스다오 항이 쓸쓸히 보였다.

명신상 주위를 한 바퀴 돈다. 방금 본 장보고 기념탑, 장보고 기념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뒤로 적산법화원과 더 멀리 법화탑이 보인다. 그리고 즐비하게 늘어선 붉은 지붕의 집들. 잠시 생각에 젖는다. 저 집들이 신라방 마을을 이루었으리라.

다시 내려와 길을 튼다. 이번 답사의 결정판, 마치 배추 속에 있는 고갱이 같은 곳이다. 창립 초기에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었다 하여 유래된 적산법화원. 처음부터 적산법화원이라고 이름을 들었기에 나는 절 이름도 적산법화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절 입구에 판각된 이름은 그냥 한자로 ‘法華院’이라는 세 글자뿐이었다.

하긴 우리나라 절도 양양 낙산사, 안동 봉정사 식으로 앞에는 지명을 나타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을 들어서니 왼쪽에 ‘적산법화원지(赤山法華院址)’라고 붉게 음각된 큰 바위가 누워 있었다. 옛날 이곳 적산의 법화원 터에 현재 법화원을 다시 지었다는 안내였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관음전과 지장전이 있으며, 뒤로 삼불보

전이 있었고 좌측 마당 앞에 최근에 세운 청해진 대사 장보고공적비가 세워져 있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니 커다란 관음상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미륵상과 조각상에 둘러싸여 있는 관음상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관음상 바로 아래로 빙 둘러 분수대를 설치해놓았다. 관음상에 웬 분수대란 말인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곳을 사찰로 생각했다기보다 무슨 역사테마공원쯤으로 여기고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적산선원이라는 건물로 들어간다. 당나라로 유학 와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적산법화원에서 3년간 머문 일본 승려 엔닌을 기념하는 곳이었다. 한때 이 적산법화원이 엔닌이 세운 절이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장보고가 세운 절이라고 올바로 고치는 데 힘들었다고 한다.

당나라로 온 엔닌은 적산법화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일본에 가서 적산법화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선원이라는 절을 세웠으며 일본 불교 중종의 3세 좌주에까지 올랐고, 오늘날까지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적산선원 안에 그의 저서 《입당구법순례행기》와 영정이 있었다.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탑 모양으로 지어진 적산선원. 뒤쪽 산에 법화탑이라고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문이 잠겨 있다고 같이 간 어느 선생님이 알려줬다.

적산선원을 나오니 붉은 글씨의 비문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중일우호기념이라고 새겨진 표지석이었다. 내용은 이곳 적산법화원은 일본 승려 엔닌이 세웠다는 뜻 같았다. 오, 이런! 왜곡된 비석은 여전히 남아 있구나. 너무나 맥이 풀렸다. 언젠가는 저 비문이 사라지거나 올바르게 바뀔 날이 올 것임을 희망하면서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기에 버스가 있는 매표소 입구로 내려갔다.

적산법화원에 와서 한 바퀴 돌아보니 법화원은 단순한 절이 아니었다. 적산법화원은 분명 신라인들을 비롯한 한민족의 안방이고, 사랑방이었으며 장보고가 운영했던 해상무역 벤처기업의 당나라 지점이었으며, 나·당·왜 3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의 해상 항로 거점이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완도 청해진이 다른 섬들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이듯이 여기 적산법화원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드나드는 배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기에 좋은 위치였다.

## 6. 처음처럼

점심을 하러 가는 길. 방금 두 발로 딛었던 법화원에서 본 안타까움 두 가지가 여전히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적산법화원이 엔닌이 지은 절이라는 비문과 엔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적산명신상. 무언가 커다란 숙제를 안고 돌아가는 기분이다.

스다오 항에서 배에 올라 출발을 기다리는 몇 시간. 갑판에 올라 항구를 본다. 이렇게 장보고를 만나고 가는구나. 이렇게 장보고가 나에게 스며들었구나. 인천 연안부두에서 화동훼리 호를 타던 시간이 떠올려진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던 그 첫 마음은 고스란히 가슴 한구석에 머물러 있는데 시간은 벌써 흘러 일정이 끝났구나 하는 아쉬움이 감돈다.

중국에 오던 첫날, 스다오 항에서 내려 버스에 올라 첫 일정을 시작할 때 버스 안에 이번 답사를 도울 역사 전공 교수님이 탔다는 사실에 놀랐고 기뻐다. 아 제대로 왔구나. 그냥 단순히 훑어보는 답사가 아니구나. 정말로 발로 밟는 답사구나. 보다 알차게 여물도록 단단히 준비를 한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다. 역사를 전공한

교수님까지 참가하여 답사지마다 설명하고 안내하고 강의한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말 그대로 팔, 다리뿐 아니라 머리에까지 각인되는 온몸으로 부딪친 답사였다.

끝으로 ‘려(麗)’ 발음은 ‘리’ 요, ‘동(東)’은 두와 등의 반절 음인 ‘똥’이라고 한 연암 박지원의 말을 인용하여 나의 첫 해외 문화유적 답사인 중국 산둥성 일대를 살핀 여행기를 ‘산똥일기’라고 제목을 붙인다.

## 02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서 나를 찾자

대전 대신고등학교 한대호

8월 4일. 가슴이 뗌다. 인천 제1 국제여객터미널에 화동훼리 호가 닿을 내렸다. 5박 6일의 장보고 유적 답사 일정을 마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이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감정은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다.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 또한 한결 같으리라. 이 땅에 한발을 내릴 때 느끼는 감정. 사랑? 안도감? 무엇일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정!

일정을 같이했던 많은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들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대전 발 고속버스에 올랐다.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5박 6일의 일정을 눈을 감고 회상해 보았다. 처음에 이 행사에 초청을 받고, 이 5박 6일 동안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다. 나는 과연 이 답사 기간 동안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찾았는가?

“나를 찾자!”



## 첫째 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인천으로 출발했다. 너무 빨리 왔는지 인천 제1 여객터미널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들떠서 너무 일찍 도착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 터미널을 나와 점심을 먹고 미리 준비한 이번 답사 지역에 대한 여러 자료를 읽고 나니 얼굴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들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발견했다. ‘저 선생님들도 내 마음 같겠지!’

4시에 여객 터미널 앞 벤치에서 온누리 여행사로부터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듣고 드디어 5시 화동훼리 호에 승선을 시작했다. 어색 했지만 방 배정을 받고, 선생님들과 서로 인사를 하고 6시 30분 저녁 식사 후 선상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창겸 교수님께서 ‘장보고와 그 정신의 현대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장보고는 누구이며 그의 생애와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강의 하셨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장보고,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는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렵게나마 알게 되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통해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나를 찾자!’의 목표가 더욱 뚜렷이 각인되었다.

특히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장보고의 성공 비결을 통해서 더 목표가 간절해 졌다.

첫째, 장보고는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조선훈, 항해술을 발달시켰다. 나도 교사로서, 새로운 국가의 인재를 길러 내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개발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신용이다. 중국, 일본, 신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계기가 바

로 그의 신용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셋째, 경제, 지리를 잘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국제 무역을 잘 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좋은 배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보고의 성공의 비결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장보고의 중국 일본 한반도를 연결하는 세계주의, 개방주의 실현은 동북아 물류의 허브를 주창하는 우리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인간중심주의,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장보고의 꿈. 해적들에게 끌려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보고 그들을 구하고자 했던 장보고. 그는 당시 시대에 맞지 않는 이단아였고 반역자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시대에서 보면 그는 구원자요, 희망의 등불인 것이다. 또한 불교사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평등사상,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세계화정신.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내가 할 일이 '아!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욱더 내 마음속에 뚜렷이 자리 잡는 것이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확연해지는 것이 아닌가.

## 둘째 날

화동궈리 호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잠깐 눈을 부친 것 같은 데 벌써 기상이다. 아침 기상 후 선상에서 조식을 하고 중국 석도항에서 하선했다. 구름이 끼고 부연한 날씨, 생각보다는 더위는 덜했다. 버스에 올라 첫 번째 답사지인 성산두로 1시간 10분 정도 이동을 하였다. 중국에 있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줄 전파거(전봉술) 가이드, 손파거(손석구) 중국인 운전기사가 소개 되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국민대학교 장일규 교수님의 강의가 있으셨다. 교수님은 최치원을 전공하셨는데, 최치원이 살던 시대를 연구하시다 보니 장보고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화두를 던지셨다. 이번 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



중국 땅끝 성산두

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역시 내가 찾고자하는 '나를 찾자!'와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뒤이어 같이 동승한 선생님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차창 밖의 중국은 겉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많이 변하고 있었다. 4번째 중국에 오지만, 올 때마다 변화하는 중국을 보며 불현듯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 동북아의 같은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자가 아닌가.

성산두는 중국의 제일 동쪽 끝에 있다. 중국인에게는 이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란다. 해와 달이 처음 뜨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일주사가 있고, 중국 유일의 진시황의 사당, 광세창의 사당이 있다. 특히 이곳은 진시황이 전 중국을 통일하고 순행 길에 올라 이곳을 왔다 갔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우리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장보고도 이곳에 왔을 것이다. 수많은 신라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곳을 거쳐 중국으로 왔을 것이다.



등주수성에서 열강하시는 명지대 김택원 교수님

전따거가 재미있는 일화를 전해 주었다. 이곳 성산두에는 전 중국 총서기 호요방이 ‘천진두(天盡頭)’라는 휘호를 남겼는데, 이것은 ‘하늘의 끝’, ‘하늘이 끝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가 일 년 후 천진두라는 뜻처럼 회의 도중 사망을 하였다는 것이다. 진시황도 이곳에 다녀간 후 순행 길에 사망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천진두가 천무진두(天無盡頭)라고 바꾸어 쓰여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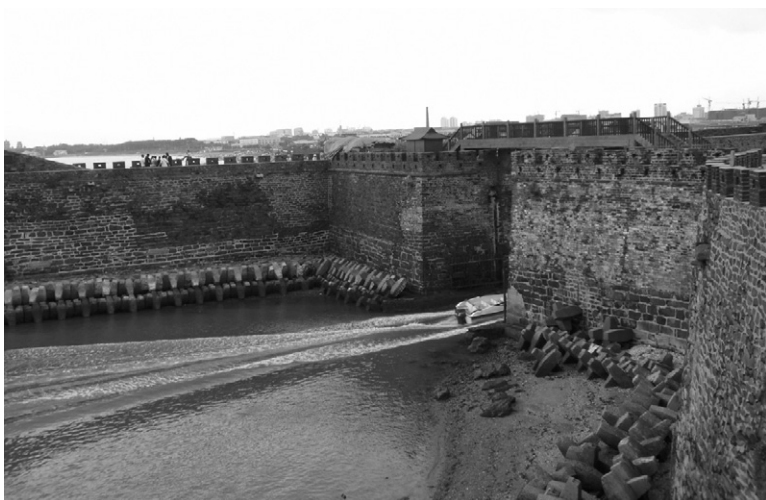
1시 18분, 점심을 마치고 연태시 봉래로 이동 봉래각과 등주수성, 고선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명나라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바다에 면한 북쪽 산에 봉화대를 세운 뒤 연태(煙臺)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곳 연태는 장보고의 중국내 최대 거점인 영성시 적산의 배후 지역으로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세우고 집단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봉래라는 이름은 전설 속에 신선들이 살았다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한나라 무제가 이곳에 와서 이 신선 산을 보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蓬萊)라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봉래 앞바다에 안개가 부영게 끼면 전설상의 봉래산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봉래각은 중국 4대 명루 중의 하나로 단애선경(丹崖仙境)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데 중국 부주석 동필무(董必武)가 1964년 시찰 때 남긴 글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천후궁, 용오궁, 여조전, 삼청전 등이 있다.

등주수성은 중국 산둥성 봉래시 봉래수성의 옛 명칭으로 현재는 등주수성으로 알려져 있다. 봉래성 북쪽 해안에 접해 있다. 등주항은 중국 동쪽 해안의 문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노철산 수로의 출발지이며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다.

특히 진(秦)나라 서불이 진시황의 명령에 따라 수천 명의 남녀를 데리



등주수성 복문

고 불로초를 찾아 출발했다는 항구가 바로 이 등주항이다. 또한 한 무제 때(기원전 109년) 누선장군 양복이 묘도군도(廟島群島)를 거쳐 고조선 을 공격할 때 출발한 항구 역시 바로 이곳 등주항이었다. 이후 수·당 시대(隋唐時代)를 거치면서 한국 및 일본의 사절단이 입항하는 항구인 동시에 고려를 침략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7세기 중엽부터 봉래에는 많은 수의 신라인이 살았다. 봉래에 신라방, 신라소 등이 설치되었던 것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송 초의 고려 시대에도 등주항은 고려와 일본사절단이 상륙하는 출입항이기도 했다. 북송 경력(北宋慶歷) 2년에는 거란의 해상침공을 막기 위해 이곳에 수군과 도어강(刀魚缸)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경제적 군사적 기능을 맡겼으며, 북송이 남쪽으로 이동한 후 등주항은 쇠퇴기를 맞았다.

이후 원대에는 군사적 기능을 담당했으며, 명대에는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항구로서 현재의 등주수성이 건립되었다. 등주항은 지리적 위치 때

문에 해군의 요새지로서 수성이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부분은 항만과 갑문, 부두, 방파제 등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부분은 육지시설인데 성벽, 적대, 성문, 병영, 지휘소, 등대 등이 있다.

고선박물관은 1984년 진흙 속에서 건진 고대 원조 때의 해군선박을 5분의 1의 비례로 원형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고, 석선 조각품으로 통나무배, 용선 차륜선, 모래선 등 4가지 선박들을 화강석으로 조각해 놓았다. 답사를 오기 전에 조사한 자료에서 고려의 선박 2척이 2005년 등주 해안에서 발굴 인양되었다는 자료를 보고 혹시 이 유물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 셋째 날

우리의 고대 선박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유방으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지내고 치박으로 한 시간을 이동하여 순마갱과 제나라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제경공 순마갱은 춘추 시기의 제나라 공후인 제경공의 묘로 이곳에는 말 600필이 매장되어 있어 중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로 말을 순장한 무덤이다. 매장된 순마는 전쟁 시 사용하던 말이라고 한다. 또한 순마갱 규모가 바로 제나라 통치계급의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단다. 당시의 말은 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들을 순장했다는 것은 당시에 제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로 강성했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는 순장된 105필의 순마를 전시하고 있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5개 진열실에 300여 건의 진귀한 문물과 대량의 문물자료, 모형, 사진, 도표 등 제나라의 탄생과 발전 흥망성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제나라 박물관을 보기 전에 장일규 교수님께서 “박물관에





오면 잘못하면 보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무엇인가 어떤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보라고 하신 것이다.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민중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자는 생각을 하였다.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민중들의 생활, 특히 당시 백성들의 생활을 한눈에 보여주는 수많은 조각상들, 전투신 등을 통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제나라 박물관에서 특이한 것을 보았는데 축구가 중국 제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제나라 남자가 당시 27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축구를 1만 명 이상이 하였다고 하니 대단할 따름이다.

박물관을 뒤로하고 태산으로 이동했다. 전파거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 하는데, 동악인 산둥성의 태산은 서악인 화산, 중악인 숭산, 남악인 형산, 북악인 향산과 더불어 오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신라에 오악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특히 태산은 중국인에게 있어서 남다르다고 한다. 오악 중에서도 으뜸인 오악지장, 오악독존이라 하여 천하의 명산으로 태산에 오르면 10년은 장수할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살아생전 한 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 한다. 또한 이곳은 역대 군주들의 봉선의식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의식의 장소로 진시황, 한의 무제, 당의 현종 등이 봉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태종 무열왕 아들인 김인문이 중국 황제의 수레를 따라 봉선의식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케이블카로 태산에 올라 산꼭대기 재물신에게 요즈음 어려운 경제에 처한 우리나라를 잘 보살펴 달라고 손을 모아 빌었다. 특이한 것은 케이블카를 탈 때 출입국 관리소처럼 하나하나 엑스레이 검사를 철저히 하는

데 이것은 테러 방지책이라 한다. 작년에 장가계에서도 그러던데, 너무 과잉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태산에서 잠시 쉬면서 나는 생각했다. 중국인은 자신의 장수를 위해서 오르지만 나는 ‘나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올랐다고. 그 옛날 우리의 장보고도 자신이 꿈꾸는 것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곳 태산을 오르지 않았을까? 아마 그도 분명히 이곳에 올라 자신의 야망을 키웠을 것이다.

## 넷째 날

태산을 뒤로하고 치박으로 이동하여 숙박을 하였다. 힘들었지만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여 조식을 하고 강태공 사당, 고차박물관, 청주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장 교수님과 전파거에 따르면 강태공은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강태공은 임치 해변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식당, 밀가루 장사 등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은나라 말기 주왕의 폭정에 후일을 도모하며 70세에 10년 동안 일자 낙시를 하였다고 한다. 부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때 도망갔다고 한다.

결국은 주나라 문왕의 삼고초려에 문왕을 도와 반란을 꺾이지만 문왕은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을 도와 5만 대 100만의 싸움인 목야 대전을 통해 은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때 강태공이 정의의 색깔로 붉은색을 써서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붉은색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한다.

강태공에 대한 또 하나의 고사가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백이·숙제 고사가 이때 생겨났다. 백이·숙제는 고죽국의 첫째, 둘째 왕자였

는데, 부왕이 막내에게 관심을 보이자 계승권을 버리고 주나라 수양산에 은거하였다. 강태공이 주나라를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태공을 막고 “은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신하의 나라가 주군의 나라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태공이 이를 듣지 않고 은나라를 침략하자 수양산에 은거하다가 주나라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고 하여 의리의 표상으로 백이·숙제를 꼽고 있다. 오늘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태 속에 경종을 울린다.

이곳은 강태공의 사당에는 강태공의 시신은 없고 의관충이라 하여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치박에 묻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흔적도 많이 보인다. 강씨들이 자신들의 시조를 강태공이라하여 이곳에 시조 제사를 지내고, 노씨도 강씨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하고 제사도 드렸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창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청주박물관에서 열강하시는 장일규 교수님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강씨와 노씨가 중국 성이라며, 수많은 한국의 성씨 시조들을 중국과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다. 요즈음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결해 볼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고차박물관은 1990년 5월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우연히 발굴되었다. 기원전 400년 춘추 중기의 것으로 1호갱과 2호갱으로 나뉘어 있다. 후기 춘추 시기에 순장한 수레와 말을 기도에 두고 건설한 것이다. 고차박물관은 고차전시관(古車陳列館)과 지하 춘추순거마전람홀(地下春秋殉車馬展廳)2개로 분류되어 있다.

박물관을 뒤로하고 청주박물관으로 이동을 하였다. 청주박물관은 1959년에 세워진 종합적인 박물관으로 원지는 청조 문화전 풍 씨 가족의 종묘를 개건한 것이다. 12,000평방미터의 건축면적에 12개의 전시청으로 나뉘어 있고, 3만여 건의 역사 문화재가 있는 중국 최고의 박물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관람 후, 청주박물관을 뒤로하고 유방으로 이동, 점심을 하고 마지막 일정의 종착지인 위해로 5시간에 걸쳐 이동하였다.

## 마지막 날

위해의 계명 홀리데이 호텔에서의 하룻밤. 일정을 같이 하면서 동거동락 했던 여러 선생님들과 하룻밤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호텔 밖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전통 찻집에서 차 한 잔과 맥주 한 잔씩을 마시며 아쉬움을 달랬다.



기념관의 당당한 장보고 동상

드디어 일정의 최고의 날이 밝았다. 적산법회원과 장보고 기념관을 견학하는 날이다. 셋째 날 임치로 가는 길에서 장일규 교수님이 강의하신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적산법회원을 보리라 다짐해 본다.

석도항은 산둥성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보고 시절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으로 불리었다. 적산포는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며 중원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다.

적산법회원에 도착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이번 장보고 답사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장보고는 이곳에 법회원을 세우고 무엇을 하였을까,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신라인들과 이곳에 사찰을 세우고 무엇을 기원하였을까 등등 수많은 의문이 든다. 김창겸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원대한 꿈을 이곳을 통해서 세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곳 적산법회원은 일본의 천태종 3대 좌주인 엔닌의 《입당구법순례 행기》에 장보고와 이 사찰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온다. 일본인들이 엔닌의 유적을 찾는 도중 이곳에 사찰을 세워 엔닌을 찬양하려고 하자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사)세계한민족연합 최민자(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회장 주도로 장보고 동상, 장보고 기념탑, 법화우의보정 등을 세워 일본 엔닌의 유적지로 만들려는 의도를 잠재웠다.

장보고 기념관은 2007년에 개관하였는데,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중국 영성시와 산둥적산수산그룹이 석도적산 풍경명승구 내에 건립하였고, (재)해상왕장보고기념 사업회에서 150여 점의 전시물을 기증하여 지원하였다.

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장보고의 일생을 기념관을 통해 보면서 그의 이상과 그가 개척하고자 했던 해상 실크로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장보고의 중국-일본-한반도를 연결하는 세계주의, 개방주의 실현,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인간중심주의,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장보고의 꿈 등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해적들에게 끌려가 수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보고 그들을 구하고자 했던 장보고, 그는 당시에 맞지 않는 이단아였고 반역자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시대에서 보면 그는 구원자요, 희망의 등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법회원을 둘러보면서 내가 그토록 이 답사에서 '나를 찾자!' 라고 외쳤던 그것이 이제 확연히 떠올랐다. 장보고가 불교사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평등사상,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세계화정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나 자신이 나를 찾는 것은 장보고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과 실천을 학교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이었다.

긴 여정을 이제 끝맺고자 한다. 5박 6일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장보고재단의 배용현 선생님, 온누리 박승진 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도와주신 동아일보 김상현 이사님, 그리고 국토해양부 직원들, 중국 현지 가이드 1호차 전따거(전봉술), 우리 2호차 안전을 지켜주신 손따거(손석구), 특히 우리들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높여 주시려고 열강을 펼치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겸 교수님, 국민대 장일규 교수님, 명지대 김덕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호기심과 경이로움 속에서 함께하신 2차 답사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아름답고도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찾고 교사로서 확신을 갖도록 이번 답사를 추진해 주신 (재)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03 미래 장보고의 부활을 꿈꾸며

안산 본원초등학교 정임순





## 1. 아!!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8월 6일)

몇 번의 중국여행으로 지방지계도 중국은 이제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갖었다. 그러던 차에 동료선생님의 자랑에 한번 신청해볼까 하는 맘으로 신청하였는데 7월 2일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명단에 내 이름이 나와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웠다. 그동안 자주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면 이번 답사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름과 우리나라 서남해안 바다를 지키던(단순하게도 교사인 나도 그렇게 생각했음) 장보고를 재단까지 만들어 연구하고 해신, 무역왕, 해상왕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에 기대가 되었다.

8월 6일 3차팀으로 고3 엄마라는 우려를 뒤로하고 인천 국제여행객센터 미널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화동훼리' 라는 큰 배를 타고 인천→석도로 향하였다.

318호를 배정받아 방에 도착하니 비슷한 연배의 선생님들이 계셨다. 부산에서 3명, 여수 1명, 대구 1명(답사 내내 나의 방 짝), 서울 1명, 나, 그리고 1명은 현지에서 합류하신다고 하여 7명은 처음엔 서로 서먹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가 서해의 일몰과 바다를 바라보며 이번 답사일정과 그동안의 교직생활,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 바다 한가운데 나타나는 커다랗고 긴 다리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 다리가 바로 인천 앞바다를 가로 질러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와 제2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 국제공항과 송도국제 도시를 잇는 인천대교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라고 한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현재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찬사를 보내며 천 년도 전에 서남해안 바다를 누비던 장보고는 어떤 인물일까 하는 기대



가 점점 커진다.

8시 30분, 식당에서 선상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재단법인 ‘해양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나오신 김성호 과장님의 답사에 대한 안내와 국토해양부 조운영 사무관, 동아일보 편집국 김상영 부국장님의 소개, 온누리 여행사 가이드 소개, 그리고 1호차 허부문 교수님, 2호차 이유진 교수님, 3호차 남무희 교수님의 소개도 이어졌다. 이렇게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근무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며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어진 허부문 교수님의 중국 산둥성과 장보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답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어 이번 답사가 다른 여행과는 다름을 일깨워주었다.

### 산둥성!!!

황하 하류를 중심으로 동쪽은 바다로써 한반도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으며, 서쪽은 내륙지방과 맞닿아 있어 반도와 내륙이 반반씩 자리 잡고 있고 산둥성은 반도부분, 태산산지, 서부

평원지대 셋으로 나뉘며 위도는 대한민국과 비슷하다고 한다. 밀과 옥수수가 주요 산물이라고 하시며 답사 중 차에서 줄면 넓은 옥수수 밭을 볼 수 없다는 말씀에 옥수수 밭의 크기가 궁금하였다. 우리와는 인연이 많은 곳으로 우리나라와 지리학적으로 제일 가까워 우리나라 화교가 대부분 산둥성 출신이라 하셨다. 한국인들이 먹는 중국 음식 가운데도 산둥 음식이 많다고 하니 이것도 지리학적 위치와 관련이 깊은 것 같다. 그동안 중국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다. 또 산둥성 면적이 남한의 대략 1.5배라니 우리나라 국토가 좀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 보았다.

### 장보고!!!

통일신라시대 말인 790년경 완도의 한 섬에서 태어났으며 활을 잘 쏘궁복, 궁파라고 불리었다. 골품제가 지배하던 당시 신라를 떠나 개방된 정책을 펼치는 당으로 건너가 당시 안녹산의 난으로 사회체제가 바뀌어 절도사(지방군벌) 할거시대에 하급 장교인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고 한다. 신라로 돌아와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고 1만 명의 사병으로 군대를 창설하고 한·중·일을 잇는 해상활동과 중국과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며 신라의 중앙정부의 정치 활동에도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한다. 신라 중앙정치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염장에 의해 암살되었고 청해진도 폐쇄당하고 김제로 주민을 강제 이주하였다고 하니 그의 죽음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장보고의 개척정신을 꿈을 펼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대략적인 허부분 교수님의 연수만으로도 벌써 반 이상을 이해한 듯하다. 이번 답사를 배를 타고 가는 이유도 컨테이너를 싣고 가면서 물류시

장으로서의 배의 역할과 일명 보파리 장사라고 하는 상인들을 현장에서 느낌으로 느껴보라고 하는 말씀에도 감동을 받았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우리가 배정받은 318호실에서 잠을 자며 인천과 석도를 오가며 장사를 하시다는 아주머니를 만나니 그들이 현대판 보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방을 빼앗은 것같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답사에 대한 설렘과 장보고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울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기분 좋은 잠에 빠졌다.

## 2. 석도에서-유방까지(8월 7일)

드디어 첫 일정이 시작되는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2008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검색이 더욱 강화되어 엑스레이를 통과하고도 가방을 두 번이나 여는 바람에 입국수속은 늦게 진행이 되었으며 짐들을 압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3호차의 현지 가이드는 최광철이라는 조선족으로 아주 꽃미남이라 선배 선생님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답사 내내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높여 주었으며 웃는 모습이 천진하기까지 하여 인상적이었다.

버스는 산둥성의 항구도시로 우리나라 인천에서 서쪽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영성의 진시황 사당과 성산두로 향했다. 진시황 사당은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찰하며 머물던 행궁인데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라고 한다. 중국천하를 통일하고 삼황오제를 능가하는 '황제'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한 유명한 진시황의 사당치고는 약간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어 권력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성산두는 성산 산맥의 제일 동쪽

끝으로 바다 밑으로는 요동반도와 장백산맥과도 연결된다고 한다. 또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으로 동으로 나아가다 이곳에서 멈추어 아쉬워한 곳이라고 하며, 소정방이 백제를 치기위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산두를 바라보니 우리나라 제일 동쪽 끝 아름다운 동해의 정동진이 갑자기 생각났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함께 탑승한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소개가 이어졌고 다들 멋있는 분들 인 것 같아 이번 답사가 더욱 행운이라고 느껴졌다. 화하회관에서 중국요리로 첫 식사를 하며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잊은 채 웃음꽃을 피웠다.

버스로 이동시 최광철 가이드는 우리가 갈 연태시와 봉래각은 명나라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바다에 면한 북쪽 산에 봉화대를 세운 뒤 연태라고 불렀으며 한 무제 때는 봉래, 당나라 때는 등주라 불렀으며 무역항과 군항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는 봉래각은 멀리서 바라본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몇 시간의 버스이동의 고단함을 싹 가시게 하였다.

매미소리를 들으며 이어진 이유진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은 이곳 등주는 발해만→압록→서해안→대동강→백제→당은포(경기도 남양면)의 가장 안전한 항로로 신라의 조공사, 일본의 견당사 등의 공식사절이 이곳을 지나 낙양, 장안으로 들어갔으며 당나라와의 사신 왕래, 유학생 왕래, 교역 등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 사신, 유학생, 상인들을 위해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등을 지어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재당 신라인과 장보고 및 한반도 출신들의 인물과 활동이 일본의 제 19차 견당사가 파견 될 때 엔닌이 함께 와서 쓴 일기 형식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셨다.

또 2005년 등주갯벌에서 평저선 형태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소나무로 꿰맞춘 13세기 말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선박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등주는 고대와 중세에 우리나라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아산 정상에 봉래각은 황하루, 악양루, 등왕각과 함께 중국 4대 명루로 불리고 있으며 봉래각에는 누각, 불상, 사원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봉래각을 둘러보고 명조 때부터 수리하여 해상방어체계를 형성한 등주 수성 쪽에서 선생님들과 멋진 경치를 남기기 위해 사진도 찍었다. 가까이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배를 타고 이곳을 항해했을 해신 장보고와 당나라에서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신라인들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내려오는 길에 들른 등주 고선박물관에서는 1984년 갯벌에서 발견된 원대 해군의 군선을 5분의 1 크기로 복원해 전시하고 있어 의미있게 관람하였다.

저녁을 먹고 유방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해상왕, 청해진 대사, 무역왕 장보고의 역사 스페셜 비디오를 보았다. 완도, 장도, 장좌리 해안일대, 죽청리의 장보고 유적지에 대한 가치와 그 시대 최고의 무역센터로써의 역할을 한 완도 청해진 그리고 당나라 · 신라 · 일본, 멀리는 이슬람 국가까지 잇는 무역왕 장보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오랜 전 우리 집 딸들에게 장보고를 보여주곤 완도 찾았을 때의 황량함 속에(아무런 흔적 없이 팻말만이) 장보고를 조금씩 그려 넣을 수 있었다.

### 3. 유방에서-태산까지(8월 8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방에서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이 있는 치박으로 이동하였다. 버스 안에서 산둥성의 다른 이름과 강태공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 그리고 제나라 제경공에 대해 들었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제나라 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이 있었으나 너무 더워 유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마궐로 가는 길은 드넓은 옥수수 밭이 펼쳐지고 있었다. 허부문 교수님이 졸지 말고 꼭 보라고 농담하셨던, 우리 키보다 큰 옥수수 밭을 지나 제나라 제경궁이 마차 150여 대, 말 600여 마리를 함께 순장했다는 순마궐에 도착하였다.

순마는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있었고, 둥근 마차 바퀴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허부문 교수님의 왕과 제후가 노예를 무덤의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다는 순장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귀영화를 사후세계까지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무섭게 느껴졌다.

오후에는 일산(태산), 일수(황하강), 일성인(공자) 3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태안을 찾았다. 그중에도 태안 시내에 있는 태산하면 양사언의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이 먼저 떠오른다. 태산령지대 주변에서 점심 후 소형 버스를 타고 태산으로 올랐다.

태산은 1978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며 진시황을 시작으로 역대 군주들이 봉선제를 지냈다고 하며 건륭황제는 10번을 등정하였다고 하니 명산임에 틀림이 없나 보다. 엑스레이 통과 후 6명씩 나누어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 정상으로 올랐다. 수많은 계단과 바위에 새겨진 붉은 글씨들은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중국인의 태산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남무희 교수님께서 꼭 보라고 하신 한 무제의 무자비와 옥황정의 '고등봉대'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서 멋진 사진을 찍었다. 내려오는 길은 안개로 인하여 태안 시내를 볼 수 없어 안타까웠으나 가까워진 선생님들(특히 3호차 B조)과의 산행은 즐거웠다.





#### 4. 치박에서-위해까지(8월 9일)

제도호텔을 출발하여 강태공 사당으로 이동하였다. 강태공은 위수에서 곧은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고 대를 이은 무왕을 도와 폭군에 시달리던 은을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무왕은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전국을 쪼개어 제후국을 만들고 그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제나라의 초대 왕으로 강태공을 책봉하였다고 한다.



강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을 의관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강씨의 시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설명을 듣고 관람하였다. 그리고 제천 고속도로 공사 중 발굴된 고차박물관은 현재 중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제일 정확하고 완전한 차마 유적과 문물이 일체화된 박물관이라고 한다.



지하의 춘추순마갱에는 전쟁 시 사용하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며 장식품의 화려함은 당대 전국의

으뜸으로 손꼽힌다고 하였다. 고차진 열실에는 후이차마갱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의 차량과 임치지구에서 출토된 고대차량의 복원차가 진열되어 있었다.

중국의 청(靑)주는 우리나라 청(淸)주와는 한자가 다르다. 옛날 구주 가운데 하나이며 이곳 청주는 수·당 시대에는 행정, 군사, 교통의 중심지였고 고구려·백제·신라가 장안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남무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그중 이 청주박물관이 중요한 이유는 765~777년에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반세기 동안 세력을 잡았던 중심지로 또 박물관 옆에는 용흥사라는 절터가 있는데 이곳에 신라의 구법승들이 머물던 신라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앤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을 거쳐 장안으로 또는 한반도로 나아갔을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아래 위층의 청주박물관의 유물들을 돌아보고 특히 남무희 교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전국옥인(나체의 옥인)을 살펴



보고 부화대주점에서 점심을 하였다.

오늘이 답사 기간 중 이동이 제일 많다고 하더니 오랜 시간 버스로 이동을 하였다. 이동하면서 본 최인호의 역사 다큐 비디오는 인상적이었다. 일본의 열력사에 있는 장보고 비문과 엔닌이 말한 적산의 신라 명신에 대한 최인호의 자료 추적은 감동 그 자체였다. 청해진에서 비금도-흑산도-영파를 잇는 항로를 개척하고 해양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아라비아까지 무역을 한 무역왕.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머니즘의 장보고는 드넓게 펼쳐지는 창 밖의 복숭아 밭과 함께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

## 5. 드디어 만남을 가지다(8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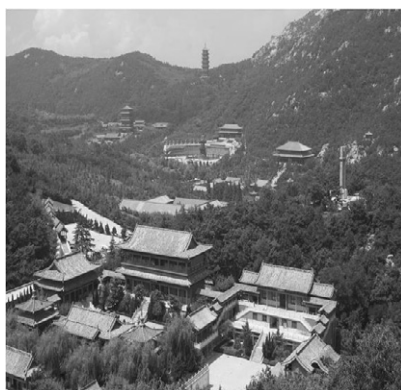
석도항은 산동성 오른쪽 제일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에는 문등현 청녕항 적산촌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또 적산포는 신라와 당·일본을 이어주는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인이 모여 살던 적산촌은 중국 내 장보고 관련 가장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산포는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박이 오고가던 곳이며 장보고의 무역선단을 이끌고 온 청해진 병마사 최훈이 이곳에서 양주로, 유산포로 왕래하였다고 하고 일본 승려 엔닌도 중국 순례를 마치고 이곳 적산포에서 귀국하였다고 한다. 먼 길을 돌아 드디어 이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적산법화원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와 일본 승려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찰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일본 천태종의 좌주인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장보고와 적산법화원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당시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의 교화처였으며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기원처, 교민사회의 결속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상주승이 24명이었고 연간 500섬의 알곡식을 수확하는 장전을 소유하였던 사실은 법화원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법화원 옆의 총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기념관은 출생 및 입당 배경 전투 활약상 장보고의 한·중 교류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앞마당에는 크기 8미터의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장보고 대사 영정을 기초로 제작한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부활한 장보고가 나를 바라보며 그곳에 서 있었다. 적산법화원의 북쪽 산에서 석도진을 바라보며 있는 장보고 기념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이며 최민자(성신여대 교수) 세계한민족 연합회장 주도로 1994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 기념탑, 동상을 보며 장보고는 나의 마음속에 이미 부활되어 만남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보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보를 가지기를 바라며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부활하여 만남을 가지기 바라며 아쉬운 발길을 옮겼다.

## 6. 석도에서-인천으로(8월 11일)

적산법화원을 뒤로하고 석도여관에서 중국에서의 마지막 점심을 하였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화동훼리에서 남무희 교수님의 불교사 강의를 들었다. 손동작이 인상적인 교수님의 강의는 여러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마다않고 해주셔서 감사했다. 특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호승님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한 구절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번 답사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였다. 나는 누구의 그들이 될까? 누구의 그들이었을까를 생각해 했다. 강의 후 선실에서 첫날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318호의 8명의 선생님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의미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들과 함께 바라본 일출은 장대하였다. 바다 밑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답사한 내용들도 학생들에게 알려주리라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별! 이별은 항상 슬프다. 같은 방을 사용하며 내내 배려해주신 대구댁(심현석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재단의 김성호 과장님, 이성열 가이드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빌며 아쉬운 이별을 하였다.

## 7. 답사를 마치며

그리스 해양 박물관에 가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만날 수 있다. 1200여 년 전 우리나라 바다에는 장보고가 있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 장보고를 만나고 돌아왔다. 장보고라는 이름 앞에 세계인, 해신, 해상왕, 무역왕, 개척자 등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마음속으로 불러본다.

하지만 장보고는 과거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과거를 바로 알고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21세기의 장보고를 기대해 본다. 헤르도투스의 “바다를 지배하는 자 대륙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아니어도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사를 제패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특성을 잘 살리고 교사인 우리가 제대로 배워 가르친다면 미래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제2, 제3의 장보고의 부활을 기다리고, 미래의 장보고를 만날 날을 다시 손꼽아 기다리며……

## 04 푸른 바다에 실린 해상왕 장보고의 꿈길을 따라

대구 고산초등학교 심현석

제1일(2008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 9시, 대구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고속버스를 시작으로 나의 답사 여정은 시작되었다. 오늘 처음 만나 같은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우리 네 사람은(문성초 장이화 선생님, 수성초 여경희 선생님, 영남고 심형엽 선생님) 초면이지만 5박 6일의 행운의 여행으로 조금은 긴장하고 기대감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오후 3시 조금 넘어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온누리 여행사에서 오신 이성렬 가이드로부터 명찰이랑 책자와 모자를 건네받았다. 평소 모자를 잘 쓰지 않아 어제 하나 샀는데 아깝게 짐만 됐다. 심형엽 선생님을 제외한 우리 세 사람은 3호차로 같이 배정을 받았다. 셋씩이나 같은 차로 배정받다니. 행운녀는 다른가 보다.

우리는 오기 힘든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안을 차근차근 둘러보기도 하며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느껴보기로 하였다. 지금은 작지만 웅장하고



활기에 넘칠 터미널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며 아래 위층을 오르내리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여객터미널 벽면에 붙은 중국관광 사진도 보며 여행이 주는 낯설음에서 오는 호기심과 기대감, 즐거움을 조금씩 느껴보았다. 중국으로 출항하는 전광판을 살피자 바닷길에 대한 궁금증은 더 해갔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배를 이용한 여행을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

교과서와 위인전으로 배운 바다의 왕 장보고,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찾아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고마웠다. 해상 질서를 주도한 장보고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 그 이상의 것을 배워오는 것이 이번 답사의 의미임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워 오리라 다짐을 하며 3층 대기실로 올라갔다.

17시가 넘어 출국 심사를 거쳐 드디어 화동훼리 호에 승선하였다. 318호실은 8인실이었다. 한 방을 같이 쓰게 된 우리 여덟 명은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선실에 짐을 풀고 선상으로 나와 드넓은 바다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였다. 바다 위에 건설 중인 인천대교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다시 한 번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 기뻐다. 18시 30분쯤 선상식당에서 추어탕으로 맛난 저녁 식사를 하였다.

20시 50분부터는 본 답사단의 책임자인 김성호 과장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있었다. 장보고기념사업회의 친절한 안내와 여행사의 주의사항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의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오신 조윤영 사무관을 비롯한 세 분의 인솔 교수님의 인사와 설명이 있었다. 해신을 통해 본 장보고의 일대기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다. 드라마 해신을 매우 흥미롭게 보아온 터라 이해하기가 쉬웠다.

교수님으로부터 답사지의 자연환경과 중국의 역사, 장보고의 일대기

와 신라의 역사 등 1시간의 강의와 답사 일정에 대한 안내는 도움이 되었다. 요즘 읽기 시작한 《초한지》가 설명을 듣는데 도움이 되었다. 끝까지 읽지 못하고 온 것이 후회가 되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바로 숙소로 가기가 아쉬워 갑판 위로 올라갔다. 처음 타보는 국제여객선에서 보는 밤의 바다 모습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낮에 보았던 푸른 바다는 사라지고 온통 어두움만이 가득했다. 이 망망대해를 1200년 전 갓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을 비롯한 일본과 멀리 아랍까지 위락퍼락 하신 해상왕 장보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잔잔한 바다 위를 느긋하게 순항 중이 여객선은 이른 아침부터 여정을 시작하신 여수 선생님과 부산 선생님께 요람이 되었는지 벌써 잠이 드셨다.

## 제2일(2008년 8월 7일 목요일)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한 시간이 늦어서인지 눈을 떴는데 아직 여섯 시밖에 안됐단다. 나보다 더 부지런하신 선생님은 언제 일어나셨는지 일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여 주신다. 어제 뒤탈다가 늦게 잠이 들어 일출을 놓쳤다. 일 년 내내 뜨는 해이지만 역시 일출은 언제 보아도 감격스럽다.

꽃단장을 하고 나와 6시 50분경에 아침 식사를 했다. 어제 저녁에 이어 선상 식사다. 어제 저녁보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영화 속 주인공 공처럼 창 밖의 바다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며 아침 식사를 했다. 아~, 매일 오늘날만 같았으면.

7시 47분, 답사단을 실은 화동훼리 호는 어느새 영성시 석도항에 정박

해 있었다. 인천에서 석도까지의 거리는 40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12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했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428.1킬로미터이다.

가까이 보이는 낮은 산, 사람들, 건물이 모두 낮설었지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음에 감사했다. 새롭게 펼쳐진 모습에 감탄하며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까닭에 중국 측 입국심사가 길어졌다. 그래도 여러 차례 이어 온 장보고 답사팀이라 그런지 몇몇 분들이 가지고 오신 멀치만 압수되고 모두 무사히 통과하였다.

9시 30분, 드디어 우리들을 기다리는 3호차 버스에 올랐다. 우리 차의 현지 가이드는 최광철 씨로 4년차라 하셨다. 조금은 좁은 듯,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곳에선 아주 좋은 버스란다.

목적지인 석도항은 산둥성 오른쪽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11시 시황묘에 도착했다. 광장과 엄청난 크기의 건축물 등 첫 대면부터 압도적이다. 우리 일행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진시황! 그가 누구인가? 먼 옛날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가 아닌가. 그는 천하를 통일하고 곳곳에 비석을 세우는 등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불노장생초를 구하려 서복을 두 번이나 동쪽으로 보낸 사람이다. 먼 옛날이었지만 참 좋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나 보다! 오래오래 누릴 삶의 욕심 때문에 불로초를 구하러 500명을 파견하였다는 성산두로 향하였다. 바닷바람은 시원하였지만 작열하는 태양 빛에 그 힘이 부족한가 보다. 무척이나 더웠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중국의 희망봉, 하늘과 바다의 일체가 이루어진다는 성산두! 진시황은 동쪽 순수 때 성산두에 2번 왔다갔다고 한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여기는 새벽에 닭이 울면

우리나라에서 들린다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곳이다. 1200년 전 장보고와 신라인들이 나처럼 이곳에서 머물렀었던 말인가! 멀리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다.

13시 30분, 점심을 위해 화하회관(華夏會館)에 들었다. 현지에서 처음으로 맞는 식탁은 풍성하였다. 산동성은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기후뿐만 아니라 맛도 우리와 매우 흡사하였다. 입맛에 딱 맞았다. 우리 조 10명은 도란도란 식사를 하였다.

13시 45분, 점심을 마치고 버스는 봉래(등주)로 향했다. 옛 등주항은 발해 및 한반도, 일본으로 가는 항로로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했을 당시 수군이 출발한 곳이며, 그 후 수 문제와 양제의 고구려 침입 시에도 수군이 출발한 곳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신라와 일본의 견당사가 등주를 거쳐 장안으로 갔다고 한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봉래에는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봉래각으로 이동하는 중 우리는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중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여유가 느껴지고 평화로워 보였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장에는 커다란 중국의 팔선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16시 10분, 봉래각 도착. 봉래각으로 연결해 주는 아치형의 돌다리 밑에는 바닷물이 흐르고 작은 배들이 여러 척이 떠 있었다. 매표소 앞에 도착하니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댄다. 봉래각의 입장권은 엽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북송 때 만든 봉래각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로 중국 4대 명루 중 하나라고 한다.

봉래각은 봉래각, 천후궁, 용오궁, 여조전, 삼천정 등으로 구성되었고 봉래각 내에는 누각, 불상, 사원 등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성벽을 따라 계단이 시작되고 대해원이 펼쳐지며, 동쪽으로는 수성이 있다. 우리는 나무들이 만든 그늘 아래서 이유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먼 옛날

이곳에 살았을 신라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등주수성은 1061년 북송 때 세워진 건물로 중국의 팔선, 동해용왕들을 모시고 있고 천후궁은 중국 북방에서 제일 큰 천후 사당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다. 2005년 등주수성 해안에서 14세기 후반 중국 해안에 침몰한 고려 선박 2척이 발굴, 인양되었다고 한다. 고선박물관에서 통나무배와 용선, 차륜선, 모래선 등을 보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18시, 해선부 팔선궁에서 저녁을 먹었다. 음식이 우리 입맛에 맞았고 차가 참 맛있었다. 그리고는 최인호 작가의 역사 탐사 스페셜 비디오를 시청하며 유방시로 이동하였다.

22시에 유방시에 도착하였다. 유방시의 가로등이 참 예뻐서 물어보니 연을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연을 참 좋아하나 보다. 우리는 숙소 부화대주점에서 중국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숙소는 4성급으로 쾌적하였다. 어제 선상에서의 불편한 잠자리가 생각났다. 이만하면 대만족이다.

### 제3일(2008년 8월 8일 금요일)

오늘은 여행 3일째로 중국 현지로는 2일째다. 아침부터 현지인 최광철 가이드로부터 오늘 있을 올림픽 개막식 소식을 들었다. 무척이나 좋은가 보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다. 아시아에서 이런 큰 대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7시 30분에 출발하여 치박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들렀다. 소뿔에 칼을 둘러 전쟁에서 이긴 모습을 꾸며 놓았다. 역사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 내부 진열실에는 진귀한 문화재와 그 외 제나

라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축구의 발원지가 제나라였던 것이었다.

10시쯤, 그 유명한 제경공 순마갱에 도착하여 허부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순(殉) 자는 따라죽을 순으로 순직, 순교, 순애, 순장에 쓰이는 말로, 왕과 제후가 노예(노비)를 무덤의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이르러 순장은 폐지되었다. 진시황릉병마용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구어서 만든 것이다. 만일 그가 순장을 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라.

순마갱의 주인공인 제경공은 공자(孔子)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과시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말을 무척 좋아했단다. 제경공 순마갱에 묻힌 말은 모두 600마리 정도의 전투용인 나이 어린 수말이란다. 1964년에 발굴하여 1972년에 발굴이 마무리된 까닭은 마오쩌둥에 의한 문화대혁명이 일어서 그랬다고 한다. 순마갱 옆에는 여러 채의 집들이 붙어 있었다. 먼지를 덮어 쓰고 있는 마을 풍경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다.

10시 25분, 순마갱을 출발하여 태산으로 이동하였다. 태산으로 이동하는 버스의 창 밖으로는 간혹 산이 보일 뿐 대부분 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대부분 옥수수 밭이란다. 옥수수와 밀을 번갈아 심으며 2년에 삼모작한다고 하였다. 이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벼농사를 짓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한다. 나는 지금도 중국에서 먹었던 빵이 제일 생각난다. 내 입에는 그만이었는데 언제 먹어보게 될런지……. 아직도 그 맛이 생각난다. 고량주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의 행진은 끝이 없었다. 눈이 없음을 신기해하며 계속 앞으로 향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국어 교과서에서나 읊었던 그 산이 태산이 이 산이란다. 태산의 웅장함에 잔뜩 기대되었다. 이 산은 신령스러워서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해

서 누구나 태산 등정을 염원했다고 한다. 지금도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의 산이라서 산악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시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다고 한다. 해발 약 1,545미터의 산이지만 옛날부터 천하제일의 산으로 칭송받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신앙의 산으로 추앙받아 왔기 때문에 옛 유적과 종묘 등이 있어 볼거리가 많고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단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태산에 오를 때 인공 계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투입된 사람의 수가 엄청 났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는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는 법이 없는데, 그 모습을 봤다는 이유로 태산에 오르기 위해 계단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고대 국가의 권력의 끔찍함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13시에 태산에 도착하였다. 드디어 태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싱거운 산으로 느낄 만큼 낮아 보였다. 태산령지대주점에서 점심을 하고 14시에 우리는 작은 버스로 갈아타고 태산의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구불구불 난 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곡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산바람은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우리나라의 계곡과 다른 점은 놀러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워낙 산을 좋아하는 터라 멋진 모습을 볼 때마다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소형버스로 10분쯤 이동한 후 가방 검사를 받고 6명씩 케이블카에 탔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을 향해 가는 길에 새롭게 펼쳐지는 태산의 경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케이블카에서 서둘러 내린 우리 일행은 제왕이 하늘의 뜻을 받는 의식

을 거행하였다는 곳을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관광을 온 사람들이 많았다. 가이드 말로 오늘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이라 노는 회사와 가게가 많단다. 여기 저기 보이는 명승고적과 절벽에 새겨진 비문의 글자 짜임과 모양에 감탄을 하며 정상에 다다랐다.

드디어 한 무제가 세웠다는 무자비도 보았다. 인생이 부질없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산에 오르는 동안 흘린 땀이 아깝지 않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탄성을 지르게 하였다. 역대 황제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곳에서 기념사진 한 장을 찍고 서둘러 내려왔다. 한발 한발 내딛는 계단마다 역대 군주들의 권력과 위상이 보이는 듯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만감이 교차했다.

17시에 식당에 도착하여 맛있게 저녁을 먹고 20분 후 버스를 출발하여, 3시간 소요 후 20시에 제도호텔에 도착하였다. 버스 안에서 기다려 방을 배정받은 후 룸메이트와 나는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겠다고 두 눈에 힘주고 봤다. 너무 피곤하였지만 점화식까지 보고 잤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 제4일(2008년 8월 9일 토요일)

7시 34분, 버스에 오르며 4일째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강태공 사당에 도착하였다. 강태공이 낚시를 즐겨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사실이었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중국 역사상에서 손꼽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제나라의 초대 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제나라를 안정시키고 시조가 되어 역사적·전설적 인물로 139세가



지 살았다고 한다. 강태공은 강씨의 시조로서 많은 성들로 펼쳐 나갔다고 한다. 안, 노, 고, 제갈, 문 등등 그 외에 희귀한 성은 거의 포함되는 것 같았다.

20분 버스로 이동하여 우리는 고차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고속도로 건설 중에 우연히 발굴된 유적이라 한다. 춘추순마갱의 마차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였으며 장식품 하나하나의 화려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춘추전국시대의 마차와 함께 순장된 말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나라 박물관에서 보았던 순장을 이곳에서도 보게 될 줄이야.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차량 제조 기술이 섬세하였고, 크기 또한 웅장하였으며 그 기술도 꽤나 발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10시에 청주박물관에 도착해서는 우리 차에 동승하신 남무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청주는 오래된 도시로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가 60년간이나 다스렸던 곳이며, 불교가 융성했던 곳이라고 한다. 박물관 옆의 용흥사 유적지에서는 7개의 조대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졌던 400여 점의 불교 조각상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청주 용흥사 내에 있는 신라원은 당나라 불교 성적을 순례하는 스님이나 구법승 여행자를 위한 법당이었다고 한다.

청주박물관은 199년에 세워졌는데, 종합적인 박물관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청주성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3만여 건의 역사문화재가 있는 전국 현급의 박물관 중 으뜸으로 온전한 유물이 많은 수준 높은 박물관이라고 한다.

11시 30분에 박물관을 출발하여 13시에 부화대주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음식들이 푸짐하고 한국식으로 요리되어 모두들 잘 먹었다. 점심 후 석도를 향해 6시간에 걸친 버스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스쳐가는 농촌의 모습들,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 대문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

아 여름의 한낮을 보내는 이들, 드문드문 보이는 아이들, 주렁주렁 달린 복숭아 봉지를 보며 우리나라와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삶의 방법과 삶의 질은 달라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겠지! 답사단의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 갔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되었다. 잠깐 들른 휴게소에서 맛있는 복숭아로 입의 심심함을 달래기도 하였다.

18시 20분, 식당에 도착하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MC몽의 서커스라는 곡이 흘러나왔다. 요즘 1박 2일로 인기 급상승 중인 몽이의 노래는 정말 반가웠다. 오늘은 동아일보사 측에서 한 톱 낸다고 한다. 식당은 뷔페식으로 모두들 우리나라 음식에 행복해하며 들떠 있었다. 우리가 즐겁게 식사하는 사이 텔레비전에서 유도 결승전이 시작했다. 최민호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낸 순간 우리는 감격하여 속으로 같이 울고 겹으로 마음껏 기뻐하였다. 박태환 선수의 결승 진출 소식 등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다.

20시에 계명힐리데이 호텔에 도착해서도 모두 올림픽 이야기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3호차의 식구들 몇 명은 피로도 풀 겸 마사지를 받았다. 같이 마사지 받던 4명의 에피소드는 오래 기억 될 것 같다.

#### 제5일(2008년 8월 10일 일요일)

8시에 버스에 올라 비디오를 시청하며 적산법화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9시 30분쯤 적산법화원에 도착했다. 법화원 부근의 마을 모습은 다른 곳들과 달랐다. 좀 더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자주 다녀가서 그런가? 법화원은 일본 사람들이 돈을 모아 새로 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낙성식에는 일본 사람들은 태풍이었던가 비

때문에 늦어서 참석을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석도에 미리 와서 기다리다가 참석하였다 하니 적산신은 신라의 후예를 잊지 않았나 보다.

길목부터 수려한 경관이 우리를 맞아 주었고 웅장하게 서 있는 건물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살아 숨 쉬는 적산법화원! 마치 고향이라도 온 것처럼 반가웠다. 그 옛날 신라인들도 이런 마음이었지 싶었다.

장보고 기념탑에서는 이유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적산법화원은 당대 신라인 장보고가 지은 절로 당시 산동에서 제일 규모가 큰 불교 사원으로 《법화경》을 읽었다 한다. 여기에 사는 적산신이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이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사이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땀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장보고 장군께도 전해졌을까?

뒤이은 남무희 교수님의 설명은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었다. 장보고 기념관에 들어서니 우뚝 선 장보고 동상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적산명신을 보고 주위에 있던 8명은 1인당 3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미니버스로 이동하여 적산법화원에 도착하였다. 금방 도착하여 아쉬웠다. 그 옛날 신라인들은 먼 타국 땅에 와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먼저 적산법화원을 향해 오르면서 장보고의 불교에 대한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사람들의 심오한 마음까지 어루만져줄 줄 아는 지도자다운 넓은 아량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적산법화원을 들어서면서 왼쪽을 보면 돌에 새겨진 ‘적산법화원’을 읽을 수 있다. 일본 스님 엔닌 대사 일행이 견당사로 입당하여 3년 가까이 법화원에서 신세를 졌으며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여행기에 법화원을 상세히 썼다 한다. 이 표석은 일본인의 것이라 하는데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싶어 씩씩해졌다.

해상왕국을 세운 우리의 위대한 조상으로서,  
개척자로서,  
선구자로서,  
군사전략가로서,  
시대의 영웅으로서,  
무역왕으로서,  
세계인으로서,  
해상경영자, ……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1200년을 이어온 도전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적산법화원을 나왔다. 이번 답사를 통해 1200년 동안 잊혀 지냈던 시대의 영웅 장보고를 만날 수 있어 든든하였다.

장보고의 기념탑을 바라보며 외쳐본다.

해신 장보고!  
무역왕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휴머니스트 장보고!  
일류 경영인 장보고!

12시 30분, 우리는 적산법화원을 끝으로 중국에서의 마지막 답사를 마쳤다. 13시에 점심을 먹고 잠깐 마트에 들러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15시에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답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해상왕 장보고가 꿈꾸었던 미래의 바닷길로 우리는 고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8시부터 9시

까지 1시간의 불교사 강의를 남무희 교수님께 들었다.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6일(2008년 8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인천항에 도착, 고국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며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이번 답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장보고기념사업회, 동아일보사, 해양수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사단의 인솔을 맡아 힘써 주셨던 분들,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가슴에 가득 담아 놓은 모든 것들을 누에서 실을 뽑아내듯 모두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상왕 장보고처럼 세계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보람된 답사이었기에 무더웠던 여름도 달아나 버렸습니다.

답사 일정을 정리하며 장보고 답사단으로 선발됨에 감사하고, 이런 뜻깊은 사업을 매년 마련해 주시는 장보고기념사업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 05 장보고의 海洋 大國이여!

대구 구남여자정보고등학교 김용만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동아일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여러 차례의 도전 끝에 선발된 것을 확인한 순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얼마나 고대하던 답사이었던가? 중국 현장 답사라는 기대감과 전국 교사들의 대표로 선정되어 효율적인 답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섰다. 답사를 떠나기 전 사전 조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며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으며, 장보고에 대한 지식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1일차(8/6) :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출발

중국 답사를 통하여 중국의 발전 모습과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 그리

고 장보고의 도전정신과 역사의식 등을 관찰하여 앞으로의 현장 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각오와 초등학생이 신나는 소풍을 가듯 들뜬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떠나며 KTX열차에 몸을 실었다.

오후 3시에 인천 제1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온누리 여행사로부터 참가 서류를 받았다. 전국에서 선발된 3차 답사단의 초·중·등 교사 80여 명과 계획과 진행을 맡은 관계자들과 함께 90여 명의 참가자들이 조를 구분하고 안내사항을 전달받고 나서 화동훼리 호에 승선하였다. 그 후에는 재단의 김성호 기획과장과 국토해양부 조인영 사무관, 서강대 허봉문 교수님으로부터 답사 중심 지역인 중국의 산둥반도에 관한 인문·자연 지리적 환경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요인은 바다를 연해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바다 경영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함은 물론 21세기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우뚝 서는 세계 대국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또한 해상 경영의 영웅인 해상왕 장보고와 같은 인물이 많이 등장하도록 교사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칠 줄 모르는 개척정신을 각인해 주어야 한다.”라는 선상 강의를 통하여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알찬 답사를 하리라 다짐하였다.

고요한 밤바다를 순풍에 돛단 듯 고요하게 중국을 향해 항해를 가로지르는 화동훼리 호 갑판에 올라 그 옛날 장보고 무역선도 이렇게 항해했으리라 짐작해 보며 객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세 명의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사용하는 객실이 이번 참가자 중 경로석으로 구성되었음을 알고는 ‘모범이 될 것을 약속하는 화이팅!’을 외치며 건강하고 즐거운 답사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 2일차(8/7) : 석도-영성-연태-봉래-유방

400킬로미터의 서해를 횡단하여 인천항과 마주한 중국 산둥반도의 영성시 석도항에 입항하여 수속을 완료했다. 화창한 날씨의 환영을 받으며 버스에 승차하고 현지 조선족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장보고 유적지 답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 榮成市 :



사진 1. 시황전과 천후궁

산둥성의 현급 행정 중심 도시이며 항구 도시로 첫 답사 코스는 진시황의 사당이였다. <사진 1>은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하였던 행궁인데, 후에 백성들에 의해 始皇殿으로 복구되어 현재는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으로 시황의 좌우에는 여복과 이사를 함께 봉사하고 있다. 사진의 우측 건물은 天后宮으로 여신인 娘娘을 천후로 봉사하는 곳으로 어로 활동 등에 무사 귀환과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다.



사진 2. 성산두 전경

천무진두 다음으로 도착(11시)한 곳이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는 <사진 2>, <사진 3>의 成山頭였다. 이곳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며 산둥반도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와도 역사적으로 많은 관련을 지닌 곳이다. 바로 진시황의 불로장생초를 구하기



위한 전설, 백제 공격을 위해 당의 소정방이 수군을 출발한 군사 요충지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이라는 의미의 ‘天盡頭’란 과거 이름에서 전 중국 총서기인 호요방에 의해 현재의 ‘天盡無頭’라는 휘호로 남게 되었다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었다.

12시에 성산두를 출발하여 威海시에 있는 貨夏會館에서 차별·조별 모임으로 9명씩 둥근 식탁에 앉아 중국 고유의 청도맥주를 들어 ‘신나는 답사를 위해 화이팅!’을 외치며 식사를 즐겼다. 중식을 마치고는 13시에 烟台市를 거쳐 蓬萊까지 가는 장거리 여행을 출발하였다.



사진 3. 천무진두

#### 烟台市 :

연태시는 지구급 행정 중심 도시로 발해 만에 연한 산둥반도의 양항이며 어항이다. 펼쳐지는 평야에는 키 작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의 주산지이며, 수산 도시로 발전하여 산둥반도의 제1의 경제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달리는 차창 가로 펼쳐지는 풍경은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를 실감하게 했다. 새롭게 건축된 아파트 건물과 붉은색 지붕으로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이 병존하고 있었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 바다 풀(해초)로 지붕을 엮은 가옥 등이 즐비하였다. 또한 도로는 거의 4차선 이상의 도로로 확 트여 모든 토지가 국유지로 사회 기반 시설을 먼저 한 후 주거 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기교(?)를 부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여 현재의 중국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모든 경작지는 정부로부터 싼 값으로 70년간 임대하여 경작되고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은 우리나라 경제와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도시는 영성시 적산의 배후 지역으로 그 옛날 장보고와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지역이었다.

### 蓬萊市 :

발해 만에 접해 있는 봉래는 당나라 시대에는 등주라 불리었던 곳으로, 발해 무왕 때 장문휴의 산둥반도를 공략하여 등주를 정복하였다는 곳이다. 봉래란 이름은 옛날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으로, 한 무제가 실제로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나 경치가 수

려한 이곳을 ‘봉래’라 명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곳이다. 3시간 이상을 달려 16시 20분경 봉래각에 도착하였다.



사진 4. 봉래각

〈사진 4〉의 봉래각은 봉래 단아산에 위치하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고 운해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신기한 경치와 거대한 규모는 ‘중국 4대 명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사진 5〉는 동해용왕이 거주하는 天后宮으로 天后란 남쪽 바다를 지키는 여신으로 바다를 향해 기우제를 지내거나 출항 시 안전항해를 기리는 곳이며, 〈사진 6〉은 신선들이 주연을 베풀며 노니는 곳을 보여주는 모형도로 불



사진 5. 천후궁

교뿐 아니라 도교 사상의 유행을 증명하고 있다.

〈사진 7〉은 당대의 거목 동파 소식을 모시는 사당으로, 안에는 영정과 동파의 詩가 각인되어 있었고, 〈사진 8〉은 등주항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 단아산의 해안을 따라 수성을 쌓은 등주수성으로, 明代부터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완벽한 해안방어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명대 유명한 장군 척계광은 이곳에서 척기군을 창설하여 왜군을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모래의 퇴적으로 항만으로 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었다.

등주항과 한반도 역사와의 관계를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한·중 항로인 노철산 항로의 출발항이다.
- 2) 한 무제의 고조선 정벌을 위한 수군 출발점이며 수·당과 고구려와의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대규모의 수군 발진항이다.
- 3) 이미 언급한 732년 발해 장문휴의 등주성 점령.
- 4) 고구려 유민으로 성장한 이정기 세력의 장악으로 대신라, 대발해의 교역 추진.



사진 6. 8선인



사진 7. 소공사



사진 8. 봉래각과 등주수성

5) 8, 9세기 장보고와 대당 신라인의 활동 중심지로 대당 신라의 조공사, 견당사, 구법승, 유학생 등의 장안으로 들어가는 경유지로서의 기록 등.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로만 추론하더라도 봉래는 7세기 후반 이래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등이 설치되어 많은 신라 상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활동하였던 곳임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보며, 그 후에도 고려인들이 대송 무역을 위해 거주하였던 곳이다.

〈사진 9〉는 등주성에 각인된 ‘海不揚波’란 글로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아편전쟁 이후 외적을 침입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나 청일전쟁 때 일본의 포대 공격이 ‘不’자에 명중한 후 중국이 패배하였다는 내용과 그 후 석회로 보완해 현재와 같이 하얗게 수리되었다 한다.

이어서 1990년 완공된 등주 고선박물관을 둘러 5분의 1로 축소 전시한 해군전선이라 하는 ‘봉래 원나라 전선’을 둘러보고, 2005년 등주수성 해안에서 고려 선박 중 최대 규모인 2척이 발굴되어 한·중 해양교류사 연구에 획기적 자료가 되고 있다는 설명과 특히 고려 선박들은 중국 선박과 달리 평평하고 접합못을 나무못으로 사용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려청자 편 등이 발견되어 우리나라 선박으로 판명되었다는 통나무 선박이 전시되어 가슴을 찡하게 울렸다.

봉래각 답사를 마친 후 봉래각대주점에서 석식을 한 후 우리는 18시 50분 휴식과 다음날의 답사 일정을 고려해 유방시까지도 한 번의 장시간 여행을 했다. 1호차에



사진 9. 해불양파

승차한 우리 일행은 중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며 아직은 중국 내에 경제적 변화가 전체적으로는 확산되지 못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주행을 거의 보지 못하고 주로 대형 트럭들의 주행만을 보며 우리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하루의 답사를 정리하며 우리는 최인호의 5부작 ‘해신 장보고’의 DVD를 시청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졌다. 얼마쯤 달렸을까? 갑자기 달리던 버스의 엔진 소리가 ‘끄르륵, 끄르륵’ 하며 차의 속도가 늦춰지고 현지 기사인 센슈프(金技師)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지만 엔진은 계속 ‘끄르륵’ 소음을 내며 속도가 나지 않는다.

비상 깜박이를 반짝이며 센슈프는 버스를 서행으로 주행하고 뒤를 따르던 2, 3호차는 행여나 하며 1호차 뒤를 따른다. 우리와의 기술적 차이와 정비 기술의 후진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中國石花인 국영주유소에 정차하여 임시 조치를 하고 예정 시간을 훨씬 초과한 22시 30분경 숙소인 유방시에 있는 富貨大酒店에 도착하여 룸을 배정받고 고된 몸을 풀었다.

### 3일차(8/8) : 유방-치박-태안-치박

濰坊市 :

산둥성 중동부에 있는 지구급 행정중심도시로 7000여 년 전의 신석기 유물과 夏·商대, 春秋戰國시대의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 역사의 도시이다. 또한 유명한 수공업 도시이며 골동품류의 전통공예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통 연 놀이 행사가 있으며 산둥성의 교통 요지일 뿐 아니라 농산물의 집산지이고 석탄도 생산되는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피하고 있다.

이 유방시를 일찍 출발하여 치박으로 향하였다. 치박으로 가는 길은 옥수수 밭과 포플러 가로수가 이어진 끝없는 평원의 연속이었다. 이곳은 옥수수와 밀을 1년 2모작으로 재배하는 어려운 농촌 생활의 실상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새벽 5시 30분에 올리는 모닝콜로 하루를 시작하여 새로 도착한 버스(어제 버스보다 신형이라 하는 데 실감할 수는 없었다)로 약 1시간을 달려 일행은 치박에 도착하였다.

#### 淄博市：

제나라 옛 황성 유적지인 산둥성 중부 지방에 위치한 지구급 행정중심 도시로, 산둥반도 연해 개방도시이며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이다. 치박시



사진 10. 제국 역사박물관

는 동주 때의 순마갱과 고차박물관, 자연 풍경구 등이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먼저 관람한 곳은 제국 역사박물관이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제나라 역사와 영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지도와 3족 토기, 제 환공을 중심으로 한 맹약도, 속이 텅 빈 벽돌 유물, 화폐인 명도전, 철기 유물과 갑옷 등 제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군사, 민속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사진 10~13).

관람 후 다시 양 옆으로 무한정 옥수수 밭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의 시골길과 같은 도로를 달려 齊景公 시대의 臨淄東周殉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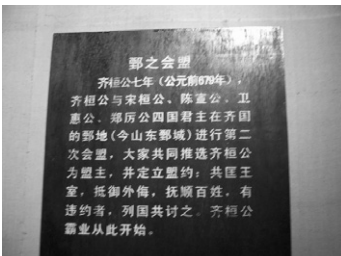


사진 11. 제환공의 맹약

坑 유적지에 도착하였다(사진 14~16).

춘추시대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 중 5호분 주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순마갱이 발견되었다.

5호분은 甲자형의 큰 묘로 현재 84미터를 발굴한 결과, 순마 228필을 머리를 바깥쪽으로 하고 두 줄로 나란히 병렬시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하였다. 이곳에 매장된 말은 총 600여 필로 추정되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순마갱으로, 모두 戰馬인 5, 6년 된 수말들이다. 이를 현재의 값어치로 환산해 본다면 대형급 자동차 에쿠우스 600대와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값이라 한다.

오전에 2곳을 답사한 우리는 태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제남시를 경유하여 천불산의 전통문화를 들려주는 태안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이었다.



사진 12. 속빈 벽돌



사진 13. 순마갱 사진



사진 14. 임치 순마갱



사진 16. 순마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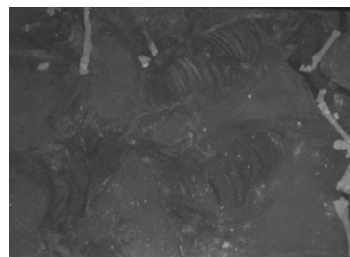


사진 15. 순마갱 부분도

濟南市：

산둥성의 성도로 달리는 중간에 잠시 황하 강을 볼 수 있었다. 중국 고대 최초의 농경문화인 황하 문명을 낳은 황하강, 그러나 지금은 수량이 엄청나게 줄어 그 거대함을 볼 수 없었다. 제남을 12시에 통과한 답사단은 1시간 정도를 더 달린 후 태안에 도착하였다.

泰安市：

산둥성 중부에 있는 도시로 태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6개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명대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태안은 華夏문명의 발상지이며, 50만 년 전부터 유인류가 생존하는 역사상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태안은 중국 최대의 여행 도시로 시내에 위치한 태산은 중국 5대 명산 중의 으뜸이다.



사진 17. 태산 원경



사진 18. 태산

泰山靈芝大酒店에서 아주 맛있는 중식과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태산으로 향했다. 桃花源索道 정류장에서 태산 등정을 위해 삭도에 몸을 싣고 12분간 운항하였으나, 옆으로 펼쳐지는 광경은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나 중국의 장가계, 원가계 등에 비할 수는 없어 약간의 失笑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입장료와 삭도 요금도 韓貨로 거금 45,000원으로 비싸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와 관련된 유적과 내용을 음미한다면 나름대로의 값어치는 물론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으며 태산에 오른다.



〈사진 17〉은 버스로 이동 중 멀리 보이는 태산 원경을 촬영한 것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산세를 마음속으로 그려본 것이며, 〈사진 18〉은 태산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임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중국의 5대 명산을 ‘五岳’이라 하는데, 태산은 ‘五岳之長’, ‘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진시황으로부터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리는 封禪 의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태산의 경치는 麗區, 幽區, 妙區, 奧區, 曠區의 다섯 지구로 나누어지며, 신령의 산, 신앙의 산으로도 추앙받아 왔기 때문에 태산에 한 번 오르면 10년은 더 장수할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발 1,545미터의 산정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6을 적용하여 만든 총 6,666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각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한다.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하듯 이곳저곳 흩어져 있을 명승고적과 많은 비문을 관찰하며 보기 드문 역사와 문화를 답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나, 다음의 기회를 기약하며 6인승의 삭도에서 내려 하늘의 거리라 하는 天街(사진 19, 20)에 올랐다.

화창한 날씨로 눈앞에 펼쳐지는 태산의 광경을 마음껏 호흡할 수 있어 가슴으로 만끽하고 좌우로 음각되어 있는 글귀 ‘山高望遠’, ‘靑壁丹堦’, ‘五嶽獨尊’ 등을 음미하며 7세기 봉선의식에 참가하였던 신라인



사진 19. 태산 天街



사진 20. 태산玉皇殿遠景

김인문을 그려보았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황제만이 허락을 받았다 하는 봉선의식은 진시황, 漢 무제, 唐 현종 등이 거행하였다. 특히 봉선 내용은 공개되지 않던 것이 관습이었다. 그러나 태평성대를 자랑하던 당 현종은 의식을 마친 후 의식 내용을 <사진 21> 天下大觀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암벽에 금빛으로 음각하여 전하게 해줌으로써 봉선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후에는 정치, 사회적 많은 변화를 가져와 현재까지 20여 명 이상의 황제들이 의식을 거행하였다 한다.

‘황제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비문의 여러 곳에 많은 공백을



사진 21. 唐 현종봉선기

두고 그 다음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라는 설명을 뒤로 하며 봉선을 거행한 최정상인 勅修玉皇頂(사진 22)에 경건하고 참배하는 마음으로 올랐다. 聖地라기보다는 부부의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기약한다는 수많은 열쇠의 풍습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미래를 기원하는 향이 피워지는 유명한 관광지의 한 곳으로 변해 있어 신성함을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진 22. 勅修玉皇頂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찾은 태산 방문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라는 양사언의 시조와 같이 약간의 실망과 문화유산에 대한 환경 보존과 관광 개발이라는 두 개의 저울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여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실감하며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마음 한 쪽이 무거워졌다.

다음 일정을 위해 17시 20분에 승차, 오전에 들렀던 치박으로 3시간의 장거리 여행을 출발하며 오늘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이라 개막식 축포를 시청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8로 정해진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숙소인 齊都大酒店에 도착하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중국의 대륙적 기질인 ‘만만디’의 느긋함과 장엄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자랑스럽고 늙름한 대한민국 건아들의 입장을 보기 위해(17번째 입장 사실도 모른 채) 피곤함도 느끼지 못한 채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 4일차(8/9) : 치박-청주-유방-위해

淄博市 :

강태공 기념관(사진 23) 견학으로 4일차 답사를 시작하였다. 중국 고대의 역사발전 과정과 周의 봉건제도와 齊나라 제후국의 관계 및 강태공의 활동 및 제나라의 초대 왕으로 책봉 이후의 통치체제 등을 사당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며 이해를 도와주신 교수님(사진 24) 덕분에 희미해져 가던 중국 고대사를 다시 되살리며 주 문왕, 주 무왕, 제 환공, 제 경공 등 시대상을 다시 한 번 음미하게 하였다.

강태공 의관충(사진 25)은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의 수도인 현재의 치박에 묻었는 던 거대한 무덤으로 그 앞쪽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으며, <사진 26>은 제 경공 이후 姜씨 성이 夬씨 성으로 바뀌며 평해 丘씨의 시조로 추앙받는 穆公 丘씨를 모신 丘祖殿이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낮은 구릉 위에 아담하게 지어진 현재 중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제일 정확하고 완전한 車馬유적과 전시 문물이 일체화



사진 23. 강태공 기념관



사진 24. 허부문 교수님 강의



사진 25. 강태공 의관충



사진 26. 구조전

된 임치 고차박물관으로(사진 27), 이 박물관은 ‘춘추차마 전시관’과 ‘중국 고차 진열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춘추전국시대 전차 중심의 전쟁을 생각하며 영화 ‘벤허’의 전차 경주를 연상케 하였다. 이곳에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차량들을 복원하여 역대 차량 진품을 집중시킨 곳으로 중국의 고차 연구는 물론 시대별 馬車의 변천 과정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사진 28>에서 볼 수 있듯 唐대 여인들의 활동상과 호화 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사진 29>의 ‘車卒馬魂’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된 ‘춘추순마갱’은 전쟁 때 사용하던 전차 10량과 32필의 말이 순장된 순마갱의 모습으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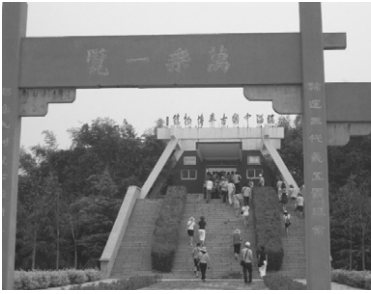


사진 27. 古車博物館



사진 28. 唐代 여인상

뜨거운 태양 빛을 받으며 전시관을 나와 뜨끈한 수돗물로 얼굴을 씻어 마음을 달래며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이끌며 변진을 장악했던 지역이며, 또한 엔닌이 그 옛날 유숙했다는 신라원이 있었을 지역인 청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사진 29. 馬車坑

#### 靑州市 :

청주는 오래된 도시로 수·당 시대에는 중국 동부의 행정과 군사적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곳은 일찍이 도독부를, 8세기에는 절도사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특히 엔닌이 청주를 방문했을 당시는 4대 55년간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된 반독립적, 反唐적 입장을 가지던 移民王國인 이정기 중심의 ‘平盧淄靑節度使’가 있던 지역이며, 또한 불교가 융성하였던 곳이다.

〈사진 30〉은 청주박물관의 전경이며, 〈사진 31〉과 같이 ㅁ자형으로 건축한 12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3만여 건의 역사 문화재가 전시된 전



사진 30. 청주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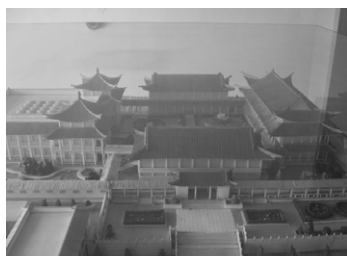


사진 31. 박물관 묘자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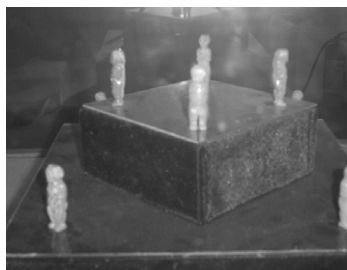


사진 32. 玉人



사진 33. 龍興寺址

국 현급 박물관 중에서도 으뜸가는 종합적인 박물관이다. 이를 입증하듯 저명한 화가 黃渭는 ‘世界第一流小大博物館’이라 성찬하였다.

박물관에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장원을 차지한 明代 趙秉忠의 殿試卷, 馬家子 東漢墓에서 출토된 宜子孫 玉璧, 童男童女를 모두 裸身으로 조각하여 영생을 추구하는 종교와 미신을 나타내는 <사진 32>의 4남 4여 8옥 玉人像 등 수많은 유물이 전시되었었다.

한편 박물관 남쪽 용흥사 유적지(사진 33)에서 불교 관련 유적인 불, 보살, 라한, 비천 등 수백 점이 발견되어 6세기 초부터 11세기 초(북송 대)까지 7개의 朝代를 거친 500여 년간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어, 불교문화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진 34>의 우스꽝스러운 미륵상을 보며 동아시아의 미륵 세계를 다시 한 번 음미하였다.

이는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청주 용흥사 내에 있는 신라원은 당나라 불교 행적을 순례하는 스님이나 구법승 여행자를 위한 법당이였다’라는 기록에서 보듯 한 반도와 일본 등에 전해진 선종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러나 排佛정

책에 의해 수많은 불교 유물들이 엄청난 파괴를 당한 채 발굴되어 정치적 탄압을 실행한 인간의 잔인성을 느끼며 잠시나마 소름이 끼쳤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8, 9세기에 있었을 법한 이정기 시대의 숭불 사업 흔적은 물론 장보고 시절의 신라원 흔적을 찾을 수 없으



사진 34. 彌勒像

리라 하는 아쉬움과 좀 더 강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이 지역을 조사하고 발굴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그대들에게 ‘역사는 결코 거짓으로 은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싶다.

4일차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본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긴 여정을 달려야 하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듯 중식을 위해 유방시로 1시간, 다시 4시간 반을 달려 위해시까지 2일째 지나왔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인생은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다 했던가?

버스가 교체되어 그동안 해신 5부작을 다 관람하지 못한 결과 1호차 답사단은 오후 내내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청 효과는 물론 답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호차에서 1호차로 바뀐 승차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신 송실대 이유진 교수님의 노력에 자극을 받아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식후에 밀려오는 피로감과 午寢의 유혹을 물리쳐 가며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답사를 함께 주최한 동아일보의 신나는 저녁 만찬을 그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하겠다. 이것 또한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威海市에 도착하여 모처럼 맛보는 삼겹살과 불고기의 만찬은 엄청난

원기를 불러일으키는 활력소가 되었으며 정이 듬뿍 든 1호차 B조 그룹 9명은 힘찬 화이팅을 구호로 모처럼 저녁 한때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가진 후 흥가분한 마음으로 계명홀리데이 호텔에 짐을 풀었다.

## 5일차(8/10) : 위해-석도-귀국길

威海市 :

煙臺 지구에 속한 현급시로 14세기 말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 군사적으로 강화된 衛가 들어섰다. 이 도시는 빼어난 천연 항이나 현재는 소규모 제조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작은 상업 항구이자 어항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금 이 시간도 대양을 누비고 있을 무역함대를 그려본다. 바다를 거점으로 먼 옛날 동아시아를 주름잡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장보고 중심의 대당 신라인들 혼을 생각하며 장보고를 만나기 위해 석도로 향했다.

石島 :

석도는 장보고 당시에는 문등현 赤山村으로, 산둥성 오른쪽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며 중원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인이 모여 살던 적산촌이 있었으며,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지이다.

石島赤山風景區 입구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지역이 관광 지구임을 실감케 하였다.

정문 앞에서 3차 답사단 전원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사진 35)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기 위해 장보고 기념탑(사진 36)에 올라 장보고의 출생에서부터 도당 입국 과정, 당에서 군인으로서의 활동과 무령군 소장 시절의 업적, 그리고 대당 신라인들을 결집하여 해상 활동을 주도해가는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에는 신라에 귀국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 대사로서 세계적인 해상 무역을 주름잡던 이야기며, 적산촌에 법화원을 설치하여 불교의 선종을 정신적 지주로서 삼아 신라인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사실들을 이유진, 남무희 교수님로부터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다.

동상으로 장보고를 만나고(사진 39) 장보고 기념관(사진 40)에서 장보고의 활동 과정과 해상 무역을 하며 무역품으로 거래된 문화재 유물들을 접하며 선박 모형도(사진 41)를 통해 바람과 돛을 이용한 해상 활동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실감하며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장보고 기념관은 해양 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중국 영성시와 산둥 적산그룹이 건립하였고 (재)해상왕장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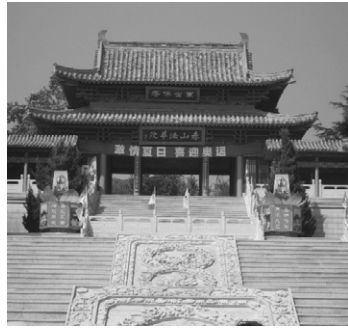


사진 35. 赤山法華院 정문



사진 36. 기념탑



사진 37. 이유진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 38. 남무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모습



사진 40. 장보고 기념관



사진 39. 동상



사진 41. 선박 모형도



사진 42. 적산명신

기념사업회에서 전시물을 지원하여 전시 중이었다.

장보고 기념관을 답사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 흐르는 땀을 흠치며 적산 정상에 우뚝 솟아 인간의 행복과 항해 안전을 위해 기원한다는 적산명신(사진 42)에 올랐다. 그동안 답사 일정을 모두가 안전하게 소화하고 있는 점과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을 되살리는데 힘을 달라는 기원을 했다. 적산 포구(사진 43)를 바라보며 저 해안과 마을에 장보고와 대당 신라인들의 거주지와 문화 유적이 담겨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였다. 적산은 불교와 도교 및 민간신앙이 병존하는 집합체임을 보여주듯 적산명신 건물 내부에는 적산대명신(사진 44)이 네 벽을 채우고 있었다.

적산명신 정상에서 장보고 기념관인 적산 기념관(사진 45)을 바라보니 다정하고 온후한 모습으로 적산에 안기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어 가슴이 뿌듯해져 왔다. 정해진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문화를 확인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여러 곳을 보며 그 내용의 기록과 사진 촬영을 하다 보니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어 빠른 걸음으로 장보고가 적산촌에 거주하고 있는 대당신라인들을 결속



사진 43. 적산 포구



사진 44. 적산대명신



사진 45. 적산 기념관 전경



사진 46. 적산법화원

하기 위해 연간 500섬의 알곡식을 수확하는 장전을 하사하여 건축되었다는 법화원으로 향했다. 그는 해상운송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며 많은 스님을 모셔와 《법화경》을 강독하여 赤山法華院(사진 46)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법화원은 장보고 휘하의 구당신라소의 압아인 장영과 임대사, 왕훈 등 3명에 의해 경영되었고, 상주승 20명, 니 2명, 노파 3명 등 29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5백 석 수확의 장전은 가까운 적산의 광대한 전지와 유산포 소촌 등의 땅이 그 일부였으리라 본다. 타국에서 이와 같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법화원의 크기와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법화원의 법회는 인근 신라인 사회의 규모를 추정하게 하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단편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장보고의 역사와 그의 위대한 개척 정신과 바다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대당 신라인들의 해상 활동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적산법화원의 답사를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 마무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200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되어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 5박 6일간의 답사는 중국의 변화 모습은 물론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교

사들과 돈독한 정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역사의 장이 되었다.

땅은 넓지만 척박하여 한정된 농작물만 재배하는 중국에 비해 조국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땅이요, 자본주의가 도입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생활보다 개방된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고구려 유민의 후예였던 이정기,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규합하여 반독립적이고 反唐적인 移民왕국을 통솔하여 이국 땅에서 ‘이정기-이남-이사고-이사도’로 이어지는 4대 55년간 산둥성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하며 당-신라-발해-일본을 연결하는 해상세력으로 성장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이러한 8세기 초반까지의 활동이 9세기 장보고 해상 세력의 또 다른 세력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장보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삼국사기》에는 弓福, 《삼국유사》엔 弓巴라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 중국 측 기록인 杜牧의 《樊川文集》에는 張保臯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고, 활동 무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 기록이 있어 서남해 일대의 해상을 장악하고 한·중·일 무역을 독점하여 바다의 황제로 위세를 떨쳤던 사실들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실에 대해 미국의 역사학자 라이샤워는 장보고를 ‘해상 제독’이라 칭하며 세계사에 빛나는 인물로 뽑기도 하여 역사 기술상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제국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을 주지하듯 장보고는 지금부터 1200여 년 전 이미 청해진을 설치하여 9세기 해양 활동과 영역확장의 근거지로 삼아 민족을 괴롭히는 소규모 상인 군단의 약탈과 해적을 소탕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였다. 당-신라-일본

을 있는 독자적 해상무역 항로를 개척하고 민족 중심의 해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일찍이 동서양을 주름잡는 해상교역의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었던 민족의 지도자였다.

특히 신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능력을 중심으로 사회 개혁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험난한 바다를 장악하여 대륙의 상권을 호령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했던 해신 장보고의 개척 정신을 요즈음 입시 위주로 나약해지고 있는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각인시켜야 동북아에서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개방주의자이며 개혁사상을 소유한 자유무역주의의 선구자였던 해상왕 장보고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국제무역의 성공에 대한 해법을 그 옛날에 이미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대하면서도 위대한 업적을 다시 평가하며 새롭게 부각시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일류 해양 국가를 건설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끝으로 알찬 답사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긴장된 마음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동아일보사, 그리고 국토해양부 관계자 여러분과 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강의를 통해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박 6일간 힘든 여정을 실질적인 답사 성과를 얻기 위해 흥겨운 시간으로 함께 지내며 건강한 모습으로 마무리한 3차 답사단과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심혈을 기울여 답사를 추진해 주신 온누리 여행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 06 해상왕 장보고 장군과 함께한 5박 6일

포항 문충초등학교 원정호

### 〈제1일 : 7월 30일〉 인천항을 출발하며

저 멀리 황해 바다를 건너 중국 산둥반도에서 만나게 된 해상왕 장보고 장군!

2008년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해상왕 장보고 장군과 함께한 지난 5박 6일은 내게는 처음 가보는 중국여행이라 그런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우리가 답사하는 중국 지역의 지명을 보아서는 모두 낯선 이름인지라 인터넷과 책자를 찾아서 미리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다.

인천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무려 6시간이나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행과 함께 8시에 출발하여 오후 3시 30분경에 인천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장보고 재단과 여행사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 안내를 받고 출국 수속을 한 뒤에 배에 올랐다. 우리 일행이 타고 가는 배이름이 ‘화동훼리 호’ 인

데 정말 큰 여객선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무려 18,000톤 급의 배라고 하였다.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처음인지라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많았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짐을 풀었다. 그리고는 먼저 갑판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탁 트인 시원한 바다가 가슴 속으로 들어 왔다. 바다가 노을에 물들어 온통 황금빛이었다. 노을이 붉게 지는 인천항을 뒤로하고, 어느새 배는 천천히 바다 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이 바다를 건너 중국 땅으로 들어갔고, 더 멀리서는 아라비아까지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와 마치 내가 그 시대 속 한 인물이 되어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천 이백년 전 통일신라 시대 남쪽의 작은 섬 마을에 검술과 활쏘기를 잘하는 ‘궁복’이라는 소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당나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을 때 갈매기들이 우리를 환송이라도 하려는 듯 배전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저녁 8시에 선상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시는 김창겸 교수님이 ‘장보고와 그 정신의 현대적 이해’라는 내용으로 주제 강의를 해주셨다. 우리에게 <해신> 드라마로 가까이 다가온 장보고는 최치원과 함께 신라가 낳은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바다를 개척한 해상왕으로, 민간 기업인이자 세계적인 무역왕으로, 청해진 대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국제적인 명사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그가 펼친 세계주의 사상과 인간 중심 사상, 평등사상을 실현한 불교정신, 도전과 개척, 모험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꿈꾸며 나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델 인물이라고 하셨다.

세미나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와 누웠으나 피곤한 것 같은데 잠은 오지



않았다. 갑판으로 나와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주위는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원한 바람을 안고 배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 〈제2일 : 7월 31일〉 석도항에 도착하여

아침에 눈을 뜨니 아직 배는 달리고 있었다. 간밤에 배가 제법 흔들리긴 했지만 그런대로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 아침은 선상식으로 하고 대기하니 드디어 배가 중국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크고 작은 수많은 배들이 항구에 떠 있었고, 모두 중국 오성홍기를 달고 있는 것을 보니 약간 긴장감이 일어났다.

오전 현지 시각으로 8시 30분쯤에 입국 수속을 시작하여 10시경에 버스에 올랐다. 우리는 3호차에 배정되었는데, 우리를 안내해 줄 중국 현지 가이드는 연변에 있는 우리 교포인 김국선 가이드(김파커)였다. 또, 우리와 동행하며 여러 가지 강의를 해 줄 교수님은 어제 선상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해주신 김창겸 교수님이셨다.

중국 땅에서 제일 먼저 가 본 것은 영성에 있는 성산두였다. 성산두는 산둥반도에서 보면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다. 이곳은 중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며, 맑은 날에는 이곳의 닭 울음소리가 멀리 한국까지 들린다고도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했다.

이곳에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 있다. 진시황 사당에 도착하여 가이드의 안내를 들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쪽으로 오다가 이곳 성산두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진시황의 사당 앞에서 북적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갓 미약한 존재임  
에 허탈해 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연의 질서에 반항하며 대들었  
던 진시황의 그 무모한 용기에 감  
탄하고 있을까?

이곳에서 최 선생님과 서로 사  
진을 찍어 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바닷가 절벽 아래 펼쳐지는 경  
치도 장관이지만 진시황과 서복, 이사 두 신하와 함께 서 있는 진시황 동  
상도 웅장하게 제작하여 설치한 것을 보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위인들의 동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곳곳  
에 위인들의 동상을 세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해본다.

성산두를 견학하고 위해로 이동하여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봉래로 이동하였다. 산둥반도에 펼쳐지는 중국의 농촌  
풍경을 보았다. 산둥반도에는 강수량이 부족하여 논농사는 별루 없고 밭  
농사가 중심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지붕으로 이어진 집들과 옥수  
수, 땅콩 밭의 긴 행렬을 보면서 이 작물이 이곳의 주요 생산품인 것을  
알았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버드나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너머에

는 어김없이 옥수수, 땅콩 밭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요즘 중국에는 폐쇄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정책 영향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군대도 모병제이고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며 서서히 사회 전반에 자유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초·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부터는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하면 갈 수 있다고 한다.

오후 4시 30분쯤에 봉래에 도착하였다. 봉래에서는 먼저 봉래각과 등주수성, 고선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동해용왕이 거주하는 궁전과 천후궁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북적되는 좁은 통로에서 최 선생님과 재빠르게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곳 주변 지역에서는 선박 관련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등주수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고선박물관을 견학하였다. 고선박물관에 길게 누워 있는 원나라 고선박 잔해를 보며 수천 년 전 온몸을 드러내놓고 있는 미라를 보는 듯했다. 이곳이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사, 정치, 교통의 중심지임을 알았다. 고선박물관 견학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유방으로 이동하여 호텔에 짐을 풀었다.

### 〈제3일 : 8월 1일〉 치박, 태안지방을 돌아보며

06시 30분에 기상하여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치박으로 이동하여 순마개를 찾았다. 순마개는 옥수수 밭을 따라 한참 들어가다 있었는데 현재 84미터만 발굴한 결과 모두 228필의 말을 두 줄로 나란히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마개의 전후 길이를 계산해 보면 모두

600여 필의 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대규모의 순마갱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다. 수천 년 전에 산채로 묻힌 수말들의 뼈가 화석으로 굳어진 모습은 섬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상한 호기심도 일어났다.

순마갱을 나와 인근에 있는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찾았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이곳 중국 산둥반도 치박 땅도 예외는 아니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들어섰다. 모두 5개 진열실에서 각종 진귀한 유물과 자료, 모형, 사진 등을 진열해 두고 있었다. 고대 제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축구를 시작한 곳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최근 세계축구연맹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박물관 안에는 축구 비슷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해 놓았다. 제나라 역사박물관 주변에는 시장이 서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재래시장 모습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물건을 거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시장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일정에 쫓겨 버스에 올랐다.

치박에서 3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하여 태안에 도착하였다. 태안에서 점심을 들고 기다리던 태산으로 이동하였다. 태산은 양사언의 시조와 절약하는 생활 속담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친숙하여서 그런지 몰라도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태산의 높이는 1,545미터 정도라고 하니 그리 높은 산은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은 태산을 처음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서는 미니버스로 이동하다가 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서 마지막 정상 부근에서 30분 정도만 걸어올라 간다고 하니 그 신비감은 사라지고 작은 언덕 정도 산책하는 기분밖에는 낼 수 없었다. 며칠 안 있으면 중국에서 2008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곳 태산에도 검문검색이 강화되어 관광객들의 소지품과 가방까지 검사를 하고나서 태산을 등정할 수 있었다.



태산은 한국에서 보던 산과는 다르게 올라가는 곳곳에 절과 건물을 지어 놓아서 산이라는 느낌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한 절을 찾아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중국의 진시황을 비롯한 역대 군주들

이 등극하면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정상에 있는 사당 앞에는 거대한 향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연기가 한국에서 보는 향의 연기가 아니라 거의 공해 수준이었다.



향을 피우는 제단 둘레에는 중국의 자물쇠는 모두 가져와서 묶어 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수많은 자물쇠를 둥글게 걸어 두고 있었다. 각국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무병장수와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은 비슷하리라고 본다. 태산을 내려와서 치박으로 이동하여 치박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였다.

## 〈제4일 : 8월 2일〉 치박, 청주에서

오늘은 중국을 방문한지 4일째 되는 날이다. 아침을 호텔식으로 먹고 강태공 사당을 찾았다. 강태공은 중국 역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곳 산둥성 출신이다. 우리에게는 낯시를 하는 마음씨 좋은 노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나라 무왕을 도와 나라를 세운 후 지금의 산둥성 일대를 다스리는 제나라 초대 왕으로 책봉된 인물이다.

강태공 사당 앞에서 우리나라 성씨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에 대한 강한 집념과 미화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성씨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강태공 사당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고차박물관이 있었다. 중국고차박물관은 중국 역대의 차량의 진품을 집중시킨 곳으로 규모가 크고 차량 제조 기술의 지위를 말해 주고 있다. 이곳 전시실에서도 순마갱에서 보던 것과 같이 말이 순장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말과 함께 마차도 같이 순장된 것이 순마갱과는 달랐다.

고차박물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달려서 청주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청주박물관은 약 3만여 건의 역사문화재가 있는데 중국 현금 박물관 중에서도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박물관은 우리에게 이정기라는 인물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 일가가 반세기 동안이나 이 일대를 지배하면서 불교를 번창시키고 활동을 하다가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가 장보고 장군에게 패하고 만다.

이정기 일가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장보고 장군은 무령군 소장에서 물러나 조국 신라로 귀국하게 된다. 조국의 혈벗은 백성들을 위해 무역 중



계상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가 혹 이정기 일가의 몰락을 보고서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청주에서 유방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서 4시간 30분이나 이동하여 위해시로 들어갔다.



## 〈제5일 : 8월 3일〉 위해, 석도에서

오늘은 날씨가 무척 맑았다. 지금까지는 흐리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간간히 햇빛이 비치기도 하는 날씨였는데 아침부터 밝은 해살이 뜨겁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오늘의 일정은 석도로 이동하여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출국 수속을 밟아 중국을 떠나는 날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최 선생님과 함께 호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석도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이동한다고 한다.

석도항은 산둥성 제일 오른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자 출발점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인이 모여 살던 적산촌이 있었으며,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지가 있는 곳이

라고 하였다.

드디어 기다리던 적산법화원에 도착하였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의 승려로서 당나라에 가는 사람은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먼저 절 입구에서 단체 기념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고 바로 장보고 기념탑으로 이동하여 장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교수님은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사회상과 불교에 대하여 자세하고 명쾌한 해설로 강의를 해주셨다. 장보고 대사가 세운 이 법화원은 당시 중국에 살던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였으며, 각기 흩어져 살던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고 하셨다.

기념탑 아래서 조별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장보고 기념관으로 이동하였다. 기념관은 중국 영성시와 산둥적산수산그룹이 석도 적산에



건립하였고,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전시물 등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기념관 앞뜰에 서 있는 늙은 장보고 장군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적산명신을 둘러보았다. 적산명신 동상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신불의 동상으로서 높이가 58.8미터나 된다고 한다. 적산명신을 받치고 있는 대웅전 안에는 수많은 금불상이 눈이 부실 정도로 사방으로 빼곡히 들어 있었다.

적산명신상 위에 올라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뜨거운 한여름 낮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사찰 아래로 항구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항구에는 수십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그 옛날 이곳 산동성 일대뿐만 아니라 대양을 건너 일본까지 바다를 주름잡았던 장보고 대사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벅찬 감동이 밀려와 두 팔을 힘차게 들어 올렸다.

적산명신상에서 내려와 법화원으로 향하였다. 법화원 가는 길목에 민속박물관을 구경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박물관의 모습과 비슷하였지만 나름대로 특색을 갖추고 있었다. 농경사회의 모습을 중심으로 한 전시관과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관 등 다양하게 주제별로 전시관을 꾸며 놓았다.

법화원 안내판을 따라 절 입구에 도착하였다. 법화원 입구 나무에 매달아 놓은 붉은 종이가 눈길을 끈다. 중국인들은 복을 기원하는 붉은 종이를 나무에 매다는 풍습이 있는가 보다. 가는 곳마다 붉은 종이를 빈틈없이 가득 매달아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화원 대웅전 입구에서 부처님에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법화원 경내에 피어 있는 무궁화를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법화원을 지나 조금 이동하니 관음전이 나왔다. 관음전 불상은 거대한 청동상으로 다가 왔는데,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하

루에 2번 물 쇼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쇼가 끝난 뒤였다. 다음 쇼까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돌려 나왔다. 아직 더 둘러 볼 곳이 있었지만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내려오기로 하였다. 강렬한 햇빛 아래 부지런히 돌아다니다 보니 양팔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긴 소매 옷을 입고 올 것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어쩔 수가 없었다. 적산을 내려오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가 입국할 때 타고 온 그 화동궈리 호에 몸을 실었다. 갑판 위로 나와 석양에 물들은 석도항을 바라보았다. 중국으로 들어 올 때의 그 긴장과 설렘이 나도 모르게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돌아가는 것 같아 흐뭇하였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교육 하나 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참다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3호차 김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보고가 완도에서 태어나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한 역사적인 인물로 수많은 위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 책장 속에 묻어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통해 오히려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에서 장보고의 위대함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값지고 빛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역사에 바르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수많은 세월을 보내 우리의 곁에서 멀어져 가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무더운 여름날 짧은 기간이지만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장보고의 위대함을 깨닫고 직접 확인하게 되었으며,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장보고 장군의 그 기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세계인

으로서의 원대한 꿈을 가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내 뜻을 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전국의 교사들에게 뜻 깊은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의 기회를 마련해 준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국토해양부, 동아일보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07    시대를 앞서 간 개척자, 장보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인천 심곡초등학교 임옥

“여보! 나 됐어.”

“뭐가 됐다고 이 난리예요?”

“장보고 말이야. 장보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텅 빈 교실에서 이것저것 학교 업무를 하다가 문득 ‘아 그거 오늘 쯔 발표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미치는 동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해상왕 장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장보고 답사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와우’ 정말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전화를 받은 아내가 “그렇게 좋으냐? 혼자 가서 좋겠다.”라고 놀리는 말을 뒤로하고 3차 답사단이 출발하는 날까지 자꾸 헛웃음이 나오곤 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기름진 중국 음식에 대비해 고추장이다 김을 싸서 가방에 넣고 연안부두 국제 여객 터미널로 향했다. 화동훼리 호에 들어서서 방 배정을 받고 같은 방을 쓰는 선생님 두 분과 인사를 나누고 출발 시간을 기다렸다.



배에서 바라본 인천대교



석도항의 택시들

힘찬 뱃고동 소리와 함께 출발! 출발한 지 몇 분 뒤에 만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공항을 잇는 거대한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12시간 가까운 선실에서 여행은 지루하기보다는 뜻 깊었다. 그건 여러 지방에서 모인 선생님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산동성의 석도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밟고 영성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가이드 김따꺼를 만났다. 연변 발음이 우습기도 했지만 내심에 깔려 있는 배려가 느껴졌다. 영성에서 진시황의 사당과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중국의 희망봉 성산두를 보았다. 이곳은 예로부터 군사요충지였으며 진시황의 불로초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이번에 같이 가게 된 대학동기와 진시황의 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친구와 사진을 찍으면서 제주도로 대학동기들과 졸업여행을 갔던 옛일이 떠올랐다. 벌써 17년 전 일이다.

성산두를 둘러본 후 중국에서 처음으로 먹는 점심은 한국의 중국집 음식 맛이 아니었다. 향이 짙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선생님들 모두 익숙지 않은 기름진 음식에 당황하는 듯했다. 나도 벌써부터 김치와 된장찌개가 그리워져 내심 걱정이었다.



성산두에서 대학동기와 함께



기름진 현지음식들

점심을 먹은 후 우리 일행은 봉래로 가서 등주수성과 고선박물관을 견학 했다. 봉래각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등주는 당나라 때 고구려 유민 이정기 세력이 이곳을 장악하면서 발해와 신라교역을 관장한 곳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았던 ‘신라방’과 ‘신라관’, ‘신라소’를 통해 신라 상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장보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며 무역과 군사요충지라고 하였다. 특히 바다와 이어진 높다란 성벽에 배가 드나드는 성문이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유방으로 3시간가량 이동한 후 호텔에 묵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대학동기와 같은 방을 쓰게 되어 지난 이야기를 새록새록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3일째, 치박에서 순마갱을 보았다. 순마를 두 줄로 나란히 병렬시켜 누운 자세로 매장한 이곳은 현재 발굴된 228필로 미루어 매장된 전체 말이 600여 필에 이른다니 현세의 영광을 죽어서 까지 이어가려는 마음이 나로서는 헛된 욕심으로 다가 왔다. 순마갱을 뒤로하고 태안으로 이동하였다. 말로 만 듣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티끌모아 태산’의 주인공인 태산에 오르게 되었다. 이곳 태산은 중국에서 5대 명산의



태산 정상으로 가는 길

로 손꼽으며 옛날부터 천하제일의 산으로 칭송받는다고 한다. 이 신령스런 산은 많은 유적과 종묘 등이 있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다. 진시황으로부터 역대 군주들이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등극을 알렸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산등성을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이나 올랐다. 케이블카가 도착한 산 정상 부근에서 덕 있는 황제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제단으로 올랐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다. 모두 영산의 기를 받으려는 듯했으며 그 웅장함에 놀라고 있었다. 중국의 드넓은 옥수수 들판에 우뚝 솟은 태산은 더욱 높아 보였고 하늘에 닿을 듯했다.

일정 4일째, 이제 답사의 막바지다. 한여름 무더위에 나뭇만 아니라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강태공 사당 앞에서

제나라 초대 왕 강태공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 일행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세상을 낚는 인물로 비춰진 강태공 사당을 둘러보며 기다림의 철학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중국 고차박물관을 둘러보고 청주로 이동한 후 청주박물관을 견학했다. 이곳은 1959년에 세워진 종합박물관으로 수·당나라와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와 불상 그리고 무덤 양식이 사면의 건물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었다. 주목할 것은 이곳 청주박물관 자리가 용흥사였는데 그 안에 '신라원'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지만 말이다. 청주 용흥사 내에 있는 이 신라원은 당나라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스님이나 구법승 여행자를 위한 법당이었다고 한다. 이곳까지 신라인들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니 그 당시 무역의 범위와 활동무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갔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위해에서 보냈다. 저녁으로 한국 음식이 나온다는 기대에 모두 들떠 있었다. 4일 만에 맛보는 김치, 고추장, 된장 그리고 소주의 맛은 잊을 수가 없었다. 한국식당은 우리 선생님들로 인해 잔치 분위기였고 웃음이 가득했다. 또 하나 우리의 기쁨을 더 해준 것은 중국 땅에서 보는 베이징 올림픽이었다. 마침 큰 화면에 한국 유도선수의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민호 선수가 상대선수를 한판승으로 이기는 것이었다. 음식점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의 함성과 박수가 연발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특히, 올림픽 개최지인 중국 땅에서 맛보는 올림픽은 참 맛이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

마지막 5일째 우리의 자랑스런 장보고 대사의 얼이 깃든 석도의 적산법회원과 장보고 기념관으로 향했다. 적산법회원 앞에서 이번 3차 답사단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절의 계단을 오르는데 그 규모와 화려함



적산법회원 앞

에 놀랐다.

우리 일행은 장보고 기념탑 앞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의 승려로서 당나라에 가는 사람은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곳 적산촌은 산둥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라인 사회의 중심부이며 교역의 중심지였



자랑스런 장보고 동상

다고 했다. 이처럼 신라인들의 마음을 다스렸던 적산법화원을 지을 만큼 장보고 대사는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기념탑에서 담장을 돌아 2007년에 개관한 장보고 기념관으로 향했다. 이곳엔 장보고 대사의 어린 시절부터 장군이 되기까지의 업적들이 유물과 함께 전시돼 있었다. 기념사진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전시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장보고 대사의 동상은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커 보였다. 배타적인 중국인들이 인정한 유일한 외국 인물이 장보고 대사라는 설명에 동상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자기 나라보다 남의 나라에서 더 인정받는 인물! 자랑스러움과 함께 우리가 더욱 인정하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못내 부끄러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석도항에서 화동훼리 호에 탑승하면서 이번 답사를 돌이켜보았다. 낯선 환경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한여름 무더위가 우리의 답사 의지와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1200년 전의 장보고였고 그 후예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매 순간순간 벅찬 감동과 자랑스러움이 있었다. 지난 5박 6일간의 답사는 일상에 찌들었던 생각과 마음을 털어 버리는 여유와 만남의 장이었다. 이를 통해 내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다.

답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적어 보려 한다. 먼저, 바다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부강한 국가를 계획한 무역왕 장보고의 위대함에 놀랐다. 그 당시 배의 성능에 비추다면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지역(신라, 중국, 일본, 당, 아라비아,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다. 우리는 3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다. 대륙과 해양의 문화와 기술을 잘 받아들여 활용한다면 세계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둘째로, 세계가 인정한 인물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중국 석도에 위치한 장보고 기념탑과 동상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의 인물이 비록 우리 기록엔 역적으로 몰려 남아 있는 것이 드물고 왜곡됐지만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그 위대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한·중·일 동양 정사에 두루 기록된 전무후무한 인물을 정작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 싶었다. 장보고 대사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홍보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알려야겠고, 이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개발하여 그가 다녔던 한국과 일본, 중국에 이르는 해상경로를 관광지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셋째로, 장보고 대사는 이 시대의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받들어 나약한 사고와 안위하려는 태도를 벗어나 한국을 넘어 세계에 도



쭉 뻗은 고속도로와 가로수

약할 희망과 꿈의 정신적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이번 답사를 하는 내내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놀라왔다. 3차 답사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무르익는 시기였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만큼 중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중국 어느 곳을 가나 개발과 건설 현장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버스에 동승한 선생님이 “중국이 꿈틀거리고 있어. 정말 꿈틀거리는 용 같지 않아?”라는 말씀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은 우리와 근 3000년 넘게 영향을 서로 미치며 살아온 나라이다. 특히 15억 중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이 놀라운 변화에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답사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배움이 가득한 만남의 장이었다는 것이다. 중국 산둥성이 남한의 두 배에 가깝다 보니 배편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무척 길었다. 땅 덩어리가 크다 보니 유적지를 하나 관람하려면 버스를 타고 하루 4~5시간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그다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다. 그건 가이드분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동승한 교수님의 해박한 역사 지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여러 선생님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우리 교육과 역사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본 기회가 되었으며 옛 선인의 길을 찾고 탐구해 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개학이 되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학생들에게 빨리 전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엔 느꼈던 애국심과 조상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전달해 주고 싶다.

끝으로, 이런 뜻 깊은 기회를 갖게 해준 (재)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와 알뜰살뜰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진 교수님, 막내 동생 같은 연변 출신 김따꺼, 온누리 여행사 문 계장님, 많은 것을 챙겨주시고 가르쳐 주신 화



2호차 C조 선생님들과 호텔 앞에서

동혜리 314호 김병두 선생님과 친형님 같은 김의식 선생님, 정 많고 듬직한 대학동기 박향기 선생님 그리고 기름진 식탁에 앉아 웃음 꽃을 피웠던 여러 선생님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고마움과 아름다운 추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 08 21세기 해신 장보고가 부활한다

인천 명현중학교 김미경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매년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전국의 선생님을 선발하여 산둥성 일대의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유적지를 돌아보며 그를 21세기에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해상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선에서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준 답사여행이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답사 일정 중 나중에 알고 놀랐지만 무려 10대 1의 높은 경쟁 속에 당첨되는 영광을 안고 7월 30일부터 8월 4일의 2차 답사팀의 일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을 왕복하는 장도에 올랐다.

### 7월 30일

집에서 출발하여 모임 장소인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은 낯설고 설레는 마음으로 삼삼오오 담화를 나

누고 계셨다. 미리 나와 여행을 준비하는 온누리 여행사 직원 분들이 나누어준 일정표와 왕복 승선표를 받고 1호차 A조로 5박 6일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승선을 기다리는 지루함 속에 드디어 인천에서 석도로 가는 화동훼리 호에 승선을 하니 멀리 새로 개통을 준비하는 인천대교도 보이고 멋진 석양도 감상할 수 있어 나머지 일정이 사뭇 기대감으로 다가왔다.

중국식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8시에 이번 답사에 함께할 교수님을 비롯하여 후원사인 동아일보 기자와 스텝들의 소개가 있는 후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세미나의 내용은 장보고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활을 잘



출발을 기다리며



화동훼리 호



석양을 등지고



선상 세미나



쏘아 공복, 궁파로 불린 장보고! 이름 없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동아시아의 바다를 호령하며 장엄한 해상왕국을 건설한 그는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개방주의 입각하여 한·중·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장대한 해상항로를 개척한 당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세계인이다.

또한 동족의 고통을 저버리지 못하는 인도주의자로 불교정신의 구현자로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해양정신을 소유한 21세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끊임없이 쫓아가야 할 역사적 표상이라는 것이다. 선상세미나를 듣고 나니 나머지 우리의 일정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어렵듯이 느낄수 있었다.

선상세미나를 마치고 긴장과 피곤함에 누인 몸이 파도처럼 출렁인다. 아~, 이제 시작인데.

## 7월 31일

14시간 걸쳐 드디어 도착한 석도항. 약간 번거로운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구름 낀 하늘 사이로 바다를 감싸 안은 석도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드디어 우리의 장도가 시작이군. 3개의 버스에 나눠 타고 우리 차에 탑승하신 국민대 교수님의 권유로 각자 소개를 하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1200년 전의 장보고가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을 한 차로 불러 모은 것이다. 충주, 전주, 광주, 익산, 창원, 김해, 서울, 인천 등 강원도 선생님만 빼고 다 모이셨다. 각자 소개를 마치고 달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중국에서의 첫 목적지인 영성이다.

영성은 산둥성의 항구도시로 우리나라 인천에서 서쪽으로 제일 가까운



진시황 사당 입구



이곳에도 용병 출현



진시황 사당으로



입구의 불상들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시황 사당, 동천문, 성산두 등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그중 진시황 사당은 그가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후 자신의 영토를 둘러보기 위해 행한 4번의 순행 길 중 하나인 동쪽으로 순찰 중 머물렀던 행궁이 후에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굉장히 거대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작은 규모의 사당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였다. 당시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천자로서 불로장생을 위한 몸부림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 세계사에서 도드라진 인물이지만 지금은 조그만 사당이 그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했다. 그 옆에 함께 세워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남동녀



이곳이 성산두



모자 날라갈까 조심하며



성산두 좌측 절경



이사, 진시황, 서복과 미경샘

5천을 데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왔다는 서복과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이사의 상,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천후궁과 청일전쟁(1894) 때 활약한 Deng-shichang 등의 조각상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성산두, 이곳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곳으로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제가 이곳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는 장소이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복선단이 떠난 곳이라는 전설의 장소이기도 하며 군사적 요충지로 660년 백제를 치기 위해 당의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기도 하다. 기묘한 바위가 바다의 절경과 잘 어우러져 있으며 진시황과 서복, 이사의 엄청 큰 동상이 세워져 있다.

성산두 견학을 마치고 마치 우리나라의 신도시를 보는 듯한 산뜻한 외관의 위해시를 통과하여 연못 등 외관이 매우 아름다운 식당에서 점심을 하였다. 늘 생각하지만 중국식은 무슨 음식이든 비슷한 맛이 난다. 양배추 볶음이나 돼지고기 요리도 맛이 같으니 말이다. 그래도 고추장을 가져온 선생님이 계셔서 덕분에 무사히 한 끼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작년 상해 여행 시 탈이 난 것이 기억나 음식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점심을 마치고 우린 또 차를 달려 봉래로 이동하였다. 무려 3시간 30분을 가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과 포플러 나무 그리고 측백나무의 연속이다. 정말 질릴 정도다. 아무리 중국 땅이 넓다고는 하지만 어찌 그리 무식하게도 심어놨는지. 옆의 신 선생님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화북지방 중국 최대의 밭농사 지역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도 가도 옥수수 밭이다.”라고 말이다.

버스로 이동 시에는 소설가 최인호의 장보고를 추적하면서 21세기 장보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의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DVD를 시청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리적인 여건으로 자막이 잘 보이지 않아 집중할 수가 없었으나 어렵פות이 우연한 계기의 일본 여행에서 장보고 부활의 실마리를 찾아 30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최인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드디어 3시간 이상을 달려 도착한 봉래, 봉래는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으로 당조에는 봉래진으로 불리다 후에는 등주로 불린 곳이다. 등주는 고구려와 수당이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대규모의 수군을 발진시킨 곳이며, 발해의 장문휴가 위준을 죽인 곳으로 고구려 유민 이정기 세력이 장악하여 발해 및 신라 교역을 관장한 곳이기도 했다. 또한 일본의 견당사도 중국으로 오려면 거쳐야 항구로 7세기 중반 많은 신라상인들의 거주로 신라방, 신



신선의 문으로 들어서며



낮은 구름에 쌓인 봉래각



술취한 신선들



술 취해서 쓴 소동파의 글

라관, 신라소 등이 세워진 신라와 발해의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교린과 전쟁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곳 봉래각은 북송가우 6년(1061년)에 만들어져 있으며 단아산의 운해에 쌓여있고 바다와 산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봉래각, 천후궁, 용우궁, 여조전, 삼청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벽을 따라 시작된 계단 아래로 대해원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 수성이 있다. 그중 누각을 오르면 도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선들이 주연을 베푼 곳으로 전해져 오는 천후궁이 자리하고 있는데 신선들의 술 취한 모습이 내 눈에는 신성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퇴폐적(?)으로 비춰진다.

등주수성, 600년 전 명나라 때부터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비교적 완벽



작은 배들이 정박한 등주



개폐가 가능한 수문



해변가의 관광객들 보이나요



정화의 함선(모형)

한 해상방어체제를 형성하였으며 3,000명에 가까운 군사가 있었다. 근대에는 모래와 흙이 쌓여 수심이 얕아져 큰 선박은 정박할 수 없고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다. 곳은 날씨에 바다에서 놀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눈에 띈다. 그 후에 방문한 등주 고선박물관은 중국의 고대 선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멀리 아프리카까지 원정한 정화의 함선이 우리들의 시선을 끈다. 역시 사회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에는 못 말리는(?) 애착심을 갖고 있어 여기저기서 셔터를 누르기 바쁘시다. 나도 역시 한 컷. 그런데 아쉽게 사진이 좀 엉성했다. 봉래 원나라 전선은 너무 큰 탓에 사진으로 담기를 포기했다. 암튼 그 규모는 당시 적재량이 173.5톤에 달한다고 하는 중국의 중요한 문화재이다.

봉래를 답사한 일행은 3시간에 걸친 장도 끝에 오늘의 숙소인 유하강이 흘러서 붙여진 연의 도시 유방에 도착하였다. 연의 도시답게 가로등이 나비 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빨간색 불빛이 매우 아름다웠다. 길 옆엔 많은 중국인들이 여름밤을 즐기고 있었는데 9시 정도가 되면 모두 들어간다고 한다.

우와! 드디어 도착한 숙소는 깨끗한 시설로 비교적 잘 되어있었다. 옆의 신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하신다고 하여 비즈니스 센터에 갔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아 힘든 대화 끝에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되셨고 기쁜 마음으로 친절할 직원에게 1위안과 동전을 선뜻 팁으로 주셨다. 그래도 마냥 즐겁고 행복한 밤이다.

## 8월 1일

어제 버스에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장보고 DVD가 잘 보이지 않아 오늘은 앞자리를 맡기 위해 아침부터 서두른 탓에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느긋하게 중국식 뷔페로 아침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불친절한 직원 한 명이 내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챙긴 사과를 보고 눈총을 주어 가방 속에 있던 사과를 꺼냈다 다시 살짝 챙겨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다고 누가 변변한 먹을거리조차 사기 어려운 중국 휴게소를 믿고 소중한 간식을 포기할 줄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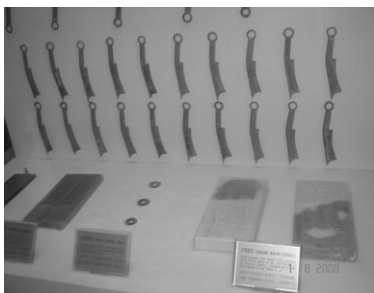
황당한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이동한 곳은 치박. 치박시 임치구는 제나라의 수도로 당시에 30만의 거주한 진나라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800년 역사를 가진 제나라의 수도였다. 먼저 찾아간 곳은 제나라 역사박물관. 건물 외관이 옛 성을 방불케 한다. 이곳에는 제나라의 당시 모습을



제국역사박물관



귀족들이 사용한 그릇



제나라 화폐



축구하는 모습

옛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관포지교의 고사에 나오는 관중의 노력으로 경제적 매우 윤택했음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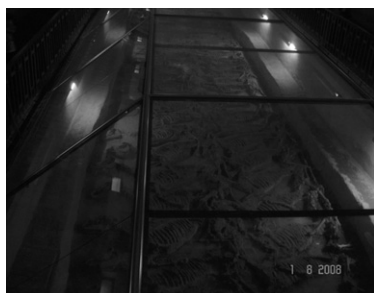
그중 돼지 오줌보로 축구를 하고 있는 전시물에서는 당시 축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일 만 명이 된다는 설명이 보태어진다. FIFA도 축구의 원조를 중국으로 인정했다나. 그리고 관중은 관기를 만든 최초의 사람으로 기생집에서는 관중을 신처럼 받든다는 우스운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방문한 곳은 공사 중 우연히 발굴된 전마로 사용되었던 말의 머리를 때려죽인 후 두 줄로 나란히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순마갱 유적지



순마한 말들

누운 자세로 매장한 순마가 묻혀 있는 순마갱이라는 곳이다. 이곳의 순마는 모두 수말로 그 숫자는 약 600여 필로 추정된다. 평범한 시골 마을 속에 위치해 있다. 제나라 역사박물관과 순마갱 견학 후 우리는 무려 3시간의 장도 끝

에 태산이 위치한 태안시에 도착했다. 태산에서 중식을 먹은 후 우린 작은 버스에 나누어 타고 태산으로 향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으로 시작하는 양사언의 시조가 아니더라도 태산은 우리의 일상에서 큼지막한 무게로 자리하고 있는 산일 것이다. 중국에서도 진시황, 한 무제, 당 현종만이 봉선의식을 거행했을 만큼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던 태산, 비록 케이블카에 거의 다 의지했지만 태산은 마치 나를 당시의 천자가 된 듯 기분 좋은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하였다.

산 정상 옥황전 가는 길은 계단을 700개 정도 올라가야 하는 약간의 고통(?)이 수반된다. 이쯤의 수고는 해줘야 예의 아닐까? 태산 등정에 10



순마갱 유적지가 있는 마을



태산 케이블카



오악독존이라



태산을 내 품안에



옥황전 앞에서

년은 젊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구박 속에 아침에 챙겨온 사과를 태산에서 먹으니 그 맛은 신선의 사과였다.

이젠 제법 익숙해진 3시간의 이동 후에 우린 제나라 궁 터였다는 제도 호텔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였다. 태산 등정의 뿌듯함으로 일행은 모두 맥주로 건배를 외치며 즐거워한다. 음식 맛이 좋아 고추장을 찾는 선생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테리에 대비해 지하 가스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9시부터 2시까지는 온수와 냉방이 안 된단다. 그래도 우리가 8시 50분에 배정된 방에 들어가 10분 만에 모든 것을 끝내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려본다. 그렇게 우리의 답사 여행도 절반이 지났구나.

8월 2일

벌써 여행 4일째이다. 이제야 조금 남은 일정이 아쉬워진다. 어느새 친해진 샘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도 오간다. 오늘의 일정은 강태공 사당과 고차박물관과 청주박물관 견학이다. 강태공 사당은 숙소였던 제도호텔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강태공, 백성들은 폭군에 시달리고 퇴폐와 타락이 극에 달한 은나라 말기,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낚는 곳이 아니라 세월 낚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으로 후일 그의 말처럼 때를 기다린 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다. 제나라의 시조로, 주나라의 스승으로 그에게서 나온 성씨만도 102개란다. 붉은색 깃발을 사용한 것도 이때부터이며 이후 붉은색은 중국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사후 시신은 문왕과 무왕 주위에 묻었지만 봉분이 없어 정확한 위치는 모르며 현재는 그가 사용하였던 모자와 옷을 묻은 의관총과 사당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한국의 강씨, 구씨 등 몇몇 성씨들이 세운 기념비도 눈에 띈다.

고차박물관은 중국 고차의 복원차량 및 진품을 집중시킨 1991~1994년까지 4년에 걸쳐 완공된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박물관이다. 내부에는 은·주 시대부터 명까지 중국 고차의 변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고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고차박물관에서 50위안 주교산 청동마차가 그려진 용도가 불분명한 기념품이 가득이나 불편한 자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 고생을 왜 사서 하는지.

고차박물관에서 나와 청주박물관으로 이동하는 중에 교수님은 전에 강의해 주신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를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다. 어느 것이 석가상이고 어느 것이 무슨 보살상인지 맞춰보라는 것



강씨들이 세운 기념비



강태공 사당



고차박물관



남북조시대의 우차

이다. 이윽고 하차를 하니 교수님은 강의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를 정하시고 맑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신다.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곳은 원래 용흥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산둥반도는 중국 문명의 요충지로 소금의 주산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었으며, 이곳엔 장보고와 관련된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등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신다.

암튼 박물관은 3만여 건의 문화재가 있는 전국 현급 박물관 중에 으뜸이며 외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장원을 차지한 명대 조병충의 과거 시험답안지와 의자손 옥벽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불



박물관 전경



강의 중인 교수님



백, 녹, 갈색의 당삼채



의자손 옥벽

상들이 온전치 못하게 발굴되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은 보는 내내 안타가운 마음을 들게 하였다.

박물관 견학 후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4시간 30분짜리 최장시간의 이동인 위해시로의 이동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는 장보고 DVD 마지막 5, 6부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동 중 현지 가이드 분이 위해시에서는 동아일보사에서 한식 고기 뷔페식으로 대접한다. 여행 내내 중국식이어서 한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돈다.

우와~, 드디어 위해시에 도착했다. 위생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설명이 없어도 다른 지방보다 깨끗한 외관의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곳곳에 온천도 있고 1923년까지 영국 함대의 여름 기지가 있는 곳으로 지금은 영국

군의 주요 장교와 중국의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란단.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식, 얼마 만에 먹어보는가. 여행의 마지막을 자축하는 건배와 함께 우리의 식신 본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속이 다 놀랄 지정이다. 그래도 먹고, 먹고 또 먹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일까. 그날의 행복은 바닷가 앞의 호텔까지 이어진다. 피곤함에 밤바다 구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브라보다.

## 8월 3일

사실상 일정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밤에 출발하여 내일, 8월 4일 아침에 인천항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위해시의 호텔 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중 한국식 청국장과 해물죽은 일행에게 단연 최고의 인기메뉴였다. 흡족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제 피곤함에 구경하지 못한 바닷가를 산책하였다. 경치는 매우 아름답고 평화스런 모습이다. 산책을 마치고 우린 최종 목적이며 이번 여행의 핵심인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도당 신라의 승려나 일본의 승려들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적산법화원으로 출발하였다.

적산법화원 초입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들어가니 장엄한 자태로 우뚝 서 있는 장보고의 동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보고 동상이라고 가이드 분이 농담을 하신다. 왜냐하면 장보고 동상이 다른 곳에는 없으니까. 장보고 동상을 지나 일행은 그의 기념비를 찾아갔다. 그곳에서도 교수님의 주옥같은 강의는 계속되어진다. 옆에서 설명하

는 중국 가이드의 평음과 같은 소리만 안 들렸으면 좋으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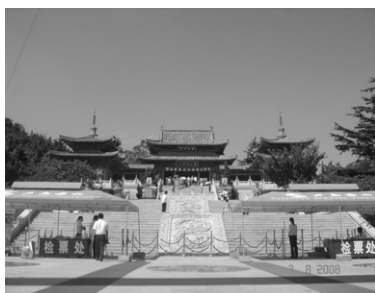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은 뒤로는 적산과 앞으로 적산포를 바라보고 있는 풍수지리상 완벽한 위치에 세워진 아름다운 사원으로 연간 5백 섬의 알곡을 수확하는 장전을 소유한 중국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도당 신라인은 물론 일본 승려도 많은 도움을 받은 그 크기와 위상이 대단했던 사찰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법화원이 위치한 석도 또한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유적지로 신라, 당, 일본을 이어주는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며 시발점이었던 곳이다.

몇 개의 전사실을 둘러보고 자유시간에 바다를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인 적산명신이 있는 곳을 올라갔다. 적산명신의 위력은 엄청 강해 한번 모시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단다. 적산명신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너무 더워 옥수수 맛 아이스크림과 녹차를 샀는데 녹차의 맛은 한국에서의 그것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맛을 지녔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운을 내 마지막 목적지인 법화원과 관음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벌써 다녀오신 선생님들은 느긋하게 집합시간을 기다리신다. 바쁘게 다녔는데도 시간이 촉박하다. 혹여 법화원을 못 볼까봐 발걸음이 바쁘다. 드디어 법화원에 도착하니 중국의 사찰은 어디나 그렇듯이 역시 거대한 향불로 자욱한 연기가 앞을 가린다. 우리네 절처럼 단아한 맛은 부족한 것 같다.

법화원을 나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관음상을 찾았다. 적산 아래 용상들과 분수에 둘러싸여 춤추는 조각상들 위로 우뚝 자리하는 관음상 너무나 맑은 하늘의 흰 구름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의 12사도처럼 뽕 둘러세운 미륵불들이 장관이다. 이를 못보고 갔다면 얼마나 애석했을까.

1시, 드디어 집합시간이다. 마지막 중국식 점심을 먹고 식당 안의 엄청



석도적산풍경 명승구 정문



장보고 동상



적산명신



장보고기념비에서 1호차 샘플



넴~ 멋진 관음상

큰 자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후 출국을 위해 다시 찾은 석도향. 공자주를 사느라 한바탕 소용돌이가 인다. 어디를 갔다 오면 늘 처음보다 짐들이 늘어난다. 그렇지만 구입한 기념품의 무게가 아니라 몸소 체험하며 얻은 산지식의 무게가 늘어나길 바란다. 장도의 끝이 못내 아쉽다. 배 안에서 같은 방을 사용한 선생님들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선글라스를 썼다 벗었다 하는 유쾌한 야경 촬영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즐거운 추억과 아름다운 인연을 뒤로 한 채 답사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당시 신라 귀족들의 수탈대상인 호남 지방에서 신분상 하층민으로 태어난 그는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어지러운 민심을 보며 성장하였다. 그리고 풍운의 꿈을 안고 당에 건너가 고구려 유민이지만 반당세력으로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한 이정기의 난을 진압하며 서주에서 무령군 소장으로 활약하며 그 명성을 세웠다. 그러나 신라인들이 노비로 팔려 고통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흥덕왕에게 군사 1만을 지원받아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며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인물이다.

그가 법화원을 세운 것은 당시의 사회가 미륵신앙이 유행한 것으로 보아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이 만연하였으나 석가의 정법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품고 삼라만상을 모두 하나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화엄신앙을 기반으로 한 관음신앙을 내세워 신라인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화려한 업적과 원대한 꿈은 반역의 오명을 쓰고 자객 염장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21세기의 역사는 그의 죽음을 단순한 권력욕이 부른 헛된 죽음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장보고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저버린 결과가 빚어낸 우리 역사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죽음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멀리 페르시아까지 아우르는 막대한 해상왕국을 지배한 그의 삶 속에서 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신라인의 삶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 그것은 단순한 유적지 답사가 아니라 교육자인 우리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세계인과 교류할 것을 교육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바다를 제패한 민족이 세계를 제패한다!!!

## 09 눈앞에 거대하게 탄생한 장보고를 그리며

서울 화계초등학교 이순례

인천부두에서 내리면서부터 이상하게 내 눈앞에 석도에서 본 거대한 동상과 오버랩되며 떠오르는 새로운 인물이 생겼다. 장보고라는.

이렇게 확실한 학습의 효과가 언제 있었던가 싶다. 나이 50이 되도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이로운 현상을 접하며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해본다. 5일 내내 장보고라는 한 인물에 대한 생각과 학습만 했으니 말이다. 완도의 청해진, 해상무역, 신라방 등등의 단편적인 사실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장보고에 대하여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좀 더 소상히 소개해 보자.

장보고는 통일신라 말기에 완도의 한 섬에서 태어났다. 활을 잘 쏘아 궁복(弓福)·궁파(弓巴)라고도 불렸다. 엄격한 신분제도 때문에 신라에서 벼슬길에 오르기가 힘들었던 그는 당나라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무장으로 출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820년대 전반기에 장보고는 당나라에 기반을 두고 신라·일본 등 동아시아 일원의 해상 교역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

구법순례행기》라는 책에 장보고가 대사라는 직위를 갖고 일본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다.

장보고를 세계적 인물로 평가한 미국의 동양학자이면서 주일 대사를 지낸 라이샤워의 저서에 보면 장보고를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 칭송한 바 있다. 통일 신라 말기에 내분으로 국정이 문란하여, 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소탕하지 못한 해적으로부터의 민생보호를 실현함으로써, 신라인의 긍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근간이 되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라이샤워 교수는 엔닌의 시대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신라 사람들이 아직도 바다의 주인들이었다고 하였다. 당시 신라 사람들이 바다의 주인공들이란 것은 비단 동북아의 해상교통관계의 중심이 청해진에 있었고,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장보고 제독이 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속에는 신라인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항해술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장보고에 대하여, 신라인들의 바다 장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가슴 시원하게 꼭 집어 말끔해 주신 라이샤워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뒤늦게나마 전해드리고 싶다.

우리의 역사적 인물을 외국의 학자까지도 이렇게 칭송하며 저서를 펴낸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난 그동안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너무 소홀했었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장보고에 대한 탐구의 기회로 삼아 학생들에게도 새롭게 보고 듣고 배운 내용과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연구하고 탐구하여 알찬 내용으로 교육하리라고 다짐하며 위안을 삼는다.

장보고에 대한 행적은 일본 천태종의 승려인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와 《속일본후기》, 중국의 대문장가이며 시인인 두목의 《번천문집기》,

《당서》, 《문헌통고》 등에 많이 의존하여 재해석하고 유추하고 있다. 아무튼 그러한 문헌이 있어서 후세의 우리가 장보고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니 우리에게 행운이고 복인지 아님 우리나라의 자료가 부족함이 불행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의 자료를 통해 본 장보고의 활동은 적산법화원이 있는 지금의 산등반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법화원은 일찍이 장보고가 세운 사찰로, 군대에서 물러나 해상 교역을 시작한 장보고로서는 본래의 연고지인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장보고 기념탑에 올라 이유진 교수님으로부터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와 연관한 장보고의 일생을 재조명하는 강의를 한 시간 정도 들었다. 얼마나 명쾌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익히면 저렇게 푹부러지게 강의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다. 강의는 흥미로웠지만 아쉽게도 날씨가 너무 더웠다. 찌는 듯한 날씨.



적산법화원



장보고 동상

이어서 남무희 교수님의 동양학에 근거한 불교 이야기, 법화원이 설립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에 대한 강의가 알차게 이어질 찰나, 참을성 부족한 연수생들의 “쉬었다 해요, 10분간만 쉬었다 합시다.”라는 아우성에 교수님은 아연 긴장하신다. ‘10분 쉬면 다시는 이러한 강의 분위기를 못 잡을 텐데’ 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식도 느끼셨던 것 같다. 하여 모두가 합의한 타협점은 한 시간 분량의 강의를 5분에 압축하여 엑기스만 전달 하는 것이었다.

웬지 조금은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 서운한 마음을 그날 저녁 선상에서 저녁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강의를 들음으로써 삭힐 수 있었다. 피곤한 일정 속에서 연수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방송을 들은 다른 단체의 아주머니도 오셔서 도강하시고 흐뭇해하시며 이런 기회를 가

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을 한껏 부러워하셨다.

법화원은 연간 500석의 곡식을 수확하는 장전을 소유하고 장보고 대사 휘하의 장수들이 경영하였다. 총 29명이 거주하였다는 기록으로 당시 법화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신라인 사회의 규모는 당시 거행된 법화경 강회에 250여 명이 모였다는 기록으로 신도들의 수가 대단히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적산촌 일원과 이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신라 사회는 적산법화원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장보고 휘하의 장영을 지도자로 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무희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적산은 철분성분이 많이 포함된 암석들로 이루어진 산이어서 비가 온 후에 붉게 보여 적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당 신라인의 교화 장소이며 안전 항해의 기점으로 교민사회 의 결속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적산법화원은 중국의 폐불정책으로 인해 해탈되고 말았다. 지금의 적산법화원은 엔닌을 선양하기 위해 일본에 의해 1980년대 말에 건립된 것이다. 그래서 대웅전과 관음전이 모두 일본을 향해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씁쓸함도 함께 맛보아야 했던 법화원 견학은 마음이 짝한 일정이었다.

이제 엔닌의 일기를 통해 해상에서의 장보고의 위력을 느껴보자. 장보고에 대한 당나라에서의 활약상과 당시 재당신라인들의 기록을 가장 상세하게 남긴 역사적 문헌은 일본의 구법승인 엔닌이 일기 형식으로 저술한 《입당구법순례행기》이다.

당시 일본은 항해기술과 조선술이 미약하여 선진국인 신라인의 안내와 통역을 도움 받아 입당하여 9년 반 동안이나 장보고의 비호 아래 중국 각지를 순례하고 사실 그대로의 여행기를 남기게 된 것이다.

엔닌 일행이 일본으로 돌아갈 귀국 교통편을 얻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겨우 신라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다. 그들 일본인들은 적산에 있는 마음씨 너그러운 신라 거류민들에게 숙식을 의존하였을 뿐 아니라, 귀국 선회까지 기대하였던 것이다.

엔닌이 당나라까지 바다를 건너갔다가, 일본 배를 타고 산둥반도 남해안까지 파행적인 항해를 한 기록을 보면 귀국 시 그를 태운 신라 선박들이 일본까지 8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항해 기술상 당시 신라인들과 일본인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일본 사절단 간부진들을 안전하게 일본까지 도착시키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 사절단이 60명의 신라인 타수(舵手)와 선원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일본 사절단이 당나라로 떠날 때 각 선박에 승선했던 신라인 통역들의 역할이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감안해야 할 일이다. 이들 신라인 통역들은 당나라 해안에 도착한 뒤의 업무처리에 매우 유용했을 뿐 아니라, 엔닌 자신이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갔던 것을 언급한 데서 볼 때, 분명히 이들 신라 통역인들은 해상에서는 최고의 항법 전문가들이었다.

엔닌 시대에 신라 사람들이 동북아의 해역에서는 바다의 지배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 돌아간 엔닌은 신라의 명신이 도와주어서 무사히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토로했는데 우리가 짐작컨대 엔닌을 도와준 명신이 우리의 장보고를 신으로 모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진의 적산명신을 유심히 살펴보자. 신라인의 모습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후 장보고의 몰락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생략하고자 한다.

5박 6일의 일정을 보내며 나름대로 장보고에 대하여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을까라는 자심감이 커다란 소득이었다.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



엔닌의 적산선원

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장보고의 국외 활동상과 위대한 업적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래로 폄하되었기에 국내의 기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은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불세출의 영웅 장보고와 바다의 사나이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다시 세계 유수의 해운국으로 뻗어갈 국제무역의 확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념사업회



적산명신



에서 이야기한 대로 서해와 중국해 동해를 국적 없이 떠돌지 모를 장보고와 당시 신라인들의 영혼을 달래 전기를 모색할 때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 장보고의 혼과 피와 본능이 지금 우리의 몸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바다는 우리에게 과거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답사를 마치고 내 눈앞에 거대하게 떠 오른 위대한 장보고의 상을 생각하며 우리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실감한다. 그리고 나도 또한 내일을 다짐한다. 오늘에 안주하지 말며 내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도 조상의 위대함을 알리고 몸속에 내재된 엄청난 에너지와 창조력,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 보리라.

새롭게 각인된 장보고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내 앞날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길 기원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장보고기념사업회와 연수단의 일정 및 답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 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맺으려 합니다. 가장 가까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신 부드러운 목소리, 넘치는 카리스마의 김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여행에서 답사로, 신라인에서 세계인으로

청주 청석고등학교 이재학

2년 전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배와 함께 급하게 여권을 새로 만들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배만 선발되고 나는 선발되지 못했다. 작년에는 방학 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답사를 신청한 다른 동료가 선발되어 다녀왔다. 주위의 분들은 쉽게 선발되어 중국은 물론 일본 유적지 답사까지 쉽게 다녀오는데 나는 제일 선정되기 쉽다는 장보고 유적지 하나 못가 본 불쌍한 역사 교사였다.

그저 답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다. 이미 다녀오신 주위의 동료 교사들로부터 올 해 한번 더 신청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올해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꽉 찼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고3 답임인 나는 신청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마침내 2008년 장보고 유적지 답사의 행운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출발 하루 전 날, 온누리 여행사 측으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인천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중국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실감이 났다. 이렇게 나의 첫 중국 여행은 시작되었다.

### 첫째 날(7월 30일) : 여행에서 답사로

아침 일찍 서둘러서 짐을 챙기고 인천으로 출발했다. 청주에서 인천터미널까지 시외버스로 두 시간 걸렸다. 너무 일찍 서둘러 갔는지 인천 부두에는 막 도착한 듯한 여행사 직원 세 분만이 아직 현수막도 안 걸은 채 있었다.

첫날은 답사단의 인원 확인과 승선, 선상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화동훼리 호에 승선하고 저녁을 먹은 후 선상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 시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겸 교수님의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대한 강의와 답사단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진지한 수강 자세에서 나는 이번 중국 여행이 단순한 유적지 관광이 아니라 학술적 성격의 유적지 답사임을 깊게 느꼈고,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 답사단에 선발되었음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실은 4명이 함께 쓰는 방인데 내가 쓰는 선실은 8명이 함께 쓰는 큰 선실이었다. 선상 세미나 후 선실로 돌아온 우리 8명의 309호 룸메이트 일행은 선실에서 서로 친분을 다지며 한국의 교육적 현실과 역사교육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

8명 중 7명이 역사교사였기에 자연스럽게 토론의 주제는 학교, 학생지도, 학교교육, 역사교육의 문제점 등이 되었고 서로의 교육적 경험과 주장에 공감하며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꼈다. 좌우로 가볍게

흔들리는 선실에서 우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잤다.

### 둘째 날(7월 31일) : 중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다

밤을 새워 달려 온 배는 아침에 석도항에 도착했다. 선상에서 아침 식사 후 하선하여 1, 2, 3호차에 나눠 타고 우리 일행은 버스로 1시간을 달려 영성(榮成)에 있는 성산두(成山頭)로 갔다. 성산두는 산둥반도의 동쪽 제일 끝 지점인 곳이다.

진시황이 다녀간 곳이라 진시황의 사당도 있었고, 바다를 지키는 여신을 모신 천후궁, 청일전쟁 때 희생된 등세창 장군을 모신 등공사 같은 사당도 있었지만 그보다 한국이 있는 황해바다 쪽으로 바위 머리를 쭉 내민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큼 시원한 절경을 자랑하였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중국 땅에서 황해 바다 너머의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을 생각하게 하는 지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이소연 우주인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았던 느낌과 비교한다면 좀 과장이겠지만 항상 역사에서 강조하는 균형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 중국 유적지 답사의 첫 장소였다.

성산두 견학을 마치고 우리는 봉래각(蓬萊閣)과 등주수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봉래각이 있는 봉래는 당의 공격에 맞서 발해 무왕 때 장문 휴가 바다를 건너 당을 공격하기도 했던 등주(登州)의 현 지명으로 우리나라의 사신, 유학생, 상인들이 요동반도 쪽에서 발해만을 지나 중국으로 오는 도착지였다.

현재 신라방 유적지는 없지만 옛날 신라인들이 모여 살았던 신라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4대 누각의 하나인 봉래각은 여덟 신선이 놀았다는 풍경이 좋은 해안 절벽 위에 있는 곳으로 발해만과 황해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자연 풍경뿐만 아니라 소동파의 한 사람인 소식(蘇軾)의 필적이 남아 있는 곳이며, 청일전쟁 때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총탄 흔적도 있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해상 교통의 요지인 이곳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시설이 바로 등주수성이다. 등주수성 안의 고선박물관은 내려가는 길에 있어 관람하기가 편한데 발굴된 원나라의 선박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어서 과거 해양 문화의 흔적도 부담 없이 느껴볼 수 있었다. 다만 등주수성 해안에서 고려 선박 2척이 발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시를 하지 않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가 명나라로부터 급하게 받아들인 병법서가 《기효신서(紀效新書)》이다. 《기효신서》를 통해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지방군을 속오군 체제로 편성하였는데 이 책을 지은이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의 척계광(戚繼光)이다. 명대 왜구 격퇴의 영웅인 척계광의 당당한 석상이 등주수성 안에 있는 이유도 국방을 염두에 둔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람 후 점심을 먹고 우리는 3시간가량을 이동하여 중국 내 첫 숙소가 있는 연(瀋)의 도시 유방(瀋坊)으로 갔다.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는 중국인 가이드의 중국 고대사에 대한 설명과 국민대 장일규 교수님의 장보고와 최치원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설명과 강의를 끝나면 최인호의 장보고에 대한 역사스페셜 DVD를 보면서 그저 먹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심신이 피곤하더라도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진정한 답사의 일정을 계속해야 했다.

### 셋째 날(8월 1일) :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

셋째 날은 내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던 날이다. 평소 말로만 듣던 태산(泰山)을 오르는 날이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우선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이 있는 치박(縑博)으로 갔다. 넓디넓은 옥수수 들판 한 가운데 있는 순마갱은 600여 마리의 전마(戰馬)가 매장된 곳으로 그 규모가 커서 놀라웠다.

치박 시내에 위치해 있는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고대의 성곽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평소 책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했던 중국 신석기 시대 후기 문화인 룡산문화의 유물과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전시된 곳으로 중국 고대 문화의 원류가 이곳에서 형성되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백제의 금동대향로와 자주 비교되는 박산향로도 보았고, 관포지교의 무대였던 제나라 땅을 찾아왔다는 사실에서 마음이 매우 흐뭇했다.

박물관을 관람한 후 기념품 가게에서 청나라 말기 광서제 때의 발행 지역이 각각 다른 광서원보(光緒元寶) 주화 9개와 중화민국 시절에 발행한 손문(孫文)의 초상이 새겨진 주화를 몇 개 살 수 있어서 진위를 떠나 수집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답사 외의 기분 좋은 소득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관람 후 태산이 있는 태안(泰安)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다. 식사 때 제공된 짭뽕 코카콜라는 맛도 역시 우리 입맛에 익숙하지 않은 짭뽕이었다.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작은 미니버스로 갈아타고 태산으로 향했다. 약 30분 정도를 타고 가니 케이블카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태산,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었던 그 태산 등정이 시작된 것이다. 6인승 케이블카로 태산을 오르면서 발아래 태산의 산세와 계곡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만한 비경 그 자체였다.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는 듯한 케이블카의 짜릿한 운행이 10분 정도 지나니 목적지이다.

케이블카에서 태산 입구인 천가(天街)까지는 5분, 천가에서 정상까지는 1킬로미터 정도여서 천천히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며 올라가니 약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태산 정상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경치도 멋있었지만 걸어가면서 열은 안개가 낀 산 사이로 부분부분 보이는 산 아래의 풍경 또한 일품이었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 하였는데, 오악 중에 동악(東岳)인 태산은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요순시대부터 청나라 때까지 역대 제왕들이 즉위한 후 이곳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봉선제(封禪祭)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태산은 해발고도 1,545미터로 정상에는 진시황으로부터 황제로 등극한 역대 군주들이 제사를 지냈던 옥황정(玉皇頂)이 있다. 정상에 올라 사방을 시원하게 둘러보며 호연지기를 느끼려했던 나의 소망은 정상의 사방에 둘러쳐진 인위적인 사당 건물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소원을 빌기 위해 피우는 향과 수많은 자물쇠 꾸러미를 보면서 과거의 황제나 지금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았고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임을 느꼈다.

정상의 인위적인 건물들로 인해 평소 생각했던 태산의 신성한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오래 머무르다 산을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다. 태산 정상에 오래있지 못하고 곧바로 하산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정이 안타까웠지만 마음속으로나마 자연 그대로인 태산의 모습과 태산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을 생각하며 그래도 ‘태산은 태산이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음속에 담고 아쉬움을 가지고

태산을 내려왔다.

우리는 다시 치박으로 향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국민대 장일규 교수님의 강의와 DVD시청은 어김없이 계속되었다. 장 교수님의 강의는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음날로 예정된 청주박물관과 마지막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적산법화원을 염두에 둔 강의였다.

### 넷째 날(8월 2일) : 역사적 현장이 주는 생생한 감동과 문화적 보편성의 인식

넷째 날의 첫 목적지는 치박 시내에 있는 강태공 사당과 사당 뒤에 있는 묘(墓)이다. 묘의 이름은 의관총(衣冠塚)으로 28미터의 높이에 지름은 50~55미터로 마치 작은 산과 같았다. 비록 시신이 아닌 의관을 묻은 의관총이기는 하지만 강태공과 제나라와의 관계를 볼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로 파악되었다. 그리 보기 좋지는 않았지만 한국인들이 강태공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세운 기념비도 있었다.

사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고차박물관(古車博物館)이 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발견된 곳이라 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있다. 문화 유적은 역시 현장에 보존해야 제격이라는 생각을 하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박물관에는 은대 이후 각 시대별로 마차를 재현해서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춘추시대 전쟁을 하다 매장된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고스란히 매장된 것이었다. 바퀴살이 뚜렷한 마차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남아 있는 말의 뼈,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이 그대로 박힌 채 매장된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날 본 순마궐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한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관람 후 우리는 또 몇 시간을 달려 청주(靑州)로 갔다. 청주는 당나라 때 고구려 출신인 이정기(李正己) 장군의 활동 중심지이며, 산둥반도나 양쯔강 쪽에서 당의 수도인 장안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다. 이곳에 세워진 청주박물관은 용흥사(龍興寺)라는 절터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도자기, 비석 등도 많았지만 불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재가 많이 전시되어 있다.

청주는 위진남북조시대 불교가 발달한 북조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깊은 중국 초기 불상 조각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었다.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인도 쿠산왕조 때의 일인데, 이때 발달한 조각양식이 간다라 양식이다. 나는 전시되어 있는 불상들 속에서 간다라 양식과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은 불상을 찾아보며 관람을 하였다. 북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두꺼운 법의 모양을 한 고구려의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이나 계유명전 씨아미타삼존불(국보 106호)과 모양이 비슷한 위진남북조 시대의 많은 불상들을 보면서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보편성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역사교사로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만 이곳에서 카메라의 배터리가 다 소진된 것이 아닌가. 집에서 충분히 충전을 시켜왔기에 답사 기간 동안은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난감했다. 더욱이 내일은 적산법화원을 가는 중요한 날인데 말이다. 걱정이 정말 태산, 어제 다녀 온 그 태산 같았다.

박물관 견학을 마친 우리는 4시간이 넘는 가장 긴 시간을 이동하여 위해(威海)로 갔다. 위해에서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한식 저녁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맛보지 못했던 한식요리에 나를 비롯한 우리 일행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밤이 되어서야 들어간 호텔의 객실에 저율이 하나 있었다.

저울 위로 올라가 몸무게를 재보니 평소보다 1킬로그램이나 늘어나 있었다. 피곤한 장거리 답사 속에서 살이 좀 빠졌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찐 것이었다.

호텔 투숙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같은 선실의 우리 룸메이트 8명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 10분을 걸어 호텔 뒤편에 있는 바닷가로 갔다. 인구의 10분의 1이 한국인이라는 위해시의 시원한 밤바람과 파도소리를 들으며 일부는 산책을 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찻집에서 가벼이 맥주도 하며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여유롭게 즐겼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충전기를 가져오신 선생님이 계셔서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내일 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밤이 되기에 충분했다.

### 다섯째 날(8월 3일) : 신라인에서 세계인으로

다섯째 날 일정은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답사가 전부이다. 비록 답사 장소가 한 곳이기만 하였지만 적산법화원은 이번 중국 답사의 핵심 장소이며, 답사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가장 비중이 큰 곳이다. 위해(威海)의 호텔에서 나와 적산법화원이 있는 석도(石島)로 갔다. 1시간 반가량을 이동했는데 이 정도의 시간은 이번 답사에선 짧은 이동 시간에 해당된다. 마지막 코스라서 아쉬움이 컸는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어느새 사진으로만 보았던 적산법화원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 답사단 일행은 적산법화원 입구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기념촬영 후 장보고 기념탑 위에 올라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장 교수님의 불교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법화원 경내를 관람하였다.

유물·유적이 남아 있지 않아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의 원형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적산명신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산 아래 적산포의 아름다운 풍광을 내려다보았을 때 왜 장보고가 법화원을 이곳에 세웠는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적산포는 신라의 당항성과 연결되는 곳이며, 중국의 중원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국제 무역항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장보고는 이곳 법화원을 신라인의 활동 중심지이자 정신적 화합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나아가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세계인을 하나로 묶었던 사상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법화원이 위치해 있는 적산포 석도항은 현재 한국의 인천과 뱃길로 연결되고 있어 과거 장보고의 해상 교역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법화원의 명칭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서 나온 말이다. 《묘법연화경》은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장보고가 신라인을 사랑하고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인들과의 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법화신앙에 근거한 대승불교의 이념으로 법화원을 경영하며 블루 오션을 개척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입당구법순례기》를 쓴 일본 승려 엔닌(圓仁)이 장보고의 도움으로 이곳 법화원에서 지냈던 것도 장보고의 차별없는 인류애를 짐작하게 하는 한 대목이라 하겠다.

현재의 법화원은 1989년에 중건되어 해가 다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법화원 안에는 중국 내 유일의 외국인 동상이라는 장보고 동상을 비롯하여 1994년에 세운 장보고 기념탑, 2007년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기증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물이 마련된 장보고 기념관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중국 내에서 가장 한국의 영향력이 많은 곳이 바로 적산법화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8월의 무더위와 피약별 속에서 적산법화원 답사를 마친 우리는 점심을 먹고 처음 우리가 배에서 내렸던 석도항으로 갔다. 이제 우리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화동훼리 호 안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동안 함께 지냈던 룸메이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관계자와도 마음을 여는 자리로 이어졌다. 특히 밤늦게까지 국민대 장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부족한 나의 지적 측면을 채워주는 촉촉한 단비와도 같았다.

### 여섯째 날(8월 4일) : 제자리를 찾아서

답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다. 안개 낀 아침 선상에서 마신 시원한 공기는 중국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기임이 분명했다. 5박 6일간의 답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선실에서 대기를 하는 사이에 어느새 배는 답사 첫날 인천항을 떠나면서 보았던 공사 중인 인천대교를 뒤로하고 인천항에 접항하고 있었다. 이제는 입국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9시 30분경에 하선하여 그동안 함께 지냈던 룸메이트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어느새 나는 다시 내가 가야할 곳, 나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답사 과정을 되짚어 봤다. 답사 기간 동안 지도 교수님들이 줄곧 강조했던 장보고에 대한 다양한 재조명도 떠올려 봤다. 단순한 중국 여행으로 생각했던 것이 진지한 학술답사로 이어졌고, 단순히 부를 축적한 무역 상인으로만 여겼던 장보고가 이슬람 세계까지 아우르는 전문 경영인(CEO)으로 내게 다가왔다. 재력가로 정치에도 관여했다가 희생당한 신라인에서 법화사상을 바탕으로

로 세계인과 사랑을 나눈 휴머니스트이자 세계시민으로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다. 한나라의 장건이 뜻하지 않게 비단길을 개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그 이름이 오래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보고는 처음부터 노예 해방과 해외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진정한 세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의 존재를 간과해 왔던 점이 몹시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명성과 활동에 걸맞는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는 과정에 있고, 나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큰 위안이 되었다.

출발했던 나의 제자리 옛 신라의 서원경(西原京)으로 돌아온 지금,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역사적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뜻 깊은 답사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기행문을 써야겠다.

## 11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거제 거제중학교 정진률

2008년 7월 30일, 답사 첫째 날, 맑음

답사 첫 날이다. 이곳 거제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오전 8시 20분 서울 남부터미널행 차를 탔다. 5시간쯤 걸려 오후 1시경 터미널에 도착했다. 늦을까 싶어 점심도 거르고 서둘러 인천으로 향한다.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동인천역에서 다시 14번 버스를 타고 인천 제1국제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23분이다. 여러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냉큼 사람들 모인 곳으로 가니 연예인 홍석천을 닮은(알고 보니 내 눈에만 닮아 보인 게 아니었다) 1호차 박승준 가이드가 배표와 모자, 자료를 나눠준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환전도 할 겸 터미널을 둘러본다. 여기저기서 중국어가 들린다. 웬지 낯설다. 내가 사는 거제에선 흔히 접하는 영어 말고도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 등을 더 쉽게 들을 수 있다. 조선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 외국인들이 많은 편이다. 터미널 1층에 은행이 있어 환전을

할 수 있다. 여러 번 중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고 중국어에도 능숙한 학교 동료가 중국가면 살 게 많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 중국 인민폐 1,500원을 환전했다(나중에 보니 채 500원도 못 썼다. 도대체 쇼핑할 시간이 없으니 무슨 수로 물건을 사겠는가). 대략 우리 돈으로 235,000원쯤 된다.

오후 5시 30분, 지루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승선이다. 출국 수속 중에 소주 때문에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원래 액체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냥 통과시켜 준다. 야외용 소주라 엑스레이 상에 좀 이상하게 보였나 보다. 후에 이 소주는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유용하게 쓰였다. 318호 선실을 배정받았다. 8인실이지만 6명이 같이 쓴다.

배는 이미 출항을 했고 6시 30분부터는 저녁 식사다. 선내식으로 메뉴는 카레, 탕수육 기타 반찬 등이다. 카레는 그런대로 먹을 만한데 탕수육은 맛이 너무 시큼하다. 그래도 점심을 거른 터라 시장이 반찬이라고 잘도 넘어간다. 사실 나중에 이 선내식이 그리워 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답사단 이외에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보따리 장사들로 먹을거리를 직접 챙겨 와서 먹는단다.

8시 세미나가 있다. 관계자의 이야기로 이번 답사에 총 3,100여 명이 신청해서 그중 350명 정도가 선발이 되었다. 여러 차례 신청 끝에 참가한 분들도 있는데 첫 신청에 탈락 선정이 된 나는 운이 좋은 편인가 보다. 1호차에 탑승할 국민대 장일규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어진다. 피곤해선지 꾸벅꾸벅 조는 선생님도 있다. 졸음을 참으며 강의내용을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었다.

9시 15분, 세미나가 끝나고 선실에서 홀로 컵라면에 소주를 마신다. 같은 선실의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피곤한지 잠을 청하는 모습이다. 먼 바

다로 나왔는지 밤 11시가 넘으니 휴대폰도 불통이 된다. 중국시간으로  
시계와 카메라 시간을 맞추고 잠을 청한다. 어려서부터 큰 배, 작은 배  
가릴 것 없이 많이 타본 터라 흔들리는 배의 좁은 잠자리도 불편한 줄 모  
르겠다.

## 2008년 7월 31일, 답사 둘째 날, 맑음

5시 25분에 일어났다. 다른 선생님이 텔레비전을 켜다. 위성 방송이라  
우리 방송이 잘 나온다. 바깥에 나가보니 간밤에 비가 조금 내려 있었다.  
6시 40분부터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어제 저녁과 비슷한 메뉴의 식사  
를 하고 선실로 돌아와서 짐을 챙겨 하선 대기를 한다.

8시 40분쯤 하선을 하고 셔틀 버스로 석도항 터미널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받는다. 중국 땅에 들어선다는 생각에 약간 긴장이 된다. 다른 사  
람들도 다들 조용하다. 1호차 C조 10명 중 마지막 순번이라 첫 번째 선생  
님이 제출한 비자를 내가 받아서 가야 한다. 여권을 제시하고 대기 중인  
데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잠시 기다리라며 다른 직원을 부른다. 무슨 문  
제가 생긴 건가 했더니, 다른 직원이 달려와선 입국 심사관에게 뭔가를  
건넨다. 알고 보니 단체 비자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 도장을 찍은  
거였다.

입국 수속이 끝나고 버스에 탑승했다. 그런데 버스 좌석 간격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어찌나 불편한지 이동 중에 한 시간 이상 자는 게 불가능했다). 9  
시 10분, 첫 번째 답사지인 성산두 및 진시황 사당으로 출발한다. 가는  
도중에 현지 가이드와 버스 기사 소개 후 인솔 교수님의 사회로 답사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1호차 현지 가이드는 조선족





석도항 전경

(동포 3세)이며, 버스 기사는 중국인으로 손 씨란다(우리 1호차 버스 기사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슈렉을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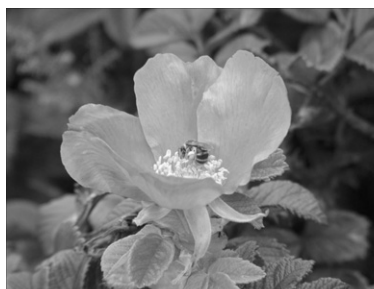
1시간 남짓 달려 10시 26분쯤 진시황 사당에 도착했다. 날씨가 더울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렇게 덥지 않아 다행이다. 진시황 사당은 생각 보다 작다. 뭔가를 기원하면서 굶은 향을 피우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일정 내내 향을 피우는 중국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향은 약간 과장해서 전봇대 굵기 만한 것도 있었다.

진시황 사당보다 나의 관심을 더 끈 것은 진시황 사당 옆의 유세창 장군 사당(유공사)이었다. 유세창 장군은 청일전쟁 당시 일본과의 해전에서 패한 뒤 침몰하는 자신의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한 인물이다. 중국에서의 일정 마지막 날을 보낸 위해시에는 유세창 장군을 기리는 도로(世昌大道)가 있다.

진시황 사당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성산두가 있다. 성산두는 산둥반도의 가장 동쪽 끝에 있어서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렸다고 하며, 그 유명한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 파견한 서복이 이곳에서 동쪽으로 출발했단다. 동쪽으로 간 서복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거제도 해금



산둥반도의 동쪽 끝 성산두



성산두 가는 길목에서 발견한 해당화

강까지도 왔다고 한다. 답사 후 검색을 해보니 서북(또는 서불)이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로초를 찾아 왔다는 전설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고 나온다.

주변을 관찰해 보니 온통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의 색깔은 강력한 붉은 색깔이다. 이런 종류의 화강암은 화학적 풍화에 약해서 잘게 부스러져서 모래로 되기 쉽다. 절벽 곳곳에서 침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모래땅에서 잘 자라는 해당화도 절벽 틈바구니에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바다로 튀어나온 곳답게 언덕에는 등대도 있고, 중국의 영해 기점 방위점임을 알리는 표지석도 설치되어 있다.

성산두 관광을 마치고 점심을 위해 다시 차량으로 이동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해안 풍경은 붉은 화강암 절벽과 그 사이에 펼쳐진 사빈이다. 해안 곳곳에는 풍력 발전기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산둥성은 발농사 위주라는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질과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빈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 많은 모래는 다 어디서 왔을까?

12시 14분, 보슬비가 내린다. 산둥성 차량 번호판에는 첫 머리에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魯 자가 들어간다. 12시 30분에 화하 회관에 도착했다. 호텔에 딸린 식당이다. 처음으로 먹는 현지식이다. 가짓수는 많은데 먹



점심을 한 호텔



봉래로 가는 길목의 고속도로 휴게소

을 게 없다. 그나마 어설픈 김치에 밥이 있으니 다행이다. 쌀이 우리 것과는 다르게 길쭉하게 생긴 인디카(Indica) 종이다. 남은 일정을 생각해 억지로나마 먹어둔다. 벌써 선상식이 그림다. 옆 테이블 중국인 두 명이 옷을 벗은 채로 밥을 먹고 있다. 중국인 남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옷을 잘 벗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호텔에서 그걸 줄은 몰랐다. 점심을 먹고 나니 비가 그쳤다.

오후 1시 18분, 봉래로 출발. 봉래까지는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현지 가이드의 입담이 좋다. 가는 내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 봐도 평탄한 지형이 펼쳐진다. 석도에서 연대를 지나는 동안 단 한 개의 터널도 통과하지 않았다. 주변 경치가 뭐랄까? 제주도 같은 느낌을 준다.

3시 2분, 고속도로 휴게소 도착. 10분 휴식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와는 판판이다. 차에서 내려 담배 피는 선생님이 꽤 많다. 매점에서 캔 커피를 사 마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1호차 기사는 복숭아를 샀다. 저 매점, 오랜만에 매상 좀 올렸을 것 같다.

3시 13분, 다시 출발했다. 10분 휴식이라더니 정말 딱 10분만 쉰다. 강행군이다. 3시 45분경에 봉래의 봉래각 입구에 도착했다. 봉래는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따라서 봉래는

신선들과 관계가 깊은 신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나라 때는 등주로 불렸으며 발해(발해만)와 황해의 경계라고 한다.

옛날 한나라가 위만 조선을 공격 할 때나 수·당이 고구려를 공격 할 때 수군을 발진시킨 곳도 이곳 봉래이다. 예부터 조선업과 해운업의 기지로 일본의 전당사가 중국으로 갈 때 거치는 항구였으며, 7세기 중반에는 많은 신라 상인들이 거주하여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원래는 봉래가 산동반도 북부 최대의 항구도시였지만 황하가 운반하는 엄청난 양의 토사로 수심이 얕아져서 봉래의 동쪽에 위치한 연대가 대신 항구도시로 개발되었다.

봉래각 입구 매표소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키가 1.3미터 이상일 때만 표를 사면 된다. 좀 우습다. 넷째 날 갔던 청주 제나라 박물관 앞에 있는 공원도 이런 식으로 표를 팔았다.

중국에선 관광지 등급을 영어 알파벳 A의 개수로 매기는데(개수가 많을수록 불만한 관광지), 봉래각은 AAAAAA(6A)급 관광지다. 봉래각 외에도 천후궁, 용오궁, 여조전, 삼청전 등이 있는데 그중 봉래각은 중국의 4대 누각 중의 하나이다. 봉래각 내부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글씨와 청일전쟁 당시 포탄을 맞은 흔적 등이 남아 있으며, 8명의 신선(팔선)상이 모셔져



봉래각



등주수성



봉래각 입구 매표소의 키 측정 기구



명나라 때 왜구를 토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척계광 장군

있다. 높은 누각에 올라 바라보는 전망에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다.

5시 30분, 봉래각 근처에서 이른 저녁 식사를 했다. 역시 중국식 음식들이 나온다. 점심보단 그럭저럭 먹을 만하다. 상보를 비닐로 해냈는데, 여러 수십 겹이다. 손님 치를 때 마다 한 겹씩 벗겨 내는 모양이다. 식사를 마치니 6시다.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 여 종업원이 나를 뺏히 쳐다본다. 나도 뺏히 쳐다봤더니 씩 웃는다. 6시 20분 출발이니 시간이 좀 남았다. 가까운 바닷가로 걸어 나가니 봉래각에 모셔져 있던 8신선 상이 여기도 있다. 그래, 봉래는 신선의 도시지! 그리고 보니 저녁을 먹은 식당 이름도 팔선관이다. 바닷가에는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래사장의 폭은 좁지만 길이는 꽤 길어 보인다.

정확히 6시 20분 오늘의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출발했다. 유방까지는 3시간이 걸린다. 땅이 넓다 보니 한 번 차를 타면 2, 3시간은 기본이다. 장거리 이동 중엔 어김없이 장보고 관련 영상을 틀어준다. 열심히 보다가 저녁 7시 10분 휴게소에서 또 정확히 10분을 쉰다. 중국 고속도로 휴



유방의 밤풍경(나비는 유방의 상징)



어렵게 찾아낸 상점

계소에서는 과일도 파는데 수과(水果)라고 되어 있다. 7시 20분 출발. 정말 정확하다. 2시간만 더 가면 된다. 오늘 목을 숙소에 대한 현지 가이드의 친절할 설명이 이어진다.

밤 9시, 호텔(부화대주점)에 도착했다. 방을 배정받고 샤워하고 짐정리를 하니 9시 45분이다. 이 호텔은 시 외곽에 있어서 반경 2킬로미터 내엔 아무 것도 없단다. 시내 나가려면 택시를 타야하고, 택시 타고 나갔다가 무슨 일 생겨도 자긴 책임 못 진다는 현지 가이드의 약간은 겁을 주려는 듯한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호텔 1층의 상점에선 맥주 1병이 인민폐 10원으로 비싸서, 옆 방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4명이서 맥주를 사러 나가기로 한다. 말도 안통하고 어두운 거리를 넷이서 10여 분 걸어가니 허름한 상점이 있다.

여기선 맥주 1병이 2원 5각이다. 호텔의 4분의 1 가격이다. 손짓 발짓으로 맥주 5병을 샀다. 더 사고 싶었지만 냉장고에 든 게 5병뿐이었다. 맥주는 시원한 맛에 마시는 것이 아니던가? 5병을 네 명이서 나누어 마시고 나니 벌써 12시다. 침대에 누웠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신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얘기로 시끄럽다.

2008년 8월 1일, 답사 셋째 날, 흐림

정확하게 5시 30분 모닝콜이 울린다. 6시 30분에 호텔 로비에 집결 후 호텔 2층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그럭저럭 먹을 만한데, 닭고기에 향채가 들어갔는지 화장품 맛이 난다. 식사 후 버스를 타고 출발을 기다리는데, 간밤에 작은 사고가 있었나 보다. 이야기인즉, 선생님 한 분이 호텔 로비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는 것이다. 다행이 잘 처리가 되긴 했는데 덕분에 출발이 30분 늦어진단다. 단체 비자라 한 사람이라도 여권을 분실하면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된다. 오늘은 제나라 역사박물관, 순마갱, 태산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말로만 듣던 태산을 간다니 기대가 크다.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거라 감동을 덜 하겠지만 유명한 만큼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해 본다.

7시 57분 출발. 치박에 속하는 임치는 제나라의 수도로 그 유명한 강태공, 관중, 포숙아의 고향이다. 현대 축구와는 다르지만 축구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1시간 남짓 달려 9시 8분경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도착. 비가 조금 내린다. 생각보다 작은 규모다. 3A급 관광지로 제나라 왕궁 터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가지 전시품이 있었지만 축구의 발상지라는 게 가장 놀라웠다.

박물관 앞 사거리엔 재래시장이 있어서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간이 허락하면 재래시장에서 물건도 사면서 중국인들의 삶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아쉽다. 길가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도 많다. 활기찬 모습이 인상 깊다. 빨간 옷을 입은 아줌마가 차 옆을 지나가면서 차창 너머로 나를 뵈히 쳐다본다.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린다.

9시 53분, 순마갱으로 출발. 차창 밖 아침 시장을 보고 자전거로 귀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진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



제나라 역사박물관



제나라 역사박물관 앞 시장 풍경

많으니 자전거가 필수품이다. 10시 8분 순마갱에 도착했다. 상당히 외진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순마갱에 매장된 말이 600필이나 된다고 하며, 모두 수말이다. 그냥 말들이 불쌍하단 생각만 든다. 이곳 기념품점에선 우리 돈도 받는다(나중에 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우리 돈을 받기도 했다). 순마갱 앞 공터엔 아침부터 여러 사람이 모여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10시 25분 출발. 이 지역은 완전히 평평한 평원지대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산이 없다. 밭엔 거의 옥수수를 심었다. 어디 논이 없나 둘러봐도 끝없이 옥수수 밭만 이어진다. 11시 45분 어느새 해가 난다. 좌석 간격이 좁아 다리를 펼 수 없어서 무릎이 아프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옥수수 밭이 슬슬 지겨워진다. 12시 4분, 드디어 휴게소다. 아픈 다리를 좀 풀어주고 12시 16분 다시 출발. 옆 선생님이 중국 과자를 권해서 먹어보니 과자에서도 향채 맛이 나는 것 같다.

제남시로 접어들니 드디어 논이 보인다. 논이 있으니 꼭 우리나라 시골 풍경이다. 잠시 보이던 논이 사라지고 보이는 건 다시 옥수수 밭이다. 태산이 가까워지는지 이제는 제법 산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니 중국에서의 첫 터널도 통과했다. 일정표를 살펴보니 곡부가 빠져 있다.



분명히 답사 공고 때는 곡부가 일정에 있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12시 56분, 만덕 요금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간다. 태산은 산둥성 태안시에 자리 잡고 있다. 태안시는 우리나라 충남 태안군과 지명이 같아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1시 11분, 점심을 할 식당에 도착. 역시 중국식으로 점심을 마무리하고 작은 버스로 갈아탄다. 태산 등반 전에 얼음물을 준다는 현지 가이드 말에 잔뜩 기대했는데, 받아든 생수를 보니 얼음물은 고사하고 거의 미지근한 수준이다. 케이블카가 있는 중턱까지는 버스로 가고, 케이블카로 산을 올라 조금 걸으면 정상에 도착한다.

태산은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1,545미터이며, 중국 고유 신앙인 도교와 관련 깊은 산이다. 옛날부터 천하제일의 산으로 칭송받았으며 자연 경관을 물론이고, 신앙의 산으로도 추앙받아 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돌비석 등의 옛 유적과 종묘 등 볼 것이 많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다. 중국 5악 중의 하나로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봉선 의식)를 올리던 곳이다. 태산에 한 번 오르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인들도 누구나 한 번은 오고 싶어 하는 곳이다.

1시 54분, 작은 버스에 나누어 타고 출발을 했다. 내가 탄 버스가 가장 먼저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달린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태산 기슭을 보니 군데군데 돌출한 화강암이 보인다. 성산두에서 본 것 같은 붉은 화강암이다. 색깔만 다르지 서울 북한산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표 끊는 곳에서 잠시 뒤회를 기다린다. 2시 28분,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다. 케이블카 탑승장의 소화기구가 눈길을 끈다. 베이징 올림픽 때문인지 케이블카를 타는데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근데 웃긴 건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났는지 모니터엔 아무것도 안 보였다. 머쓱한지 기계 조작하는 공안도 저희들끼리 웃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웃었다.



태산 케이블카 탑승장의 소화기구



태산 오르는 케이블카에서 본 풍경

케이블카로 10여 분 올라가니 도착이다. 모든 선생님들이 모이길 기다렸다가 태산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진다. 너무나 학구적인 답사다. 다들 어찌나 열심히 듣던지. 우리 답사단이 올라온 뒤론 케이블카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다들 걸어서 올라오나 보다. 다음엔 꼭 걸어서 올라오고 싶다. 태산 정상에는 호텔이 여러 개 있는데 물이 귀해서 샤워는 불가능하고, 불이 나면 큰일이라 화장실 외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단다. 적발되면 벌금이 100달러라나.

케이블카에서 내려 조금 걸으면 천가(天街)에 이른다. 말 그대로 하늘과 맞닿은 거리라는 뜻이라. 여러 상점과 숙박업소 등이 밀집하여 과연 여는 도회지의 변화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천가를 지나 한동안 걸으면 절벽에 많은 글씨를 새겨놓은 곳에 도착한다. 한자로 많은 글들이 새겨져 있었지만 실력이 부족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글귀는 별로 없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바위에 새겨진 글씨에 페인트로 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비바람에 지워진 붉은 페인트를 다시 채우는 사람들이 웬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글씨가 새겨진 절벽을 지나 조금 계단을 오르면 태산 정상에 자리 잡은 옥황정을 만난다. 옥황정에는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채워



천가



천가와 옥황정 사이의 절벽

놓은 듯한 자물쇠가 많았다. 비슷한 길 N서울타워에서 다들 보셨으리라. 사람들의 성정은 어딜 가나 비슷한가 보다. 여기서도 중국인들은 향을 피운다. 엄청 굵은 향을 피우는데, 향이라고 하기에는 향을 태우는 연기가 너무 매웠다. 내려오는 길에 보니 계단에 해발고도를 표시한 게 눈에 띄었다. 오를 땐 위를 보고 가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내려올 땐 보였다. 태산의 전체적인 느낌은 남해도의 금산이나 북한의 금강산과 비슷했다.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악산이기 때문이리라.

4시 30분, 내려오는 케이블카에 탑승했다. 밑으로 내려와 사람들이 내려오길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소형 버스를 타고 점심을 했던 장소로 이



옥황정(전봇대만한 향이 보이는지?)



계단에 새겨진 해발고도

동한다. 5시 25분경에는 임치로 출발했다. 오늘 왔던 길을 그대로 되밟아 가는 여정이다. 중국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방해되면 갓길로 가는 게 예사다.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중국 고속도로엔 속도 하한선이 없는 것이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초 저속으로 운행해서 버스가 급히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5시 58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출발 때부터 시작된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되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손모양이 항마촉지인, 약사여래불은 왼손에 약단지, 비로자나불은 지권인, 아미타불은 일명 ‘돈 줄래, 맞을래?’ 등등 해박한 지식의 향연이 계속된다. 대단한 열정이다. 더 대단한 건 너무나도 열심히 듣는 선생님들이다.

저녁 7시 9분, 휴게소에서 휴식이다. 이 휴게소에는 책을 파는 서점이 있다. 지도가 있나 싶어 둘러보니 도로 지도책이 있다. 그런데 휴게소 조명이 어찌나 어두운지 책 내용을 훑어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도 지도를 살 기회는 지금 뿐이다 싶어 손짓 발짓으로 68원을 주고 한 권을 샀다. 싼 건 48원, 비싼 건 88원이다.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도 8로 끝나는 게 많다.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어에 능숙한 동료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돈을 번다는 의미의 발(發)과 발음이 비슷해서 숫자 8을 유독 좋아한다.

8시 7분, 오늘의 숙소인 제도호텔(제도대주점)에 도착. 제도호텔의 ‘제도’는 제나라 수도라는 의미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진다. 숙소 배정도 하기 전에 곧바로 호텔 5층의 연회장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서두른다. 저녁 식사 중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식사 중 옆 선생님이 실수로 내 물잔을 깨뜨려서 종업원에게 치워달라고 했더니 잔 값 15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국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기분이 아주 나빴다. 중국 말을 전혀 몰라 종업원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 답답했다.



제도호텔에서 바라본 임치의 아침 풍경

기분이 나빠 종업원에게 영어로 왜 잔 값을 우리가 내야 하는지 따져 물어도 종업원은 그냥 웃을 뿐이다. 15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잔 값을 달란다. 옆 선생님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100원을 종업원에게 주니 잔 돈을 가지러 간다. 영수증에 쓰인 것을 대충 눈치로 보니 손님이 잔 1개를 깨뜨렸고, 잔 값은 15원이라는 내용이다. 잠시 후 종업원이 90원을 가져와서는 잔 값이 15원이 아니라 10원이라며 영수증을 다시 가져가 버린다. 10원짜리 영수증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끝내 가져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숙소를 배정받고 기분도 풀 겸 어제와 마찬가지로 맥주를 사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오늘 산 맥주는 1병에 3원, 총 6병을 샀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옆방 선생님들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12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다.

## 2008년 8월 2일, 답사 넷째 날, 흐림

5시 30분에 해준다면 모닝콜은 없었지만 5시 35분에 기상을 했다. 씻고 짐을 챙겨 차에 짐을 싣고, 중국식 뷔페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어제와 비슷비슷한 음식이다. 대충 챙겨먹고 7시 20분에 버스를 타고 강태공 사당으로 향한다. 7시 30분, 그 유명한 강태공을 모신 강태공 사당

에 도착했다. 규모가 그리 크진 않다. 강태공 사당 앞 공터에선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얼핏 보니 세팍타크로와 비슷해 보인다. 여자들도 다리가 쪽쪽 올라가는 게 실력이 남자 못지않다.

강태공 사당에서 다시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강태공 사당의 좌우 건물에는 용마루가 없다. 강태공 사당 앞거리는 제나라 환공의 이름을 따서 환공로(桓公路)이다. 넘쳐나는 사람들로 활기를 띤다. 짧은 치마를 입고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여성도 있다.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가 뒤엉켜 위험해 보이면서도 이리 저리 잘도 피해간다. 강태공 사당 옆에 대형 마트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구경하진 못했다. 마트 옆의 패스트푸드점엔 아침을 사먹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8시 15분, 고차박물관으로 출발. 교수님 강의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다. 엄청난 체력이다. 8시 42분에 고차박물관에 도착했다.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아래에 위치하는데, 고속도로 공사 중에 유물이 발굴되어 그렇다고 한다. 전시물은 거의 복제품이고 진짜는 발굴된 말뼈와 마차뿐이라고 한다. 3A급 관광지이다. 중국의 각 시대별 수레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입구에 만승일람(萬乘一覽)이라고 글씨가 쓰인 문이 있다.



강태공 사당 앞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강태공 사당(홍석천 님은 1호차 가이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고차박물관 입구



발굴된 마차와 말뼈(고속도로 지하)

9시 18분, 청주박물관으로 출발. 9시 45분 도착. 박물관에 입장하자마자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된다. 살인적인 일정이다 너무나 학구적인 답사다. 30분간의 강의를 끝나고 관람이 시작되었다. 청주박물관은 용흥사라는 절터 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불상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온전한 것도 있었지만 머리만 남은 것, 손이 떨어져 나간 것, 몸통만 남은 것들도 많았다. 답사 자료를 보니 1996년에 불교 조각상 400여 점이 출토됐으며, 그 재질은 석회석, 한백옥, 화강암, 질그릇, 철, 나무 등으로 다양하다.

부처의 종류도 불, 보살, 나한, 비천 등으로 다양하며 연대는 가장 빠른 것이 북위시대인 529년의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북송시대인 1024년의 것으로 약 500년에 걸친 문화재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있다. 박물관 앞에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입장료는 15원이고 키가 110센티미터가 안 되는 아이는 무료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 선물용 술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을 찾았다. 조금 걸어 나가니 金天地超市라는 슈퍼가 있다. 대충 눈치 챘으리라. 그렇다 超는 super, 市는 market인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충 두 개를 골랐다. 아마 10분도 안 걸렸을 거다.



청주박물관



술을 구입한 금천지 슈퍼마켓

11시 23분에 출발을 해서 12시 40분경에 유방에 위치한 식당에 도착했다. 역시 중국식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그새 중국 음식에 익숙해졌는지 먹을 만하다. 수더분하게 생긴 여종업원이 되게 친절하다. 잘 먹었다고 회화책에서 외워 둔대로 “즈 하오러(吃好了).”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즈 더하오(吃得好).”란다. 역시 책에 나온다고 다 맞는 건 아니다. 1시 25분, 중국에서의 마지막 숙소가 기다리는 위해로 출발했다. 앞으로 장장 4시간 30분을 달려야 한다. 그냥 자는 게 답이다. 그런데 좌석이 너무 불편해서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잘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가 그냥 자도록 내버려둘 교수님도 아니었다.

3시 24분,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매점에서 배를 파는데 꼭 서양 배처럼 생겼다. 쏘쓰푸의 운전 솜씨가 좋아서 생각보다 일찍 위해에 도착할 것 같다. 아침엔 흐리더니 오전부터 해가 나서 중국에 와서 가장 더운 날이다. 쏘쓰푸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암만 봐도 쏘쓰푸는 슈렉을 닮았다.

3시 44분 출발. 무슨 일로 20분이나 쉬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리라. 5시 10분경 고속도로로 요금소를 나와 위해 시내로 접어든다. 답사 일정 중 처음으로 버스가 주유소로 들어간다. 기름을 넣는 줄 알았더니





휴게소에서 과일을 파는 모습



슈렉을 담은 쏘쓰푸

그게 아니다. 왜 주유소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 5시 22분 다시 출발한다. 위해는 인구가 60만인데, 그중 10퍼센트가 한국인이란다. 상당히 변화한 도시다. 다른 중국도시들과는 느낌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여느 도시 같은 느낌이다. 지금 달리는 도로의 이름은 世昌大道다. 기억이 나 시는가? 진시황 사당 옆에 있던 유세창 장군의 사당(유공사)이 그렇다. 이 도로는 청일전쟁 때 침몰하는 자신의 배와 운명을 같이한 유세창 장군의 이름을 딴 도로인 것이다.

5시 44분에 드디어 저녁 식사를 할 식당에 도착했다. 상호는 서울 숯불고기 뷔페. 여긴 모든 게 한국식이다. 간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행복한 표정이다. 소주가 있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50원이라네. 우리 돈으로 거의 8,000원이다. 우리 일행은 내가 가져간 소주로 정말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도 한 병을 건넸더니 다들 좋아 하신다. 동아일보사에서 났다는 저녁을 정말 잘 먹은 후 밖으로 나왔다. 길거리에 잡지, 신문 따위를 파는 가판대가 있어 지도를 찾았더니 1장에 6원이라네. 우리나라 같으면 홍보용으로 마구 나누어줄 정도의 지도가 6원이면 좀 비싸다.

아무튼 이 도시는 너무나 활기차다. 다른 도시의 변화가에 이른 시간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다들 행복하고  
호뜻한 표정이다.



식당 근처 길거리 풍경. 일정 중 갔던 다른 도시  
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에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도시에 비해 여긴 너무나 활기차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온 것 같다. 이 도시의 10퍼센트가 한국인이라니 어찌면 한국의 어느 도시와 분위기가 비슷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7시 26분에 출발하여 7시 33분 계명홀리데이 호텔(啓明假日酒店)에 도착했다. 내일은 6시에 모닝콜을 해준다고 한다. 7시에 아침 식사다. 이 호텔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화교 출신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여태껏 묵었던 다른 호텔과는 달리 욕실엔 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있고, 식수 밸브가 따로 있으며, 콘도도 아닌데 싱크대와 인덕션레인지가 있는 게 특이했다.

짐을 풀 뒤 역시나 옆 방 선생님들과 함께 시내 구경을 나간다. 운동 삼아 걸어 나가느라 시간이 꽤 걸렸다.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여름밤을 즐기고 있다. 좌판을 벌여놓고 물건을 파는 이도 있고, 배드민턴을 치거나 강태공 사당 앞에서 봤던 세팍타크로 비슷한 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장 구경도 하고 맥주도 사고, 사려다 말았던 위해서 지도도 5각을 깎아서 5원 5각에 사서 돌아오는 길엔 택시를 탔다. 요금은 미터기에 찍히는 대로 받는다.



좌판에서 물건 파는 모습



시장 풍경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이튿날 아침 호텔 앞 바다 풍경

## 2008년 8월 3일, 답사 다섯째 날, 맑음

실질적인 답사는 오늘까지다. 6시 5분에 일어나서 씻고, 짐을 챙겨 로비에다 두고 7시부터 아침 식사다. 역시 뷔페식이지만 어제 저녁을 제외하곤 이번 답사 중 가장 입맛에 맞는 음식이다. 이 호텔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호텔 양 옆과 뒤쪽은 아파트다. 같은 건물인데 앞쪽은 호텔, 뒤쪽은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조금 특이하다. 8시 13분 드디어 출발이다. 목적지는 이번 답사의 핵심인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이다.

9시 36분, 적산법화원에 도착해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 나로선 이번 답

사 중 세 번째로 찍는 인물 사진이다. 한 장은 성산두에서, 또 한 장은 태산 올라가는 케이블카에서, 마지막 한 장은 이곳에서 찍었다. 태산 케이블카에서는 다른 선생님 카메라로 찍었고, 성산두에서 찍은 사진은 표정이 맘에 안 들어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찍은 사진만 남았다. 애초에 인물 사진은 안 찍겠다고 다짐했기에 별 아쉬움은 없지만 목표한 풍경 사진과 지형 사진을 생각보다 많이 찍지 못해 아쉽다.

적산은 4A급 관광지다. 15미터 높이의 장보고 기념탑에서 30분 정도 교수님 강의를 듣고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유 관람이다. 먼저 장보고 기념관을 관람한다. 산뜻하게 꾸며져 있다. 기념관 안마당은 기단을 제외한 높이만도 8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장보고 동상이 지키고 서있다. 장보고 기념관에는 장보고의 입당 배경, 무령군 중군소장으로의 활약상, 적산법화원 건립, 청해진 창설, 해적 평정, 노예매매 근절, 해상무역 활동, 해신으로서의 장보고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인 엔닌에 관한 내용도 일부 전시되어 있어 장보고의 활약이 신라, 당, 왜 삼국을 아울렀음을 알 수 있다. 기념관 다음은 적산명신이다. 적산명신은 중국인들이 옛날부터 숭배하던 신이라고 한다. 일단 그 거대한 규모에 입이 벌어진다. 적산명신에 이르려면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 단숨에 올라가니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발아래에 펼쳐진 석도 앞바다와 적산법화원의 전경에 눈이 즐겁다.

눈이 즐거운 멋진 경치에다 시원한 바람을 곁들여 즐긴 후 적산법화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창건한 절로 당나라에 가는 사람은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일본 천태종 3대 좌주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와 적산법화원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적산법화원 대웅보전 뒤쪽으로는 붉은 화강암이 두드러져 보이는 산이 자리 잡



적산법화원 입구에서 찍은 사진



적산명신상에서 내려다본 석도 바다



적산명신



적산명신상에서 바라본 장보고 기념관과 법화원

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산 이름이 적산(赤山)이다.

적산법화원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 대웅보전 뒤에는 삼불보전이 있고, 대웅보전과 삼불보전 옆에는 관음전이 있는데, 관음전 앞의 관세음보살상이 장관이다. 관음전 다음은 엔닌 입당구법관과 적산각이 나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4층 높이의 적산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역시 나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적산각 뒤 산등성이엔 6~7층 규모의 탑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가보지 못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전부 옛 적산법화원의 영역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 규모로 미루어 장보고의 위상과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한 신라인 사회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적산법화원 대웅보전



관음전과 관세음보살상



적산각에서 바라본 풍경. 멀리 적산명신상과 석도 앞바다가 보인다.



석도 여객선 터미널 내 매점. 시알리스, 비아그라라고 써어진 종이를 보시라!

법화원 관람을 마무리 짓고 기념품 가게에 들렀다. 이제껏 산 것이라고는 술 2병이 전부다. 가족에게 줄 기념품으로 도자기로 된 12지상 중 가족의 띠에 해당하는 소, 용, 말을 골랐다. 개당 20원인데, 100원짜리 지폐를 주니 종업원이 손으로 돈을 문질러 본다. 위조지폐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오후에 출국 수속 후 들른 면세점에선 우리 돈 만 원짜리도 위조지폐인지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위조지폐가 많이 유통되나 보다. 참고로 마오쩌둥의 옷깃이 까끌까끌해야 위조지폐가 아니라고 한다.

오후 1시 5분, 장장 3시간 30분에 걸친 관람을 마치고 점심을 위해 식당으로 출발했다. 식사 후 식당 앞에서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며 답소를 나눈다. 2시 15분, 드디어 터미널로 이동한다. 마음은 벌써 인천에 닿아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가족도 새삼스레 생각한다. 3시 25분, 출국 수속 후 배에 탑승이다. 출항은 밤 8시인데, 왜 이리 배를 빨리 타나 했더니 4시가 되면 중국 공무원들이 퇴근해야 하기 때문이란단. 덕분에 일정 중 처음으로 느긋한 시간을 보낸다. 선실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318호 8인실이다. 고향에 돌아온 듯 반갑다.

선실에 짐을 가지러 들어온 조선족 보따리 장사 아주머니를 만났다. 보따리 장사일로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곤 매일 배를 타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간다고 한다. 예전엔 별이가 꽤 괜찮았는데 요즘은 별로란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느라 저녁 먹을 때까지 지루한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다.

6시 30분에 육개장과 돼지 수육으로 저녁을 먹고 선실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낸다. 8시 10분이 되니 배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밖에 나가보니 작은 배가 우리 배를 이양시키고 있다. 이양이 끝나자 연결된 밧줄을 풀고는 가버린다.

## 2008년 8월 4일, 답사 마지막 날, 안개 후 맑음

어제 피곤했는지 10시도 채 못 되어 잠이 들었다. 중간에 한 번 잠이 깼다가 3시 40분쯤 일어났다. 시계와 카메라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맞춘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다. 도착 예정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중국으로 갈 땐 한 시간을 벌지만, 다시 돌아올 땐 한 시간을 까먹는다. 5시 10분, 밖에 나가보니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밝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바람이 차다. 7시가 되니 아침 식사다. 콩치구이와 콩나물 무국



우리를 반겨준 건설 중인 제2 영종대교



보따리 장사 아주머니가 준 중국 복숭아

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하선 준비를 한다. 다시 밖에 나가보니 어느새 건설 중인 제2 영종대교가 우리를 반긴다.

9시 5분, 하선이다. 이제 옛새 동안 정들었던 일행들과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이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작별을 한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답사였다. 참가한 교수님, 선생님들, 가이드님, 버스 기사님 모두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답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배에서 만났던 보따리 장사 아주머니가 중국 과일은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나에게 맛보라고 준 중국 복숭아가 생각났다. 과일은 국내 반입 금지라 하나는 먹고 하나는 선실에 그냥 두고 왔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 보따리 장사 아주머니는 318호 선실을 찾으리라. 복숭아가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겠지.



## 12 200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대전 산성초등학교 차민경

첫째 날 : 8월 6일, 수요일(대전-인천-중국행 화동궤리 승선)

문득 2007년에 완도 소재 상황봉 등산을 한 기억이 떠올라 사진을 찾아보았다. 비가 올 때 강행한 산행인지라 더 인상에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장보고를 지도할 때에는 그저 간단히 무역선, 청해진, 중국의 산둥반도, 통일신라, 일본과의 관계 등 단어적으로만 설명을 했었다. 그러나 요즘엔 이런 막연한 지도상의 문제점이 줄었다. 장보고 사이트를 알게 되어 효과적이었고 다양한 설명과 멀티미디어 자료에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였다. 해신의 드라마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었다. 그랬는데 이제 진짜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떠난다고 생각하니 뜻 모를 설렘에 가슴이 들떠 있었다.

아침부터 서둘러 고속버스에 올랐다. 같은 지역 교사들 세 분과 함께 인천에 당도하여 택시를 타니 택시기사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등 인천 자랑이 한창이다. 컨테이너들이 산적해 있는 쪽 뺨은 도로를 달려 국제



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코끝을 스친다.

3차 답사단과 미팅 후 2호차로 팀을 배정 받고 출국심사를 거쳐 서틀버스로 이동하여 화동훼리에 승선하였다. 312호 선실에 짐을 풀고 예쁜 병아리 선생님 세 분과 상견례를 하였다. 답사단에 당첨된 행운에 서로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저녁 식사 시간엔 답사팀만 팀별로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아마도 서로 안면식도 익히고 5박 6일의 일정이 모조록 화기애애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진에서 배려를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8시 40분쯤 선상 세미나에서 온누리 여행사 김성호 과장님은 동아일보사와 국토해양부에서 격려차 나오신 분들 및 각 팀

별로 1호차 허부문 교수님, 2호차 이유진 교수님, 3호차 남무희 교수님 소개에 이어 호차별 담당 팀장을 소개하였다. 이윽고 우리의 목적지인 산둥성에 대하여 허부문 교수님의 선상 강의를 있었다. 요약하면, 산둥성의 역사지리, 주요 산물, 산둥반도와 한국과의 관련성, 또한 시대적 배경에 따른 장보고의 일대기, 특히 장보고를 이해하려면 산둥성을 비롯한 중국도 봐야 한다는 말씀에 중국사에서도 그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아니지만 그가 그 시대에 건너다녔을 그 바다를

이렇게 건넌다는 생각에 짜릿한 흥분이 온몸을 감도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엔 장보고, 그의 생각에 잠을 설칠 것만 같다.

### 둘째 날 : 8월 7일, 목요일[석도-영성(성산도)-봉래(봉래각)-유방]

5시 10분(한국시간 6시 10분, 앞으로는 중국시간으로만 기재)에 기상하여 서둘러 갑판으로 나갔다. 인천에서 400킬로미터를 떠나 석도에서 이렇게 선상에서의 화려한 일출을 본다. 중국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7시에 식당에서 감자 양파국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우리 일행은 하선 준비를 하였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 재잘대며 옷을 차려입고 안내방송에 따라 하선을 한 후 셔틀버스에 옮겨 탔다.

출국 수속 장까지 가는 길이 마치 납치된 선원이 해결이 잘되어 풀려나는 것 같다는 옆 선생님의 말씀에 문득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낯선 곳이어서 그런 긴장감이 든 것은 아닐까? 여하튼 관문을 뚫고 무사히 지나야 한다는 주변의 넋두리를 주고받으며 서로들 짐을 챙겨 주었다. 2호차 단체비자를 6번째로 검색대를 지나올 때는 괜히 가슴이 콩닥거렸다. 나만 그랬나? 멀치도 고추장도 다 그대로인 걸 ♪



9시 반쯤 2호차에 올랐다. 현지 가이드가 올라왔다. 웃음소리가 특이한 그가 설명하는 오늘 경유지를 요약하면, 산둥성은 태산을 기준으로 산둥성과 산서성, 황하를 중심으로 하북성과 하남성, 장강(양자강)을 중심으로 호남성과 호북성으로 나뉘고, 또한 산둥성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위치하며 고속도로 길이가 제일 긴 것이 특색이란단.

성산두는 산둥성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해상일출이 일품으로 신선 숭배 사상이 있어 바다의 여신을 모신 천후궁과 태양신을 모신 일주사를 두었다. 시황묘가 있는데 진시황의 행궁은 동쪽으로 순수를 3번 온 중에 두 번을 성산두에 올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성산산맥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성산두는 바다 밑으로는 요동반도, 장백산맥과도 연결된다고 한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우리는 성산두의 높다랗게 세워 놓은 동천문을 지나 진시황 사당에 도착하였다. 허 교수님의 강의로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 곳곳에 비석과 흔적을 남겼으며 열심히 살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 밤늦도록 일을 하였다 한다. 불로장생의 욕망 때문에 서복을 파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불로초는 분서갱유가 일어나는 이유로도 작용하였다는데 과연 인간 욕망의 극치는 불로장생이 아닌가 싶다. 우리도 항상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휴식 후 12시쯤 승차하여 각자 자시 소개를 하며 버스를 달려 1시에 화회관에서 점심을 하였다. 중국식이라도 먹을 만하였다. 중국무협영화에서도 자주 나와 맛보고 싶던 하얀 찐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1개로도 요기가 될 만 하였다. 탕탕한 속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 간도 안한 그 저 깔끔한 맛이었다!

1시 40분, 우리는 차를 달려 봉래로 출발했다. 가이드는 성산두가 진시황과 관련 있다며 봉래는 한 무제가 지어준 이름으로 삼신산(봉래, 영주, 방장)의 전설이 있다고 한다. 기이한 자연현상으로 신기루처럼 바다에 아름

다운 산의 영상이 나타났으나 다음에 가보니 없어 그곳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라 이곳을 봉래라 이름 하였다는 곳이라 한다.

4시 10분경, 봉래각 매표소를 지나 매미소리 요란한 편백나무 그늘에 모여 2호차 이 교수님 강의를 들었다. 작으신 체구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이론은 마치 어렸을 때 채집했던 노란줄무늬 거미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 나오듯 술술 서슴없이 그 시대로 우릴 몰고 가셨다. 요약하면, 봉래(등주)는 한반도와 발해 및 일본으로 나가는 항로로서 신라 조공사 및 일본의 견당사 등의 공식사절이 이용하였으며, 이곳 등주에서 낙양, 장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한 무제의 고조선 침략 시 수군이 출발한 곳이며 수 문제와 양제의 고구려 침략 시 주라후의 수군이 출발한 곳, 소정방의 백제 정벌 시 출발했다고도 고서에 전한다.

838년 일본의 제19차 견당사 파견 때 엔닌이 함께 와서 9년간 중국순례여행을 마친 후에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일기 형식의 기행문을 남겼는데 재당신라인과 장보고 및 한반도 출신들의 인물과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사관 기능을 담당하던 신라관 발해관이 있어 공적 민간인의 사무를 관장했다 한다.

말씀 뒤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봉래각에 올랐다. 이어 소동파의 시, 태상노군, 원시천존, 윤보천군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었다. 해양안전을 기원하는 천후궁, 북송 때 세워진 등주수성, 등주 갯벌에서 발굴한 원대의 고대 선박을 전시한 박물관을 차례로 관람한 후 내려왔다. 등주는 고대와 중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으나 후에 토사가 쌓이면 서 수심이 얕아져 군사적 항만 요충지로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단지 작은 고깃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실감했다.

6시에 유방으로 향했다. 30분쯤 차를 타고 해선부팔선궁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역사 스페셜(DVD 자료)을 감상하며 유방으로 달렸다. 휴게소

에 잠시 들렀다가 10시가 갓 지나 유방시에 있는 부화대주점에 여장을 풀었다.

### 셋째 날 : 8월 8일, 금요일

[유방-치박(제나라 역사박물관, 순마갱)-태산-치박]

5시쯤 일어나 숙소를 정리한 후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30분쯤 차에 올랐다. 조금씩은 피곤한 기색들이 엿보였다. 그래도 오늘 가는 곳에 대한 기대감에 팸플릿을 들추어 보았다. 1시간쯤 지나 8시 50분에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도착하였다. 현판 글씨는 강택민이 썼다고 한다. 대문구문화



와 용산문화, 제경궁대의 손무, 제위왕대의 손빈, 소머리에 칼을 매달고 전쟁에서 이긴 전투도 등이 눈에 띄었다.



9시 40분에 순마갱으로 이동하였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는 옥수수 밭이 무수히 펼쳐져 있었다. 들에는 일하는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밭은 2년 3모작이 가능하며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벼농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순마갱에 도착하여 허 교수님의 강의로, 주문왕 희창이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 은나라를 멸망시킴으로 해서 강태공에게 제나라를 주었다. 후대에 당시 제나라에 하극상이 일어나 강제(강씨의 제나라)에서 전제(전씨

의 제나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순마갱은 공자와 동시대 사람인 동주의 제경공이 말을 좋아하여 무덤의 부장품으로 4~5살 정도의 수말 600마리 정도를 묻었다고 한다. 그 당시 전차가 말 4필이면 가히 그 규모를 상상할 만하다. 말뼈의 배치상태로 보아 그냥 묻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나란히 정렬하여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일부 발굴에 그쳤다고 한다.

10시 25분, 그 긴 도로를 달려 1시 15분에 태산령지대주점(泰山灵芝大酒店)에서 점심을 했다. 다들 시장하여 중국식이라도 맛있게 먹었다. 맥주나 콜라도 한 잔씩 하면서.

2시 정도에는 식당에서 소형버스로 갈아타고 태산 골짜기로 들어섰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 외길이며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하나 계곡물에 발 담그고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시 23분경에 도착하여 개표 및 가방 검사를 한 후 케이블카로 태산을 올랐다. 아래로 보이는 경관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으나 산이 가파르고 등산로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8월 말쯤엔 태산등반대회도 열린



다고 한다.

정상 쪽에는 상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었다. 케이블카로 짐도 실어 나르는 것이 보였으나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은 등짐으로 지어 날랐다. 드디어 천가(케이블카가 도착한 상점거리)에 도착했다. 이어 백운정, 중승, 유신문, 벽하사, 천하대관, 공자소천하처, 무자비 옥황정에 올랐다.

천가까지 내려오는 골짜기 아래로 열린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어 골짜기 저편은 알 수 없는 구름발 같았다. 높긴 높은 산인가 보다. 그래도 백두와 한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산인데, 하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 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정비가 안 된 가파른 산행이 어려워서 그랬던 듯싶다. 오늘은 케이블카를 타고 왔을지언정 태산을 내발 아래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의기양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5시 20분, 하산하여 전용차로 갈아타면서 임치로 향하였다. DVD를 시청하면서 바라보는 창 밖으로는 조금씩 비가 내렸다. 휴게소에 잠시 들른 후 8시쯤 제도호텔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여장을 풀었다. 간단히 일정을 정리하고 누웠다.

## 넷째 날 : 8월 9일, 토요일

[치박(강태공 사당, 고차박물관과)-청주(청주박물관)-유방-위해]

7시 반쯤 여장을 꾸려 강태공 사당으로 출발하였다. 10분 후 곧바로 강태공 사당의 현판이 현란하게 눈에 들어왔다. 허 교수님의 강의에 성씨가 분화되어 최씨도 강태공의 후손(?)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듣고 씨족의 정통성은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강태공의 의관충을 보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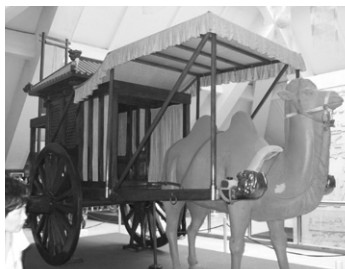
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느 것 하나, 어떤 인물이라도 그 의미를 부각시켜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풍습이 거의 종교화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20여 분을 달려 8시 40분에 고차박물관에 도착하였다. 고대의 각종 전차가 말, 낙타, 코끼리 등의 다양한 동물을 이용했으며 고차에 부속품으로 다양한 모형의 무기를 장착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10시 청주박물관에 도착하여 남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요약하면, 청주박물관이 중요한 이유는 765~777년까지 이정기 세력의 중심지였고 치소를 청주에서 운주로 옮겼다고 한다. 박물관 바로 옆에 용흥사 터가 있었는데 이곳에 신라 구법승들이 머물던 신라원이 있었다. 또한 청주는 9주의 하나로 내륙지방이나 황하가 있어 운하가 발달하였다.

청주박물관은 그 성격이 종합성 지지박물관으로 3만여 개의 유물 유적을 소장하고 있는 온전한 유물이 많은 수준 높은 박물관이다.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화가 황위 선생이 청주박물관을 관람한 후에 흔쾌하게 편액에 '세계제일류 소대박물관'이라는 글자를 써 주었다 한다.

소장유물의 유형은 신석기문화, 대문구문화를 보여주는 채도호, 용산





문화를 보여주는 흑도기, 악석문화의 골  
침, 상나라의 ‘부기’ 동작, 서주시대,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유물들, 한나라(전한, 동한,  
후한, 서한)시대 유물, 용흥사지에서 출토된  
불교 조상들, 실크로드와 관련이 깊은 당과  
송의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11시 27분, 출발하여 1시간여를 달려 부  
화대주점에서 중식을 한 후 <역사는 흐른  
다> DVD를 시청하며 저녁 식사 장소로 이  
동하였다. 맨 뒤에 앉아 덜컥거리며 흔들리  
다 보니 소화가 더 빨리 되는 것 같다는 말  
씀에 신나게 웃었다. 그래서였나? 운동하  
지 않아도 배가 쉬 고파지니 말이다. 땡 뚫  
린 도로에 차량도 별로 없더니 시내가 가까  
워 오자 조금씩 도시 분위기가 났다.

저녁 식사는 동아일보사에서 제공하는 한식 뷔페로 오랜만에 집 생각  
을 잊게 하는 즐거운 식사시간이었다. 8시에 숙소 홀리데이호텔에 도착  
하여 짐을 풀었다. 베이징 올림픽 소식에 TV를 시청하느라 늦게 잠을 잤  
다. 유도에 수영에 여기 저기 금메달 소식에 신나는 밤이었다.

## 다섯째 날 : 8월 10일, 일요일

[위해-석도(적산법화원, 장보고 기념관)- 인천행 화동혜리]

5시쯤 일어나니, 일출은 어떨까 하여 사진기를 들었지만 창 밖으로 보

이는 바닷가는 희뿌연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다. 한가로이 매어 있는 고깃배들이 물그림자를 내주며 호텔 동녘을 장식하는 듯하다.

8시 일정대로 조식을 마치고 석도진으로 출발하여 9시 반에 적산법화원에 도착하였다. 3차 답사단 기념사진을 찍고 10시에는 기념탑 앞에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재당 신라인은 지리적으로 당의 주변 지역이면서도 교통이 빈번하여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한 지역에 정착(양쯔 강 하류의 양주, 회수유역의 초주와 연수현, 산둥반도의 등주 등)하였으며, 신라인 사회는 성곽 안에 인위적으로 구획된 신라인 집단 거주지(당의 관할 주현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음, 상업과 해운업 종사, 100퍼센트 신라인)인 신라방(新羅坊)과 전야(田野)와 연해안 포구 등에 산재한 신라인 자연촌락(현과 촌 사이에 설치된 구당 신라소勾當新羅所를 통해 일괄 통제, 농업과 어업에 종사, 신라인+당인)인 신라촌(新羅村)이 있다. 그러나 재당 신라인 사회가 치외법권적 특권 혹은 자치권을 누린 것은 아니다. 당률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보장된 사회였다.

9세기 재당신라인의 활동 분야는 재당신라인 사회 지도자, 승려와 유학생, 당의 관리, 해상무역업 종사자(장보고, 장영 등)들이었고 특히 8세기 후반부터 장보고가 암살





된 841년까지 재당신라인들은 대일무역을 실질적으로 독점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적산법화원과 불교사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남 교수님의 강의를 요약하면, 적산법화원은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기슭에 위치한다. 당나라 때 장보고가 지은 것으로 창립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 하여 유래된 것인데 당시 산둥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이었다.

옛날에 적산은 온통 붉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여기에 사는 적산신이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가져다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불공을 드렸다. 여름에는 《금광명경》과 겨울에는 《법화경》을 각각 2개월 동안 정기적인 講經法會로 개최하였다.

장보고는 흥덕왕 3년(828)에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창설하고 大使를 봉해 받음으로써 한·중·일 삼국의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한·중·일 간의 ‘해상실크로드’를 개척하여 ‘해상무역왕’으로 불렸다. 그는 해상운송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면서 적산에 불교사찰을 지어 많은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어 ‘赤山法華院’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규모는 법당, 큰 강당(200명 수용), 승방(상주 승려 30여 명과 추가로 수십 명 수용 가능한), 藏經閣이 있으며, 재당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는 역할과 장보고 선단 및 나당 간의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도해 주는 기도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장보고 기념관에는 2005년에 높이 8미터, 무게 6톤의 거대한 장보고

동상을 비롯하여 적산법화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쓴 장보고 기념탑 등이 있다.

강의가 끝난 후 작은 산 위에 그 산의 반 정도 되는 적산대명신의 좌상이 장보고 동상을 뒤로하고 사진 찍는 내 눈에 자꾸 시야를 가렸다. 엄청나게 컸다. 내가 그의 손가락 하나보다 작아 보였다. 새삼 그 크기에 입을 벌리게 한다. 잠깐, 내 손과 비교해 볼까? 한 컷!

저 아래 북동쪽으로는 법화원과 좌불이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석도진의 바다 모습이 푸른 하늘과 맞닿아 한낮의 햇빛으로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다. 아이스크림으로 입을 적시며 걸어 내려와 법당에 참배를 하였다. 장보고도 이곳, 이 자리에서 수없는 염원과 참회와 기원을 하였을까? 10여 세기를 뛰어 넘은 만남, 알 수 없는 흥분에 한동안 가슴이 뛰었다.

12시 30분에 출발하여 1시간 후 석도여관 2층에서 점심을 먹었다. 2시 10분쯤 시내 마트에 들러 기념품을 사고 난 후 2시 50분 드디어 선착장 도착하였다. 이젠 중국 땅에서 한국을 향해 발을 내디딜 시간이다. 버스에서 내려 현지 가이드와 헤어졌다. 단 며칠이나마 도와주느라 무척 애를 써서 고마운 마음이 깊다.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여 4시에 승선, 선실에 도착하였다. 무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다 보니 이 선실만큼 시원한 곳이 없다.

오후 7시 선상식으로 저녁을 먹고 8시에 남 교수님의 불교사 특강을 들었다. 마음은 벌써 집으로 달린다. 중국 일정을 마치며 잠자리에 들었다.

## 여섯째 날 : 8월 11일, 월요일(인천-대전)

10시(한국시간)에 하선을 하여 세관을 통과한 후 여행사 가이드와 헤어졌다. 한국인으로 돌아왔다. 대전 팀과 다시 만났다. 전용차가 달라서 거의 얼굴만 가끔 보고 같이 다닐 기회가 별로 없어 무척 아쉬웠다. 11시 30분에 출발하여 돌아오는 고속버스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전에 도착하여 간단한 점심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이번 여행을 통해 본 장보고에 대한 시사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간단히 팸플릿에 있는 현 상지대 총장 김성후 씨의 말을 인용해 본다.

“그는 창조적 정신의 실현자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선구자요, 정경분리, 민간주도에 의한 상생의 Win-Win 경영전략가요, 국제 자유무역항의 원형, 청해진 창설자, 새 항로(The Ceramic road)의 개척자, 국제 정보, 종교, 문화, 학술, 산업의 중계 전파자요, 인도주의자, 민족주의자, 박애주의자, 그리고 최초의 세계인임에 틀림없다. 해상왕 장보고, 그는 바로 해신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3차 답사단에 참가하게 해주신 장보고기념사업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후원해 주신 동아일보사 및 수고해 주신 온누리 여행사 모든 운영, 진행 팀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해를 돕기 위해 애써주신 세 분 교수님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귀 재단의 번창을 기원 드리며 교단에서 2세 교육에 이번 경험을 토대로 바로 보는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3 새로운 만남으로의 여행

진주 문산초등학교 황인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과 필연에 의해 이루어진 수많은 만남을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됨으로써 자신과 주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물들과의 만남이 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고,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미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만남 1: 장보고기념사업회와의 만남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다. 내가 장보고기념사업회를 지면을 통해 만난 것도 그런 경우 중의 하나이다.

“선생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중국 답사단 모집하는 공문이 왔는데 한 번 신청해 보실래요?”

교감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장보고기념사업회와 첫 만남을 가졌다. 전  
자문서에서 만나게 된 장보고기념사업회는 해상왕 장보고가 상단을 이  
끌고 다녔던 길을 현직 교사들에게 그대로 답사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이었다.

첫 만남의 설렘은 답사 신청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7월 1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줄 소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서 접해 보지 못한 곳에 대한 작은 걱정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단체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 사본을 보  
내려는 순간 여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다. 학기 말 업무 처리와 맞물려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위한 사전 준  
비는 거의 하지 못했지만 뒷산 저녁노을을 보듬으며 술黍향기를 맡는 즐  
거움도 접어두고 또다시 다가 올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로 시간을 차  
곡차곡 쌓아갔다.

2008. 7. 26 진주에서

## 만남 2 : 온누리 여행사와의 만남

혼자서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  
각을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아마도 그것은 도전의식이 약한 나  
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힘  
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 약한 한국 어머니들의 기우 때문이라. 하지만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된 기쁨에 모든 것은 접어두고 여행  
가방 하나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남은 일정을 주워 담아서 네 시간 십 분 동  
안 고속도로를 달려서 인천항에 도착했다.



어제 온누리 여행사 직원에게 친절하게 안내 받은 전화내용을 떠올리며 여객선 터미널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보여서 낯선 이들과 의자에 앉았다. 곧이어 온누리 여행사 직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답사에 관련된 안내문과 책자를 나누어 준 후 한 시간 후에 다시 이곳에 모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간의 여유가 있을 줄 알았으면 진주에서 이른 아침부터 서둘지 않고 열한 시 버스를 탈 걸 하는 생각으로 온 몸에 힘이 없어진다. 여행사 직원의 친절한 서울 말씨도 예쁜 여행사 직원의 미소도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지는 못했다. 그래도 전국 각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분이랴도 늦을까봐 시각을 여유 있게 정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왕 일찍 왔으니 여객선터미널에 들어가 앉아서 쉬기로 했다.

진주에서 함께 선발된 대학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는 언제나 좋다. 그저 편안한 고향 같은 친구와 함께 답사할 수 있어서 5박 6일이 기대된다.

2008. 7. 30 인천여객선 터미널에서

### 만남 3 : 화동훼리 호와의 만남

닷새 전 홍도로 직원학사시찰을 갔다가 배 멀미로 심하게 고생을 한 탓에 인천여객선터미널에서 만난 화동훼리 호를 바라보면서 반갑기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열네 시간 동안 배를 타야 가야 할 중국 석도항에 도착한다. 화동훼리 호의 첫인상은 그렇게 깔끔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배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며 여름을 핑계 삼아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만족한 채 오후 다섯 시에 화동훼리 호



라는 낯선 배에 몸을 실었다.

눈으로 보던 것과는 달리 승무원과 화동웨이 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배 멀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객실에 짐을 풀고 갑판으로 나와 떠나야 할 곳 인천항을 눈 속에 담았다. 멀리 건설 중인 인천대교가 보인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을까? 우리네 삶이 모두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지만 내 나

라를 떠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 익숙한 곳에 대한 집착은 아닌지 모르겠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기에 비만 내려도 감상에 젖고 흐르는 냇물만 있어도 웃음을 짓기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아쉬워하는 커다란 해가 토해내는 붉은 물감은 나를 소리치게 한다.

이렇게 낙조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대자연의 장엄함과 절대자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다. 그대로 혼자 느끼기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 앞에 사라져가는 해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본다. 여기 저기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난다. 순간을 영원으로 담고 싶은 마음으로 인간과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기계에 담고 있다. 나도 이 모습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포즈를 취해 본다. 이 멋진 순간이 그대로 담겨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며 사라지는 해를 수평선 너머로 밀어낸다. 내일 아침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2008. 7. 30 화동웨이 호에서

## 만남 4 : 중국 석도항과의 만남

새벽에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에 잠을 깨어 객실을 나와 갑판 위로 나갔다. ‘와!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니’ 하는 마음에 감사했다. 바다 위에서 검붉은 덩어리가 서서히 물결을 밀어내고 수면 위로 떠오른다. 바다 물결 사이로 펼쳐졌던 붉은 비단 한 폭이 바닷물을 꼭 짜 버린 채 희뿌연 여명을 끌어당긴다. 대자연의 장엄함과 오묘함의 아름다움 앞에 내 짧은 글 솜씨가 못내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잠은 어느 새 멀리 사라져버리고 처음으로 밟을 땅 중국 석도항에 대한 기대가 가슴을 부풀게 한다.

13억이 넘는 인구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국토가 세계 세 번째로 넓은 나라 중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 배 위에서 석도항구를 바라보니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다. 같은 아시아권이다 자연, 환경, 문화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인가 보다.

중국과의 첫 만남은 어릴 때 자란 시골 고향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장시간 배로 이동한 후라 약간의 피로가 느껴지긴 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쁘게 짐을 챙겼다.

2008. 7. 31 석도항에서

## 만남 5 : 대학 친구와의 만남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으며 우연히 만나면 얘기를 나누던 친구와 5박 6일을 동고동락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잊었던 대학 때의 순수함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세상에 서서히 물들어 가는 부끄러움 모르는 대한민

국 아줌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친구를 만나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일들을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현재의 삶에 여유가 있어서일까?

오랜만에 대학 친구와 어린아이처럼 웃고 수다 떨며 이야기 할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장보고 유적지 답사팀 3기에 선발된 친구가 내가 속한 2기로 옮겼기에 진주부터 함께 출발하여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즐겁다. 물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25년 전 대학교정에서 함께 한 추억들이 우리를 들뜨게 한다. 이런 기회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며 즐거움을 누리기에 충분하리라.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끔씩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없지는 않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용기 없음과 도전의식의 미약함 때문이라. 장보고 유적지 답사팀에 선발되어 가정과 직장에 대한 일상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음에 은근히 즐거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친구는 어떤지 살펴본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마음상태에 따라, 즉 가치관이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나 느낌을 갖기에 하는 말이다. 어찌되었든 오랜 친구 만나 추억의 앨범을 꺼내볼 수 있어서 즐겁고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만남의 기쁨을 한층 더 많이 배가시키게 했다.

2008. 7. 31 중국에 첫발을 디디며

## 만남 6 : 선상 세미나와의 만남

배우고 익히는 데는 나이와 시기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은 화려하고 멋진 시드니항의 분위기를 따를 수는 없지만, 푸른 바다 위에서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던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흥분시켰다. 그리고 이어진 김창겸 교수의 강의를 한층 더 심오하게 한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교수님의 선상 세미나는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뀌게 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해외 유적지 답사라는 것으로 한층 긴장되어 있던 나에게 장보고라는 한 인물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알 수 없는 의문이 검은 바다 물결과 함께 무리지어 나를 덮쳤다. 단순한 세미나가 아닌, 선상 세미나에 대한 환상을 깨고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유적지 답사에 대한 기본 정신을 말씀해 주셨다.

‘장보고와 그 정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장보고의 출생과 시대적 상황이 그를 한 나라를 넘어 외국, 더 나아가 동남아와 멀리 아라비아, 유럽까지 무역을 하며 바다를 바라볼 줄 아는 장보고의 개척정신에 눈뜨게 되었다. 신라인이 중국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을 통해 그의 가치관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에 대해 열강하시는 교수님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답사단 선생님들의 몰입된 장면을 둘러보며 스스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도, 우리 답사단,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보고가 가졌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겸한 미래를 향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우주에서 보면 이곳이 망망대해 한 점 배 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

습으로 살아가는 조화로움이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긴 여정으로 본 삶과 짧은 찰나에서 우리의 만남의 조화와 인연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한 선상 세미나였다.

2008. 7. 31 선상 세미나를 듣고

## 만남 7 : 성산두에서 만난 진시황

중국에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동쪽으로 오면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 성산두라고 한다.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나는 배를 열네 시간이나 타고 온 피로도 잊은 채 푸른 바다 끝 수평선을 바라보며 어딘가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일 것 같은 마음으로 한없이 바다를 주시해 본다.

성산두는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장생초를 구하려고 서복과 수천 명의 선남선녀를 데리고 이곳까지 왔다가 바다가 있어 아쉬워하며 서복과 선남선녀들만 한반도를 향해 출발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며 바다로 나가기 위해 중요한 군사요충지이기도 했다는 이곳의 커다란 바위에는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이라는 천진두라는 글이 쓰여 있다.

우리 일행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바위에 서서 포즈를 취했다. 마치 우리가 옛 진시황이 바다를 바라보며 더 이상 자신이 직접 불로초를 구하려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세상 어느 누가 영원



히 살 수 있을까? 세상 모든 권력과 부와 영광을 모두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은 불가능한 것이리라.

전국시대 중국을 통일시켰던 시대적 영웅, 자신이 통일한 중국 순행을 다섯 번이나 행했던 위엄 있는 진나라 첫 황제, 영원히 살기위해 몸부림치던 영웅 황제의 연약함의 모순된 부조화가 눈앞에 그려진다. 중국 천하를 영원히 다스리며 영광을 누리려는 욕심은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잇기 위해 애쓴 만큼 자극적인 독한 약초를 투여하게 되고 그 결과 수는 중독으로 건강을 악화시켰다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살고자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고 생명이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본다.

10여 분을 버스를 타고 중국에 유일하게 있는 진시황 사당을 들렀다. 성산두의 감격으로 인해 사당에서 만난 진시황은 내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사당에서 오히려 진시황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가 느낌의 강도는 달라지는 것은 50억 인구가 그 존재로써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이 다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 모두를 배려할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중국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 연장에 연연해 했던 시대적 영웅 황제를 전설과 유적지를 통해 만났기에 다시 한 번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충실해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내 아이들에게 도전 의식을 갖게 지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형 생활을 엮어가야 함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아야 한다.

2008. 7. 31 성산두에서

## 만남 8 : 신선들과 만남

점심을 먹고 3시간 30분을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신선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느리게 달려가는 버스의 지루함을 잊어본다. 도로에 차가 없어도 버스 기사들은 빨리 달리지 않는다. 교통 신호는 운전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생각하고 차도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고 4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유유자적하는 이들이 도로를 장악했다. 요리조리 피해가며 늦으면 늦은 대로 여유를 부리는, 우리를 태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인 원따거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다.

늘 바빠서 허둥대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경적을 울리며 여기저기 큰소리가 나는 내가 운전하던 곳과 비교과 되어 얼굴에 미소가 인다. 우리네 교통 문화도 조금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조금 먼저 간다고 우리네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바쁜지 나도 너도 빨리 달리고 끼어드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탓일까? 이곳이 대륙의 넓은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크고 넓어져서 여유롭게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다.

산동성에 있는 봉래각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 8명의

신선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신선이 된다는 현지 가이드의 안내 설명을 들으며 어이없어하면서도 내심 신선의 경지에 들어야겠다는 부질없는 욕심을 부려보기도 한다. 전설의 동





해 용왕이 거주하는 궁전인 이곳을 걸어서 오르니 바다와 산이 서로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어 신선들이 주연을 베풀고 싶을 만큼 멋진 장소라는데 공감한다.

내가 만난 중국의 신선은 우리나라 절의 입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라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의 도교와 우리의 토속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정착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바다를 다스리는 천후를 만나러 자리를 옮겼다. 어느 신선을 모신 맞은 편 누각에는 경극공연장이 보였다. 신선이 경극 보는 것을 즐겨서 한 번씩 경극을 공연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중국인들의 신선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008. 7. 31 봉래각에서

## 만남 9 : 등주에서 만난 이정기 장군

우리의 역사와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가 있으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고 운 좋게 선발되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영웅을 만났다. 중국 등주 땅에서 고구려 유민으로 당나라에서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넓은 땅 치청(제)을 4대 55년 동안 치세했던 이정기 장군을 만났다.

고구려의 정신을 이은 후국으로 우리의 역사에도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구려와 당의 문화를 조화롭게 발전시킨 독특한 문화를 가지면서 당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진국(발해)과 신라,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 또 하나의 고구려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정기 장군을 만남으로 우리의 역사를 좀 더 넓게 바라봐야 하는 것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정의

로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도전정신과 결집력을 느낄 수 있었다.

2008. 7. 31 등주수성을 둘러보며

## 만남 10 : 새롭게 만난 강태공

낚시 잘하는 사람을 보면 강태공이 생각나는 것이 당연하다. 수백 마리의 말이 묻혀 있던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 강태공 사당을 둘러보면서 낚시와 연관되었던 강태공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현자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는 정치가 강태공과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강태공은 젊어서 마음에 야심을 갖고 새롭게 자신이 모실 주군을 기다리면서 낚시줄을 던져놓고 세월을 보냈다. 아주 불충실한 가장으로 살아가며 아내에게 생계를 떠맡긴 채 세상을 떠돌다가 강태공의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주 무제를 만나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했다고 한다. 훗날 그의 낚시줄을 살펴보니 낚시 바늘이 없었다고 하니 세월을 기다리며 한 나라를 낚았기에 가장 낚시 잘하는 사람을 지금도 강태공이라 부르지 않을까?

강태공은 주 왕조로부터 제 땅을 봉함 받은 후 제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제나라의 시조가 된다. 제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제나라 역사박물관에서 본 유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말이 끄는 수레가 아주 튼튼하고 빨라서 전쟁에 용이하게 이용되도록 제조되었다고 하니 과학 기술이 발달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순마갱에서 본 유적들은 제나라의 경제가 아주 발전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자신이 할 일을 위해 실력을 쌓아가며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뜻을 펼치기 위해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여정

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태공을 만남으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2008. 8. 1 제나라 역사박물관에서

## 만남 11 : 태산과 만남

중국인들은 마음의 고향인 태산에 오르면 복도 받고 10년은 젊어진다는 것을 믿어 키보다 더 큰 향을 사 들고 그 많은 계단을 즐겁게 오르고 있다. 그 곁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시조를 읊으며 바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太山을 바라보며 발아래 흘러가는 운무를 바라본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태산이지만 손으로 잡으면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은 구름을 보듬으며 한낱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겹쳐지며 파노라마처럼 태산주위로 펼쳐진다.

해발 1,845미터라고 써진 계단 위에 서서 나를 들여다본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본다. 내 곁에 함께 태산을 오르는 이들을 바라보니 멀리 운무를 바라보며 인생을 관조하며 산을 오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며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산을 둘러본다.

우리나라 산의 아기자기하고 녹색으로 뒤덮인 숲살의 아름다움에 비해 크나큰 바위가 여기 저기 드러나 있지만 커다랗다 못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중국의 산이 가지는 독특함이 조물주



의 오묘한 숨씨를 감탄케 한다.

2008. 8. 1 태산에서

## 만남 12 : 인간 장보고와의 새로운 만남

해상왕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위해 이용했을 바닷길과 육로를 답사하며 장보고의 흔적과 관련된 점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을 둘러보며 역사 속에 묻힌 유물과 유적에 연연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신라인 장보고가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시대적 상황과 그의 인간적 면모가 더 궁금해졌다.

장보고 대사가 세운 적산법화원은 신라의 승려는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머물 수 있었던 사찰로 당시 중국에 살거나 중국에 드나들며 무역을 하던 신라인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은 적산을 둘러싸고 근거리에서 있어서 둘러보기에 좋았다. 장보고 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자유롭게 관람을 했다. 장보고의 동상을 바라보며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텅 빈 듯이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세계에서 제일 높고 크다는 적산명신은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있다. 중국인들의 대국적 기질을 보여주는 신상이기도 하다. 바쁘게 둘러본 장보고 기념관을 나오며 내가 새롭게 만난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내가 알고 있던 무장 장보고와 상인 장보고에 대한 생각을 크게 변화시킨 장보고 기념관에서의 강의는 한여름의 더위와 피로를 잊게 했다. 강의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 장보고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다시 만난 장보고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신라인 장보고는 당나라에 와서도 신라인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적산 법화원을 통해 신라인의 마음의 쉼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으로 그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인간적 신뢰감을 가진 사람으로 내게 다가왔다. 또한 신라인은 물론 일본, 중국, 아라비아, 유럽 상인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트인 넓은 시각을 가진 세계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게 각인되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 장보고, 세계인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장보고를 만날 수 있었기에 긴 뱃길 여행도 피로한 줄 모르는 채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마칠 수 있었다.

2008. 8. 3 장보고 기념관에서

## 14 중국 유적지 답사기행문

국토해양부 정권일

### 1. 머리말

사실 장보고에 대한 인물은 중·고등학교 국사책에 잠깐 소개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지식이 아는 게 없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청해진(지금의 전남 완도군)을 설치하여 당나라 등과 해상무역을 하였으며 해적을 소탕하였다는 것 말입니다.

막상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중국에 처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시작하고 나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의 산둥성 지방의 장보고 유적지와 진시황 사당, 강태공 사당, 봉래각, 태산 등 많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중국 문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문화와 한반도 문화가 서로 교류를 통하여 섞여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땅에서 중국 특유의 대국기질을 실제

로 보았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상대편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해도 괜찮으며, 자전거 1대가 지나가며 15톤 트럭 4대를 멈추게 하는 교통상황이 발생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질서현장을 말입니다.

가끔씩 역사의 현장에서 열성적인 강의를 맡았던 교수님들의 지식과 안내책자 속에서 접했던 장보고의 해상능력을 거울삼아 바다를 지배해야 할 의무감과 과제를 많이 떠 맡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서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은 창피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중국 및 일본 등의 협조를 얻어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역사자료를 구하고 계속 연구하여 우리 국민에게 널리 홍보함은 물론, 훌륭한 위인임을 후손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끝으로, 좋은 중국 답사 기회를 제공해 주신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관계자 분들, 온누리 여행사, 현지 가이드 분들 정말 고마웠으며, 힘든 여정 속에서도 성의와 열성을 다하여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피곤하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졸지 않고 수강하시며 열심히 사진을 카메라에 담으시던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모두 모두 이번 답사여행이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빌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연출하시길 바랍니다.

## 2. 기행문

2008. 8. 6(수)

아침에 일어나니 처음으로 가는 중국 여행이어서인지 설렘과 약간의 걱정이 교차되었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15시까지 도착해야 하니까 11시까지는 5박 6일(8월 6~11일) 동안의 여정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야만 했다. 배낭, 물통, 세면도구, 수건, 고추장 등을 준비하며 혹시나 중국 올림픽 개막식을 볼 수도 있다는 착각도 곁들였다.

우리가 인천항 부두를 떠나는 시간은 약 19시 정도라고 안내책자에 쓰여 있었는데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는 15시까지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집인 천호동에서 12시경 지하철을 타고 동인천에 가서 택시로 도착하니 14시가 되었다. 일찍 왔다고 생각하였는데 여행사 관계자 분은 벌써 도착해 있었다. 우리 국토해양부 3차 답사단은 7명이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였다. 연락을 하니 모두 오는 중이었다.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승선권과 안내장을 받아보니 나는 1호차 버스에 승차하도록 쓰여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끈이 달린 중절모자를 받았는데 모자에는 '해상왕 장보고' 라고 쓰여 있었다. 장보고 투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보고의 해상로를 뒤따라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정신을 다시 한 번 가다듬게 만들었다. 15시가 조금 지나자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 시의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고 17시경 중국행 선박에 승선한다고 하였다.

혹시나 중국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의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거의 횃집이나 수산물 가공공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매우 커다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승선할 배가 맞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승선에 대한 안내와 출국수속을 하게 되었다. 우리 여행 인원은 약 100여 명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고 교수님 3명, 동아일보 관계자 2명, 여행사 관계자 3명, (재)해상왕장 보고기념사업회 과장, 우리 국토해양부 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와 여권이 모두 필요하였는데 비자는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출국장에는 한국인 반절, 중국인 반절 정도였는데 모두 대체로 구분이 되어 보였다. 언어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행동과 옷차림, 외모만을 보아도 구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옷차림이었다. 우리가 승선할 배는 화동궈리 호였는데 19,000톤 급이며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이었다. 이렇게 커다란 배에 승선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영화에서 보았던 타이타닉 호가 떠올랐고 기회가 되면 갑판에 가서 사진을 담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출국 수속이 끝나고 셔틀버스를 타고 2분 정도를 가니 화동궈리 호와 승무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간단하게 “니하오.”라고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랬더니, 승무원들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응답하였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와 중국 승무원이 섞여 있었고 손님국적에 맞게 응대를 해주었던 것이다.

지정된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 침대와 텔레비전, 탁자 등이 있었고 화장실과 세면대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었으며 에어컨이 적당하게 가동되고 있었다. 거의 호텔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열차에는 침대는 있어도 침대마다 세면장은 없다. 그러나 선박에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준비하여 다시 한 번 놀랐다.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첫 저녁 식사를 배에서 하게 되었는데 거의 한국식이었다. 식당에 앞에서 줄을 서서 식판에 배식을 받아 식탁에 앉으

니 화동궐리는 서서히 숨을 몰아쉬고 중국을 향해 고동을 길게 몇 번 외쳤다. 그러더니 곧 석양 저녁노을을 향해 서쪽으로 출발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동료 여러 명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다.

배아래 부분을 보니 시퍼런 물결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가는 선박이 위대하게 보였다. 석양으로 기우는 태양과 노을을 멀리 두고 가끔씩 다가오는 무인도와 등대는 중국을 무사하게 다녀오라고 손짓을 하였고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카메라 사진을 담는 것으로 열심히 답해 주었다.

시속 30~40킬로미터 정도로 달리는 배에서 바라보는 일몰광경은 일대 장관이었는데 난간에서는 위험하게 느껴져 적당한 어둠이 밀려올 때까지 사진촬영을 하고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 기타가 있었으면 바닷냄새를 마시고 갈매기를 백댄서로 삼아 기타연주를 하며 더욱 더 흥겨운 노래를 즐길 수 있었건만…….

저녁 식사 후 교수님 강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 조금 쉬다가 식당으로 다시 나왔다. 강의는 해상왕 장보고와 중국 역사, 한국 역사 등 재미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역시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노트에 받아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에 중국 땅에 도착하면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로를 말끔하게 풀기 위해서였다. 잠을 잘 때까지는 핸드폰의 시간이 한국시간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었다. 핸드폰 로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시계 역할을 하였다.

원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늦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밤 10시면 중국은 밤 9시다. 그런데 손목시계를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갑하게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디지털시대라는 생각이 나서 카메라의 시간을

중국 현지시각으로 맞추어 놓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느껴져 카메라 시간을 중국 시간으로 맞춰놓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박 위에서 바다의 일출 광경을 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잠자리에 들었다.

2008. 8. 7(목)

새벽 6시쯤에 일어나 갑판으로 올라가니 해는 이미 떠올라 있었는데 구름 속에 가려서 전혀 알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진 몇 장을 카메라에 담고 갑판을 내려왔다. 방에 들어와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다.

커다란 뱃고동이 몇 번 짧게 울리고 때로는 길게 서너 번 울렸다. '이제 내가 도착하니 어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작은 선박들은 조심하고 비켜라. 거대한 화동훼리가 도착한다'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화동훼리 호는 목을 길게 늘어 빼고 선착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것이



다. 이때가 중국시간으로 아침 7시쯤 되었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선박이 하나같이 모두 낡은 것처럼 보였다.

처음 밟아보는 중국 땅, 미지의 세계를 온 느낌이었다. 짐을 모두 들고 선박을 내려오는데 중국 공안 복장의 군인들이 한두 명씩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국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승차하여 감시를 하였다. 입국 수속을 마치니까 오전 10시쯤이 되었다. 아주 세밀하고도 여러 번 검사를 하였다. 아마도 밀수 관련 물품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 도착한 중국 땅은 석도였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신라시대 장보고 장군은 이곳에서 신라인을 돌보기 위하여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우고 자유롭게 당나라를 드나들 수 있고 장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했다고 하였다. 잠시 후 현지 가이드와 인사를 마치고 1호차 버스에 승차하였다.

우리 버스는 모두 3대였는데 2명씩 나누어 승차하였고 나는 안일식 사무관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약 1시간을 버스로 가는데 바닷가 근처의 토지는 매우 척박하게 느껴졌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옥수수를 주로 심는다고 하였다. 정말 돌이 많이 보여서 다른 식물은 자라기 힘들어



보였다. 현지 가이드 말에 의하면 “중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토지는 모두 국유이지만 토지 위의 건물은 약 60년 동안 국가에서 임대료를 받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생각하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진시황 사당에 도착하여 사진 몇 장을 카메라에 담은 뒤 성산두에 도착하였다. 진시황이 선남선녀로 하여금 불로초를 구하도록 배를 출발시켰던 곳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다. 진시황 동상 앞에 서니 진시황의 호령소리가 찌렁찌렁하게 느껴졌다. “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쪽을 향해서 출발하여 불로초를 아주 많이 구해 오너라.”

또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던 당나라 소정방이 이곳에서 군사를 출동시켰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와도 매우 인연이 있었던 곳임에 틀림없었다. 성산두(영성)에서 약 40분 정도 머물다가 봉래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이동 중에 점심을 하였다. 중국 음식은 기름기와 향료가 많아 집에서 준비해 간 고추장을 밥에 섞어 먹었고 맥주를 곁들여 먹으니 비교적 음식은 맛있었다.

잠시 후 봉래에 도착하였다. ‘봉래’는 바다 속에 있는 신선들의 산이라고 한다. 한 무제가 더 이상 동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여 이곳을 ‘봉래’라고 부르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중국 4대 누각 중의 하나인 ‘봉래



각'이 있다고 하였다. 직접 가보니 신선들의 모습을 모신 누각이었는데 바다 절경과 잘 조화되어 형언할 수 없는 경치였다. 또한 근처에서 내려다 본 등주수성도 천하일품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봉래각과 고선박물관을 견학한 다음 우리는 저녁을 근처에서 먹었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오는 중에 버스가 지쳤는지 엔진소리를 크게 내며 기사님의 손길을 기다린다. 우리 1호차 기사님은 임시 휴게소에 들러서 약 30분간 정비를 하더니 이상 없이 달릴 수 있다고 하여 고속도로로 열심히 달렸다. 내일은 차를 새로운 버스로 바꾸겠다고 가이드가 전달하였다.

오는 도중에 교수님 강의와 장보고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도중에 잠이 올 경우에는 공자님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1호차 버스가 고장이 나서 약 30분 정도 늦게 유방호텔에 도착하였다. 중국은 호텔 이름이 대주점(한글로 하면 커다란 술집)이라고 쓰여 있어 아주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2008. 8. 8(금)

오늘은 여행 3일째가 되는 날이다.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견학하기 위해 서둘렀다. 호텔에서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볼 수 있는 치박으로 1시간 동안 버스로 이동하였다. 일반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아스팔트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버스가 너무너무 덜컹거렸다. 도로 유비보수 할 돈이 부족하고 버스제작 기술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았다. 시골 옥수수 밭 근처에 있는 순마갱은 관광지라 할 수 없는 허름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냄새가 많이 풍기는 마을에 있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갯으로 들어가니 수말 수백 마리가 나란히 순장되어 있었다. 그 당시의 순장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잠시 이동하여 그리고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구경하였다.

잠시 후 점심을 먹고 태산을 오르기로 하였다. 태산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산이다. 높이로 보면 해발 1,545미터이지만 중국 5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황제가 신에게 태평성대 실현을 보고하는 곳이며, 진시황, 한 무제, 당 현종이 봉신하였다고 한다. 갑자기 양사언의 시조가 생각났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 그리고 보니, 가끔씩, 우리 생활풍습, 문화, 고사성어 등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 부분 중국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새삼 느꼈다.

태산 입구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갔다. 커다란 태산 안내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니, 괴암절벽으로 빚어진 태산을 중국인들이 영산으로 섬길 만도 하였다. 산 입구에서 계곡도로를 따라 약 20분을 달려가니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입구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6명씩 짝지어 케이블

카에 올랐다. 영스러운 산은 힘겹게 걸어 올라가서 희열을 느껴야 하는데 케이블카에 의존하여 올라가니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느꼈다. 아마도 단체 100여 명이 걸어서 등산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행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약 10여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정상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너무 난잡해 보였다. 그리고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을 법한데,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였다.

태산 정상에 올라가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고 해발 1,545미터를 표시한 돌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증명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다. 다시 태산을 올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과 함께 산 정상 의 경치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은 뒤 그 유명한 태산을 내려왔다.

피곤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치박으로 이동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다. 달리는 버스 속에서도 어김없이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영상물이 계속 방영되었고 우리들은 비몽사몽간에 영상물을 시청하였다. 다행이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호텔에 도착하여 올림픽 개막식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부 직원끼리 간단한 다과회를 갖으며 흥미로운 점화식 등을 열심히 보았다. 그리고 장보고 중국 답사 참가 배경을 이야기한 뒤 공자님을 만





나러 꿈나라로 갔다.

2008. 8. 9(토)

4일째 되는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강태공 사당과 고차 박물관을 견학하기로 하였다. 내가 상상하던 강태공은 삿갓에 낚싯대를 메고 세월을 낚는 사람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강태공 사당에 낚싯대라도 있는 줄로 알았는데 전혀 없었다. 백발노인의 모습으로 보였으며 139세를 살다 가신 제나라 임금이었던 것이다. 강태공 사당을 견학한 뒤 고차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말, 코끼리, 낙타 등이 앞에서 끌 수 있는 고급스러운 마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치박에서 버스로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청주였다. 청주박물관을 보기 위해서다. 청주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행정·군사·교통의 중심요지였기 때문에 박물관에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약 4시간 동안 버스를 탔다. 위해시로 가기 위해서다. 오늘 위해시에서는 육류 종류의 상추쌈이 저녁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한국식으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설레었다.

동서와 남북으로 약 2,500킬로미터로 뻗은 고속도로는 중국물류 소통



의 현주소를 면밀하게 보여 주었다. 서울-부산 간 450킬로미터의 5배가 넘는 넓은 벌판을 2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열심히 누볐고 들판은 온통 옥수수 밭 천지였다. 토지가 매우 척박하여 다른 작물들이 재배되지 않아서 그런지 거의 옥수수 밭이었고 가끔씩 눈에 띄는 것은 복숭아 또는 사과 밭이었다. 그래서 도중에 휴게소에서는 복숭아와 사과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오직 중국어만 사용하는 원주민과 거래를 하는 것이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었다. 또한, 중국 위안은 우리나라 돈(원)의 150배 정도였는데 환율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거의 4시간을 오는 동안 버스는 힘이 들고 심장부인 엔진을 식히자고 요구하는 듯하여 2번 정도 휴게소에서 쉬었다. 중국 버스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의 버스였는데 자동차 기술이 아직 세련되지 않아서 덜컹 거림이 심하였고 스프링의 탄력이 약하여 도로표면의 거친 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곧 바로 우리 좌석에 전달하였다. 그러니까 더욱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위해시가 가까워졌는데 옷차림이 한국과 거의 똑같았다. 버스에서 내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인 호텔로 갔다. 중국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가 아쉬운 나머지 바닷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갔는데 기대만큼 그다지 좋은 서비스는 아니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고 숙소로 들어와 잠을 청했다.

2008. 8. 10(일)

오늘이 해상왕 장보고 답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다. 한국형 콘도호텔에서 약 30분 일찍 일어나 주위를 조깅하였다. 바닷가 근처라서 비교적 서늘한 편이었으나 약 15분 정도를 달리니까 땀이 나고 운동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방에 들어가 세면을 하고 준비물을 모두 가지고 식당근처로

왔다. 완전히 한국형 아침 식사였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다고 많이 먹을 수는 없었고 적당하게 아침을 먹고 석도로 이동하였다.

버스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곳에도 여전히 옥수수 밭과 사과 밭이 전부였는데 도중에 가끔씩 바닷가에서 다시마를 훔 위에서 말리는 광경을 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아스팔트나, 세면바닥이 아닌 흙 위에 말린다고 생각하니 역시 중국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끔씩 정제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믿게 되었다. 석도에 도착하니 적산이 제일 눈에 들어왔고 해상왕 장보고 동상과 법화원 건물 등이 눈에 띄었다. 며칠 동안 영상물을 보고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게 되었고 장보고 장군의 동상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장보고 장군 동상은 우리를 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묵놓아 기다렸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약 1200년 전에 법화원을 짓고 신라인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이곳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삼았도다. 내가 비록, 신라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지만 당나라까지 와서 군장교(무령군 소장)가 되었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해적을 소탕하였도다. 그리고 동북아 해상무역 중심 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도다. 아마도 후세에 해상왕이라고





도 불릴 수 있을 만큼 업적을 남긴다. 비록 내가 반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염장의 손에 죽게 되었지만 내 진심을 알아다오. 그리고 앞으로도 바다를 지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지어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우렁차고 늠름한 해상왕 모습은 우리 조상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신 것이 틀림없었다. 또한, 적산에 새로 만든 적산명신 모습이 매우 강하게 우리를 손짓하며 불렀는데 바로 해상왕 장보고일 수도 있다는 설도 있었다. 우리는 장보고 기념탑 정상 근처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이번 답사의 총정리 특강을 하신 것이다.

적산 구석구석을 모두 돌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반드시 답사해야만 할 곳만 열심히 돌아다녔다. 약 1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점심이 늦겠다고 연락이 왔다. 부랴부랴 적산의 흔적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고, 다른 분들의 사진도 열심히 찍어주었다. 우리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적산을 내려와 정문에서 버스에 올랐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하였고 점심 후에는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버스에 올라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 사진을 담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장보고 장군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럽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웠다. 기회가 되면 문헌과 서적을 연구하고 일본 및 중국 관계자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인물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장보고 장군의 기상을 이어갈 인재를 빨리 발굴하여 21세기의 바다를 주름잡을 수 있는 해양 일등강국을 건설하고 세계 해양의 허브국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 모두는 점심을 먹으러 버스를 타고 가까운 호텔식당으로 갔다. 적산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땀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식탁에 놓인 맥주를 단숨에 3잔이나 마셨다. 정말 꿀맛이었다. 중국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건배도 몇 번 외쳤다.

점심 후 즉시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석도여객터미널로 이동하였고 현지 가이드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였다. 중국에 처음 입국할 때에는 세관당국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하였는데 중국을 떠나올 때는 갑자기 웃으면서 무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서 그 기쁨을 나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것이다. 아마도 내가 운동복 차림이었기에 박태환을 응원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중국어로 “쎬쎬, 짜이찌엔(한국말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화답하며 화동웨리 선박에 올랐다.

방은 중국 올 때 사용했던 그 방이었다. 세면을 간단히 하고 잠을 청했다. 깨어나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배에서 짐을 싣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화동웨리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컨



테이너를 신고 있었던 모양이다.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달래려고 몇몇 사람들이 우리 방에 모여 간단하게 다과를 즐겼다.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은 아마도 평생 없을 것도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멋진 추억은 잊지 못할 것이라도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2차로 몇몇 선생님들 방에 들러 아쉬움을 전달한 뒤 잠을 청했다.

2008. 8. 11(월)

어젯밤 늦게 잠을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선박에서의 일출광경은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바다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몇 시간 후 인천항에 도착하여 인천 땅을 밟았는데 8월 11일 오전 10시 20분경이었다. 이로써 5박 6일의 해상왕장보고 중국 답사 여행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

회 담당 과장님, 여러 교수님들, 참가하신 많은 선생님들, 동아일보와 여행사 관계자 분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마치고 천호동으로 가기 위해 동인천행 버스에 올랐다.

## 15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서 떠난 여행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박원규

지극히 평범한 해도인으로 태어나, 동아시아의 바다를 호령하며 해상 왕국을 건설한 장보고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떠난 5박 6일간의 여행은 내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준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운 좋게 이번 답사단에 선발된 것을 확인한 후부터, 틈틈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름대로 장보고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다.

통일 후, 번영을 계속하던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권력다툼에 휘말리게 되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왕위 쟁탈전이 심해지면서 이후 15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왕권은 크게 약화되고 있었다.

이 무렵(790년경)에 태어난 장보고는 해도인(출생지는 완도로 추정)이라는 출신 성분에 따른 신분의 제약으로 가슴속에 품은 웅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세 전후한 나이에 당나라로 건너갔다. 당에 건너간 장보고는 때마침 산둥반도를 장악하고 당의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든 이사도 군을 토



별하기 위해 무령군에 자원입대하여 출중한 무예로 전공을 세워 무령군 소장이라는 지위에 오른다.

이후 장보고는 신라에 귀국하여 흥덕왕을 만나 신라인들이 당나라의 해적들에게 잡혀 노비로 팔리고, 남해안 일대에 수시로 출몰하여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사 1만을 요청하여 지금의 전라남도 서남해 바닷가에 위치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다.

청해진은 흑산도와 남해안을 거쳐 일본의 기타큐슈에 이르는 국제 무역 항로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곳이다. 그는 이곳을 기지로 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황해의 무역로를 보호하면서 황해 일대의 해상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하였다. 또한 신라인들이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을 설치하고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했던 산동성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음과 동시에 신라인들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도모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제공했다.

일본인 승려인 엔닌(일본 천태종 3대 종정)이 당나라 유학을 와서 약 9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 적산법화원에 체류하면서 장보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엔닌이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장보고가 9척의 배를 제공하여 무사히 그들이 일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엔닌은 그의 제자들에게 장보고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법화사를 일본에 건립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장보고는 당대에 이미 그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엔닌의 기록은 인간 장보고가 신라 말기에 왕권 쟁탈전에 끼어들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에 대한 야심가로, 아니면 신라에 대한 반역자로 역사 기록 속에 잘못된 역사로 묻힐 뻔한 것을 막았다. 이 기록은 장보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사료가 되어, 오늘날 장보고를 해상

왕, 무역왕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나라 유학 시절에 엔닌이 신라인 장보고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재당 유학시절에 기록한 일기에다가 그 고마움을 구구절절 기록하고, 장보고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제자들에게 장보고를 기리는 법화사를 지으라고 유언을 남겼을까?

국적을 초월하여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국의 승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장보고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에는 지금 법화사라는 절이 있으며 경내에는 장보고 사당이 있다고 한다.

그 옛날, 이국의 승려가 무사히 조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9척의 배를 선뜻 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장보고가 이미 국제 무역상으로서 거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슴 뛰는 설렘

여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슴 뛰는 설렘을 준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맨 먼저 하늘을 올려 보았다. 여행을 떠나는 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산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들으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반가웠다.

미리 예약해둔 인천행 고속버스 시간에 맞추어 시내버스를 탔는데 생각보다는 아침 출근길이라서 종합터미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 탓으로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겨우 예매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여행을 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여유 있게 미리서 도착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았다.

우등 고수에 몸을 싣고 달리는 차 안에서 장보고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장보고에 대해서 최초로 안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다. 당시는 중학교를 시험을 보고 가는 시절이었기에 사회 교과서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공부를 했던 시절이다. ‘통일 신라 말기에 접어들어 중앙 귀족들 사이에 사치와 부패가 만연했으며, 왕위 쟁탈전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지방에서도 호족들이 중심이 되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해상왕 장보고도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아주 짧은 문장의 기록이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경험과 체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면이 있기 마련이다. 유년시절의 극히 짧은 지식에 의해서, 신라에 대한 반역자로 내 기억 속에 각인된 장보고는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많은 재물을 해상 무역을 통해 취득했으며 급기야는 왕권에 도전하여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욕심 많은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장보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몇 년 전에 방영된 TV드라마 ‘해신’을 시청하면서부터이다. 드라마의 내용과 다른 진실 속, 역사 속의 인물 장보고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장보고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전공을 세우고 무령군 소장에 오르고 귀국하여 흥덕왕 때 군사 1만으로 청해진을 설치한 것이다. 또한 진골 귀족들을 중심으로 왕위 쟁탈전 절정기인 흥덕왕-희강왕-민애왕-신무왕-문성왕을 거치면서 문성왕 때 중앙귀족들의 반대로 딸의 왕비 채택이 거부되자 반란을 일으켰으며 김양이 보낸 자객 염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오후 3시 30분에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1차 답사단 모두가 집결하여 출국 수속을 끝내고 5시쯤에 화동훼리 호에 승선했다. 화동훼리 호는 인천항과 중국 석도항을 일주일에 3회를 왕복하는 국

제여객선으로 길이는 180미터, 폭은 약 27미터이며, 배의 적재는 19,800톤, 승선 정원은 1,000명이 가능한 배이다. 학생들이 산둥반도를 수학여행할 때도 많이 이용하는 국제여객선이다. 오후 6시 30분경에 화동훼리호가 긴 뱃고동을 울리면서 출항했다. 인천 항구를 벗어나서 갑판에 올라가 어둠이 내리는 황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허허로웠다.

1200년 전 신라인들이 이 항로를 따라서 산둥반도에 가서 신라촌을 이룰 만큼, 조국을 떠나야 했던 사연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중심에 장보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 중국에서의 여정

2일째에는 석도항에 도착하여 도교적인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봉래각을 둘러보고 등주수성과 고선박물관을 견학했다. 봉래각에서는 장창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바로 이곳에서 당나라 소정방이 신라를 도와 백제를 치기 위해 13만 명의 병력을 발진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해버린 고대국가의 중심축의 하나였던 백제, 장보고는 망해버린 왕국 백제의 유민으로 골품제도라는 신분의 벽이 뚜렷한 사회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진골 출신이 아니면 주류 사회인으로 편입될 수 없었던 신라에서는 자기가 품고 있는 포부와 꿈을 펼치기에는 어려웠기에 도전정신으로 기회의 땅이라 여겨지는 당나라로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머나먼 이국땅으로 사랑하는 후배 정년과 함께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긴 항해를 했으며,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대화를 나누었을까를 상상해 보기도 했다.

3일째는 치박으로 이동하여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견학했다. 역사 교과서에서 순장의 풍습이 고대 중국에서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 고대국가인 부여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약 2500년 전 제나라 25대 왕인 경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권택영 교수님의 설명) 이곳에서 순마갱의 생생한 모습을 보니 매우 경이로웠다. 우리 인류가 이런 야만적인 매장의 풍습에서 벗어나는 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필요로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인간 사회의 삶 속에 어떤 제도나 풍습이 자리를 잡는 데도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변화하는 데도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니 순장의 풍습으로 인해 살아생전의 주인을 위해 나란히 누워 있는 수많은 순마갱들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4일째는 제나라 시조인 강태공 사당과 고차박물관을 견학했다. 고대 시대의 전투는 마차가 주력이었다고 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평화로운 시기는 적고 살육의 전쟁 역사가 훨씬 긴 세월을 차지하고 있다. 고차박물관에서 전투용 마차를 보니, 머릿속에 ‘전쟁과 평화’, ‘성선설과 성악설’이 떠올랐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 인류는 세계도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얼마나 해왔을까를 떠올려 본다. 또한 조그만 반도에 자리를 잡은 우리나라가 고조선 이후의 역사의 흐름에서, 때로는 질곡의 험난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건재하고 있음에 대하여 무한한 자긍심이 느껴지기도 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더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재)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유적지 답사단의 일원으로 참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다. 우리 학생들 또한 미래에 지구촌 시대의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건, 한국인으로서의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생활하도록 그들에게 한국인의 혼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5일째는 적산법화원을 들러서 장보고 기념탑 주변 그늘에서 고경석 교수님과 권덕영 교수님으로부터 이번 일정에서 장보고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들었다. 과거 장보고가 세웠던 법화원이 자리 잡았던 터에 중국의 재벌기업인 적산그룹이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웅장한 규모로 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을 건립한 것이다.

장보고 기념관을 통해서 장보고의 출생에서부터 당나라에서의 생활, 신라에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한 후 해적들을 소탕하고 동북아시아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활발한 해상활동을 벌인 장보고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다.

우리 1호차에 탑승한 고경석 교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바다를 지배하는자 세상을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강조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인 장보고는 바다를 지배하면서 동북아시아 일대의 해상무역을 주도하였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이슬람 세력의 범위까지도 해외시장을 확대한 해상왕, 무역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의 역사인 통일 신라 시대에 에 대한 답사와동아시아 바닷길을 주름잡고 해상왕, 무역왕으로 군림한 장보고의 단순한 업적에 대한 답사와 고증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의 장보고를 통해 현재의 삶 속에서 장보고적인 개척 정신과 자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삶에서 어떻게 장보고

정신을 본받아 해상무역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경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해상왕 장보고처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땅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활동무대를 동아시아를 뛰어넘어 태평양 전체 해역으로 우리들의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함께 고민하면서, 장보고적인 개척정신과 탐험정신, 도전정신을 우리 시대에 되살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답사 여행을 주최하고 후원해 주신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동아일보사, 국토해양부에 감사하며, 이번 답사단 여행에 동참하여 장보고의 활동 부분과 업적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역사적 지식을 열성적으로 강의해 주신 권택영, 고정석, 장창은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5박 6일 동안 함께 호흡하고 그리워했던 인물 장보고, 그는 우리 한민족에게 살아 있는 전설이며, 후손들이 어떤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산법화원 장보고 기념관 앞에 우뚝 서 있는 동상의 모습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독도 분쟁에 휘둘리는 조국의 모습에 분노하면서…….

## 16 휴머니스트 해상왕 장보고와의 만남

강릉 강릉고등학교 한권중

모든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다. 이번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단의 일원으로 산둥 지역을 답사한 것은 역사교사로서 큰 행운이었다. 그동안 단순한 지식으로만 전달하였던 장보고의 업적을 많은 의미와 역사적 사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니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 장보고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답사단으로 선정되었을 때 무척 기쁜 마음으로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러서 자료를 보며 답사에 기대가 많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 일정으로 인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사에 임하겠다는 결심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출발지에서 주최 측의 답사 자료집을 받아들이고 대기하는 동안에 열심히 읽었다. 1200여 년 전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낸 시대를 앞선 진취적인 기상과 자랑스러운 업적을 체험하고자 이 행사가 준비되었다는 답사취지를 읽으면서



위대한 장보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선상에서 황해에서의 석양을 접할 수 있던 여행 첫날밤을 보냈다. 어두운 바닷길로 계속 전전하는 배 위에서 전국에서 모인 여러 선생님들과 신청하게 된 계기와 3번째 신청에서 된 분의 감동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선정이 남에게는 아쉬움이었기에 더욱 성실히 답사에 임하리라 생각하였다.

선상 세미나에서의 주최 측 인사말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번 답사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객실로 돌아와 장보고 선단이 다녔을 황해를 가로지르며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캔 맥주 하나를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마셨던 밤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앞으로 접할 답사 내용을 머리와 마음에 깊이 담아 가겠다는 결심의 밤이었다.

중국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현지 가이드는 아름다운 아가씨는 아



성산두

니지만 똑똑한 조선족 남성을 만나게 되었다. 이동 중에 중국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와 산둥 반도에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은 여행에 매우 유익하였다. 중간 중간 동승한 교수님의 강의도 들으면서 이번 답사에서 주최 측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성산두라는 곳인데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 있었으며, 진시황의 불로장생초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곳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도사 서복과 이사가 함께 모셔진 사당을 볼 수 있었다. 군사요충지로서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의 13만 군대가 출발한 항구로 우리 역사와도 밀접한 곳이다.

봉래(蓬萊)로 이동하는 동안에 장보고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동하였다.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였던 것 같다. 피곤했지만 나로 인하여 오지 못한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보고자 노력하였다.

중국 내 장보고 세력의 최대거점인 영성시 적산의 배후 지역인 연태(煙臺)는 위해(威海)와 더불어 장보고와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세우고 집단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봉래각으로 가면서 현지 가이드로부터 신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나라이든 전설적 이야기가 존재함을 느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래각은 산둥성 봉래시 북측 단아산에 있다. 봉래각과 천후궁 등이 있었는데 봉래각은 운해에 싸여 있을 때가 많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중국의 4대 명루 중에 하나라고 하니 방문한 자로서 감회가 새롭다. 천후궁(天后宮)이 있었는데 안내자의 설명으로는 천후란 전설에 의하면 남쪽 바다를 다스리는 여신이며, 바다를 향해 기우제를 지낼 때 천후에게 불공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선들이 주연을 베풀다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봉래각

서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풍유를 즐기려는 인간들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바로 연결된 곳이 등주수성이었다. 등주를 거쳐 장안성으로 간 신라의 견당사는 30여 차례에 달하고, 일본의 견당사는 7차례나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니 당시의 해상 교통로의 요지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보았던 등주수성은 명조(明朝) 때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으로 해상방어 체제를 형성하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중요한 관광지로 변화한 모습이었다. 등주수성에서 올라다 본 봉래각의 아름다움은 색다른 면이 있었다.

2006년 등주수성 해안에서 고려의 선박 2척이 발굴 인양되어 신라, 고려로 이어지면서 무역이 활발했던 곳으로 밝혀졌다. 등주고선박박물관(登州古船博物館)을 관람하고 둘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숙소에서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중국 땅 산둥성에서 접하게 됨을



동주수성

묘한 인연으로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셋째 날은 제국 역사박물관(齊國歷史博物館)에서 교수님의 중국 고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나라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었고 박물관에 들어가 우리 문화와의 연관성도 알 수 있는 유물을 접하면서 이번 답사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동이족이 3이란 숫자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토기의 발이 세 개인 유물들이 많이 있었다. 이를 보면서 고구려 상징인 삼족오가 생각이 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철기 시대 청동 화폐인 명도전도 만날 수 있었다.

순마갱(殉馬坑)을 접하게 되었는데 말의 머리 부분이 부서진 것으로 보아 죽여서 매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마로 모두 전쟁 시에 사용하였던 수말이라고 한다. 그 규모가 거대하고 큰 영토를 지닌 국가이기에 발견된 장소에 그대로 박물관을 만들어 보존할 수 있음이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유적지도 개발에 밀려 현 위치에 온전히 보존하지



제국 역사박물관

못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는데 부러울 뿐이다.

오후 일과는 정말 기대가 되던 태산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5대 명산 중 동악(東岳)인 태산(泰山)은 ‘오악지장(五岳之長)’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는데 그 이유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일반 백성들도 태산에 한 번 오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태산등정이 숙원이라고 하는데 세월이 흘러 범부들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이국땅에서 말로만 듣던 태산을 현대문명의 도움으로 쉽게 오를 수가 있었으니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다.

태산은 기대한 대로 정말 장관이었으며 진시황이 황제로 등극한 후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다고 한다. 모든 황제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 태산에 오른 것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아름다운 모든 경관은 마음에 담아 오래 간직하기로 하고 현지 안내자가 말한 강희제의 ‘果然’



강희제의 '과연'

을 찾아 사진을 찍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방인 여행자 입장에서 산 정상에 많은 인위적 건축물들이 자연의 경관을 방해하고 있음을 느끼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여관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산의 정상에 오르면 내려가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머무르고 싶어 한 인간의 욕심을 느끼게 한다.

넷째 날은 강태공 사당에 가게 되었다. 강태공은 낚시와 관련된 이야기만 알고 있다가 교수님의 설명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 역사 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곧은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 주(周)나라의 문왕을 만나게 되고, 문왕이 죽은 후 무왕을 도와 폭군 주왕의 폭정에 저항하여 은(殷)을 멸망시킨 인물이다.

무왕은 주나라를 세우고 강태공을 가장 동쪽의 제(齊)나라의 초대 왕으로 임명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제나라의 초대 왕으로 기념하기 위해



중국 고차박물관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의 의관총(衣冠塚)이다. 이곳의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올바른 정치인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는 강태공의 사당을 나오면서 지혜로운 인간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

중국 고차박물관(中國固車博物館)은 임치구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제일 정확하고 완전한 차마유적(車馬遺跡)과 문물이 일체화 된 고차박물관이었다. 고차전시실에는 고대의 복원차량을 접할 수 있었고 중국 차량의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공간이었다.

청주박물관(靑州博物館)에 가게 되었는데 무더운 날씨에 남무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관람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관람을 했다. 박물관의 건축모양에서도 중국 전통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여 유

심히 보았고, 관람하기에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3만여 건의 역사문  
화재가 있는데 중국의 현금 박물관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하였다.

소장한 유물의 전체를 관람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최대한 많은 곳  
을 보고자 안내자와 교수님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면서 관람을 했다. 이  
동하다가 불교 문화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지닌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  
나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매우 유익하였다. 우리들의 일행에 이런 분도  
계시다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겸허한 마음을 지니고 박물관을 나왔  
다.

이번 답사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곳이다. 내 역사적 지식을 키우는 데 정  
말 유익한 곳이었다. 박물관 남쪽의 용흥사(龍興寺) 유적지에서는 불상이  
4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용흥사 내에 엔닌이 유숙했던  
신라원이 있었을 거라고 하니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겠다.

위해로 이동하면서 현지 안내자의 설명과 교수님의 강의도 듣고, 장보  
고 관련 동영상도 접하게 되었다. 현지에서 생산된 과일의 가격이 저렴  
하기에 사서 나누어 먹으며 친분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술을 마시  
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에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답사에서는 주어진 시간들에 너무나도 소중함을 느낀 순간들이  
었다. 장보고의 인간적인 면에 감동도 받고, 나태해진 자신을 새롭게 변  
화시킬 자극을 받으면서 보낸 시간들이었다. 저녁에는 주최 측인 동아일  
보사에서 제공하는 저녁을 먹으면서 국토해양부의 근무하시는 분들과도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고, 숙소로 돌아와 동료 선생님  
몇 분과 바닷가에서 마신 술자리도 즐거웠다. 높은 경쟁률을 통과하여  
답사단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 좋았던 하루였다. 이제 중국에서의 마지



막 날만 남아 있다. 내일은 중국 답사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장보고가 대당 신라인을 위해 세운 적산법화원에 갈 기대를 가지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될 날의 아침이 밝았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새벽에 호텔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법화원에 대한 기대와 이번 답사로 인하여 행복했던 순간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요, 성숙이라 생각한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적산법화원으로 향하였다. 가이드는 정말 아는 것이 풍부하였고, 유익한 답사의 진정한 공로자였다.

‘즐겁게 마신 술로 인하여 내일을 그르치지 말자’라고 술을 좋아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듯한 구호를 외친 적이 있다. 어찌 영향이 없겠는가 하겠지만 어제 함께 술자리를 했던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의욕적으로 법화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믿으며 정말 기대되는 일정이었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의 승려로서 당나라에 가는 사람은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적산법화원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답사를 시작하였다.

장보고 기념탑(張保臯紀念塔)에서의 이유진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오랫동안 장보고를 연구한 분과 만남은 정말로 행운이었다. 장보고의 일대기와 법화원에 관한 남무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장보고의 혼과 신라인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안을 보며 장보고 선단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았다.

대당 신라인에게 희망이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 너무나 인간적인 해상왕 장보고를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많은 곳을 둘러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념탑에서 바로 보이는 거대한 적산명신을 향해 가면서 큰 규모와 위엄에 놀랐다. 내부의 2층에는 많은 보살상이 조각되어



장보고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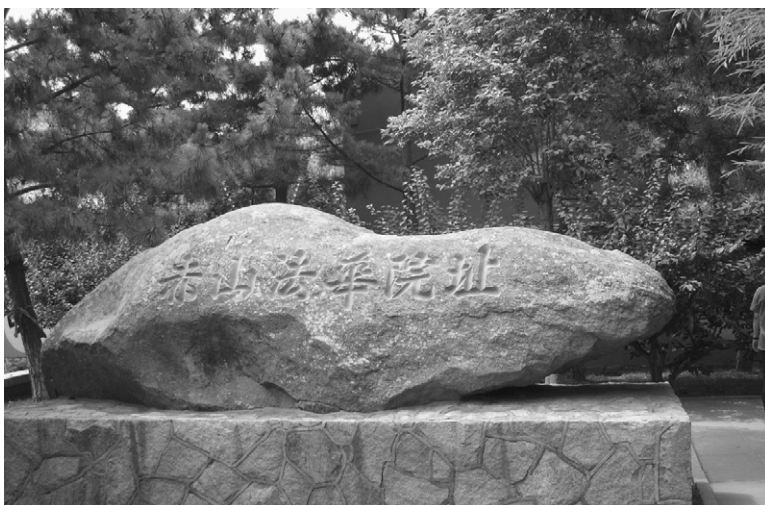


적산명신

있었다. 무더운 날씨가 관람에 방해는 되었으나 적산법화원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열심히 내려오니 법화원 불당이 있고 관음전이 있었다.

1989년, 영성시민정부에 의해 중건 되어 일반에 공개된 절이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이 비석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원의 대웅보전을 지나 이동하던 중 ‘赤山法華院址’란 비석을 보면서 장보고와 신라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연간 5백 섬의 알곡식을 수확하는 장전(莊田)을 소유하였다고 하니 타국에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원의 크기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장보고와 이 사원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중국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사찰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엔닌이라는 일본 스님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보고와 이 사찰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후손으로서 반성이 되는 대목이다. 당의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이 장보고 정연



적산법화원 비석

의 전기를 지어 그의 문집 《번천문집(樊川文集)》에 신고 장보고에 대한 놀라운 찬사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장보고에 대한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일선 학교에 홍보되어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변화된 것은 막연하게 알았던 장보고를 위대한 인본주의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828년경에 신라에 귀국하였는데 그 동기는 신라인을 나포하여 노예로 속여 파는 해적선의 출몰을 소탕하는 데 있었다.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 대사’로 임명된 해가 828년 4월인데, 당의 ‘신라 노비’ 매매금지령이 10월에 내려진다.

장보고의 노력에 의한 결과일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관세음보살상

또한 장보고는 신라인으로서 대당신라인을 위한 노력이나 법화원을 중심으로 신라인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대당 신라인의 결속과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참된 인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산둥 지역을 답사하면서 신라인들의 대당 무역의 중심지를 돌아볼 수 있었고, 장보고의 선단의 진출 지역에 대한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장보고에 대한 무지함으로 교단에 선 것이 참 부끄럽기까지 하다. 신라 말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승고함으로 해적을 소탕하며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 업적을 생각하면 역모설로 인하여 그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해상 강국을 희망하며 위대한 선각자 장보고를 홍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답사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생활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친다.

## 17 200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청주 용암중학교 김봉식

### 첫째 날(8월 6일) - 화동훼리에 날개를 달고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신청을 해서 10대 1의 경쟁에서 선발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두 차례의 고배를 경험한 후에 맞는 행운이라 기쁨이 배가 되었고 선발자 명단에 있는 이름이 자랑스럽고 가슴 설레었다.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며칠 전부터 가방 속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여 여행용 가방이 내 몸처럼 똥똥해져 갔다.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것 같아 고추장과 김을 준비했고 개운한 찻잎 장아찌도 가방에 넣었다. 이동에 필요한 배낭형 가방을 준비에 어깨에 꼭 맞게 메고 개척자 해상왕 장보고를 만난다는 기대감과 설렘도 가득 담아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행 버스에 올랐다. 내 마음처럼 푸르고 밝게 빛나고 있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2시간을 달려 인천에 도착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기사님의 구수한 인천 지역 개발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집합시간보다 2시간 이상 일찍 도착한 것 같다.

터미널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대합실의 에어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터미널 밖 정자 앞으로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 선생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었다. 전국에서 온 좋게 선발된 100명이 넘는 답사단 선생님들은 ‘해상왕 장보고 KT’ 글자가 새겨진 모자와 안내 책자를 받아들이고 주의사항도 듣고 조별로 눈인사도 나누었다. 모두들 내 마음과 같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화동훼리에 올라 정해진 305호 객실에 여장을 풀고 같은 방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가 승선한 화동훼리는 19,534톤급, 폭 26.8미터, 길이 174.5미터의 여객선인데 승객 정원이 1,000명으로 레스토랑, 라운지, 면세점, 잡화점 등의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여장을 푼 뒤 갑판에 올라 석양에 물든 바다를 보며 1200년 전 장보고의 심정을 느껴 보았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어서 신분 차별이 없는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었던 장보고의 심정은 강한 개척자의 정신이었을 것이다. 중국 하남성 여행 시에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화동훼리 선상식은 다행히 입에 맞았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을 실은 화동 훼리는 멀어져가는 인천항을 뒤로하고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어두운 바다를 미끄러지듯 항해하였다.

저녁 8시에 대식당에 모여 김성호 과장님으로부터 5박 6일간의 답사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듣고 이어 시작된 허부문 교수의 선상 강의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경청하였다. 장보고 대사의 활동 무대인 산둥성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가치와 함께 장보고 대사의 업적

을 생각해 보았다. 장보고 대사는 시대를 앞서간 해상 경영의 선구자였고 1200년 전 완도에서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한 뒤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또한 동남아와 인도·이슬람까지 시장을 확대하였다고 한다. 늦은 밤 같은 선실 선생님들과 친교 시간이 무르익으며 칠흑 같은 황해 바다에서의 밤은 지나가고 있었다.

**둘째 날(8월 7일) - 성산두에서 불로초,  
봉래에서 신선과 조상을 만나**

선창가에 비친 희미한 빛에 커튼을 걷으니 어느 새 어둠이 걷히고 햇볕에 반짝이는 파도가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시간이 늦다.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돌리고 핸드폰도 국제로밍에서 중국 권으로 바꾸어 놓고 갑판위로 올라갔다. 장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1200년 전 장보고가 대륙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한반도와 가까운 곳 석도항이다. 같은 조 선생님들과 반가운 아침 인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선상식으로 맛있게 하고 입국 수속을 마친 뒤 버스에 올라 영성으로 향했다.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서 우리가 여행하게 될 곳은 산둥성이다. 산둥성은 한반도와 인연이 많은 곳으로 현재 한국에 들어온 화교의 대부분이 산둥성 사람이며, 한국인들이 먹는 중국 음식 가운데도 산둥 음식이 많다고 한다. 산둥성은 역사적으로는 중국 고대 문화 발상지 중의 한 곳이었고 춘추전국시대에는 제나라와 노나라가 있었고 진, 한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는 위 의 통치에 있었다고 한다. 산둥성은 지리적으로는 황하 하류가 지나고 있고 우리나라 서해안과 마주보고 있다. 총 면적은 약

15만 6,700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전체 면적의 1.6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남한의 1.5배에 달한다. 산둥성의 총인구는 9,125만 명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전 성인인구의 85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후는 난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여 사계절이 분명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11~14도, 강우량은 330~950미터이다.

버스로 1시간을 달려 산둥성의 항구도시 영성에 도착하였다. 영성은 우리나라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시황 유적, 동천문, 성산두 등의 유적지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출신 가이드의 설명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1호차 선생님들의 각자 특색 있는 자기소개가 있었는데 역시 선생님들답게 발표력도 좋으시고 재미있었다.

진시황 사당에서 허부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진시황 사당을 관람하였다. 진시황 사당은 원래는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찰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인데 후에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희망봉'으로 불리었던 성산두이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쪽으로 나아가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 그곳에 멈추어서 아쉬워했다는 곳이다. 이곳에 서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우는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예로부터 군사요충지로 백제를 치기 위하여 660년 소정방이 13만 수군을 이끌고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위해시에서 중국식 볶음 요리로 점심을 마치고 3시간 30분을 이동하여 당도한 곳은 봉래각과 등주수성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래각은 산둥성 봉래시 북측 단아산에 있다. 북송 가우 6년(1061년)에 만들어졌으며 단아산에 우뚝 서있는 봉래각은 운해에 쌓여 있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경치가 아름다웠다. 봉래각은 신선들이 주연을 베풀던 곳으로 전해져 이누각에 오르면 마음이 후련하고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한다.



건축이 웅장하고 멋지다.

옛 등주항은 지금의 봉래 북쪽의 해변가에 위치하였으며,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시키는 노철산 수로의 출발지였다. 5000여 년 전부터 요동반도와 해운업을 하였는데, 주변지역에서 선박관계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고조선과 이곳을 통하여 교역을 하였으며, 진나라 때의 서복도 이곳에서 출발하여 일본열도로 갔다고 한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견한 곳도, 고구려와 수·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때 대규모의 수군을 발진시킨 곳도 바로 이 일대였다고 한다. 또한 732년에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수군으로 공격하여 점령하고 자사인 위준을 죽인 곳도 바로 이 등주성이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봉래에는 많은 신라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을 ‘신라방’이라 하고 그들을 접대했던 여관을 ‘신라관’, 감독기관은 ‘신라소’라 하며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등주항은 자연항만인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옛날부터 해군의 요새지였다고 한다. 해변가에 위치한 등주수성은 여러 차례 전쟁에 휩싸인 접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다. 통나무배, 용선, 차륜선, 모래선 등 4가지 선박들을 화강석으로 조각해 놓은 등주 고선박물관을 둘러보고 재촉하는 가이드를 따라 차에 올랐다. 봉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중국에서의 첫 밤을 맞이하기 위하여 유방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유방은 중국 산둥성 중동부에 있는 도시로 창웨이 지구의 행정 중심지로 웨이현과 그 남쪽 탄광도시 팡쯔를 합친 도시이다. 면적은 1만 5,859 제곱킬로미터, 인구 824만 명이다. 유방은 역사상 유서 깊은 도시로 7000여 년 전 신석기시대의 유물과 하대, 상대, 춘추전국시대의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 역사의 도시이다.

차창 밖으로 옥수수 밭과 포플러나무 밭 그리고 붉은 기와집이 웅기  
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지나간다. 날씨 탓인지 옷옷을 벗은 중국 남성들  
이 눈에 많이 띄어 여선생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동차 경음기  
소리를 울리며 겁 없이 중앙선을 마음대로 침범하면서 달리는 기사님 때  
문에 정신 차리며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유방시에 도착하였다. 장보고 대  
사가 중국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하며 부화호텔에  
여장을 풀고 중국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하였다.

### 셋째 날(8월 8일) - 제경공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뒹이로다

모닝콜이 5시 30분에 힘차게 울렸다. 무겁게 늘어진 눈을 비비면서 오  
늘 하루 시작을 위해 몸단장을 하였다. 중국 볶음 요리가 하남성보다는  
입에 맞는 것 같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청고속도로를 경유하여 1시간  
가량 달려 치박에 도착하였다. 치박시는 중국 동부 산둥성의 북부에 자  
리 잡고 있으며, 기후는 난온대이고 사계절이 분명하며 관광자원이 풍부  
하여 도시 동부의 임치에는 동주 때의 순마갱과 고차박물관이 있다.

제경공 순마갱은 사람 대신에 말을 생매장하여 무덤을 만든 곳으로 일  
렬로 가지런히 누워 있는 전쟁에 사용되었던 수말들을 보니,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에 제경공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잔인함과 사치스러움  
이 엿보인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선제시대, 제국시대, 음악청, 무위청, 성곽청, 과  
기청 등으로 나뉘어 제나라 8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삼족

토기와 각종 무기류, 명도전이 전시되어 있고, 현대 축구의 기원이 중국 제나라에 있다는 여러 증거들(축구공, 축구하는 각종 그림 등)을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순장했던 모습들을 모형으로 전시하여 강력하고 잔인했던 지배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둡고 무더운 박물관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쾌적하고 엄숙한 전물과는 너무도 비교가 되었다.

치박에서 볶음 요리에 청도 맥주를 곁들여 점심을 먹고 버스로 태안으로 향하였다. 이동하는 차안에서 KBS 다큐멘터리의 <해상왕 장보고>를 시청하였다. 작가 최인호 선생님의 안내로 바닷길을 통한 9세기의 동서 해양문명의 교류와 무역 활동의 개척자였으며, 1200년 전 신라인으로 그 당시 중국연안에 출몰하는 해적무리를 모두 소탕하여 우리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떨쳤고 또한 해상 무역을 주도한 해상왕으로 일본과 중국 당나라에까지 위상을 떨친 장보고의 개척 정신이 소개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옥수수 밭과 정돈되지 않은 시골 풍경, 그리고 중국 농민들의 구릿빛 얼굴에서 우리들의 옛날 정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3시간 정도를 달려서 도착한 태안은 중국 산둥성 중부에 있는 도시로 면적은 7,745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 530만 명이다. 중국 최대의 여행 도시 태안 시내에 위치한 태산은 중국 5대 명산 중 으뜸으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태산은 ‘오악지장’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명승고적과 절벽마다 새겨진 비문이 있어 태산을 세계에서도 드문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가 되게 하였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산은 신령스런 산으로서 태산에 한 번 오르면 지상에서 적어도 10년을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태산 등정이 숙원이었다고 한다.

태산은 해발 약 1,545미터로 산둥성에서도 최고로 높은 산으로 산둥성 동부·제남시·태안 등 3개의 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진시황으로부터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다. 또 태산은 봉선의식이 거행된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봉선은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의식이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황제만이 허락을 받았다 하는데 유사 이래 진시황, 한의 무제, 당의 현종 등이 봉선을 했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태산은 그리 높지 않아 아담한 느낌이 들었는데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맞게 된 많은 명승고적과 비문은 우리들 마음을 움직일 만했고 도로 주변으로 펼쳐지는 태산의 절경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태산 등정을 마치고 피로해진 몸을 중국의 볶음 요리로 달래고 셋째 날을 마무리하기 위해 치박으로 달렸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근사한 호텔이 중국에서의 두 번째 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 베이징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식전 행사가 끝나고 국가별 선수 입장 모습 중계방송을 보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입장 모습에 반가웠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짧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요즈음 남북 관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남북정상 간의 만남도 무산된 상황에서 이런 중계방송을 대하니 마음이 아팠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과 함께 중국에서의 두 번째 밤이 지나고 있었다.

### 넷째 날(8월 9일) - 강태공과 낚시, 중국의 청주박물관

오늘도 역시 힘찬 모닝콜과 함께 눈을 비비며 하루를 시작했다. 선생

님들의 문안 인사를 받으며 뷔페식 요리로 아침 식사를 하고 강태공 사당으로 향하였다. 시절이 어수선하여 낚시를 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강태공은 중국 역사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산둥성에서 태어났다. 위수 강변에서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 문왕을 도와 반란을 꺾하다 문왕은 죽고 대를 이은 무왕을 도와 끝내 폭군에 시달리던 은을 멸망시켰다. 그 공으로 제나라의 초대 왕으로 강태공이 책봉되었다고 한다.

강태공 사망 후 주나라의 관례로 시신은 원래 섬겼던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무덤 주위에 묻었다고 하지만 봉분이 없는 탓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모른다고 한다. 제나라 초대 왕으로 기념하기 위해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오늘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의관총이다. 의관총은 높이 28미터이고 남북길이 50미터, 동서 길이 55미터이다. 의관총 앞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다.

강태공 사당을 뒤로하고 우리가 찾아간 곳은 임치구 제릉진 후이관장에 있는 임치 중국 고차박물관이다. 현재 중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제일 정확하고 완전한 차마유적과 문물이 일체화된 고차박물관이다. 고차진열실에는 후이차마갱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의 차량과 임치지구에서 출토된 고대차량의 복원차량 및 전국에서 출토된 각종의 고대차량의 복원차가 진열되어 있었다. 이곳은 중국 고차 연구와 중국의 역대의 차량의 진품을 집중시킨 곳으로 중국 차량의 유구한 역사와 세계차량발전사상의 선진적인 차량 제조기술의 지위를 말해 주고 있다. 중국 고차 옆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몇 장 만들고 가이드의 자상한 안내를 받으며 관람을 마치고 청주박물관으로 향하였다.

버스로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청주박물관은 경치가 아름다운 청주성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3만 여건의 역사문화재가 있는데 전국 박물관

관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한다. 남무희 교수의 강의는 우리들을 가끔씩 웃게 하는 유머러스한 말투와 함께 중국 고대 문화와 청주박물관에 대한 개요를 쉽게 알아듣게 해주셨다. 청주박물관의 방대한 유물을 관람하면서 중국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다.

청주박물관을 뒤로하고 유방으로 이동하여 장보고 대사의 첫 밤을 생각하며 우리가 묵었던 부화호텔에서 조별로 모여서 중국요리를 돌리고 돌리면서 맛있게 먹어보았다. 점심을 마치고 위해로 이동하였다. 위해로 이동하는 데는 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이동 중에 KBS 다큐멘터리 <해상왕 장보고>의 남은 부분을 시청하였다. 장보고는 세계인이며 무역인이다. 장보고는 9세기 전반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상질서를 이룩하고 신라·당·일본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페르시아·동남아시아 세계와의 교역에도 관여하여 해상무역왕이 되었다.

그러나 장보고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역사상 장보고처럼 중국·일본 등 이웃나라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장보고에 관한 사료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모반의 혐의를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던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바닷길이 열려 해상활동이 활발하였던 나라는 번성하였고, 반면에 그 길이 막혀 해상활동이 부진하였던 나라는 오래지 않아 멸망하였다고 한다. 1200년 전 장보고가 이미 구상하고 실천하였던 동양평화 및 세계화 정신을 계승하여 위대한 해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장보고 대사에 대한 생각에 젖어 어느새 위해시에 도착하였다. 저녁 식사에 삼겹살을 제공한다는 말에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동아일보사에서 삼겹살을 비롯한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해서 분위기에 젖기 좋아하는 같은 조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른한 몸을

이끌고 장보고 대사의 심정으로 계명홀리데이 호텔에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 다섯째 날(8월 10일) - 해상왕 장보고 적산법화원에 우뚝 서다

오늘은 모닝콜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장보고 대사에 대한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을 답사하기 때문이다. 목욕재계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호텔 식당에서 시간 맞추어 식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석도항은 산동성 오른쪽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보고 대사가 활동할 당시에는 문등현 청녕항 적산촌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적산포는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며, 중원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인이 모여 살던 적산촌이 있었다.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지인 적산포는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박이 오고가던 곳이었으며, 일본으로 교관선이 출발하던 항포였다. 또한 법화원의 승려들까지도 일본으로 쉽게 갈 수 있었던 곳이며 후일 일본의 승려 엔닌도 이곳 적산포에서 귀국하였다고 한다.

적산법화원은 820년대 초반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의 승려로서 당나라에 가는 사람은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적산법화원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일본 천태종 3대 좌주인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장보고와 적산법화원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적산법화원은 당시 중국에 살던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법화원은 북쪽으로는 적산이 우뚝 솟아

진산을 이루고 서남쪽은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며 동쪽은 활짝 열려 바로 아래 산동 제일의 어항 석도만과 오나라 철공인 간장의 전설이 전해오는 막야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절마당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맑은 물이 이 절의 운치를 한껏 더해 준다.

세계한민족연합회 주도로 1994년 건립한 장보고 기념탑 앞에서 이우진 교수의 힘찬 음성으로 장보고의 생애와 활동 및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07년 개관한 장보고 기념관을 돌아보며 해양 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에 가슴 뭉클하였다. 장보고 기념관은 중국 영성시와 산둥척산수산그룹이 석도적산풍경명승구 내에 건립하였고,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는 전시물 등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적산법화원의 규모는 연간 500점의 알곡식을 수확하는 넓은 토지를 소유했고 당시 거행된 겨울철 《법화경》 강의에 모였던 스님과 신도들의 수로 추측이 가능하리라 할 것이다. 적산명신과 관음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적산법화원 내 전경은 웅대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가이드의 시간 늦지 않게 오라는 말도 잊은 채 대웅보전, 삼불보전, 관음전 등을 돌아보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취해 시간을 넘겨 가이드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눈충을 받았다.

석도호텔에 도착하여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장보고 대사와 함께 중국의 볶음 요리로 점심을 마치고 석도 해안에서 장보고 대사와의 이별을 위한 마지막 이벤트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해상왕 장보고 그대는 진정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며 애국자였으며 해상무역의 개척자였다.

장보고 대사와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채 석도항으로 향하여 출국 수속을 마치고 화동궤리에 올라 305호 객실에 짐을 풀었다. 5일 동안의 여정



을 이어온 탓으로 다른 선생님들도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고 많은 보물을 가방에 가득 담아온 듯 뿌듯해 하였다.

저녁 식사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간단한 샤워로 풀고, 갑판에 올라,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상념에 젖었다. 답사 기간 동안에 거쳐갔던 중국 유적지와 장보고 영정이 눈앞에 영상으로 지나간다. 저녁 식사는 선상식으로 자유롭게 하였다. 같은 조 선생님들과 헤어 지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이탈리아와 올림픽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다. 이탈리아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기대감으로 모든 답사단 선생님들은 소리내어 응원했지만 3대 0으로 크게 패하였다. 실망이 크지만 마음을 다스리며 석도항에서의 밤은 저물어 갔다.

### 여섯째 날(8월 11일) - 돌아오는 화동훼리에서 상념에 젖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인천 앞바다로 항해하는 화동훼리의 갑판 위에서 해상왕 장보고의 기상을 보았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을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1200년 전에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을 오가며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던 해상왕 장보고의 모습이었다.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에 펼쳐지는 인천대교의 장엄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건축 기술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이 광경을 놓칠 수가 없었다. 몸이 날아갈 듯 세차게 부는 바람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갑판에 올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화동훼리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을 꾸려 하선을 한 뒤 그동안 정 들었던 여러 선생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청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5박 6일간의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

사를 통하여 광대한 중국 대륙의 자연 환경과 문화 유적을 보았고, 요즈음 눈에 띄게 변해가는 중국의 모습에서 중국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한·중·일 삼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멀리 이슬람까지 통상하는 등 한반도를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키웠던 장보고 대사의 진취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사상과 업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리고 장보고의 개척 정신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계승·발전되기를 기원한다.

## 18 장보고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경주 양동초등학교 유영애

“선배 장보고 같이 가요.”

7월 초, 출근할 준비로 바쁜 아침 시간 한 통의 문자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려 대충 확인한 문구였다.

‘장을 보다니……. 또 장을 보고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야? 애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하면서 그냥 지나쳐 학교로 차를 몰다 혹시 하는 생각에 그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장보고 답사 명단에서 아는 사람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고 반가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사실 좋은 여행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던 바에 아는 사람도 없는 이런 답사 여행은 비사교적 성격의 나로서는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학교 선생님이 신청하자고 해서 덩달아 신청하면서도 ‘설마 되겠냐’라는 생각으로 무심히 넘겼기 때문에 명단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2차 선발대로 뽑혀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

가 남아 있는 산둥반도의 여러 곳을 답사하는 행운을 얻게 되다니, 내 삶에 이런 짜릿한 행운이 오다니 가슴 속에 작은 설렘이 일었다.

7월 30일,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앞 미팅 장소에는 답사 여행을 함께 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홀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신선함,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대한 설렘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두어 시간의 입국 수속 후 여객선에 올랐다. 배 이름은 화동훼리 호, 화동훼리 호는 길이 174미터, 폭 26미터의 1만8천 톤 급으로 탑승 인원이 1,000명이고, 침실, 식당, 휴게실, 욕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컨테이너 적재가 253TEU에 달하는 대형 여객선박이다. 오후 6시에 출국 수속을 마쳤지만 배는 7시 30분이 넘어서야 출항했다. 여객과 화물을 같이 실어 나르는 객화선이라 화물 선적에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

작년에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의 큐슈 지방을 다녀 온 적이 있었는데 비



화동훼리 호 모습

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지정된 좌석에 꼼짝없이 간혀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공유하는 선상 여행의 매력에 동화되었었다. 이번 답사도 그래서 신청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며 같은 호실에 배정받은 5명의 선생님들과 통성명을 나누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넓은 갑판 위에 올랐다. 시원스럽게 바닷물을 가르며 달리는 여객선과 힘차게 도약하는 갈매기들의 향연을 보며 우리들은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어댔다.

갑판 위에 어둠이 내려앉고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뒤로하고 선상 세미나가 있는 식당으로 가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겸 교수님의 '장보고와 그 정신의 현대적 이해'라는 주제로 장보고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4개 해상항로에 대한 내용, 장보고 성공의 비결과 장보고 정신에 대한 설명이었다. 답사 단원들의 첫날 일정의 고단함을 배려한 듯 1시간 정도의 간략한 설명이었지만, 단순하고 건조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장보고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느껴 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여행이라 보다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았으며 우리 답사 일원들에게 어떤 묵직한 사명감도 느끼게 하였다.

세미나를 마치고 다사 한 번 밤바다를 구경할 일이 생겼다.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 외에 적막만이 감돌고 갑판 위는 더욱 선선하였고 아스라이 떠 있는 별빛은 나그네에게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시속 30~40킬로미터로 쉼 없이 꼬박 밤을 새워 건너는 밤바다는 여객선의 거친 숨소리와 배 주변으로 퍼지는 하얀 포말과 더불어 그 분위기를 자아냈다. 반짝이며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어선들과 사방을 밝게 비추주던 등대 불빛도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목선

으로 바람에 의지해 이 넓은 바다를 오고 갔을 장보고 선단의 항해 모습이 떠올랐다.

낮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밤에는 시원한 밤바람과 환한 보름달, 영롱하게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벗 삼아 끝없는 바다를 항해했을 것이다. 아무런 항해 장치도 없는 목선은 때로는 잔잔한 바다 위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악천후를 만나 거센 비바람과 산더미 같은 파도에 가랑잎 같이 흔들리기도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남기 위해 악전고투했을 것이다.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남부사단항로라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장보고 선단의 활약이 오랜 시간 속에서 이제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것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늦은 시각에 다소 지친 몸을 이층 침대에 누우니, 규칙적인 여객선의 기관소리와 묵직한 진동을 자장가 삼아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석도항에 도착했다.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박이 오고가던 곳이며 일본으로 교관선이 출발하던 항포로 장보고의 통제 하에 있던 국제무역항이었다. 한반도를 향해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 동쪽 끝의 작은 항구도시 석도는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330킬로미터밖에 안 된다고 한다. 산둥성에서 아침 닭이 울면 그 소리가 서해 연안마을에서도 들린다는 좀 과장된 말이 있을 정도다.

가까운 만큼 교류도 많았던 것 같다. 장보고 당시에는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으로 불리었다. 적산포는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며 중원과 일본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했다고 한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들은 3대의 버스에 나누어 올라 본격적으로 장보고의 흔적이 있는 산둥반도의 일원을 돌아보았다. 얼핏 생각하기에 산둥반도 내지 산둥성 하면 중국의 동쪽 변두리의 극히 좁은 면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1.5배였으니 그 여정은 우리나라 전국 일주를 다녀온 것보다 더 큰 여정임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3호 버스 안에서는 어제 선상 세미나 주제 강연을 하신 김창겸 교수님이 우리 버스의 강의를 맡아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연변이 고향이라는 현지 가이드, 온누리 여행사 가이드, 동아일보사 및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함께 탑승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모두들 장보고 답사라는 기회를 가진 것이 큰 행운이라고 신바람 나게 이야기해서 분위기는 금방 달아올랐고 끈끈한 동료애로 화기가 넘쳐흘렀다.

비록 앞 뒤 좌석 간격이 좁아 불편하고 속력을 내지 못하는 버스와 덜 커덩거리는 도로 사정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창 밖 관찰이라는 선택을 하였는데 가는 동안 중국이라는 큰 땅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동반도의 들녘은 온통 끝없는 옥수수 밭이다. 혹시나 벼를 가꾸는 논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답사 내내 밭을 보았지만 한 번도 논을 본 적이 없었다. 나지막한 구릉과 산비탈에도 밭을 일구어 온통 옥수수 밭이다. 옥수수는 식량으로 이용되거나 돼지의 사료로 이용되는데, 돼지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라고 한다.

드넓은 옥수수 밭에 비해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들판은, 넓은 중국 대륙의 광활함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고 다소 황량하게 느껴졌다. 이 옥수수 밭 중간중간에는 허름한 군대 막사 같은 모습의 붉은색 지붕을 한 농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간혹 가다 펼쳐지는 시장은 약장수들의 손님 끄는 모습, 야기저기 흥정하는 모습 등 우리나라 60년대 말의 시장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 반가웠다. 가로수와 꽃들도 무궁화와 백일홍 등 지금 한창 피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과 똑같은 수목

들이었다. 단지 산지가 별로 없고 끝없는 평지만 계속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는 위해의 영성 성산진 깎아지른 절벽 끝에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이라는 ‘천무진두(天無盡頭)’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중국의 가장 동쪽 끝인 성산두에 서서 우리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날씨가 화창하면 이곳에서 바다 건너에 한국이 보인다고 하였지만 아득한 바다만 보일 뿐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중국의 동쪽 끝 바다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저며 오고 감격스러웠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 많은 신라 상인들이 이곳에 거주하였고,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 그들을 접대했던 여관인 신라관, 무역 기관인 신라소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봉래’를 구경하였다.



天無盡頭라고 쓰인 성산두에서

사흘째 일정으로 춘추시대 제나라의 국군 제정공의 묘로 600여 필의 말이 순장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의 순마갱 관람을 했다. 매장된 말들은 전쟁시 사용하던 전마로 모두 수말이라고 한다.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마차고도의 이야기를 봐도 중국에서의 말 무역은 힘들고 고달픈 여정이다. 이처럼 까마득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까지 말 한 마리라도 구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무역으로 보아 말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으리라.

그렇게 중요한 600마리나 되는 말이 주인을 위한 순장이란 고상한 이름으로



여기에 회백색의 뼈로 생매장당하여 누워 있다니 그 당시의 권력과 600마리의 말 절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섬뜩해진다.

태안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태산을 올랐다. 답사 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여행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우물쭈물 하다가도 태산만큼은 자신있게 말했듯이, 우리 모두 친숙한 곳 태산은 해발 1,545미터로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서 태산의 계곡을 내려다보며 옛날 황제가 봉선의식을 행하기 위해 수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장엄한 행렬을 지어 태산을 오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정상을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돌비석 등의 옛 유적과 종묘가 있어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중국 역사의 깊이를 느껴 특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높은 산 위에 많은 상가와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태산에서의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정상을 뒤로하고, 올랐던 계단 길



태산에서

을 걸어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내려왔다. 언제 다시 또 태산을 오를 수 있으리. 아쉬운 마음에 오래도록 태산을 기억할 만한 기념품을 찾다가 ‘태산(泰山)’이라고 새겨진, 수석을 하나 샀는데 손바닥만 한 신문지로 수석을 둘둘 말아 주는 것을 보고 중국의 경제 수준을 새삼 느낀다. 곧 다가올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러 가면서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100년을 준비했다던 베이징 올림픽을 끝낸 중국의 기세로 보아 언젠가 다시 오게 되면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넷째 날은 강태공 사당에서 예전 부끄러운 사대주의 때문에 자기의 성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여 중국 성씨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몇몇 성씨들의 족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직 대통령도 강태공의 후손이라는 명목으로 이곳 강태공 사당을 찾아 자신이 왔었음을 남겼다고 한다. 또 어떤 성씨는 강태공 사당을 복원하는데 큰돈을 기부했다는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가정의 족보부터 철저한 고증을 거쳐 새롭게 수정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고차박물관, 청주박물관 등 중국 옛 왕조의 역사 유적을 마주 할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위해로 가서 동아일보사가 베풀어 준 한국식 고기 뷔페를 즐겼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새콤한 물김치와 진짜 우리 김치와 꼬막무침 등 황홀한 저녁을 먹은 뒤 호텔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 일행은 그 흥을 다 이기지 못해 다시 호텔 뒤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맥주와 꼬치를 안주로 다시 한 번 인생을 논하며 이국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밝혔다.

드디어 5일째, 답사의 마지막 날 다시 석도로 가서 장보고 답사의 마지막 종착지 적산법화원 및 장보고 기념관을 견학했다. 장보고는 8세기 후반 완도, 혹은 그 인근에서 미천한 섬사람의 신분으로 출생하여 유년기

를 보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시 굶주림에 시달리던 많은 신라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장보고도 살기 힘든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서주의 부하 1,000여 명을 거느린 무령군 소장이라는 군직에 올랐으며 828년 신라에 귀국하기 까지 20~30년간 당나라에서 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나라의 장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무용이나 통솔력 등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짐작케 한다.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신라 교민들은 양자강 이북의 중국 동해안 지역과 내륙의 대운하지역 곳곳에 집단 거주하면서 단결력과 진취적 기상을 과시했다. 당시 한민족 중에는 신라 교민들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유민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따라서 장보고의 단일명령계통 아래 정신적으로 연결된 고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 장보고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해상무역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뿐



장보고 기념관에서

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정신적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위해 법화원을 지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당나라에서 개인으로서의 명예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신라를 위해 장보고는 신라 흥덕왕에게 완도에 청해진(淸海鎭, 바다를 깨끗이 한다는 의미)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그리고 828년 신라에 돌아와 1만여 명의 병력으로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시 만행되고 있던 해적과 노예 매매를 근절시키고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중개 무역을 전개하면서 고대 동아시아 경제를 주름잡았던 세계적인 무역상으로 자리 잡았다.

버스 안에서 교수님의 강의와 해신의 작가 최인호의 다큐멘터리 VTR 자료를 보면서 장보고 선단은 처음의 중간 무역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특히 경제와 지리를 잘 이용하여 중국의 유명한 도공들을 불러 강진의 흙을 이용하여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구워 직접 무역을 했다는 것은 국제 상업에서의 CEO로서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고려자기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한 나로서는 적잖이 놀라웠다.

장보고 선단이 만든 자기가 고려자기의 모태가 되었다니 장보고가 반역자라는 죄명만 쓰지 않았다면 고려자기의 더 화려한 탄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본, 페르시아 만, 영국 등 세계 곳곳의 바다 밑에는 장보고 선단이 만든 자기들이 지금도 꼭꼭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장보고의 세계 시민적 의식을 바탕으로 강인한 정신을 알게 한 이번 답사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석도항에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한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도착하였다.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온 후 며칠 뒤, 나는 학교 갈 일이 생겼다. 학교 업무를 마치고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안강에 있는 예전에 등산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흥덕왕

릉에 다시 찾아갔다.

왕릉 앞에는 '이 능은 신라 제 42대 흥덕왕을 모신 곳이다. 왕은 지금의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두고 장보고를 대사로 삼아 해상권을 장악하였으며 당나라에서 차(茶) 씨를 들여와 재배하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흥덕왕릉의 안내판을 본 후 나는 지난번 답사 일정을 다시금 되새기며 힘이 넘치는 모습의 무인석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분명 문인석과 달리 무인석은 복장이나 이목구비 등이 서역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장보고의 해상권 장악으로 국제적인 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을 것이고 경주 곳곳에서도 서역인들의 잦은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 또 그중 몇몇은 귀화해서 장군의 벼슬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처용의 얼굴도 서역인을 닮았다는데 처용가에 나오는 역신이 서역인이 아니고 오히려 처용이 서역인이 아니었을까? 나는 흥덕왕릉 앞에 앉아 지나간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신라 천 년의 고도 경주 어느 곳에도 반역자라는 이미지로 역사의 뒤편길에 사라졌던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지만 이제 나는 장보고의 화려한 부활을 꿈꾼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자랑스러운 신라인 장보고는 해양의식과 개척정신을 가졌으며 노예 해방을 한 지극히 인간적이었으며, 자기를 암살하려는 염장의 음모를 모른 채 한 인간으로 불쌍히 여겨 철저하게 사람을 믿었던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었음을 말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장보고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세계로 진출하는 의지의 한국인상을 정립하도록 하자고.

마지막으로 답사의 기회를 주신 장보고기념사업회 관계자 분과 국토해양부, 동아일보사 그리고 매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 답사에 동행하여 추억을 만들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9 장보고 유적 답사 보고

서울 상계고등학교 이수일

### 장보고를 다시 생각하며

오천 년 유구한 역사를 통틀어서 ‘배울만한 인간상’을 꼽는다면 당신은 누구를 꼽겠는가? 적어도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사라면 뭔가 준비된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꼽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역사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할 수 없는 명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우리도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 못지않게 위인이 많다고 생각한다. 인물사극이 유난히 많은 편이고, 이를 드라마나 영화로 올렸다 하면 대부분 성공을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조건상 사방에서의 외침과 도전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극적이고 역동적인 사건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위인들은 대부분 민족의 수난기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을지문덕, 강

감찬, 이순신, 안중근, 김구 등등이 바로 그들이다. 물론 이 분들은 각자 자기가 처한 시대상황에서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는 뚜렷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수동적, 방어적, 자기희생적인 인간상을 넘어서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인간상은 없을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문제의식에 한줄기 빛을 던져주는 인물이 바로 장보고이다. 장보고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하고 참신한 인간상이라 생각된다.

첫째, 그는 골품제라는 지독한 신분사회에서 가문이나 신분의 음덕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온갖 장애를 뛰어 넘어 남들이 꿈도 꾸기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그는 맨몸으로 바다를 건너 외국으로 나가서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일신의 영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동포사회를 위해 일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그 힘을 기울이려 하였다. 세계화의 바람이 드세고 이기주의와 두뇌유출이 심각한 오늘날의 세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그는 삼면이 바다이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연결되고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해양국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이는 우리의 지도를 거꾸로 놓고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미래지향성이라는 관점에서 장보고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단절되어 사실상 섬나라임

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양국가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자각하고 있었던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도를 전방위적으로 돌려가면서 볼 줄 아는 창조적 관점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아, 이러한 장보고 유적 답사단에 참가하게 되다니! 김성호 과장님의 “여러분은 모두 운이 좋은 사람들이니 답사여행도 무탈할 것이다.”라는 멘트가 그럴듯하게 다가온다.

## 아직 열리지 않은 서해안 시대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은 생각보다 한산해 보였다. ‘서해안 시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타게 된 화동훼리 호도 중국 배인 듯 하여 그것부터가 웬지 장보고의 후예로서 달갑지가 않은 심정이다. 승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국 속으로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승무원 아가씨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우리 답사단을 제외하고 오가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인이다. 아직도 우리는 자족적인 경향이 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하여 경각심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징표가 아닐지.

아직 열리지 않은 서해안 시대만큼이나 인천 연안부두는 비안개에 잠겨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있었고, 서해 바다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 고요하였다. 우리 장보고 답사단은 비에 젖은 인천 연안부두를 뒤로하고 화동훼리 호에 몸을 싣고 미끄러지듯 빨리 들어가듯 서해 바다의 안개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아, 하늘과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서해 바다의 황홀하고 멋진



낙조를 갑판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해신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한 마음의 사치를 꾸짖듯 하늘과 수평선의 경계가 사라진 좁은 시야에 갇혀서 잠시나마 장보고 답사단으로서의 상념에 젖는다.

이렇게 밤새 달려서 내일 아침에야 산둥에 닿는다니 서해도 지도에서 느끼던 것처럼 그렇게 작은 바다가 아니다. 더구나 돛단배에 노를 저어서 항해하던 장보고 시절의 서해 바다는 특별히 용기 있는 자들이나 그 때마다 생사를 걸고 도전해야 했던 장도가 아니었던가! 더구나 지금처럼 비안개에 잠겨 사방을 가늠할 수 없는 밤의 항해는 얼마나 불안하였을까? 중국 배 화동훼리 호의 기관진동을 예나 이제나 잘 상대해야 할 나라 중국의 맥박처럼 온몸으로 느끼며 개운치만은 앓은 상념들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 아, 산둥이여 애증의 역사여

화사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석도항 국제터미널에 내리니 해안 풍광이 예사롭지 않다. 암갈색 갯바위들이 파도에 씻겨 윤기를 더하고 아침 안개에 서려 더욱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석도는 예부터 석재가 풍부하여 화강암과 대리석이 많이 생산되었고 지금은 ‘작은 홍콩’으로 불리면서 새로운 면모로 변신 중이라 한다.

시가지는 단정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안정감을 준다. 장보고 시절 신라촌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민의 10퍼센트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니 중국이라는 느낌을 넘어 우리나라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석도는 마지막 날 다시 보게 될 것을 기약하고 대기 중인 관광버스를 타고 곧바로 영성으로 향했다. 사방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초록색 평

원, 그 속에 주황색 기와지붕으로 줄지어 서 있는 농촌 풍경이 이채롭다.

중국도 이농과 도시집중으로 이 넓은 평원과 마을들이 우리네 농촌처럼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텅 비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이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영성은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중국으로서는 동쪽 끝이라 할 수 있다. 시황묘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동쪽으로 순행할 때 머물렀던 곳을 복구하여 만든 진시황 사당이다. 당시 진시황은 성산두의 해안절경에 취하여 떠나지 못하고 한 달 이상 머물렀으며, 이곳을 ‘하늘이 끝나는 곳’이라는 의미의 天盡頭라 이름붙이기도 하였다. 진시황은 이곳에서 신선들이 산다는 봉래산의 전설을 듣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서북 선단에 동남동녀 수천 명을 태워 내보내기도 하였으나 그는 이곳을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객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진시황이 열망해마지 않았던 바로 그 봉래산과 신선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바다 건너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닌가 생각하니 감회가 묘하다. 당시 진시황이 보낸 서북의 선단이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제주도에 상륙하여 정착하였다는 설이 있으니 신선의 땅이 달리 있을 수도 없지 아니한가?

다시 발해만을 향해 몇 시간을 달려 봉래로 향했다. 이곳의 지명을 한 무제가 ‘봉래’로 붙여준 이래 당나라를 거쳐 북송 대에 이르러 봉래각이 세워지면서 태산과 함께 신선사상의 본고장이자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봉래각은 황악루, 악양루, 등왕각과 함께 중국 4대 명루로 꼽히고 있다. 해안절벽을 배경으로 신선과 동해용왕, 천후, 불상까지 모셔진 봉래각은 누각의 건축미와 함께 중국민간신앙의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도 간직하고 있었다.

한편 이곳은 봉래진으로 불리다가 후에 등주로 불리게 된 동해방면의

군사요충지이기도 하다. 높고 견고한 해안산성은 봉래각을 에워싸면서 등주수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등주수성은 인공운하로 만들어진 매우 견고한 수군요새로서 명·청대까지 내려오면서 해군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일찍이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치기위해, 수 문제와 수 양제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그리고 당태종과 고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치기 위해, 수군을 출발시켰던 곳이기도 하다.

물론 등주가 군사기지로서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 사이가 좋을 때는 문물교류의 창구로서, 해상교역의 무역항으로서 더 번성하였다. 등주 지역의 항구들은 대대로 장안, 낙양, 북경으로 연결되는 해상관문이자 동해안의 항구들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의 사신, 유학생, 상인들이 붐비면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이 만들어지고 신라와 발해의 해상교역의 요충지로 번성하였다. 고선박 물관에 전시된 옛 선박모형들 역시 전선과 함께 다양한 구조로 설계된 용선, 차륜선, 상선들이 이 지역의 활발한 해상활동을 짐작하게 해준다.

## 산둥, 중국인의 정신적 고향

산둥 지역은 역사적으로 제나라와 노나라의 땅이다. 바로 이 지역에서 중국 문화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는 유가와 도가가 탄생하였다. 태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선사상과 노나라 출신 공자의 유가사상은 중국 전통 사상의 원류가 되고 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스스로 ‘제나라 노나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齊國 역사박물관’의 존재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고, 눈에 띄는 커다란 광고간판에도 齊 또는 齊魯라는 글자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만큼 지역 역사에 대한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일종의 지역감정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의식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지역은 우리 상고사와도 매우 관련이 깊은 땅이다. 우리와 같이 북방에서 남하해 온 ‘동이족’의 한 갈래가 정착하였으며, 제나라는 고조선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활발한 문물교류가 이루어졌고, 제나라가 진에 의해 망할 때는 많은 유민들이 고조선의 국경을 넘나들었던 것이다.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칠 때도 제나라 죄수들을 앞세웠으며, 도중에 이들의 대부분이 이탈하였다는 기록도 음미해 볼 대목이다.

제나라의 시조격인 강태공 사당에 갔을 때 그곳에서 뜻밖에도 우리나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기 조상을 참배한 사진들로 한방 가득 전시되어 있어 의아스럽고 놀라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닌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부여에도 해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찾아와 집단으로 참배하고 가니까 말이다.

또한 산둥에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태산’이 있다. 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이면서 그중에서도 ‘五岳之長’ 또는 ‘五岳獨尊’으로 꼽히고 있다. 나 역시 이번 산둥 지역 답사 중에서 태산에 대한 호기심이 내심 매우 컸다. 그런데도 가이드는 “태산은 지리산보다 높지 않고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다. 정상에 있는 유적들과 그 역사성을 더 관심을 가지고 보라.”라고 한다. 실망하지 말라고 미리 단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실망하게 된 일은 태산의 대부분을 곤돌라를 타고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 만은! 비록 곤돌라 속이었지만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아찔아찔한 느낌과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골안개로 태산의 신비로움을 만끽하기에는 그런대로 유효했다.

그렇다. 태산은 허명이 아니었다. 麗幽妙奧曠 다섯 가지 미덕을 갖춘 신령스러운 산이었다. 진시황을 비롯해 한 무제, 당 현종 등이 정상에 올라 하늘에 봉선의식을 거행한 내력과 함께 술한 명사들이 감탄과 헌사를 바친 발자취가 태산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에게는 ‘고려국의 금강산을 한 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 했던가. 과연 명산을 만나 보는 것은 신령스러운 영감을 얻어가는 정말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혹시 장보고도 태산을 올라 보았을까?

### 장보고의 발자취와 그 현재적 의미

장보고는 신라 후기에 남해안 바닷가에서 태어나 수영과 싸움 특히 활 쏘기에 능했고, 20세경 친구 정년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 무령군 소장의 지위에 올랐고, 제대 후 상업활동으로 크게 성공해 서주, 초주, 양주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특히 신라인이 많이 살던 산둥반도 일대에 법화원을 건립하여 세력권을 형성했다.

신라에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한 후 장보고의 활동권은 더욱 확장되어 광주, 양주, 명주, 천진 등 중국의 국제무역항을 통해서 이슬람 상인들과 거래하고 이를 다시 일본에까지 연결시키는 동아시아 중개무역권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장보고의 활동무대를 추적하려면 최인호처럼 수십만 킬로미터의 행군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관광버스로 이동하면서 시청한 5편의 비디오와 답사 틈틈이 이어진 교수님들의 심도 깊은 특강으로 즐거리와 개념을 잡으면서 산둥 지역 유적 답사로 그 행간을 메워나갔다.

산둥에서도 청주는 장보고 이전에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평로치청의 절도사가 되어 60년간 세력을 떨쳤던 번진이다. 때로는 당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반당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면서 권력을 3대째 세습한 내력으로 미루어 볼 때, 산둥 일대에 그의 세력기반이었던 고구려계 유민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보고는 이러한 이정기 세력을 축출하는 데 공로를 세우면서 신라촌을 중심으로 이 지역 동포사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청주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직접 찾기는 어려웠으나 이정기가 이 지역에 융성한 불교와 관련하여 숭불사업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장보고는 해상무역을 통해 세력을 형성하였으므로 그의 근거지를 이정기와 달리 신라촌이 형성된 해안 지역의 적산촌(적도항)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산촌에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원은 1) 재당 신라인의 교화 기관, 2) 장보고 선단의 안전을 비는 기도처, 3) 신라인의 정체성과 유대관계 강화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법화원의 건립으로 재당동포사회에서의 장보고의 지위와 지도력은 보다 확실해지게 되었다. 이 무렵 다녀간 일본 천태종의 좌주 엔닌이 장보고의 도움을 크게 받아 장보고에 대한 감사와 흠모의 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법화원은 그 후 3무 1종의 도교숭상과 폐불정책으로 인해 폐쇄되어 사라지기에 이른다.

1992년 한중수교 후 길이 열리면서 1994년 최민자 교수가 장보고 기념탑을 건립하고, 2004년 중국의 적산그룹이 지금의 법화원을 복원하였는데 그 과정에 장보고기념재단이 내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법화원은 당시에 도 신라, 당, 일본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그 정신을 역사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라 생각된다.

산둥 지역은 지금도 한중교류의 창구로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위해를 중심으로 약 2만 개의 한국 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으로의 유학생을 또한 가장 많이 보내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 반에서 말을 익히고 한국대학으로 진학을 한다고 한다.

한국경제는 무역의존도가 70퍼센트를 넘으며, 그 물류의 98퍼센트가 해상로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교민이 170여 개국에 600만 명 이상으로 중국인, 유대인에 이어 세계 제3위이다. 역으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장보고 시대의 장보고 정신이 결코 과거의 역사로만 추억될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시대정신이 아닐까? 아니 우리는 이미 장보고의 훌륭한 후예로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좁은 땅을 두고 부동산 투기로 아귀다툼을 하거나, 운하를 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수준을 넘어서 사통오달하는 대양을 향해 길을 열어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젖다 보니 다시 돌아오는 화동궤리 호에 대한 감회도 출발할 때보다 심사가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다. 비안개에 젖어 있던 인천항도 활짝 개어 있었다.

## 20 인간 장보고를 만나다

광주 금호고등학교 천효정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신청하다

평소 국사 시간에 ‘통일 신라의 경제’ 편에서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장보고이다. 이름은 궁복, 당나라로 건너가 서주 무령군 군중소장까지 올랐지만 해적들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신라인들을 구하기 위해 신라로 돌아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한·중·일 삼국을 잇는 동북아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또한 신라의 왕위 쟁탈전에 가담한 대가로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했고 결국 진골 귀족들에의 반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반란을 꾀하다가 염장이라는 자객한테 암살당한 비운의 사나이로 수업시간에 다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어떤 사람인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한 무역인? 아니면 권력욕에 사로잡혔다가 사라져간 역사 속의 여러 인물들 중 한 명? 정작 십수 년간 그를 가르치고 있는 나 자신도 그에 대한 평가를 단정 지을 수가 없어 늘 의문으로 남겨놓고 있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역사과 앞으로 공문 하나가 전달되었다.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 모집 안내>. 사실 예전에도 관련 공문을 봤었고 재단 소식지도 받고 있었지만, 답사단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내가 선발될 일은 없어 보였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웬지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한번 신청을 해보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FAX로 보내고, 그리고 약 한 달 뒤, 답사단 명단에 서 내 이름을 발견한 순간 ‘나에게 이런 행운이~’ 어렸을 적 예기치 않았던 손님에게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이리하여 보충수업 기간 중 짧은 방학을 이용하여 중국 답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답사를 떠나기 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읽어보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5박 6일의 답사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이번 답사는 중국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역사 유적부터 장보고의 활동 시대인 당나라 유적 탐방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해양 교역 활동의 흔적을 탐문하고, 해상왕 장보고를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장보고의 여정을 따라 배로 이동

## 장보고의 행적을 따라 길 위에 서다

### - 둘째 날(석도>영성>봉래>유방)

몇 번의 중국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번처럼 바다로 들어가 해안 도로를 따라 달려보기는 처음이다. 어디선가 진짜 신선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아침 물안개로 뒤덮인 석도항과 성산두의 몽환적 분위기, 그리고 바닷가 해안을 둘러싼 풍력기의 모습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색 풍경이다.

우리가 들어온 산둥성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양쯔 강 유역까지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제 산둥성 곳곳을 걷다보면 그 옛날 신라인들과 장보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여행을 시작해 본다.

먼저 들른 곳이 영성 진시황 사당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여



물안개로 뒤덮인 진시황 사당 입구

러 차례 전국을 순행하게 되는데 그중 동쪽으로 순행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을 후에 시황묘로 복구한, 현재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다. 중국에 갈 때마다 느낀 것은 그들은 스스로 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거대한 구조물로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황금색으로 색칠한 단청 등을 보며 그들의 취향을 탓할 수는 없지만 웬지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맛을 좋아하는 나에겐 별 감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시황 존재의 무게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성산두도 진시황과 관련된 곳이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천진두’ 라고도 불리는데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 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곳에 서면 남양만에서 우는 닭 울음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진시황 때 불로초를 구하러 서복과 남해 수천 명이 떠난 곳으로 그들이 후에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660년,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수군이 백제를 치기 위해 출발한 곳이라는데, 망국의 한을 간직한 채 이곳으로 끌려왔을 백제 유민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애잔한 기분까지 든다.

다음 이동한 곳은 봉래이다. 예로부터 도교에서 신선들이 살았다는 바다 가운데 산 이름이다. 한 무제가 신선산을 보려고 여기에 왔다가 신선산은 못 보고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라고 불렀다는 데서 그 이름이 기인한다. 우리 역사에서는 ‘등주’ 라고 불리어지며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5000년 전부터 요동반도와 해운업을 행하여 지금도 선박 관련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2005년에는 고려 배 2척이 발견되어 내년부터는 전시될 예정이라한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09년 한 무제가 위만 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견



해자로 둘러싸인 봉래성

한 곳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종주권을 둘러싸고 수·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도 수군을 파견시킨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발해 무왕(732년) 때 흑수 말갈을 배후조정하고 있는 당을 위협하기 위해 장군 장문휴의 수군이 이곳을 점령해 등주 자사 위준을 죽인 곳이기도 하다. 중국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고구려와 발해의 투혼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 후 산둥 일대를 점령한 고구려 유민 이정기 세력이 발해 및 신라와 교역을 펼칠 때도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봉래다. 신라 및 일본의 견당사들이 장안으로 들어갈 땐 항상 여기를 거쳐 가야 했었고, 이 과정에서 이곳에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촌이 조성되었다. 이후 고려 시대까지 활발하게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고려 상인들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산둥성의 여러 지역을 둘러보며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본 하루다.

- 셋째 날(유방>치박>태안>치박)

‘연’의 도시인 유방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치박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춘추시대 열국의 하나인 제나라의 중심지로, 옛 궁성 터에 자리 잡은 제나라 역사박물관에서 그 시대 유물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나라 공후들의 묘 중 5호분에서 발견된 순마갱은 동, 서, 북 3면에 U자형으로 순마들을 매장하였는데 동, 서면의 길이가 각각 70미터이고 북면은 75미터, 너비는 5미터란다. 현재 84미터 지점에서에서 228필의 말을 발굴하였는데, 순마의 밀도로 계산해 보면 세 면에 매장된 말은 대략 600여 필로 모두 전마이자 수말이란단.

서안의 진나라 역사박물관이나 시황묘의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승자 위주로만 서술되는 역사 속에 자칫 잊혀져버릴 수 있는 그 시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달리는 차 안에서 계속된 가이드의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를 비롯한 제나라 관련 역사 이야기가 더욱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3시간을 달려 찾아간 곳이 태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뛴이로다’라는 시조 속의 태산을 가본다는 것이 이 답사의 또 하나의 매력이었다. 중국인들이 중국 5대 명산 중에서도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손꼽은 태산, 이곳에 오르면 적어도 지상에서 10년을 장수할



순마갱 내부

수 있다 하여 중국인이면 누구나 태산등정이 숙원이었다고 한다.

또한 진시황으로부터 역대 군주들이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이곳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으며, 특히 진정으로 덕이 있는 황제만이 허락받는다든 봉선의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 봉선은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의식인데, 유사 이래 진시황, 한 무제, 당 현종 등이 봉선을 했다 한다.

솔직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곳이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케이블카와 계단들, 바위에 새겨진 글씨, 그리고 그 글씨 위에 붉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분주한 손놀림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환경 단체에서 몇 번의 저지는 들어왔을 법한 환경이었다. 다시 한 번 이곳이 중국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어본다. ‘그래, 중국 5000년 역사의 중심이 된 이곳을 중국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이곳을 아끼고 보존해 나갈 것이다.’

#### - 넷째 날(치박>청주>유방>위해)

다시 치박으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 일찍 강태공 사당에 들렀다. 강태공은 산둥성 출신으로 3000년 전 주 무왕을 도와 은을 멸망시키고 이곳의 제후로 책봉되었는데 그 나라가 ‘제나라’이다. 그는 제나라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주나라에는 도를 가르친 인물로 추앙되어 사후 주나라 수도 호경의 문왕과 무왕 사이에 묻혔다고 하나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신 치박에는 그의 의관을 묻은 의관총을 만들었는데 이곳의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세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씨, 노씨 등이 강태공의 성을 빌리고 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중 우리나라 노 모 대통령이 2000년에 이곳을 방문하여 ‘조상의 높은 뜻 받드오리다’ 라고 쓴 글씨가



강태공 사당에서 성씨의 기원을 듣다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성을 갖게 된 것이 갑오개혁 이후라는 사실을 설명하시는 교수님 말씀에 다들 웃고 만다.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뿌리가 양반이었으면 좋겠고, 또 역사적으로 조금은 이름 있는 사람의 후손이길 바라고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더 나아가 중국 역사 속 인물의 후손 이라면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머나먼 이곳 까지 와서 글씨를 쓰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있다. 현재의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다, 여기까지 와서 흔적을 남기고 가는 강태공의 도를 모르는, 그러면서 후손이라 주장하는 그 대통령이나 강씨 후손들을 바라보며 잠시 또 까칠해져 본다.

강태공 사당을 나와 고차박물관을 관람하고 다시 이동한 곳은 청주이다. 청주는 수·당시대 중국 동쪽의 행정과 군사적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 주변 나라들이 장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했으며 신라

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장보고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긴 일본 승려 엔닌이 머물렀던 신라원도 여기에 있었으나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고구려 유민이었던 이정기 일가가 한때 산둥반도를 점유하고 거의 60여 년간(762~819년) 통치했던 중심지도 여기 청주였다.

장보고는 바로 이정기 일가를 토벌한 서주 무령군 군중소장으로 이곳을 찾게 된다. 당시 장보고는 유통 경제의 중심부인 청주의 모습과 이정기 일가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즉 힘으로 천하를 평정하기보다는 유통경제를 통해 자신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혀가는 무역인으로서의 길을 말이다.

청주 지역은 특히 북위시대부터 수, 당을 거쳐 북송시대까지 500여 년간 불교가 융성하게 발전하여 용흥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석굴 사원들이 있던 곳이기도 하나, 당나라 때 도교가 융성하면서 이런 사찰들과 불상



잘 정비된 청주박물관 정원



들을 모두 파괴해버렸다고 한다. 이곳 청주박물관에는 1996년 용흥사 유적지에서 발견된 불교 조각상 400여 점이 주로 전시되어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중국에선 상둥인들을 곡부 출신인 공자의 후예라 하여 다른 지역 출신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런데 중국 역사상 과거에 최연소 장원급제(1598년)한 조병충이란 사람이 이곳 청주 정모진 출신인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 - 다섯째 날(위해>석도)

어제 5시간 이상을 달려 산둥성 서쪽에서 다시 동쪽 바닷가 위해로 왔다. 위해는 중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환경이 잘 정비된 휴양 도시이다. 오늘은 날씨도 도와줘서 푸른 하늘을 보며 기분 좋게 마지막 답사지인 석도로 향한다.

우리가 답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어온 석도에 도착했다.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으로, 장보고 당시 신라인들이 모여 살며 적산촌으로 불리어졌다. 신라,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자 시발점이기도 한 국제 무역항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박이 활동하였다. 연안 주변에 있는 ‘신라초(신라 무역상인이 배를 타고 가다 좌초한 암초)’라는 이름의 암초를 통해 당시 신라인들이 얼마나 활발



적산명신 앞에서

하게 이곳을 오갔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기에 장보고는 824년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워 신라인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승려와 일본 승려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 사찰에서 도움을 받은 일본 천태종 3대 좌주인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와 사찰에 관해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장보고 대사의 위업을 알게 된 것이다.

현재 법화원은 복원되어 장보고 기념관과 함께 석도적산 풍경명승구 내에 자리하고 있다.

## 장보고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답사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지난 중국에서의 4일 동안의 일정을 정리해 본다. 이 답사에 처음 참여할 때는 과연 장보고는 무역인인가 아니면 시대의 반역자인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답사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장보고는 반역자도 아니요, 단순한 무역인만도 아닌 진정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CEO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장보고의 후손이라고 우기시는(?) 장일규 교수님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나도 여기에 공감하게 되었다.

청해진 작은 마을의 소년에서 당나라 장수까지,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당, 신라, 일본 더 멀게는 이슬람 세력과 교역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장보고의 당당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더 나아가 신라 하대 귀족들의 수탈에 시달리고 거기에 해적들에게까지 고통받던 신라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고국을 떠나 멀리 타국까지 와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당시,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무역 활동을 통해 배고픈 사람들을 구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미륵불을 열망하는 신라인들에게 법화원을 선물함으로써 영적인 안식도 안겨준다. 여기에서 장보고의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 대한 당당함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염장까지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특히 돋보인다.

장보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이런 자세로 산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더 희망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21세기 해양을 통한 물류교류 활동과 해양 자원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은 이때, 장보고의 도전정신과 세상을 향한 당당함은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고 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중에 나오는 대답 하나 “장보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난 미소를 띠며 말한다. “장보고는 말이야…….”

## 21 2008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일기

부산 부곡여자중학교 정혜숙

### 1.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답사 첫날 2008년 8월 6일 수요일)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를 떠나는 첫날이다. 새벽같이 아침을 먹고 일찍 인천 국제여객터미널로 출발하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서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 전에는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장보고 사이트를 통해 인쇄해 둔 자료들을 다 읽어 보지도 못한 채 답사를 나선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파란 하늘을 보며 답사 여행의 주인공을 생각해 본다.

교과서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장보고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신라 말의 해상 세력, 청해진을 무대로 무역을 통해 부를 획득한 자, 어지러운 신라 사회의 혼란을 잘 이용하여 왕실과 결탁하여 재력을 과시하고 누리려다 실패한 자, 그의 흔적을 중국에서 찾는단 말인가?

서울역 도착 방송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접고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모임 장소로 갔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탓에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화동궐리 호에 승선하고 숙소에 짐을 풀어 두고 저녁 식사를 했다. 예쁜 노을이 석양을 멋지게 연출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식사를 마치고 카메라를 준비해 배 난간으로 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료 선생님들도 석양에 셔터를 누르면서 환호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어둠이 내리면서 칠혹 같은 바다와 만나는 순간 그 옛날 이 바다를 누비고 다녔을 장보고란 사나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였다.

곧 선상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한 충격이 혼란스럽게 다가왔다. ‘세계적 인물 장보고’, ‘해상 상업 제국의 무역왕’으로 장보고가 새롭게 다가왔다. 일본 승려 엔닌의 기행문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당에서 무사히 구법 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와 흠모의 정을 표현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마저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던들 기록이 없어져 위대함이 알려지지 않을 뻔하였다.”라는 기록에서 위대함이란 말을 쓰고 있다.

답사가 끝날 즈음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한 인물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가질 것 같은 예감을 하며 깊게 잠들지 못한 선상에서의 첫밤을 보냈다.

## 2. 중국에 첫발을 내리고

(답사 둘째 날 2008년 8월 7일 목요일)

아침에 떠오르는 멋진 해돋이를 담으리란 생각은 새벽 늦잠 탓에 놓쳐

버렸다. 일어났을 때 이미 솟아오르는 태양은 꽤 지나버려 아쉬웠지만 금빛 물결이 바다 위를 수놓은 모습이 해돋이 순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산둥반도의 석도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하선 수속을 밟고 장보고 유적 답사를 위한 첫 발을 내렸다.

석도! 어업을 주로 하고, 돌로 유명한 곳이며, 석재 가공 수출을 하는 지역으로 자원이 풍부한 어촌이란다. 원래는 적산포라고 했다고 한다. 광산 자원이 풍부하고 산에 바위들이 붉은색이라서 적산이라 하고 신라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 적산 신라촌이 있었다는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을 차 속에서 들으며, 산둥반도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영성 성산두에 도착하였다.

영성은 한국인 20만이 거주하고 기업체가 많이 진출하였던 곳이나 신노동법에 따라 기업체들이 베트남 쪽으로 철수하였단다. 길가에 이리 저리 흩어져 말려지고 있는 다시마는 우리나라와 일본으로의 주요 수출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예쁜 장난감 같은 삼륜차들이 어린 시절 소달구지 타고 가던 시절을 생각게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다는 진시황 사당을 둘러보면서 진시황에 관련된 강의를 태양이 작렬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무그늘 밑을 찾아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열심히 듣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답사여행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산둥반도의 동쪽 끝,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으로 나아가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 멈추어 아쉬워하면서 동남동네 수천 명을 출발시켰다는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다 끝에 우뚝 솟은 바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환성을 자아냈다.

일정에 쫓겨 아쉬움을 뒤로하고 위해로 이동하여 점심을 맛있게 먹고

3시간 30분의 긴 거리를 달려 봉래각과 등주수성으로 갔다. 차 안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선생님들의 자기소개가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계속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려는 가이드의 열성적인 노력은 이어졌다.

다음 이동 장소는 연대이다. 포도생산이 많아 와인공장이 많다고 한다. 과일이 많이 생산되어 물류저장 회사가 들어서 있다는 연대는 장보고와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세우고 집단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보는 지역 이란다.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봉래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에 봉래각이, 후에 등주로 불리며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수로의 출발지로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장악하여 발해 및 신라와의 교역을 장악하였다고 한다.

장보고의 등장으로 신라 상인들의 집단거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봉래각과 등주수성으로 올라가면서 신라, 일본과의 물류교류의 중요 요지가 되었고, 장보고 세력이 이 지역을 중요 거점으로 삼았던 연유를 생각하며 신선이 머물다 갈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에 매료되어 유적지 곳곳을 누볐다.

등주 고선박물관에서 고려 선박과 청자들을 본다는 것은 감동이었다. 돌아오던 길을 아쉬움에 뒤돌아 본 순간 봉래각과 등주수성으로 지고 있는 해가 구름에 가렸다 나타났다 하면서 신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주변에 지역 토산물이나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어 눈길이 갔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 유방의 숙소로 향해 출발해야 했다. 열은 어둠이 점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갈 즈음 어느 낮선 곳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 섰다.

그 덕에 숙소에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숙소에 와서 따뜻한 물에 씻고 나니 온 몸이 피로 타인지,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니어서 그랬던지, 두드

리기 같은 열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밤중이 되자 팔뚝까지 번지기 시작하였다. 불안함으로 밤을 뒤척이면서 장보고가 이 지역을 누비던 그 시절에 나처럼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대처했을까? 심해지면 내일은 긴 소매 옷을 입어야겠다.

### 3. 이 광활한 땅에서

(답사 셋째 날 2008년 8월 8일 금요일)

5시 30분에 기상을 알리는 모닝콜이 울리자 셋째 날의 일정을 위해 빨리 서둘러야 했다. 다행히 팔 부분의 열은 그다지 심하지 않아 견딜 만했다. 오늘의 답사 일정은 고조선과 많은 관련을 갖고 있었던 치박의 제나라 역사박물관 견학과 제나라 순마갱,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히는 태산 등정이다.

어제 이상이 있었던 버스는 다른 버스로 바뀌어 아침 식사 후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향하는 우리를 맞아주었다. 아늑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박물관에 도착했다. 옛 춘추전국시대의 지도가 입구에 크게 그려져 있었다. 가이드의 뒤를 바짝 따라 다니며 유물 하나하나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느긋하게 살펴 볼 여유가 없이 다시 차에 오르자 드넓은 옥수수 밭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로 차가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여 제나라 순마갱에 도착하였다. 순마갱 입구에서 열성을 다해 설명을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순마갱의 발견이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 같다는 느낌은 곧 무덤 속의 순마갱의 잔해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매장된 말 600여 필이 넘는데 이는 중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순마갱의 발굴이라



하니 역시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

중국 5대 명산 5악 중의 하나인 태산으로 갔다. 등정을 하기 전에 점심부터 먹고 얼음물(?)을 한 개씩 받아들었다.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 봉고 차에 나눠 타고 태산 케이블카 앞에 집합하였다. 케이블카를 타지 않으면 6,600개의 계단을 통해 5시간 정도 걸리면 정상까지 등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주변 경치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등산을 하고픈 마음을 강하게 일어나게 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은 허공에서 내동댕이쳐 질 것 같은 마음에 겁이 많이 났다.

케이블카를 늦게 탄 탓에 빠른 걸음으로 앞서 간 일행을 따라 태산 정상을 향해 뛰듯이 올라갔다. 조금 숨이 찼지만 태산은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겠거니 싶어 살살이 다 보고 싶은 마음에 한걸음에 내달았다. 평소에 산을 자주 오르던 습관 탓에 그리 힘들지 않았다. 나와 같은 욕심을 가진 강원도의 선생님이 동행이 되어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 도화원 길이란 팻말과 저 멀리 케이블카가 보이는 능선 길을 따라 일행과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태산을 등산해 보고 싶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남몰래 채울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길을 벗어난 것이 못내 두렵기도 하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게 큰 용기를 내게 하지 않았나 싶다. 다행이 평소 산을 오르던 실력 덕인지 일행들보다 빨리 모임 장소에 도착해 있었다. 자진해서 가이드에게 고백했다. 다른 길로 좀 다녀왔다고, 큰일 날 뻔했다면서 놀랐지만, 무사한 우리를 보고 대단하다는 격려를 해주어 쑥스러웠지만 태산은 나에게 잊지 못할 산이 되었다.

태산을 오르면서 몸과 마음이 많은 애를 쓴 탓인지 온 몸에 다시 두드러기가 솟기 시작했다. 점차 가려움이 증가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오늘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날이라 빨리 호텔에 도착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의 바람이었다. 저녁 8시가 못돼서 제도 호텔에 도착하였고, 5층 로비에 짐을 둔 채 저녁 식사를 하고 올림픽 개막식 경기 관람을 위해 다들 숙소로 들어갔다. 화려하고 멋진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의 파이팅을 외쳐본다. 내일도 5시 30분에 기상해서 강행군을 해야 하는데 화려한 개막식 앞에서 일찍 잠들 수가 없었다.

졸음을 쫓아가며 올림픽 개막식에 빠졌다가, 늦은 시간 따끈한 물에 씻고 나니 몸에 열꽃은 더 솟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까지 별 탈 없기를 바라며 잠을 청했다.

#### 4. 장보고는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답사 빗썰 날 2008년 8월 9일 토요일)

어김없이 5시 30분에 울리는 모닝콜에 깨어 보니 놀랍게도 두드러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나쁜 피가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어쨌든 다행이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일 먼저 들른 곳이 강태공 사당이였다. 산신령 같은 모습의 사진이 크게 낱설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한다가에 향불을 지피 향로에 놓았다.

참배를 마치고 강태공의 무덤으로 가니 무덤이라기보다 작은 동산 정도의 산이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다는 인물인 강태공이 산둥성 사람으로 동이족 출신이라 하였다. 장보고도 산둥성 일대를 누비며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현재도 산둥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 장차 우리의 무대가 되어야 할 곳이란 생각을 해본다.

장보고는 그 시절 산동을 무대로 누비며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우리 조상의 활동 무대이자 우리들이 되찾아야 할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행선지인 고차박물관으로 향했다.

고차박물관에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마차의 변천에 대한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고 박물관을 차근차근 견학하였다. 시대별로 마차의 변천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차뿐만 아니라 전쟁 시 사용하던 전차와 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순마궐도 있었다. 멋지고 화려한 마차 앞에서는 한 번 올라가 타보고 싶었다. 채찍을 휘두르며 드넓은 광야를 누비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였다. 마음속의 아쉬움을 접고 청주박물관으로 향했다.

청주는 일찍이 산동반도 일대의 행정, 군사, 교통의 중심지였고, 장안으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변진이었다고 한다. 장보고 때에 이르러 신라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한다. 박물관은 절을 통째로 옮겨 놓은 것 같았다. 불상을 비롯한 많은 불교 유적들이 많았다.

차를 타고 가면서 청주가 장보고와 어떤 연계를 갖는 것인지를 연결해주는 명쾌한 강의를 진행되었고, 고구려 유민의 활약과 산동성 일대의 우리 민족의 활약이 장보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정리되면서 답사 경로가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유방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위해까지 4시간 30분 동안 차를 타야 한다. 차 안에서 긴 시간 동안 최인호의 <해신 장보고> 시리즈를 보여주었다. 그동안의 유적 답사와 명쾌한 강의들과 '해신 장보고'를 통해 세계적

인물 장보고에 대한 정리가 되었다.

위해에서는 한국식 저녁 식사가 제공될 것이라는 말에 환호하였다. 도착한 한국 음식점은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화면 속으로 빠져들어 응원하는 열기와 금메달 획득 소식을 접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힘을 더욱 더 느끼는 기분 좋은 답사여행이 되고 있었다.

중국에서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술을 한잔 기울이면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동료들이 있었음을 전혀 모른 채 깊이 잠들어 버렸다.

## 5. 중국 땅을 떠나며

(답사 다섯째 날 2008년 8월 10일 일요일)

중국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장보고 기념관과 적산법화원에서 장보고가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인 이곳 석도진 적산포에서 재당 신라인을 묶어 주는 구심점으로 삼은 흔적을 살펴본다. 어떤 사람인지 정리가 확실히 될 것 같다.

장보고 기념관으로 가는 오솔길에서 애써 그늘을 찾아 둘러앉아 이번 답사여행의 정리에 관한 긴 강의를 들었다. 모두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다. 무엇 하나라도 빠질세라 열심히 적고 있는 선생님, 지친 기색하나 없이 하나라도 더 이야기 해주려는 선생님, 역사 속의 한 인물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했다.

짧고도 긴, 길고도 짧은 강의를 듣고 기념관으로 향했다. 기념관 곳곳에서 뭔가 할 말이 많은 장보고를, 열정과 패기에 가득 찬 또렷한 눈망을

을 가진 장보고를 곳곳에서 만났다.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었던 사람, 자신의 역량을 조국의 동포를 위해, 나아가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닷새 전 내렸던 석도항으로 갔다. 승선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에 배는 서서히 석도항을 떠나고 있었다. 배 난간에서 계속 멀어져가는 중국 땅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내린 하늘 위로 예쁜 달이 나를 따라오는 듯, 배를 따라 오는 듯했다. 밤바다의 어둠이 짙어 질수록 달빛은 예뻐지고 어두운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한 사나이, 장보고가 달빛 속에 웃고 있었다.

## 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를 마치며

(답사 마지막 날 2008년 8월 11일 월요일)

동료 선생님들과 환담을 나누며 인천항으로 들어서는 배 위에서 작별을 아쉬워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좋은 인연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장보고 답사의 기회를 얻은 행운의 시간을 함께 나눴던 순간들을 추억했다.

역사상의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지만, 해양을 낀 반도 국가는 반드시 세계의 중심에서 호령했던 적이 있는 나라들이었다 한다. 그 해양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 장보고! 그를 통해 해양민족의 기상을 배우고 웅대한 개척정신을 담아낼 미래의 장보고를 키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답사의 장을 덮고 있다.

예전에 어느 한 경영인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써서 세인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장보고는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하고픈 게 많은 사람이었을까? 세상에 참으로 보기 드문 고수다. 장보고의 삶의 발자취를 찾아 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앞으로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고수를 만난 기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마지막으로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2 2008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서울 연남고등학교 안상욱

가끔 학교에 역사 선생님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통하여 ‘(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어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학교를 옮긴 후 함께 근무하는 역사 선생님들에게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답사 내용도 알차고 정말 한번쯤 참가해 볼만한 연수라는 권유를 받고 2008년도 답사에 처음으로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단박에 답사 대상자로 선발되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때까지도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답사에 참가하여 기획과장님으로부터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 전날 온누리 여행사의 가이드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의사항과 준비물 등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짐을 꾸렸다. 그런데 여름철 뜨거운 날씨라 그런지 장에 탈이 나신 선생님이 여러분 계신다며 약을 준비해 오라

는 이야기를 듣고 어지간히 위생시설도 안 되어 있는 시골 오지로 답사를 다니나 보다 생각했다.

드디어 답사 떠나는 날이 되었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남편에게 잘 다녀오겠노라고 인사하고 여객터미널 앞에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향하였다. 명단을 보니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앞으로 5박 6일간 함께 지내야 한다고 생각되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답사 첫날이 시작되었다.

배에 승선하여 조별로 식사를 하고 4인 1실의 선실에 배정되어 함께 지낼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다행히 모두 인상이 좋고 연령도 비슷하여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았다. 나중에 보니 연령대나 근무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생님들의 객실이나 조 편성, 차량 배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답사 마지막 날까지 편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밤에는 선상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답사를 추진한 해상왕장보고기념 사업회의 김성호 과장님의 인사와 가이드의 주의사항, 허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답사지인 산둥성에서 장보고와의 관련성과 더불어 중국 땅의 변화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선상에서 조식 후 하선을 준비하였다. 9시경에는 석도항에 내려 기다리고 있는 버스에 탑승을 하였다.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만나 영성으로 이동하였다. 영성은 우리나라 인천에서 서쪽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이고 여기에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 있다(사진 1).

진시황 사당 앞에서 1호차 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다음 답사지인 성산두로 이동하였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중국



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이라는 비석을 세워놓고(사진 2) 동쪽 끝에는 ‘천무진두’라는 휘호가 쓰인 비석이 있었다(사진 3).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하여 서북과 동남동녀 수천 명을 출발시킨 곳이기도 하고,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출발했던 항구이기도 하다. 점심을 하러 이동하는 중 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리에는 한국어 간판이 가득하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위해 지역엔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곳곳에 보이는 삼성 간판과 현대, 대우, 기아 차량 등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점심 역시 조별로 식사를 하였는데 원탁의 테이블에 한상 가득 차려진 중국 요리로 든든히 배를 채웠다.

점심 후 봉래로 3시간 30분 정도 이동을 하였다. 봉래는 한 무제에 의해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한 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러 떠날 때 출발했던 곳이기도 하고, 수 문제가 고구려를 정벌하러 갈 때의 출발지이기도 한 곳이다.



사진 1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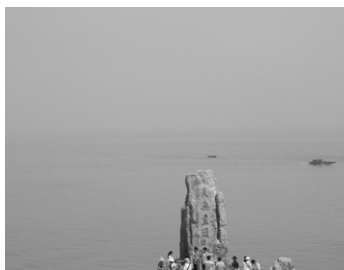


사진 3



사진 4



사진 5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등주라 불렸는데 신라와 당나라의 중요 교역 지역이라 예성강·당은포에서 출발하여 서해를 가로질러 등주에 이르는 항로가 일찍부터 개척되어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이곳 등주에 사신, 상인, 유학생들을 위해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당시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하였다. 뒤이어 중국 4대 명루라 불리는 봉래각과 등주수성(사진 4), 등주 고선박물관(사진 5)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2호차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등주는 8세기 중반 고구려 유민 이정기 세력이 장악하면서 발해 및 신라 교역 등을 관장해 이 시기에 신라인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정기 사후 평로치청절도사는 아들 이남에게 물려주었는데, 당 현종이 죽고 덕종이 즉위하면서 변진억압책을 실시하면서 이남 등은 대표적 반당적·독자적 세력으로 대두되었고 당 현종이 즉위하면서 평로치청절도사를 진압하던 무령군에 장보고가 군중소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강의를 들었다.

다시 버스에 올라 3시간여 걸린다는 유방으로 향하였다. 버스 안에서 KBS 역사스페셜 <장보고> DVD와 KBS 신년기획 최인호의 다큐로망 <해신 장보고> 1부와 2부를 시청하였다. 장보고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에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의 사서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그리고 중국의 《신당서》, 《번천문

집), 일본의 《속일본후기》 등에 남아 있다고 한다.

장보고는 범국제적 인물로 828년 당에서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고, 남해안의 군소 해상세력 및 노예무역선을 근절하고 신라와 당, 일본 및 서방 세계와의 해상 무역에 나서 동아시아 해상을 제패하게 된다. 한참 DVD에 열중하고 있는데 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가. 조금 전 앞에 앉은 선생님이 버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니 고장이 나서 고치고 있는 중이었다. 20분 정도 지체 후 호텔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중국에 서의 첫날밤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셋째 날 유방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유명한 도자기의 도시이며, 실크의 고향이라는 치박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는 동주 때의 순마갱이 있는데, 순마갱은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에서 발견한 것으로 순마 228필이 발견되었다.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하였는데, 이곳에 매장된 말은 660여 필로 추산되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순마갱(사진 6)으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순마갱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나라 역사 박물관(사진 7)도 답사할 기회를 가졌다.

다시 버스에 올라 3시간여 이동하여 태안으로 향하였다. 산둥성 중부에 있는 태안에는 중국 최대 명산인 태산이 위치하고 있어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진시황부터 역대 제왕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늘에 알렸던 곳이며,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이라는 의식이 이루어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신령스러운 산으로서 태산에 한 번 오르면 지상에서 적어도 10년을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태산에 오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 만은'으로 시작하는 양사언의 시조에 등장하여 귀에 익은 곳이다. 태산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케이블카를 타고(사진 8) 오르면서 본 많은 유적과 절벽마다 새겨진 비문(사진 9)이 인상적이었다.

태산의 풍광에 압도되어 건륭제가 새겼다는 '과연'이라는 비문이 새겨진 비석(사진 10)과 한 무제가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치적을 기려 비문을 써 줄 것을 기대하면 남겼다는 무자비(사진 11), 연인들이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이 깨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버린다는 옥황상제 사당(사진 12) 앞의 풍경도 눈에 넣었다.

천하제일산이라는 비문이 새겨진 비석(사진 13)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찍은 후에 그 유

명한 태산에 왔다는 뿌듯함과 아쉬움을 뒤로하며 다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하산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6,666개의 계단을 이용하여 태산에 등정하기도 한데 4~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다시 3시간여 버스를 타고 치박으로 이동하여 숙소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넷째 날 숙소 근처에 위치한 강태공 사당에 들렀다. 약 3천 년 전 산둥성에서 태어난 강태공은 중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하나로 주나라 무왕을 도와 폭정에 시달리던 은을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고 후에 제나라의 초대 왕으로 책봉된다. 제나라 초대 왕으로 기념하기 위해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오늘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의관총이고 이곳의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사진 14).

강태공은 자신의 성을 큰아들에게만 물려주고, 둘째 아들부터는 다른 성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나온 성이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성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강태공 사당을 나와 우리가 향한 곳은 중국 고차박물관이다. 이곳은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는 춘추순마갱(사진 15)과 중국 고차진열관(사진 16~18)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국 고차진열실에는 각종 고대차량의 복원차가 진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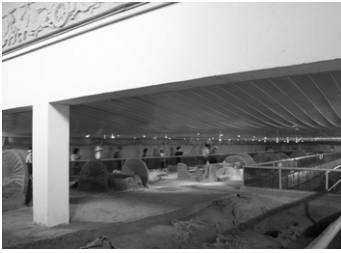


사진 15



사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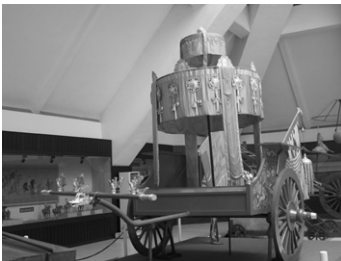


사진 17



사진 18

열되어 있어 중국 차량의 유구와 역사와 차량제조기술 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1시간 정도 이동하여 청주박물관을 견학하였다(사진 19). 박물관의 건축물과 정원은 아름답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가 3만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 청주박물관 정원 주변에서 3호차 교수님의 불교 관련 강의를 들었다. 청주박물관은 용흥사라는 사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용흥사 안의 신라원에 머물렀다는 엔닌의 기록이 남아 있어 청주 지역이 일찍부터 한반도와 관련이 있었던 곳임을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한 곳이다. 전시실에서 백제 금동대향로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유물(사진 20~21)을 발견하고 다들 놀라워하였다.

박물관 견학 후 유방으로 이동하여 점심 후 다시 4시간 30여 분을 달려 위해에 도착하였다. 이동하면서 KBS 신년기획 최인호의 다큐 로망 <해신 장보고> DVD 3, 4, 5부 세편을 시청하였다. 최인호는 이 기획물을 통하여 2년간 7개국 30만 킬로미터를 거치면서 해신 장보고의 관련성과 관련 지역을 되짚어보았는데 마지막에 장보고를 휴머

니스트이면서, 개혁자이고 무역왕, 단 한 사람의 세계인, 미래의 예언자로 평가하였다.

DVD 시청이 끝나고 조금 더 달리니 오늘의 목적지 위해에 도착하였다. 오늘 저녁 식사는 후원기관인 동아일보사에서 한식으로 대접한다는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있었다. 정겨운 한글 간판이 달린 식당으로 들어갔다. 불과 며칠 안 먹었는데도 그리웠던 우리 음식이 가득 놓인 식당에서 모두들 기분 좋게 한껏 식사를 즐겼다. 때마침 TV에서는 최민호 선수의 유도 결승전이 중계되었고 금메달 획득의 소식과 더불어 식당 안은 온통 환호로 가득 찼다. 비록 올림픽이 치러지는 북경은 아니지만 올림픽이 개최되는 이 나라에서 우리 선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모두들 더욱 기분이 고조되는 것 같았다.



사진 19



사진 20



사진 21

다섯째 날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 우리는 다시 화둥궈리 호에 몸을 싣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아침 식사 후 우리가 처음 도착했던 석도로 이동하였다. 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지인 적산법화원으로 향하였다(사진 22).

이 사찰은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의 승려로서 당나라에 가



사진 22



사진 23

는 사람을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찰에서 장보고 대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본 천태종 3대 좌주인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와 이 사찰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안에는 해양진출과 무역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장보고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사진 23).

그동안 해상왕 장보고라는 것이 가장 흔하게 들었던 칭호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우리들도 그에

관해 너무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 모반의 혐의 때문에 그에 관한 기록이 고의적으로 누락되어서 그런 것 같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당의 유명한 시인 두목으로부터 놀라운 찬사와 칭송을 들으며 《번천문집》에 기록된 것이 귀중한 사료로 남아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을 견학한 후 우리는 티미널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을 받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산둥 지역 곳곳에서 장보고의 활약상을 확인하고 되짚어본 것은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려 1200여 년 전에 벌써 지금의 세계가 요구하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바다를 무대로 활동한 장보고는 누구보다 일찍 세계로 눈을 돌린 세계인이며, 무역인이고, 뛰어난 개척자이다.

또한 산둥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긴밀성과 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행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장보고의 생애와 활동, 또 그의 업적과 정신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은 이번 답사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답사를 주최한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김성호 과장님, 온누리 여행사의 가이드, 그리고 강의를 맡아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왕이면 장보고의 출생지이자 국내활동지인 완도와 장도 등도 답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다.

## 23 낮선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 장보고를 만나다

안산 경수중학교 안신애

바다의 왕자, 해상왕, 해신 등등 한·중·일 삼국이 장보고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어들이다. 9세기 초에 등장한 신라의 지방 세력들 중 대표적인 해상 세력으로 알려진 장보고라는 인물이 활동했던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을 찾아 떠나는 이번 답사는, 중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나에게 는 더 없이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답사 프로그램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4~5차례의 도전 끝에 선발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도 아주 많다고 했다. 선발의 행운을 얻은 우리 1차 답사단 90여 명은 2008년 7월 23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집결하였다.

출발 당일 오전 내내 날씨가 꾸물꾸물하더니, 결국 우리가 석도항에 도착하는 24일 아침까지 갑판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타고 간 화동훼리 호는 워낙 큰 배라서 마치 내가 육지의 건물 안에 들어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나, 비가 내리는 캄캄한 망망대해를 향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문득 당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청운의 꿈을 안고 도당길에 올랐던 장보고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 또한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2008년 7월 24일

성산두→봉래각, 등주수성, 고선박물관→유방

중국 땅에 첫발을 내딛은 24일 오전, 배에서 내린 우리는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올라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였다. 2호차에 배정되어 중국 현지에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포 3세 박철 가이드를 소개받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1시간여를 달려 첫 번째 코스였던 성산두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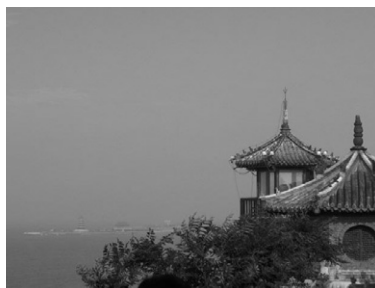
하였다.

성산두는 중국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때문에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대군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들을 출병시킨 곳이라고도 했다.

성산두 안쪽에는 진시황의 사당이 있었고, 이곳이 진시황이 순행 중에 서복을 만나 불로장생의 꿈을 키우게 된 곳이라고 하였다. 그때까지도 약간의 비와 함께 날씨가 흐렸는데, 안개 자욱한 성산두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진시황과 이사, 서복 세 사람의 동상은 웬지 모를 신비스러움을 더해주고, 저 멀리 어딘가에 정말로 신선들이 노니는 땅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성산두를 떠나 점심을 먹고 3시간을 달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봉래라는 곳이었다.

중국에서 3시간은 잠깐 이동하는 거리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서먹서먹하기만 했던 분위기를 깨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어느덧 창 밖에는 환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고 있었다. 봉래는 예전에 등주라고 불렸던 지역으로, 오랫동안 수군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한 지역이라고 했다. 고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한(漢)의 군사들이,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수·당의 군사들이 이곳 등주에서 발진하여 한반도로 떠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2005년에 이곳에서 고려 선박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오랫동안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8신선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봉래각에 올라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과연 이러한 멋진 절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술에 취할 수 있다면 신선의 삶이 부럽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7세기 중반에는 이 지역에 많은 신라인이 거주하면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등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당시의 신라인들은 나와 같은 바다를 바라다보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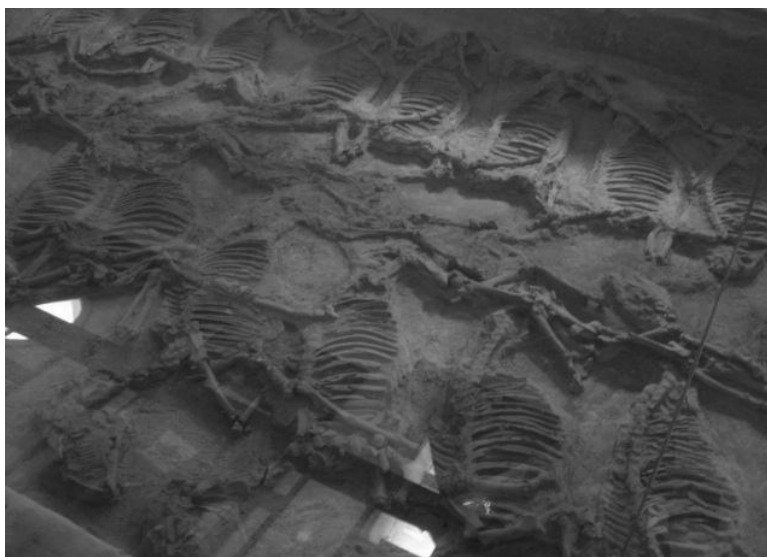
궁금증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려 유방에 있는 숙소로 출발하였다. 열정이 넘치는 국민대 장창은 교수님의 강의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박철 가이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 차는 어느덧 3시간을 달려 어둠이 내려앉은 유방에 다다르고 있었다.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중국이 생각보다는 참 가깝고 친숙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8년 7월 25일

제나라 역사박물관→순마갱→태산 등정→치박

어김없이 올리는 5시 30분 모닝콜에 맞추어 우리는 중국에서의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하였다.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달려 치박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다. 치박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역사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소박하지만 귀중한 도시였다. 먼저 도착한 곳은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이곳에서는 평소 책에서만 보아왔던 대문구 문화나 용산 문화 등 중국 고대문명의 유물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었다. 특히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도시 모습을 복원한 모형에서는 기원전 4~5세기라는 먼 과거에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존재하게 했던 중국 문명의 대단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약 10분 정도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순마갱이었다. 순마갱은 말 그대로 말(馬)들을 순장시킨 무덤이었다. 제경공이 아끼던 군마들을 순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대보다는 시설이나 관리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엄청난 규모에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는 약 600여 필의 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실로 엄청난 숫자였다. 뿐만 아니라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말의 뼈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이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외제차 600대를 자신의 죽음과 함께 가지고 간 것과 같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당시 제경공이 누렸을 권력과 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었다. 놀라움을 뒤로한 채 또다시 긴긴 시골 길을 3시간쯤 달려 우리는 태산 등정을 위해 태안이라는 도시로 이동하

였다.

태안은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걸맞게 길거리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어로 된 간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반가운 한국어 간판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중국의 5악(岳)으로 꼽히는 태산 가까이에 다다라 있었다. 실제로 태산은 생각보다 높은 산은 아니었다. 그러나 끝도 없이 펼쳐진 평지에 우뚝 솟은 장엄함은 물리적인 높이보다 태산을 더 높게 만들고 있는 듯하였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거늘 사람이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였다’라는 시구를 낳은 태산을 단 10여 분 만에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오르는 기분은 아이러니하면서도 매우 짜릿하였다. 케이블카 위에서 바라본 태산의 모습은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골짜기 사이 사이, 바위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가 간 날은 비교적 날씨가 좋은 편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하고 태산은 안개를 잔뜩 감싼 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두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신비스러움이 먼 옛날 황제들에게 이곳이 봉선의식을 치르게 적합한 장소로 여기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10여 분을 더 계단을 따라 오르니, 정상에는 옥황묘라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교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옥황묘에는 각자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운 대형 향들이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각각 형태는 조금 다를지라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광경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옥황상제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 알아들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나 역시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사당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신비로운 태산의 기운을 받으며 산을 내려오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태산에서의 일출을 꼭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중국에서의 둘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또다시 우리는 3시간여 차를 달려 치박에 있는 숙소로 향하였다.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장보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우리가 만난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중국 땅에서 장보고가 그 정도의 기반을 확보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역경을 이기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해상세력으로 성장한 그의 대단한 도전정신과 용기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2008년 7월 26일

강태공 사당→고차박물관→청주박물관→위해

치박에서의 밤이 지나고 다음날, 다시 새벽부터 우리의 일정은 시작되었다. 조금 피곤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쉬울 만큼 나는 이번 여행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세 번째 날, 처음 도착한 곳은 강태공 사당이었다.

우리가 머무른 치박이라는 도시가 예전 제나라의 중심지였던 만큼, 주(周)나라 때 이곳에 봉함을 받아 시조가 된 태공망을 기리기 위해 그가 입었던 옷과 모자가 묻혀있는 의관총과 사당이 그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강태공은 ‘낙시’ 하면 떠오를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강태공의 강씨(氏)에서부터 수많은 성(姓)들이 파생되어 우리나라 성씨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신의 뿌리 찾기(그것도 빼대 있는 가문임을 강조할 수 있는 위대한 조상 찾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이곳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강태공 사당을 떠나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중국의 차마(車馬)유적과 문물을 볼 수 있었던 고차(古車)박물관이었다. 이곳에서는 각 시대별로 사용되었던 전차와 마차의 모습들을 복원해 놓고 있어 중국 차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춘추순마갱에는 고속도로 공사 도중 발견되었다는 화석화된 말의 뼈와 전차가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전시되어 있었다. 전날 보았던 제경공의 순마갱보다 말의 숫자는 적었지만,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것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마차를 이끌고 있는 말들의 모습에서 웬지 모를 석연함이 느껴졌다.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1시간여 버스를 달려 도착한 곳은 청주라는 도시였다. 청주는 수·당대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도시이다. 수많은



은 신라인들이 당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이정기의 일가는 수 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청주박물관은 당시에 적산법 화원과 함께 신라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흥사의 절터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일단 놀란 것은 박물관의 엄청난 규모였고, 10개가 넘는 전시실에 빼곡하게 들어찬 유물들에도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목이 달아난 불상들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밀수꾼들이 유물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불상들의 머리만 떼어다가 팔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불상들에는 머리가 없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인해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겪은 문화재의 손실 또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청주를 떠나 우리는 또다시 차를 타고 5시간 정도를 달려 위해에 도착



하였다. 불편한 자세 때문에 5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잠을 자기에도 깨어있기에도 무척 힘들었지만 교수님이 들려주신 동북공정 이야기, 가이드가 들려주신 조선족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배우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불끈불끈 솟아올랐다.

위해라는 도시는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위해구' 라고 불릴 만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한국 간판으로 된 상점들이 눈에 띄었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한 곳도, 잠을 청한 숙소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냄새, 그리고 한국 음식이 참 반가운 밤이었다.

2008년 7월 27일

## 적산법화원, 장보고 기념관→인천

위해에서의 편안한 밤이 지나고 중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드디어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를 만나는 날이다. 마지막이라는 아쉬움과 설렘을 안고 석도로 이동한 우리들은 적산법화원에 도착하였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창건한 사찰로, 현재는 생각보다 대규모의 관광지로 조성되어있었다. 어안이 병병할 만큼 넓은 대지에 잘 조성된 공원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법화원의 모습은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인에 의해 세워졌다는 장보고 기념탑 앞에 모인 우리들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장보고의 일대기와 적산법화원에 얹힌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의 법화원은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바다를 무대로 활동했던 장보고 선단과 신라인들에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드리던 곳이라고 했다.

낮선 타국 땅에 건설된 신라인의 절, 법화원은 당시 이 지역에서 살아가던 신라인들에게 모국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조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었으리라. 법화원을 건립한 성공한 리더로서, 한중일 3국을 오가며 부를 축적한 성공한 무역인으로서, 신분과 국적에 대한 그 어떤 굴레도 없는 진



정한 자유인으로서 1200년 전의 장보고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

때문에 당시 당에 건너갔다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던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인 엔닌 스님은 자신의 저서인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를 신격화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엔닌 스님이 조국으로 돌아가 교토에 세운 적산선원에 모셔진 적산대명신이 장보고일 가능성이 높다



는 추론은 동아시아 전역의 바다를 호령하던 장보고의 위상을 잘 나타내 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 기념관 앞마당에 세워진 늙은 장보고의 동상은 천 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조용하지만 근엄하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다. 법화원에 올라 멀리 산등성이와 포구를 바라보자니 저 포구 끝 어디에선가 노를 젓고 있을 신라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신라인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거리의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답사는 그동안 제대로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저 바다의 왕자라는 수식어 속에 갇혀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그가 활동했던 여러 지역을 직접 돌아보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게 해 준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부족했던 많은 면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1200년 전 한반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 원대한 꿈을 안고 중국으로 건너간 청년 궁복처럼 우리 아이들이 원대한 꿈을 품고 세계의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5박 6일이라는 짧은 일정을 끝으로 답사는 끝이 났지만, 낯선 땅 중국에서 만난 장보고의 용기와 도전정신만큼은 나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재)장보고기념사업회와 동아일보, 그리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24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행문

서울 신도봉중학교 이은상

### 1. 신청에서 선정까지

학교에 정기적으로 오는 간행물들이 있다. 많은 서류와 책자들에 치여 사는 교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간행물들은 잘 읽혀지지 않는다. 그중의 하나가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보내오는 간행물이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업회의 이름과 장보고, 역사적으로 패자에 속하는 장보고를 전면에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 역사전공자가 아닌 탓에 장보고란 인물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어렴풋한 추억이 전부이기 때문에 무관심한 태도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역사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학교에 신청공문이 오기도 전에 장보고 유적 답사를 신청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다. 장보고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중국 답사'라는 말이 먼저 와 닿아서일까, 깊이와 넓이도 모른 채 던져



보는 물제비 돌처럼 장보고 중국 답사에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하면서부터 아내와 나는 동반 선정의 기쁨을 꿈꾸면서 보람 있는 여름방학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김칫국물의 입맛 다심조차도 사라져갈 무렵 전근가신 선생님의 문자 한통이 날아왔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순간 무슨 말인지 하면서도 장보고 유적 답사가 떠올랐다.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출발하는 당일까지도 느껴지는 막연함은 무엇이었을까? 역사적 한 인물, 장보고,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롯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 2. 답사 전 장보고에 대한 어렴풋한 추억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장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알아야 할 내용도 배워야 할 내용도 많은 학생들이기에 신라 하대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 속의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그렇게 장보고는 인식되고 있다.

나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장보고란 ‘무역활동을 잘 하여 명성을 떨쳤으나 욕심을 부려 결국 암살당한 패자’ 로만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다.

## 3. 짧은 준비를 해보다

장보고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책이 소개될까? 그건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이름 《해신》이다. 드라마로 더욱 알려져 있지

만 그것은 작가 최인호가 집필한 장편소설이다. 짧은 기간 간단한 준비를 해보고자 했던 나에게 ‘해신’이란 두 단어가 거북스럽게 다가온다.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항해 그동안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역사적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있던 터에 장보고 역시 ‘해신’이란 단어로 미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거북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 기간 동안 《해신》 책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료를 바탕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또한 ‘장보고’란 인물을 중심에 놓고 있지만 다양한 인물들을 또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였고, 신라 하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폭넓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직접 밟으며 밝히고자 했던 수수께끼 같은 진실들은 ‘장보고’란 인물에 대해 나를 점점 빠져들게 하고 있었다.

과연 사실인가? 신라명신과 적산명신 그리고 해신.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느냐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가 그런 추앙의 대상이 될 만큼, 혹은 그런 논쟁의 주제로 등장해서 이미 학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받을 만큼 현재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란 막연한 확신이 들었다. 그러자 답사에 선정되었을 때 느꼈던 막막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

#### 4. 시작부터 좋은 느낌의 중국 답사

평일임에도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가는 길은 막힌다.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등록을 했다. 아는 사람이라곤 ‘장보고’ 밖에 없는 터라 낯설고 서먹한 것은 새로운 땅 중국에 앞서 답사단에 선정된 선생님들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느낌은 인천항 앞에 모여 있었던 모



인천에서 산둥으로 가는 서해 바다 일몰 2008.07.30 pm19:00

두가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인천항의 대기실에는 중국인들로 시끌시끌하다. 장보고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랬듯이 많은 물품, 발전된 문화를 찾아 중국을 향해 서해 바다를 건너갔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역전된 상황을 보며 조금 먼저 경제적 근대화에 발 딛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발동한 것일까?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 답사 일정동안 함께 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4인 1실의 침대칸에 나는 2명의 선생님과 인사를 가졌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답사 시작부터 솔직하고 훈훈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함과 설렘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과 5박 6일 일정의 유익함과 즐거움 그리고 피곤함을 함께 하게 되었다.

첫날 저녁 식사 이후 김창겸 교수님의 따끔한 멘트와 함께 선상 세미

나가 시작되었다. “답사는 놀리가는 것이 아니다.”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여행에 긴장을 주는 말씀이었다. 실제로 답사의 유익함에 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열강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첫날 선상 세미나에서부터 곳곳의 답사 유적지 그리고 앉아있기도 불편한 버스 안에서 매일 1시간여 동안 주제별로 강의를 해주셨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열정이야말로 하루하루 답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부풀게 했고, 진지하게 답사에 임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열정의 강의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말이다.

## 5.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땅, 산둥

장보고 유적 답사를 마치고, 며칠 안 되어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40억 명이 지켜봤다는 개막식은 화려한 한편의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이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분명 중국의 역사적 자존심이 충분히 녹아들어 있었다. 중국이 자랑하는 역사적 발명품과 문화는 분명 그동안 서양 중심의 세계구조에 자극을 주는 것이었고, 잠자고 있던 중국인들을 깨우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산둥성에 있는 중국의 자존심을 하나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둘째 날, 영성의 성산두, 봉래의 봉래각, 고선박물관. 셋째 날, 치박의 순마갱과 제나라 역사박물관 그리고 태안의 태산. 넷째 날, 강태공 사당, 고차박물관, 청주의 청주박물관.

답사 장면 곳곳에서 느껴지는 중화주의와 중국의 찬란했던 문화와 영향력에는 현재 그들이 숨죽여 있지만 훗날 그 중화주의로 다시 세계에



순마갱 앞의 아이들



태산 도교 사원 앞



치박의 아침

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자심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영성의 성산두에서 진시황이 동쪽 끝의 영토를 확인한 것 이상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 아니 세계 진출의 야욕이 유적에 묻어 있다.

가장 오래된 전차와 선박 그리고 철기 문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포츠인 축구마저도 중국 중심의 경로를 만들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음을 유적 답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은 바닷길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이다.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한글 간판들이 이 지역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말해주듯 내가 보고 있는 유적지의 유물들은 분명 이 지방을 통하여 바닷길로 한반도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 중심에 '장보고'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유적지들은 그들이 준비해온 4대 공정 프로젝트의 치밀함에 비

하여 초라하고 허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적, 유물이라도 더욱 잘 보존하고 교육해서 역사적 진실로 그들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은 어떨까?

전 세계인들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주제가의 허구를 목도했다. 현재 언론보도금지에 묶여 진실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영광으로 다가올지 모르나, 진실을 알게 될 현재의 아이들과 후대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6. 장보고가 주는 메시지

답사 다섯째 날 나는 적산법화원을 바라본다.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 인지라 법화원 입구에서부터 다소 긴장이 된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적산법화원 전경

절일지, 최인호가 말했던 적산명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무엇보다도 중국 땅에서 한반도 역사의 자존심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고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 기념탑 앞에서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여 분의 강의에 모두가 빨려드는 느낌을 받는다. ‘장보고와 불교’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세상은 분명 신라 하대의 혼란함 속에서 안정과 풍요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가 경험했던 차별과 배고픔은 분명 더 나은 세



장보고와 적산명신상

상을 갈망하게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욕심을 부렸던 반란자로 기억할지 모르나 그가 모셨던 적산법화원의 불교신앙은 현세의 풍요이자 정신의 조화였다. 그가 반란을 꾀할 만큼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이 적산법화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둘째 날 밤, 교수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산동 지방의 유적을 답사하며 우리는 장보고의 왕성한 활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성한 활동의 결과, 장보고란 인물의 최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김창겸 교수님의 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한 인물로 봐야한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면 된다. 현재의 《삼국사기》에는 왕비 문제로 반란을 꾀한 패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장보고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아

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도덕적 결함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라 패자부활전에 성공한 장보고는 왕성한 해상 무역활동을 비롯하여 1만 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그 외에 불법의 수호자 등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보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답사 기간 동안 머리 한쪽을 복잡하게 했던 것은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이었다.

그러나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그 답을 얻는다.

해신 장보고가 아닌 ‘인간 장보고!’

세계화의 현실에 직면해 있고, 동북공정, 독도 문제 등의 역사도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적인 존재 장보고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장보고가 아닐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갈망이 아닌 현재를 개선하여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한 인간, 영웅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문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러한 본보기로서 지난 시대의 인물 ‘장보고’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많은 귀감으로 다가가도록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산둥에서 돌아오는 날 아침, 서해 바다의 일출, 2008,08,04 am05:30

## 25 장보고의 바다, 우리에게도 미래인가?

평택 한광중학교 김해규

### 1. 프롤로그

바다는 나의 로망이었다. 나는 고향집 사립문 앞까지 밀려오던 바닷물과 이른 새벽 고기잡이를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자랐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만선(滿船)을 하고 돌아오는 선장을 꿈꾸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회사에 취직한 뒤로는 점점 잊혀진 추억이 되었다.

학교 일과 지역 활동에 파묻혀 있던 내게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는 가뭇물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항상 답사단을 이끌고 안내하던 패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도, 여객선을 타고 느긋하게 바닷길을 여행한다는 것도 큰 설렘이었다. 여행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아이들은 여비를 하라며 5백 위안이나 되는 큰돈을 환전하여 건넸다. 출발하는 날 아침 등산용 배낭에 여벌의 옷과 카메라, 수첩, 세면도구 그리고 책 두 권을 챙겼더니 빈틈이 없다.

## 2. 바닷길로 중국에 가다

유부초밥으로 늦은 아침을 먹고 인천항으로 떠났다. 묵직한 배낭을 메고 혼자 떠나 보기는 참 오랜만이다. 기차역에서 소보로 빵과 커피 한 잔으로 점심을 때웠다. 30분쯤 일찍 연안부두 국제터미널에 도착했더니 일행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여객선으로 여행하는 일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3시 30분에 모여 인원을 체크한 뒤 답사 안내서를 받았고, 4시 10분에 모여 배표를 받고 4시 50분쯤 되어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도 배 안에서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다.

여행에 동참한 선생님들은 전국구다. 8명이 함께 승선한 우리 선실에 는 경상도 선생님들이 유난히 많다. 서먹한 분위기를 틔타 가족과 통화를 하였다. 아내는 여행 중의 건강을 염려하고, 큰 아이 은채는 여권과 돈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고, 막내 진현이는 가족들이 마련해준 여비로 선물사지 말고 다 쓰고 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한다.

저녁 어스름이 밀려오고서야 출항을 하였다. 자동항법장치가 있다고 는 하지만 불빛 하나 없는 밤바다를 달리는 여객선이 신기하기만 하다. 나중에 들었지만 1200년 전 장보고 선단도 밤하늘의 북극성을 좌표삼아 밤바다를 달렸다고 한다.

저녁 식사 뒤에 부산외대 권덕영 교수님의 강의를 있었다. 내용의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왜 장보고인가?’ 였다. E.H.카아의 말처럼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 인데, 우리는 이번 답사를 통하여 장보고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 3. 중국 동쪽의 끝 성산두에 오르다

새벽녘 세찬 비바람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창 밖으로 희뿌연게 동이 터온다. 침대 등을 켜고 책을 읽다가 몸을 씻었다. 아침을 먹고 선실에서 대기하다가 하선을 하였다. 입국 수속은 곧 있을 올림픽 때문인지 조금 까다로웠다. 도착한 우리는 3대의 관광버스에 올라 답사를 시작하였다. 우리가 탑승한 1호차에는 장보고 연구의 권위자인 고정석 박사와 현지가이드가 탑승하였다.

해상왕 장보고 유적은 대부분 산둥반도에 흩어져 있다. 이곳은 신라 하대에는 양주, 영주, 청주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다수의 재당신라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가이드는 우리의 답사 일정이 영성의 성산두에서 시작하여 봉래, 유방, 치박, 태산, 청주, 위해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석도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이다. 항구의 규모도 평택항의 절반밖에 안 되었다. 가이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어업이 발달하여 작은 홍콩이라고 할 만큼 변화하고 흥청댔던 곳이라고 하였다. 이곳에는 적산법화원과 석도진이란 아름다운 항구가 있다. 하지만 버스는 이곳을 놔두고 영성으로 이동하였다. 가이드말로는 답사의 방점을 적산법화원에서 찍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1시간쯤 이동하여 영성 성산두를 답사하였다. 성산두는 해남의 땅 끝처럼 중국 대륙에서 동해의 끝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했던 진시황이 순시할 때 동쪽의 끝이라고 하여 바위벽에 ‘천지루’라는 글씨를 새기면서 유명해졌다. 그 뒤로 많은 시인 묵객들과 정치권력자들이 다녀갔는데, 근자에는 마오쩌둥 사후 권력자였던 호요방이 다녀갔다고 한다.

성산은 만(灣)이 발달하여 고대로부터 군항(軍港)으로 이름 높았다. 당나라 때에는 소정방의 백제 정벌군이 출발하였던 곳이며 명, 청 시대에는 수군사령부가 위치하였다. 또 청일전쟁 때에는 북양함대를 이끌었던 등세창 장군도 이곳에서 전투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정문을 들어서자 가장 먼저 태공망의 사당과 등세창의 사당이 있다. 이채로운 것은 태공망의 사당은 비교적 자유로운데 비하여 등세창 사당 앞에는 중국 공안인 듯한 사람이 제복을 입고 앉아 참배객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 4. 신선이 노닐었던 봉래각 그리고 등주수성

성산두를 견학한 뒤 점심을 먹었다. 중국은 대륙이 넓어 음식문화가 다채롭기로 유명하다. 특히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이 많아서 기름기가 많고 향신료가 독특하였다. 산동요리는 광둥요리나, 사천요리에 비해서 기름기가 적고 향신료를 적게 쓴다고는 했지만 우리 입맛에는 여전히 먹기 힘들고 조심스러웠다. 동행한 선생님들도 음식을 조심해야 건강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들어 무척 긴장하고 먹었다.

봉래의 옛 이름은 등주다. 봉래에는 등주수성, 봉래각, 고선박물관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유적이 있다. 봉래각은 중국 도교의 상징적인 유적이다. 고대로부터 중국에는 많은 종교가 발달지만 대부분 외래종교이고 토착신앙은 도교뿐이다. 그래서인지 중국인들에게 도교는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종교다.

봉래각은 중국 4대 명루(名樓)로 손꼽힌다. 그래서 입장료도 비싸고 관광객도 많다. 2층으로 된 고루저각 중앙에는 8선(仙)이 자기만의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앉아 있고, 등주수성이 내려다보이는 누각에는 송나라 때

의 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소동파의 초상과 시가 모셔져 있었다. 예전에 죽림칠현이나 소동파가 신선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곳에서 확인한 셈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늪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랐던 진시황도 이곳에 왔었다고 하였다. 그가 봉래각에 올랐을 때 눈앞에는 바다에 신기루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놀란 진시황이 서복이라는 신하에게 도대체 무엇 이냐고 물었더니 엉겁결에 봉래산이라고 대답하였다. 서복은 그 바람에 진시황의 특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동방에 파견되었다고 한다. 봉래각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산을 내려오니 등주수성과 고선박물관이 기다리고 있다.

등주수성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물길을 가로질러 성을 쌓았기 때문에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하였다. 수로는 배가 드나드는 통로이면서 적의 침입을 차단하는 해자구실까지 하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도 어선과 관광객을 실은 모터보트가 수시로 성곽을 드나들었는데 수백 년 전에도 비슷한 광경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중국 수군의 전진기지였다. 한(漢) 무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수군을 출발시킨 곳이며, 수 양제 때 고구려 침략을 위해 수군이 출발시킨 곳도 이곳이라고도 한다.

등주는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건국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따르면, 당나라는 발해의 건국을 탐탁지 않게 여겨 흑수부말갈과 고구려 유민 사이에 분열책을 썼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발해 무왕이 장문휴를 시켜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는 것이 내용이다. 하지만 안내를 담당하신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예컨대 발해는 흑수부말갈 문제를 놓고 대무예(무왕)와 동생 대문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동생이 당나라로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당과의 전쟁에 태자가 전사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던 내부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전쟁을 벌인 것이고 하였다.

안내를 맡은 선생님은 봉래에는 신라하대에 도처에 신라방과 신라촌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쩌면 발해인들도 많이 드나들었으므로 발해방도 있었을 것이다. 장보고는 이들 신라방과 청해진을 연결하여 인적, 상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하였을 것이다. 이이화 선생의 중국답사기에는 아직도 여러 곳에는 신라촌, 장가촌들이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 답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5. 산둥반도는 제나라 땅이다

산둥반도는 밭농사 지대다. 낮은 구릉과 평원뿐인 들판에는 논은 보이지 않고 밭으로 이어져 있다. 끝없는 밭의 행렬을 보니 한자(漢字)에서 밭(田)자를 토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겠다. 이곳의 주요 작물은 밀, 옥수수, 사과 그리고 포도다. 7월은 밀을 수확한 뒤 옥수수를 재배하는 시기여서 가는 곳 마다 옥수수 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하지만 과일 맛은 신통치 않았다. 수박도 멍멍하고 사과도 옛날 홍옥을 먹는 것 같았다. 왜이리 맛이 없냐고 투덜댔더니 옆에 앉았던 최 선생이 ‘옛날 우리나라 수박도 다 이렇게 않았냐’라고 핀잔을 줘서 머쓱했다.

산물이 풍부했던 산둥반도를 처음으로 지배한 나라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다. 제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곧은 낚시’로 유명했던 태공망 강상이다. 태공망은 주(周) 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건국하였는데, 무왕이 그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태산의 동쪽 땅을 영지로 내렸다고 한다. 제나라의 수도는 임치였다. 그래서 임치에는 선사시대 유물과 함께 제나

라 때의 화려한 유물이 많다.

우리는 제나라 박물관과 순마갱, 고차박물관을 차례로 답사하였다. 제나라박물관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제나라 때의 다양한 청동기가 다수 전시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에 전시된 청동기는 규모에 있어 서나 다양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청동기와 차원이 달랐다. 또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고조선과 제작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의구심이 생겼다. 하지만 누구도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역사가 온통 미스터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순마갱은 제나라 시대에 말을 대규모로 순장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1963~1964년경 산동문물연구소가 임치성 유적을 발굴하던 중 자신의 마을에 호랑이 뼈가 많이 나온다는 어느 노인의 제보를 받아 발굴했다고 한다. 유적은 한적한 중국 마을 안에 있었다. 우리나라 1970년대 초반 같은 골목에는 주민들이 앉아 고스톱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만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고분은 왕의 무덤을 가운데 두고 삼면 210미터에 몽고에서 사육한 전투용 말 600여 마리를 순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장의 풍습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수백 마리의 말을 함께 순장한 경우는 본 적이 없어 경이로웠다.

다음날 답사한 유방의 고차박물관은 말과 마차를 함께 순장한 유적이다. 고차박물관에서는 말뿐 아니라 전국시대 마차의 형태를 고스란히 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안내를 맡은 고경석 박사는 무덤의 주인공은 발굴 유물 등으로 추정할 때 전국시대 말 제나라 제후였던 경공이라고 하였다. 말을 무척 좋아했다는 경공은 제위 58년 동안 제나라를 중흥시켜 후대의 추앙을 받았는데 죽은 뒤 고대한 무덤을 만들고 시체와 말, 마차를 함께 순장하여 뜻을 기렸다고 한다.

거대한 중국유물과 유적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엄청난 중국 문



화의 힘이 느껴지다가도, 권력이 보여주는 폭력성 때문에 작고 소박한 우리문화가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연 200만 명을 동원하여 30년 동안 축조하였다는 피라미드나 진시황의 만리장성같이 거대한 것, 보여줄 것이 많은 유물의 이면에 민중들의 피어린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 6.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泰山)은 백두산과 태백산만큼이나 중국인들에게 신성한 산이다. 중국의 오악(五嶽) 중에서도 동쪽 해가 떠오르는 가장 신성한 산이었고 하늘과 땅을 신(神)에게 봉선(封禪)하는 곳이었다. 봉선은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황제(皇帝)가 천제(天帝)에게 고하고 하늘의 뜻을 받는 의례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례였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앞 다투어 태산에서 봉선(封禪) 올리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황제라고 해서 아무나 태산에 오를 수는 없었다. 안내자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단 6명의 황제만이 봉선의 예를 올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진시황이고 한 무제와 한의 광무제, 당 고종과 현종, 송의 황제가 뒤를 이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신성한 산이다 보니 황제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태산에 오를 것을 선망하였다. 태산에 오르는 것은 평범한 왕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양사언의 시구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도, 중국 동부의 거봉이었던 태산을 노래하였다기보다는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었던 태산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이 신성시하였던 태산을 우리는 케이블카로 올랐다. 오르기 전에는 높아 보이거나 깊어 보이지 않았던 산이 오르면 오를수록 깊은

맛이 더한다. 산 정상부는 케이블카에서 내려 40분쯤 걸어야 하였다. 오르는 길가에는 상가가 즐비하였고 정상부에는 청의 황제와 천제의 사당이 있어 많은 사람이 향을 올렸다. 나도 케이블카에서 내리면서 10위안을 주고 향을 한 대 샀다. 종교를 떠나 중국의 태산에서 천제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사진도 찍고 풍물도 구경하면서 산에 오르니 정상 근처에 천제의 사당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다. 더구나 산을 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향을 올리고 있어 나의 판단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나는 동행하던 선생님들과 지나가던 여선생님 일행까지 포섭(?)하여 손에 쥐고 있던 향에 불을 피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치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눈에 ‘청 황제’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 7. 청주에서 이정기를 만나다

청주는 하나라의 우임금이 건설했던 도시다. 이 도시는 전근대 시기만 해도 크게 번성하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는 당 말 고구려 유민 출신 이정기가 평로치청절도사로 지배할 때이다. 이정기는 처음에는 영주절도사 황현지의 수하로 있다가 그를 죽이고 평로치청절도사가 되어 3대 동안 산동성 일대를 지배하였다. 특히 이정기의 아들 이남 때에는 당에서 독립하여 제나라를 건국하였는데, 장보고가 군중소장으로 있었던 영주의 무령군과 중앙군에게 진압당하여 55년 만에 멸망하였다.

청주에서는 강태공 사당과 청주박물관을 답사하였다. 수천 년 전에는 강태공에게는 무덤이나 변변한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당시

에는 무덤에 봉분을 하지 않고 평장으로 매장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당은 1992년에 건립된 것이다. 그래서 묘(墓)는 가묘를 썼고 의관청에만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청주박물관에는 산동성 일대의 선사유물과 고대유물을 다수 전시하고 있었다. 건물은 허술했지만 땅덩어리가 넓고 발굴, 수집된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 전시유물이 매우 다채로웠다. 전시유물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당나라 말기에 제작된 다양한 표정의 불상과 콘크리트벽에 시멘트로 붙여 놓은 비석들이었다. 안내자에 따르면 불상과 불교유물의 상당수는 박물관 앞에 있었다는 용운사터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하였다. 용운사는 신라인들이 세운 신라원 가운데 하나였다. 당나라 말기 장보고가 활동할 때에는 영향 아래 있었으며, 일본 승려 엔닌의 《대당구법순례기》에도 기록된 절이라고 한다.

콘크리트 벽에 박혀 있는 비석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문화재를 발굴, 전시하였다면 언론의 못매를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이었다. 그들은 보유 문화재가 풍부해서인지 아끼고 보호한다는 느낌이 없었으며, 우리가 답사하는 중에도 몇몇 인부들이 낮은 손수레에 불교유물을 싣고 와서 별다른 주의도 없이 함부로 내려놓는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다.

## 8.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적산법화원은 산동반도 적산에 장보고가 건립한 신라원이다. 고대 사회에서 사찰을 건립한다는 것은 정치, 사회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불교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였고 민심과 여론을 모으는 유용한 도

구였기 때문이다. 장보고가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해상교통로의 중심이었던 적산에 사찰을 건립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신라 지방출신의 낮은 신분이었던 장보고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무령군 소장으로 전공을 세우고 상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재당 신라인을 정신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이 절은 《법화경》의 관음보살신앙을 바탕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법화경》에는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관음에게 의지하면 잔잔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 이 절이 장보고 선단의 안전을 기원하고 신라인을 정신적으로 결집하는 기도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안내를 맡은 고경석 박사는 장보고가 법화원을 건립한 시기를 귀국 전이었던 828년쯤으로 추정하였다. 귀국 후에는 흥덕왕을 만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왕이 지방 출신의 미천한 장보고를 만나주고 군진설치를 허락한 것은 그의 명성과 영향력이 왕권을 움직일 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는 서남해안의 해적을 소탕하고 이스탄불에서 중동지방을 거쳐 중국 광둥으로 이어졌던 바닷길 실크로드를 신라와 일본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권력과 재력을 갖게 되면서 장보고는 왕권교체에 개입하였다. 고착화된 골품제 안에서 신분적으로 미천한 장보고가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왕권과의 밀착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의 진골귀족들은 막대한 부와 군사력을 가진 장보고가 왕실과 밀착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결국 장보고는 중앙귀족 김량이 보낸 자객 염장에 의해 암살당하였고 청해진도 폐파되었다. 신라가 장보고에 의해 장악되었던 중국-청해진-일본을 잇는 해상무역로를 상실한 것도 물론이다.

## 9. 에필로그

절대왕정 시기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서양세력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더구나 2차 대전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내수시장이 더욱 좁아졌다. 1960년대 이후 남한의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것도 지정학적 위치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역은 바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고정석 박사의 말처럼 바다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조선업이 발달하고 해운회사가 200개에 육박한다고는 하지만 바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바다를 적절히 활용하려면 무역대상국의 다변화와 세계가 주목하는 상품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와의 평화적인 협력과 교류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그와 같은 역할 모델을 1200년 전의 장보고에게서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장보고는 오늘의 우리에게 바다의 중요성과 바다를 평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장보고를 통하여 바다에 대한 꿈을 갖고, 바다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이번 답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나의 아버지가 연근해의 작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여 살렸다면, 우리는 보다 큰 바다로 진출하여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꿈을 가져야 한다. 그 꿈이 해상왕 장보고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 26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여수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 이상묵

장보고 유적 답사에 삼수 만에 당첨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염려스러운 게 있었다. 첫째로 나이가 많다는 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친구들보다 짧다는 게 재단 측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좀 더 빨리 다녀와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답사를 신청하게 된 동기는 2004년 동아일보 광고를 보고 그해에 신청했다가 낙첨하고 2년 후인 2006년에 또 한번 신청했다가 역시 고배, 완전 포기했다가 근무처를 사립에서 공립으로 옮기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신청했는데 운이 좋게도 2년 터울 3수 만에 붙은 것이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이는 해양소년단 구호이다. 해양소년단 지도자로 17년 동안 활동하면서 장보고의 업적과 정신을 아이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다로의 진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수없이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며 마치고곤 했다. 그리고 바다의 진출과 관련된 학습에서는 어김없이

장보고의 업적과 그 분의 정신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장보고를 만나기 위해 국내 유적지인 완도 청해진의 본영으로 추정되는 장도는 서너 차례 답사를 했지만 사료가 부족하여 아쉬움만 키우고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던 중에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재단의 중국 유적지 답사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은 행운이지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내가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갈망하고 삼수를 하면서도 신청한 이유는 앞에서와 같다.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동남아,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을 관광했지만 이번 답사는 여느 관광하고는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유명 관광지는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쉽게 다녀올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패키지 상품이 없어 나같이 외국어가 서툰 사람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답사는 남다를 수밖에 없고 편하게 즐기는 관광도 아니다. 고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운 답사다. 그럼에도 유쾌한 마음으로 붓짐을 챙기고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향하여 5박 6일의 전초전으로 5시간의 긴 버스 탑승을 마쳤다.

### 첫날(2008년 8월 13일)

하루 전날 2호차 담당 가이드로부터 전화가 왔다.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 앞 정자에서 미팅을 한단다. 늦지 않게 와달라면서. 사실 그때까진 내가 중국 가는 게 맞나하고 별 실감이 없었지만 막상 그 전화를 받고 나

니 이제야 가긴 가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가보고 싶던 적산법화원을 가보는구나 생각하니 약간 흥분되기도 했다.

5시간의 긴 버스 승차로 피곤도 할 터이지만 15시 30분 이전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곤도 잊은 채 목적지 도착했다. 무사히 미팅을 마치고 승선 완료하니 배정된 호실은 316호이다. 재단의 배려로 연배가 비슷한 4인으로 룸메이트를 구성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서로 수인사를 하고 첫날을 그렇게 보냈다.

18시 50분 화동훼리 호는 소리 없이 인천항을 출발하여 호수 같이 잔잔한 서해를 순항하며 배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안락함을 선사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상주대학교 이영호 교수님의 선상 세미나가 있었다. 사전에 조사하고 읽어간 내용이라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 둘째 날(2008년 8월 14일)

날이 밝아오자 룸메이트가 깽깽봐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한여름이지만 새벽인지라 바닷바람이 상큼하고 시원하다. 몇 년 전에 일본을 배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같은 시각에 배가 이미 부산 오륙도 앞 외해에 도착해 정박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줄기차게 항해를 계속한다. 중국이 일본보다 멀긴 머나 보다.

쉽 없이 항해하여 8시쯤에서야 석도항에 도착했다. 중국 쪽 바다는 아직 우리의 바다보다는 물색이 좋지 않고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석도항은 크기는 물론 시설 등 여러 면에서 우리 인천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버스 투어가 시작되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영성이다. 영성은 산둥성의 항구도시로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시황 사당, 동천문, 성산두 등의 유적지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성산두를 관람하면서 아픔을 되새겼다. 중국에서야 한반도를 침범하는 군사요충지로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지만 나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소정방의 13만 대군이 백제를 치기 위해 이곳에서 출발했다고 하



니 더욱 아픈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다 소정방의 무리에 죽어간 백제인의 원혼을 위해 잠시 묵념을 했다.

오후에는 봉래에 있는 등주수성을 견학했다. 이곳 역시 우리 역사와 관련 있는 곳으로 특히 한나라가 위만 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견한 곳,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가 동아시아 종주권을 두고 전쟁을 할 때 대규모 수군을 발진시킨 곳, 732년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수군으로 공격하여 점령하고 자사인 위준을 죽인 곳이 바로 등주성이라고 한다.

그 후 등주는 이정기 세력이 장악하면서 발해 및 신라교역 등을 관장하였으며 등주 일대는 신라상인들이 많이 거주한 곳으로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신라방', 그들을 접대했던 여관을 '신라관' 무역기관을 '신라소'라고 할 만큼 많은 신라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등주는 신라와 바닷길을 연결하는 항구도시로 신라와 발해의 해상교

역의 요충지이기도 했었다. 해상을 장악한 장보고의 영향으로 신라인들이 이곳 등주에서 교역을 하며 안전하게 집단거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며 다시 한 번 장보고의 위대함을 실감한다.

이어 고선박물관을 답사했지만 별 관심은 없다. 목포에 있는 고선박물관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중국 문화이다 보니 대충 훑어보며 지나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장장 3시간여의 긴 시간을 버스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모두 힘들어하는데 현지 가이드는 3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위낙이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라 수궁이 가긴 한다. 유방에 있는 호텔에 도착하니 시각은 많이 됐지만 5성급 호텔로 환경이 좋아 기쁜 마음으로 여장을 풀었다.

중국 첫날의 소감은 충격이었다. 딱 10년 전에 중국에 왔을 때 나는 우월감을 가졌었다.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이고 따라오려면 한참은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물론 구석구석 살피지 못했지만 외형적으로 사회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는 전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수없이 보이는 기중기 하며 여러 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섰다.

지금까지 나는 교육 현장에서 너무 안이하게 중국을 보고 지도하지 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니 충격이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을 똑바로 직시하고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깨우치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다. 나는 중국에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으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보일 때부터 더욱 중국을 의심했다.

그런데 그 의심이 기우는 아니질 않는가? 벌써 중국은 고구려의 옛 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 동북공정의 마각을 들어내 놓고 있다. 이

런 내용들도 우리 2세 교육에서 철저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잠자리에 들면서 웬지 기분이 착잡하다.

### 셋째 날(2008년 08월 15일)

광복절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건국이 60년이라니! 위정자의 역사의식이 이래서야 되는 건지 씁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을 먹고 치박으로 내닫는다. 치박은 제나라 수도로 그곳에는 역사 박물관이 있다. 나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그곳에는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돼지 오줌보로 만든 축구공을 볼 수 있었는데, 나의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가지고 놀던 돼지 오줌보가 떠올라 미소를 지어본다.

이후 순마궐으로 이동이다. 아직은 개발이 안 된 농로를 따라 찾아 간 곳은 유적지라기보다는 농부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장기 두는 한가한 농촌 마을이었다. 이곳에서는 웬지 말의 영혼들이 튀어 나올 것 같은 음산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독재자의 오만함도 함께 느꼈다.

이후 3시간의 장도 끝에 태산이 위치한 태안시에 도착했다. 태산 입구에서 중식을 먹은 후 우린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태산으로 향했다. 태산은 실망이다. 물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 이겠지만 장엄하다거나 아름답다거나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양사언의 시조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라고 시작하여 매우 높고 품격이 있어 보이는 산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양사언은 중국을 한 번도 와본 기록이 없단다.

과연 양사언이 이곳에 왔더라면 ‘태산이 높다 하되……’로 시작했을까 생각하며 실소를 머금는다. 태산이 유명한 것은 진시황이나 한 무제, 당 현종 등이 봉선의식을 거행한 곳이라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건물도 웬지 자연스럽지 않고, 선바위에는 어김없이 글을 새겨 넣는 모습도 낯설었다. 또 3시간을 달려 치박에서 여장을 풀었다.

### 넷째 날(2008년 8월 16일)

치박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채 10분도 안 되는 곳에 강태공 사당이 있었다.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는다는 일화를 남긴 태공은 인본주의 사상가다. 그분의 가르침과 뜻은 후세에 본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가슴 한 쪽이 아파움을 느끼며 나왔다. ‘선조의 높은 뜻을 받드오리다. 2000년 6월 18일, 대한민국 13대 대통령 노태우’ 일국의 대통령이 한심한 작태를 보인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치부하는 마당에 한국의 대통령이 강태공을 조상으로 모시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후대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강태공 후손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중국에 유리한 단초를 제공하다니 기가 막히고 힘이 빠져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또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통탄한다. 이후 고차박물관, 청주박물관을 견학했지만 강태공 사당에서 받은 마음의 분노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다. 이후 기분이 울적하여 파트너와의 대화도 줄었다. 견학도 건성 건성이다.

박물관 견학 후 우리는 마지막 숙소인 위해시로 향했다. 장장 4시간 30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둥반도의 모습은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다. 우리에게 이 같은 땅이 있었다면 하고 생각해 본다.

위해에 도착하니 동아일보사에서 준비한 특별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식 뷔페, 모두들 만족스럽고 게걸스럽게 고기를 실컷 먹었다. 식사 중에 우리를 즐겁게 해준 행사가 또 있었다. 장미란의 금메달 획득이다. 이제까지의 기분이 순식간에 풀렸다.

#### 다섯째 날(2008년 8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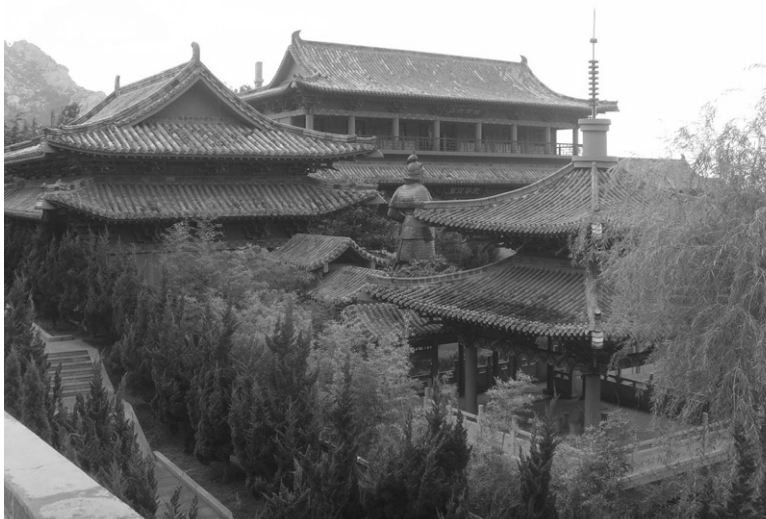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최종 목적지이며 이번 여행의 핵심인 장보고가 창건한 적산법화원으로 출발하였다. 적산법화원 초입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들어가 인솔 교수님의 장보고 기념관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 앞서 노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같은 뜻을 가진 동지가 있어 기분이 좋았다.

먼저 장보고 기념관을 들렀다. 장보고 기념관은 2007년 4월에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으며, 전시물은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지원하였다고 한다. 장보고의 동상과 기념



장보고 동상



장보고 기념관

비를 견학하면서 다시 한 번 장보고의 기상과 위업을 되새겨 본다.

다음은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짧은 시간이어서 서둘러 법화원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이슬비는 내리지만 꽤넘치 않는다. 1200여 년 전 재당 신라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사찰을 돌아보는 건데 이슬비가 대수인가. 법화원을 세운 장보고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숙제로 남기고 기념촬영을 한다.

그동안 함께 탑승한 김병곤 교수님의 차분한 강의에 매료되었으며 강의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절제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강의 마지막에 자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 달란다. 대답은 ‘고토회복’ 정말 듣기 좋았고 훌륭한 선생님이셨다.

장보고 그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해상왕, 무역왕, 청해진 대사, 민족 지도자, 국제적 명사’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장보고가 아닌 미래에 부활할



장보고를 원하며 우리 교육자의 역할은 더욱 자명해진다.

마지막으로 답사 취지를 되새기며 글을 마친다.

21세기 세계화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거머쥐고 한·중·일 삼국의 무역을 주도하며 한반도를 무역과 물류의 중심으로 일으켜 세운 해상왕 장보고, 1200여 년 전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낸 시대를 앞선 진취적인 기상과 자랑스러운 업적을 체험하고 21세기 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합니다.’

## 27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기행문

서울 창원초등학교 김재은

5박 6일의 역사기행! 참 많이도 기다렸기에 더욱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번의 신청 만에 답사단에 뽑히고 나니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동료 교사, 가족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개인적으로 6번 정도 다녀왔기에 여행을 준비하는 데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전혀 낯선 고장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과 만날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인천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우리조 선생님들을 만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자 6명, 여자 3명의 우리 3호차 C조는 정말 환상의 멤버였습니다. 5박 6일간의 녹록치 않은 일정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소화해낸 것도 이렇게 멋진 조원들을 만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 〈23일〉

처음 가본 인천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내 생애 타본 배 중 가장 큰 배! 그 옛날 장보고 선단이 이끄는 배도 꽤 규모가 컸을 텐데 내가 이번에 탄 배는 승선 인원 1,000명, 배 길이 175미터의 거대한 호텔이었습니다. 식사도 깔끔하고 냉방도 잘 되어 있어 무척 상쾌했습니다.

첫날에는 장보고 원정대의 기획과장님, 국토해양부 관계자 분들, 동아일보사팀, 온누리 여행사팀 등 많은 분들의 인사와 안내말씀을 들으며 이번 여행이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바로 23일 저녁 배 위에서 들은 권덕영 교수님의 선상 세미나였습니다. 장보고가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오기까지 힘쓴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원래 세미나 같은데 가서 잘 집중해서 듣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피곤함과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권덕영 교수님의 강의에서 귀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승려 엔닌과 라이샤워 대사, 김문경 교수님, 최인호 씨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분들이 없었더라면 1200년 전 장보고는 그냥 역사의 뒀안길에서 조용히 숨겨져 있을 뻔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만큼이나 훌륭한 분은 바로 선상 세미나를 통해 장보고의 실상과 허상을 차분하게 들려주신 권덕영 교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담하게 장보고와 그를 부활시킨 위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권 교수님이야말로 장보고 연구를 집대성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뇌리 속에는 미국 소설 《큰 바위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온 에네스트. 노년에 그의 모습이 큰 바위 얼굴이 되었노라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조용히 단상을 내려오며 자신은 아직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노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에네스트의 모습이 자꾸만 권 교수님과 닮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권 교수님의 선상 세미나가 끝나고 참 훌륭한 강의였노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장보고에 관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강의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남달랐다고 여겨집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조원선생님들과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마치자 밤 12시, 씻고 침대에 누우니 특급호텔이 부럽지 않더군요.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큰 배를 타 본적이 있는데, 한 방에 100여 명이나 투숙하는 큰 방이라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층 침대를 보니 곤명에서 북경까지 운행하는 48시간 정도 걸리는 중국 기차와도 비교되었습니다. 그 기차는 3층 침대여서 참 좁고 불편하였는데, 이층 침대에 넉넉한 공간과 욕실까지 갖추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 〈24일〉

눈뜨고 하선하여 내린 곳은 산둥성 석도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일정의 장보고 답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소 흐린 날씨였지만 답사하기엔 딱 좋았습니다. 성산두에 도착하여 황해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항상 서쪽으로만 보아오던 낮익은 황해가 동쪽으로 보니 우리나라와 중국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진시황의 분로장생의 꿈을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 바로 이동한 곳은 봉래! 봉래각에 올라가 8명의 신선들의 모습을 보고 고선박물관에 가서는 중국 고선발전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

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5년 동주수성 해안에서 발견된 고려선박의 길이가 26~27미터에 달해 한중해양교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봉래의 많은 유적지를 뒤로하고 유방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으니 둘째 날의 긴 여정도 끝났습니다.

## 〈25일〉

치박으로 이동하여 순마강을 보았습니다. 춘추시대의 제나라 공후의 묘군으로 알려졌는데 무려 600여필의 말들을 순장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순장의 비정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나라 박물관에서는 제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군사와 민속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가슴 설레는 태산등정! 높이 자체는 그리 높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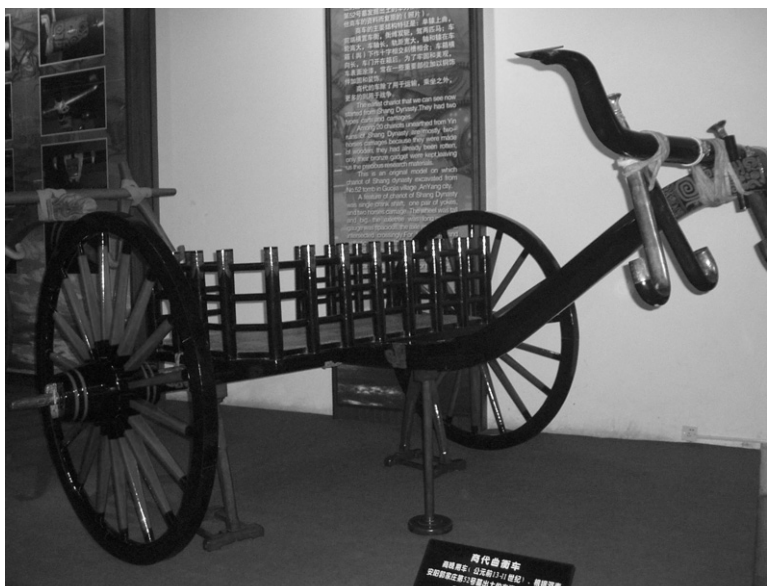


지만 역사적 유적지인 태산을 오르면서 많은 감동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 옛날 중국의 황제들이 수레를 타고 수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이 산을 올랐을 것을 생각하니 참 장관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산을 무척 좋아하는 저로서는 한 번 걸어서 꼭 오르고 싶은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 〈26일〉

여행의 넷째 날입니다. 치박에 들러 강태공 사당을 들렸습니다. 단순히 낚시 잘하는 인물로만 알았던 강태공이 齊나라의 초대임금인 것을 이



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어 들른 고차박물관에서는 중국고차 연구와 중  
 국의 다양한 역대의 차량을 진품들로 진열해놓아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  
 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기한 박물관을 보았다는 즐거  
 움이 컸습니다. 공격과 방어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고대무기와 여러 동물  
 (말, 소, 낙타, 코끼리)로 끄는 고차들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어서  
 들른 청주박물관에서는 중국 전국에 있는 현급 박물관 중에서 으뜸이라  
 는 수식어답게 많은 유적과 문화재들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넷째 날 여정을 마치고 무려 4시간 30분을 달려 위해로 이동하여 호  
 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 〈27일〉

여행의 마지막 날이자, 답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석도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보고 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적산법화원에 들어서자 그 옛날 신라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설명을 통해 이 법화원이 824년 창건되었다가 840년 전후에 나라의 억불정책에 의해 훼파되었다가 1989년에 중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보고 기념관에서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적산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 관광을 마치고 인천을 향한 화동훼리 호에 승선함으로써 중국 내 유적지 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1차로 떠났던 장보고 유적지 답사! 위에 기술한 5박 6일간의 답사내용 말고도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틈틈이 관람한 소설가 최인호 씨의 장보고 연구 영상물도 내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장보고원정대의 중국 유적지 답사를 통해 단순히 해적떼를 소탕한 해군장군정도로만 인식하였던 저에게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직경력 19년 중 12년동안 6학년을 지도하여 왔고, 6학년 사회시간에 장보고를 매년 가르쳐왔지만 지금까지 늘 해적떼를 벌하고 우리의 해상교역로를 확보한 해군장군으로만 가르쳐왔기에 그 파급력은 참으로 크리라 예상됩니다. '학생의 수준은 결코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소중한 진리를 믿기에 제가 이번에 눈과 귀로, 발로 그리고 가슴으로 체득한 소중한 답사유산들은 한 개인의 역사관의 변화를 뛰어넘어 제가 앞으로 가르치게 될 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동료교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사료됩니다.

한 사람의 해군장군을 뛰어넘어 해상왕으로, 해상무역왕으로, 글로벌 CEO로, 위대한 지도자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답사를 통해 우리가 되짚고 가야 할 과제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선상 세미나에서 권덕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최인호씨의 DVD를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속의 장보고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고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기반에 다소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최인호 작가의 개인적인 사색과 탐구로 장보고의 역사를 들춰내는 과정이 소설가 최인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참으로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전개과정이지만, 과학적인 고증을 필요로 하는 고대 역사의 한 부분임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 세계적인 객관적 역사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해무리굽 자기’가 장보고의 존재와 그의 무역, 그가 단순한 교역자를 넘어 무역품 생산자였다는 점, 신라와 아라비아 사이의 무역이 존재했음을 증거하는 멀티증거로 활용된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의 정확한 출생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게 사실인데 완도 부근에서 태어난 것으로 은근히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진 옛날이야기 한편쯤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장보고기념사업회와 이 답사에 참가한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의 더 적극적이고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대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교사들에게 다시 한 번 역사적 책임감과 냉철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이 필요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한 이번 답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 28 새로운 장보고의 탄생을 바라며

서울 관악중학교 진춘자

### 1. 답사를 준비하며

워낙에 추천, 당첨과는 거리가 멀어서 별 기대가 없었는데, 7월 1일 내가 답사단에 선발된 것이다. 처음 신청했는데 바로 선발이라니. 나도 이제 슬슬 운이 피려나 하는 재미난 생각으로 장보고와 관련된 몇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왔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기에 방학 바로 전에 중국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과 공부했었다. 학생들과 중국을 세계지도에서 찾아서 면적은 세계 3위이며, 인구는 세계 1위, 각종 자원도 풍부하다느니,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느니 그런 내용을 공부한 것 같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로서는 중국을 훤히 알고 있는 듯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중국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오빠가 오랫동안 중국에 나가 일을 했으며 그곳에

서 중국인인 지금의 올케를 만나 결혼도 했고, 조카도 현재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1년 동안 중국인인 우리 올케와 생활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말이며, 음식이며, 생활양식이 참 다르다는 걸 몸소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런 중국을 내가 이제 가게 된 것이다.

중국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답사의 주제이기도 한 장보고에 관해서도 다시금 알고 싶어졌다. 몇 해 전 장보고와 관련된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열심히도 보았던 것 같다. 그때 드라마에 나왔던 송일국, 최수종, 수애 등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었고,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드라마 일부를 보고 장보고에게 편지쓰기도 했었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장보고가 탄 배 한 척이 유유히 바다로 나가면서, '세계인'이라며 장보고를 마감하는 멘트가 나왔던 것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드라마 마지막이라고 너무 과장해서 날리는 표현이라 코웃음 쳤기에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답사단에 선발된 뒤 그런 장보고가 1200년 뒤 이런 답사단을 가능하게 한 것을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의 도움으로 장보고가 한국사의 미야로 남아 있는 해상왕이라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일부라도 직접 경험하고 싶으며, 또한 그곳에서 해상왕으로 성장한 장보고에 관해 궁금증을 풀고 오리고 생각했다. 더하여 낯선 곳에서 만나게 될 낯선 사람들, 같이 여행할 동료들은 누굴까, 여행 전날에는 이런 생각들로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 2. 중국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장보고

1) 제1일 : 2008년 7월 30일(기나긴 항해와 선상 세미나)

흥분으로 잠을 설친 것일까? 가벼운 피곤감과 흥분으로 도착한 인천 국제터미널. 요즘 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할까했는데 실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일반 여행객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중국인, 한국인 보따리장수들도 보였다.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는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금 느껴본다.

가이드와 미팅 후 드디어 승선. 그런데 배 이름을 보고 약간 기분이 그랬다. ‘華東’ 웨리 호, 華는 중국을 상징하는 한자로, 中華사상에서 나온 한자가 아닌가? 이 사상은 중국인이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를 중국의 동쪽 오랑캐라 하여 東夷라고 칭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배 이름이 동쪽 오랑캐의 나라를 오가는 배라는 뜻의 화동웨리라고 한단 말인지? 배 이름을 짓는 것이야 이 배의 주인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그랬다. 아님 중국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몰라라하는 나라란 말인지? 여러 가지로 배 이름 때문에 언짢았다.

하여튼 승선 후 저녁 식사를 할 즈음 배는 출발했다. 그때 시간이 저녁 7시였다. 저녁 8시부터 선상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세미나를 통해 장보고의 성장 과정, 성공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항해에 관한 것이었는데, 장보고 전 시대 전만 해도 ① 연안항로, 즉 연근해 항로로 중국을 오갔다는 것이다. 즉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발해만의 여러 섬들을 거치고 압록강 하구를 거친 다음,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서남해에서

방향을 바꾸어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일본열도에 이르는 항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 시대 즈음해서 ② 횡단항로, 즉 황해와 중국을 횡단하는 항로의 개척이 이루어졌다. 이는 거리상 연안항로보다는 가깝지만 위험수위는 높았다. 이 항로가 개척된 것이 신라의 통일 시기 즈음이었는데, 이 항로를 통해 660년 당군이 건너왔다고 한다. 횡단항로와 비슷한 ③ 사단항로는 황해를 비스듬하게 연결하는 항로였는데, 장보고가 청해진을 건설한 후 개척된 항로로 청해진에서 중국 남부를 연결하는 항로이다. 거기에 ④ 남해로라 일컬어지는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 해를 지나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해상으로 동서 문화교류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닷길을 말하는데, 장보고 시대 즈음해서 더 활발히 이 남해로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상 세미나를 통해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제상황이 국가통제력이 약화된 혼란기였기에 공무역이 쇠퇴하고 사무역이 크게 성장한 시기였으며,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장보고라는 해상왕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당에 진출한 신라인들의 든든한 배경도 한몫해서 해상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유익한 세미나를 끝내고 긴장감이 풀려서인지 피곤함이 몰려와 바로 잠을 자버렸다.

2) 제2일 : 2008년 7월 31일(입국 및 성산두, 봉래각 답사)

좀 밝아진 듯해서 잠을 깨서 보니 새벽 5시였다. 간밤에 배가 제법 출렁거렸는데, 이러다가 중국 땅도 못 밟고 잘못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아니 장보고와 신라인들은 1200년 전에 이것보다 더 흔들리는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이 바다를 드나들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



사진 1. 석도항 전경

다. 어제 세미나를 통해 이런 횡단황로 이외에도 사단황로, 또 멀리 아라비아까지 배를 타고 다녔다는데, 놀랍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장장 12시간의 항해를 통해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 올림픽 때문인지 심사가 까다롭다고 했다. 굳은 표정의 중국공무원을 보니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절로 긴장이 되었다. 배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있었는데, 딱딱한 이 분위기가 사회주의 사람들의 모습일까 싶은 비약도 해봤다. 드디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진춘자 생애 처음 중국에 발을 들여놓았다.

바로 우리 답사단은 버스로 나누어 타고 첫 번째 답사코스인 진시황 사당과 성산두로 이동했다. 공식적으로 진시황을 모신 유일한 사당으로 청나라 때 건축된 진시황 사당과, 산둥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성산두로 갔는데, 이곳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아직 중국이라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가운데, 중국에 와서 첫



사진 2. 봉래각 전경

식사 시간이 되었다. 기름질 것이며 한국 음식과 달라 입에도 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 만했다. 배가 고팠는지 첫 식사는 잘 먹었던 같다.

이후 봉래각 및 등주수성을 보려고 3시간 30분을 이동하였다. 3시간 넘게 이동하면서 쪽쪽 뻗은 도로와 보이지 않는 차량 그리고 승용차보다 확보하는 화물차, 모두 통일된 붉은 지붕의 집, 거리의 가로수는 그 뒤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지 마을 전경을 가로막고 있었다. 키 높은 가로수 뒤에 옥수수 밭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같이 보였지만 가로수 뒷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치 일부로 보여주기 싫어서 꼭꼭 숨겨두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도로 모습은 어디를 가나 똑같았다.

복잡한 생각과 함께 오랜만에 긴 버스여행을 마치고 봉래각에 도착을 했다. 과연 ‘중국 4대 명루’라 불릴 만큼 거대한 규모와 해안을 따라 건설된 수성이 절묘하게 조화된 모습이었다. 봉래각의 누각에 들어가니 천



사진 3. 지붕(봉래각 내)

후궁(天后宮)이라는 누각이 있었는데, 신선들이 내려와 주연을 베풀던 곳이라 하여 모형물이 있었는데 약간 우습다는 생각도 들었다.

뭐라 할까? 거대한 규모와 그 명성에 비해 누각의 모습이 작고 조잡하다고 느꼈다면 내가 너무 거만하다고 해야 하나. 누각으로 오르는 길에 보니 지붕의 곡선처리가 인상적이었다(사진 3). 곡선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붕의 최정점을 곡선처리한 건 누구 생각이 있을까?

또한 건물 사이의 둥근 출입문도 그리고 보니 곡선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아한 곡선보다는 그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또 문화적 거만함을 부려본다. 모르겠다. 직접 중국에 오니 버스에서 살짝 봤던 넓은 땅덩어리를 보며 약간 질투심이 났던 것인지, 자꾸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암시를 걸고 있는 것인가 보다.



3) 제3일 : 2008년 8월 1일(순마경, 제나라 역사박물관, 태산)

오늘은 바로 태산(泰山)에 오르는 날이다. 오전에 비를 맞으며 제나라 역사박물관 등을 관람해서 태산에 못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인지 날씨가 너무 좋아 태산을 만끽할 수 있었다.

드디어 ‘티끌모아 태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라고 하던 태산에 오르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백두산이 있다면 중국은 태산 일 것이다. 태산이 가까워지면서 주변에서 설악산만 못하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야지대와 낮은 구릉지의 연속인 중국 동부의 산동성에 우뚝 솟아 있는 태산은 백두산만큼이나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답사단은 케이블카로 등정해서 거의 태산의 정상부에 올랐다. 중간 중간 덜컹거리며 올라가는데, 점심으로 나온 가짜 코카콜라를 떠올리며 중국 사람들이 케이블카 공사는 진짜로 잘했기를 바라며 조마조마한



사진 4. 태산 정상

마음으로 5분을 걸던 것 같다. 순식간에 약 1,500미터를 올라오니 여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청량감이 느껴져서 상쾌했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태산을 천천히 관람할 수 있어 즐거웠다.

깜짝 놀란 건 1,500미터나 올라왔는데도 그 위가 평지와 같이 넓었고 산 위에 각종 건물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정상은 뽕죽하니 좁아야 하는데, 이거야 원 정상인지 아래인지 분간이 안 되었다. 또한 곳곳에 돌 비석에 유명한 문구가 쓰여 있어 중국인들이 글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산을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또한 태산 정상의 누각에서 눈에 띈 것은 무수히 걸려 있는 자물쇠였다. 신혼부부가 이곳에 찾아와 각각의 자물쇠를 얹혀 잠그고 열쇠는 산 자락 아래로 멀리 내던진다고 했다. 열쇠를 찾을 수 없는 만큼 굳을 결속을 상징한다는 ‘동양의 로맨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태산은 예부터 황제가 봉선의식을 통해 만민 앞에서 공식적인 그리고 정통성의 계보를 잇는 통치를 공표하는 예식을 이어왔다. 지금은 케이블 카를 타고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 옛날 술한 백성이 피땀 흘려 이곳까지 황제를 모시고 치렀을 그 의식을 떠올리니 백성의 통한과 한(恨)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산을 내려오며 다시 태산의 경치를 보면서 노출된 특징적인 암석들을 분석해내지 못하는 지리전공자인 내가 너무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래서 ‘산은 산이다’ 하고 암시를 걸면서 태산을 즐겼다.

#### 4) 제4일 : 2008년 8월 2일(강태공 사당, 고차박물관, 청주박물관)

유적 답사도 이제 슬슬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슬슬 한국의 음식도 무지 그리워지고 있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이정도면 먹을 만 하다고 생각했지만, 거뜬되는 식사에서 더 이상 호기심과 인내심이

바닥나 버린 것이다. 가져온 밀반찬이나 고추장으로도 해소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나약했었나 하는 마음도 가지고 참고 먹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부대찌개니, 냉면이니, 김치찌개 등이 간절하다. 내가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중국에 처음 와서 고생했을 오빠 생각과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음식에 고생했을 올케 언니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더 힘내서 다녀야지 하는 마인드컨트롤도 해본다.

오늘은 강태공 사당을 가는 날이다. 강태공은 ‘시대를 낚는 사람’, ‘옆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등의 일화를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의해 산둥성 지역을 제나라라고 해서 다스리기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여기는 강태공을 제나라 초대 왕으로 기념하기 위해 그가 썼던 모자와 옷을 제나라 수도인 치박에 묻고 만든 사당이다. 강태공이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사당은 규모가 제법 되었다.

강태공 사당에 들어가기 전 우리를 인솔하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성씨가 대부분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자신들의 성을 중국 성씨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상을 중국 사람인양 착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대 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그런데 창피하게도 여기 강태공 사당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씨가 강태공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념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앗, 이렇게 창피할 수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새겨놓은 그 비석을 정말 뽑아버리고 싶었다.

##### 5) 제5일 : 2008년 8월 3일(적산법화원)

이제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한 적산법화원으로 우리 답사단은 향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해상왕 장보고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적산



사진 5. 장보고 동상 앞

법화원. 보기엔 돌산이지만 비가 오고나면 붉게 물든다 하여 적산이란 명칭이 생겼단다. 답사 기간 내내 버스로 이동할 때 보았던 <역사스페셜>을 통해 일본 엔닌 스님과 장보고의 관계에 관해 알게 되었다. 일찍이 엔닌 스님을 곤경에서 건져주었기에 그가 일본으로 돌아가 쓴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장보고를 칭송하기를 신을 대하듯 웅장하면서도 미려했다. 장보고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엔닌 스님의 글을 보면 장보고는 고결하고 카리

스마 넘치는 모습을 어렵잖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런 장보고가 왜 우리 역사엔 남지 않았을까? 통일신라 당시 신라는 물론이고 당나라 일본에까지 이미 명성을 떨친 그였기에 높은 명성과 그의 영향력만큼이나 신라 정치세력에겐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결국은 부하에게 배신당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철저히 우리 역사에서 등한시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보고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게 한다.

아쉬운 것은 적산법화원이 우리민족에 의해 장보고라는 인물을 재조명하여 그 명성에 걸맞은 평가를 내린 곳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엔닌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건립한 것이라 하였다.

정말 통탄할 일이었다. 이젠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거대한 바다와 대륙의 상권을 움직였고 호령했던 해신(海神) 장보고의 명성과 카리스마를 돌려줘야 마땅할 것이다.

장보고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간직하며 답사를 마쳤다. 그동안 5박 6일 동안 같이했던 동료들과 인솔 교수님들, 가이드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이별을 하며, 또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으로 크게 한숨을 쉬었다.

### 3. 답사를 마치며

내가 가본 중국은 질투가 많이 나는 곳이었다. 직접 가서 보니 그 광활한 대지가, 처음으로 본 지평선이 탐이 났고, 그곳에 있는 자원이 탐이 났으며,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역사가 탐이 났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앞서고 있지만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초조함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장보고라는 인물이 더욱 대단해 보였다.

지금보다 그 위상이 컸을 당나라에서 기반을 잡고,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멀리 아라비아까지, 전 세계를 품에 안으려고 했던 큰 포부를 가진 그가 대단해 보였다. 그 말이 맞았다. 키케로의 “바다를 경영하는 자가 세계를 경영한다.”라는 말대로 바다를 장악한 장보고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1200년 전 그는 단순히 무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재당, 재일 신라인을 청해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동북아의 경제 이익에 공히 기여한 인물로 오늘날로 치면 다국적 기업의 CEO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재물만을 좇았다면 엔닌 스님과 같은 분이 그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겠는가?

이제야 이 답사를 보내준 이유를 알았다. 바로 제2, 제3의 장보고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었구나.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 답사단의 뜻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

## 29 장보고의 숨결을 따라

경북 영덕 남정초등학교 최제일

이 세계가 하나의 책이라면 피고 지는 꽃은 인생에 비유가 되고, 밤하늘의 별은 영원의 상징이 되고, 길 위의 바람은 자유의 시(詩)가 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 不可解한 문장의 행간을 거니는 호기심어린 방랑자가 된다. 자, 이제 움츠린 가슴을 흰 돛처럼 활짝 펴고 전설과 낭만이 넘실거리는 황해를 건너 '중국 문화의 보고' 산둥성(山東省)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여행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우리 선조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업적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장보고 해외 유적지 답사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러웠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을 한 2차 답사단은 집결지에 모여 여권수속을 밟고 터미널을 둘러보니 여행객과 상인들로 인해 터미널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공항과는 사뭇 대조적인 풍경으로 인해 잠시 당황했지



만 끝이어 탑승 수속이 시작됐고 터미널 측의 배려인지 일반 여행객을 우선 줄을 세워 탑승 수속을 시작했다.

면세점을 나와 일행들은 서틀버스에 올라 배 앞에 도착해서 그 위용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배에 올랐다. 해상왕 장보고가 다녔던 해상로가 재개됐다는 얘

길 듣고 떠난 여행길이라 사뭇 진지하기도 했고, 어떤 곳일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배를 타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첫 경험이 더 설레게 만들었다.

1200년 전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한 신라인 장보고, 2007년 인기에 방영했던 TV 드라마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해신’ 장보고의 여정을 좇아가는 뱃길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해신’은 1200년 동안 역사 속에 매몰되어 있던 장보고를 역사전면에 이끌어낸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보따리 상인들은 풍돈을 쥐기 위해 이 뱃길로 중국산들깨나 약초, 한국산 공산품을 실어 날랐다. 이제는 고대 동북아 바다를 호령했던 장보고의 숨결을 느껴보려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상인들을 압도한다.

### 〈첫째날, 2008년 7월 30일〉

긴 뱃고동 소리와 함께 출항이 시작된 시각은 18:30, 출항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이다. 선상 석식은 꽤 운치 있었다. 망망대해에서 일행들과 함께 선상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에 관한



선상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2차 탐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국 각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인 선생님 82명과 인솔자, 여행사 직원과 함께 모두 92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답사를 신청한 선생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3,500명이 넘는다는 것과 그중 450명이 2008년 답사에 참가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우리들은 행운아인지도 모른다. 본 행사 추진 의의 및 일정과 유의점, 그리고 온누리 여행사의 직원 소개와 장보고 유적지 답사의 취지와 한국학 중앙연구원 김창겸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이번 행사는 관광이 아닌 연수이며 일정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말씀과 아울러 장보고 정신의 현대적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식사와 선상 세미나를 마치고 일행들은 삼삼오오 갑판으로 뛰어나와 인천항을 바라보았다. 푸른 서해의 파도를 가르며 점점이 떠 있는 섬 사이를 지나 배는 물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육지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배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 가랑비가 내린 탓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바다안개가 피어올랐는데, 전망이 좋지 않았지만 운무가 운치를 더했다. 어둠은 누엣누엣 수평선으로 내려앉고, 배는 황해로, 황해로 흘러들어갔다. 이제 주위는 온통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뿐이다.

### 〈둘째날, 2008년 7월 31일〉

잔잔한 황해의 뱃길 때문인지 배멀미도 없이 눈을 떴다. 하룻밤을 꼬박 달려 다음날 아침에 중국 땅을 밟을 수가 있었다. 항구가 가까워지면 서 파도를 헤치고 저 멀리 대 여섯 척의 선박이 줄지어 중국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이었다. 1500년 전, 거센 파

도를 가르며 험난한 바닷길을 뚫고 있는 대가야의 목선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목선 가득 양식을 싣고, 항해 기술이 뛰어난 이들이 대가야의 사신을 모시고 수십일, 아니 몇달이 걸려 천신만고 끝에 대륙에 도착했을 터. 어쩌면 수많은 목선이 부서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등 수 차례 실패를 거듭한 뒤 뚫은 바닷길인지도 모를 일이다.

07:40, 소고기국에 김치, 김, 젓갈, 계란 등 한국음식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밤새 배를 타고 장보고와 진시황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석도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한국 시각 오전 9시). 육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중국 산둥의 끝자락이 눈에 보이기를 기다리는 설렘은 날 흥분시켰지만 막상 항구에 발을 내리는 순간은 他國의 특별한 낯설음은 없었다.

한반도를 향해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 동쪽 끝의 작은 항구도시 스타오(石島)는 산둥성에서 아침 닭이 울면 그 소리가 서해 연안마을에서도 들린다는 좀 과장된 말이 있을 정도다. 가까운 만큼 교류도 많았던 것 같다. 장보고 당시에는 문등현 청녕항 적산촌으로 불리었다.

석도 국제여객터미널 도착하여 가이드를 만난 후 진시황의 유적지가 있는 성산두로 이동하면서 첫 관광이 시작되었다. 성산두(岾)는 일명 ‘천진두(天盡頭)’라 하는데 산둥성(山東省) 영성시(榮成市) 용수도진(龍鬚島鎮)에 있다. 빨처럼 돌출한 모습 때문에 ‘성산각’이라고도 불린다.

버스 안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구름은 약간 끼었으나 비는 오지 않아 오히려 관광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일행들이 탄 3호차는 모두 초등교사이다. 지도교수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겸 교수님, 한국 가이드 박종민 씨, 현지 조선족 가이드 안동 김씨인 김국선 씨이다.

교수님이 말문을 열었다. 어젯밤 물침대에서 잘 지냈는지 묻는다. 사

실상 어젯밤에는 파도가 제법 심하였다고 한다.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여행은 동행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 기뻐는지 모른다. 전국 각지에서 세대를 초월한 초등 선생님들, 온누리 여행사, 동아일보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직원, 그리고 우리 일행들을 안내할 현지 조선족 가이드들의 인상도 너무 좋으셨다. 말씀도 너무 잘 하시고 재미가 있으신지라 분위기는 금방 달아올랐고 끈끈한 동료애로 화기가 넘쳐 흘렀다.

석도시 외곽을 벗어나자 잘 닦여진 도로와 넓게 펼쳐진 들판이 온통 푸르름으로 덮혀 있다. 도로 주변 주택들은 온통 붉은색으로 덮혀 있고, 집 구조는 사회주의 국가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영성시의 첫인상은 참 좋았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로와 건물, 고급스럽게 지어진 해안의 아파트는 중국의 다른 지방에서 보았던 무질서와 혼란, 불결함과는 사뭇 달랐다. 중국 경제 발전의 첨병 지역답게 중국 성장의 원동력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영성시는 항구도시로 진시황 유적, 동천문, 성산두 등의 유적지가 있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중국대륙에서도 길지로 여겼으며 진시황이 두 차례나 방문하는 등 황제들도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성산두는 중국의 동쪽 끝으로 중국에서는 유일한 진시황 사당과 ‘천무진두’라는 표석으로 유명한 곳이다. 중국의 동쪽 땅 끝인 성산두에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하였다. 엄청난 크기의 東天門이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문을 들어서니 성산두가 눈앞에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주위는



안개가 자욱하여 더욱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성산두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공원전(公元前) 219년과 210년에 두 차례나 이곳을 다녀갔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더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동천문’을 지나 성산두관광구에 들어서면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시황묘(始皇廟)이다. 이곳에는 일주사(日主祠), 천후궁(天后宮), 시황전(始皇殿)이 있다.

성산두에는 빼어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진시황의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성산두를 둘러보고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였다. 石島는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처럼 식당으로 이동하는 내내 대부분의 산들은 돌로 가득 덮혀 있었다. 도로변 바닷가에는 수백 기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개량중 무궁화가 가로수로 곳곳에 수십 킬로미터씩 도로 양쪽에 잘 가꾸어져 있었다. 위해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위해 화화회관에서 현지식 점심이다. 중국식 식단이라고 하여 조금은 걱정이 되었으나 생각보다는 내 입맛에 거부감이 적은 근사한 음식들이 나왔다.

식사 후 다시 활짝 개인 날씨 속에 다음 목적지 봉래로 향하였다. 위해 외곽을 벗어나 영성으로 향하는 울퉁불퉁한 2차선 도로를 달린다. 도로변은 사과나무, 옥수수 밭, 땅콩 밭, 포플러나무 가로수들이 연이어 이어진다. 2차선 도로가 끝나고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인지 길이 4차선으로 시원스럽게 뚫려 있었다. 4차선 시멘트 도로로 접어들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준다.

영성에서 약 3시간 30분을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 항구도시 봉래시(蓬萊市)로 향하였다. 도로 주변의 자연은 기름진 땅에서 영양을 충분히 흡수했는지 한반도의 서해안처럼 풍성했다. 질푸른 초목도 우리네 산야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특히 방대한 지역의 해안에 차려진 양식

장은 무한한 자원 그대로였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이다.

봉래(땡라이)는 장보고의 대중국 진출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였다. 新羅人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발해 등과의 교류 중심지이며 신라와 일본에서 전당사(見唐使)가 이곳을 거쳐 낙양과 장안에 까지 갔었던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곳 봉래에는 신라관이 있었다고 하니 신라인들은 이곳 등주를 거쳐 서안(장안) 등 중국 내륙으로 진출한 것 같다.

등주는 남쪽의 초주와 양주, 명주로 향하는 시발지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대륙진출의 교두보였다. 장보고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겨놓아 우리로 하여금 장보고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해준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등주는 자주 등장한다. 많은 일본 승려가 등주를 거쳐 낙양이나 장안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봉래에 도착하여 봉래각과 등주수성을 보기 위해 새로 쌓았을 성짚은 성문으로 들어섰다. 예부터 중국은 성이 많았고 그 성문은 규모부터가 대형이다. 성문을 통과하는 데만도 한참 걸린다. 성문을 지나자 중국 가세들이 성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 성문을 지나 얼마를 걸어가니 수로(水路) 위로 다리가 나타나면서 양쪽으로 배를 대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세웠던 발해의 배가 드나들었던 곳이 아닌가. 오늘 같은 날이면 이곳 저자거리는 해동성국 발해 사람들로 흥청맸으리라. 오랜만에 물에 올라온 사람들은 뱃멀미를 털어 버리려고 술 한 잔씩 하고 높은 소리로 지껄이며 이곳을 활보했을 터이다.

옛 상념에 사로잡혀 다리를 건너니 봉래각으로 오르는 길 계단 양쪽으로 무성한 나무숲이 울창하다. 숲과 아기자기한 대문들이 어우러져 미로를 제공하여 재미를 더한다. 편백, 측백, 향나무 등속으로 잘 조정되어

가꾸어진 숲길을 돌아 오르며 고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얼마 안가 멋진 글씨로 ‘단애선경(丹崖仙境)’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는 단애선경방에 이르렀다.

가이드는 일행들을 멈추더니 “이 패방은 단애선경(丹崖仙境)입니다. 봉래각이 절벽 위에 위치해 있는데 암석이 모두 빨간색이어서 단애라고 합니다. 봉래가 선경이라는 미명을 가지기에 노인들은 이 패방만 넘어서면 신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곧 선인이 되실텐데 선인이 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시지요.”라고 설명했다. 단애선경 패방을 지나서 봉래각에 오르는 사람은 모두 선인이 된다는 전설이다.

단애선경을 지나 용왕궁을 지나 마지막 제일 안쪽 높은 곳에 2층으로 된 봉래각이 서 있었다. 2층인 마지막 누대(樓臺)에 올랐을 때, 남쪽 앞으로 보이는 나무가 우거진 주변 경치와 뒤쪽으로 돌아가 보이는 푸른 바다는 육지에서 자란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선경이라 할 만하다. 누대 중심부에는 당시 문왕 일행이 놀던 모습이 실물 크기로 만들어져 이곳에 오른 사람들의 사진 배경이 되어 주고 있었다.

봉래각에 서서 저 멀리 끝 간 데 없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끝없는 사색의 파도를 타고 속세를 벗어난 듯한 감을 느끼게 된다. 요동반도와 발해만을 경계하고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먼 고향을 떠나 온 신라인

들이 얼마나 많이 이곳에 서서 바다 건너편을 눈이 닳도록 그리워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니 나 또한 1200년을 뛰어넘는 사무침에 한여름의 더위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다시 셋길을 걸어 성의 수문이 되는 다리로 들어섰



다. 등주항은 자연 항만인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예부터 해군의 요새였다. 다리를 건넌 곳에는 대포를 전시해 놓아 이곳이 치열한 작전지역이었음을 언지시 말해준다. 봉래 등주수성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봉래각, 고선박물관 관광 후 八仙宮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다리 달린 것은 책상과 의자,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만 빼놓고 뭐든지 먹는 나라 중국은 식도락가에게는 가히 천국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음식이 존재한다. 굳이 값비싼 고급식당이 아니더라도 둥그런 원탁 위에 산해진미를 깔아놓고 원반을 돌려가며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저녁을 먹고 유방으로 향(3시간 소요)하였다. 봉래로 가는 길은 먼 길이였다. 고속도로를 달려 3시간 정도이니 서울과 대구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다. 유방까지는 3시간이나 걸린다. 중국에서의 이 정도 이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는 대륙의 열기와 옥수수 밭뿐이니 오히려 배부받은 장보고 홍보 책자를 거의 외우다시피 읽고 읽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들판과 구릉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은 저 멀리 떨어져 보였다. 가는 곳마다 산이요, 그 산 속으로 난 길로 여행을 하게 되는 한국과는 또 다른 여행길이다.

20:30, 깜박 잠이 들어 어둠 속을 달리다가 깨어나 유방에 도착하니 휘황찬란한 불빛이 일행을 맞이한다. 시내로 들어서니 곧게 뻗은 도로와 가로리 연모양을 한 가로등이 일행을 맞는다.

### 〈제3일, 2008년 8월 1일〉

유방에서 오전 7시에 호텔식으로 아침을 먹고 07:30 출발 예정이었으

나 1호차 어느 여선생님이 어제 저녁 프론트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출발이 지연되어 08:30 출발하였다. 다행히도 호텔 직원들과 가이드들이 지난 밤늦게까지 CCTV를 분석하여 중국인이 가져간 것을 알고 공안의 협조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8월을 시작하는 오늘도 무더운 날씨다. 유방시는 북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우며 사계절이 분명하단다. 무척 잘 꾸어진 도로망과 건물들이 눈길을 끈다. 유방시의 도시건설은 점차 완벽하여가고 도시기능은 현저히 증강했다고 한다. 또한 산둥성 중부지역에 위치하여 중요한 교통중추이다. 근 몇 년간 도로건설, 해륙공 주요 통로, 스테이션 건설을 추진하여 입체화 교통망을 구성하였다. 가이드는 치박으로 이동하는 동안 치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치박은 역사가 유구하며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하다. 치박시의 옛 이름은 임치(臨淄)였고 임치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수도였다. 여기는 문물고적이 많아 지하박물관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동주순마갱, 고차박물관, 강태공사, 관중묘, 안영묘 등이 유명하다.

먼저 찾은 곳은 제국 역사박물관(齊國歷史博物館)이다.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 기원전 221) 제나라의 역사유물들을 전시한 곳이다. 齊나라 800년간의 도읍지 치박, 그 역사만큼 치박은 그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제나라는 7만 호, 30만 명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말이다.

치박 임치구에 있는 제나라 역사박물관 출입문에는 강택민의 글씨가 크게 걸려 있었다. 고성(고성)의 대성과 소성이 맞물리는 특수한 모양으로 쌓여 있다. 박물관은 푸른 벽돌로 지었는데 옛 성곽을 방불케 한다. 역사박물관은 선제시대, 제국시대, 음악청, 무위청, 성곽청, 과거청 등으로 나뉘어 제나라 8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국 역사박물관을 나와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옥수수 밭 가운데 자리한 제경궁 순마갱을 찾았다. 제나라 위정공의 동주순마갱은 치박시를 흐르는 淄區河(치구하)에 인접해 있다. 산둥 지역은 너무 광



활하여 전차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순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은나라에 그런 풍습이 극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사람과 말을 순장해놓은 순마갱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원래는 춘추시기인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으로 춘추제국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갱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순마갱은 춘추시기의 제나라 공후(公侯)의 큰 묘군(墓群)으로 현재 대중형 묘지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마는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하였다. 전쟁 시 사용하던 말들을 그대로 매장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채찍을 후려치면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날 듯한 생생한 모습이었다. 웅장한 규모의 박물관도 좋은 역사 학습의 현장이겠지만 이렇듯 2000여 년의 세월 그대로 숨 쉬고 있는 坑(갱)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 체험이었다.

순마갱을 나와 태안으로 향하였다. 끝없이 이어지는 옥수수 밭과 포플러 가로수 숲들을 지나 산둥고속도로를 계속 달려 휴게소에 들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휴게소를 지나자 태안까지 81킬로미터가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 태평양을 흠으로 메꾼 덩치보다 더 큰 느낌이었다. 중국은 평원을 달려 보면 하늘을 덮은 창공이 흰하게

견혔고 산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달리고 달려도 끝이 없어 지겹도록 넓은 감이 있다.

태안이 가까워지자 시원하게 뚫린 6차선도로가 나타나더니 만덕 IC에서 태산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도로 옆으로는 태산의 연봉들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돌산이다. 식당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을 먹고 13억 중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태산으로 향하였다.

거대함, 이보다 더 중국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있을까? 광활한 국토와 어마어마한 인구, 오랜 역사만큼이나 중국 곳곳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인류유산이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으뜸을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인들은 서슴치 않고 도교의 성지이자 시선(詩仙) 이백의 마음을 사로잡은 태산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다.

점심을 먹고 버스로 20분쯤 달리니, 태산 입구 안내 표지판이 나왔다. 버스가 산 속으로 난 길을 달릴 때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기묘한 바위, 우뚝우뚝 솟은 산줄기 등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어찌 보면, 설악산 백담사 계곡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계령을 넘을 때 좌우로 보이던 산과 기암괴석을 보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와는 다른 굵은 선과 면을 느끼게 하였다. 버스 앞자리에 앉아 무심결에 바라본 태산은 관심을 끌기에 나름 충분하였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이리저리 돌던 버스는 한참만에 케이블카 승강장 앞에 정차하였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적지가 된 태산(泰山)은 ‘하늘 아래 첫 산’ 또는 ‘오악지존(五嶽至尊)’으로 불리는 태산은 중국 역사·문화의 축소판이다. 五岳의 之長이며 五岳의 獨尊인 태산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실감나지 않았다.

태산을 걸어서 오르려면 약 9킬로미터의 거리, 7,412개의 돌계단을 밟고, 일천문(壹天門), 중천문(中天門), 남천문(南天門)을 거쳐야 한하는데 우

리는 문명의 이기 덕택에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남천문으로 올랐다. 케이블카를 타고 뒤를 보니 중천문 쪽에도 여러 사찰과 정자 등 건물들이 보인다. 조금 오르니, 발아래에 수십 길이 되는 폭포수가 멋진 자태를 뽐내며 흐르는 모습이 보였다. 거의 8부 능선까지 케이블카가 이동해 준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태산은 아찔하지만, 발아래 펼쳐진 진경(珍景)은 신비스럽기만 하다. 보이는 것만이 아닌 느끼는 것 모두가 신비롭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니 저 아래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숨막히는 경관이 나타났다. 많은 사찰과 황제가 머물던 곳과 정자와 산중호텔이 보인다.

원(元)나라 때 세웠다는 남천문에는 ‘하늘에 닿은 누각’이라는 뜻일까? 마공각(摩空閣)이라는 현판이 걸렸다. 정상에 오르니, 아니 케이블카에서 내리니 천하가 작아 보이기엔커녕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 문명의 이기(利器)에 기대어 천국에 이르는 8,800여 개의 돌계단을 땀 흘리며 오르지 않은 인간의 요령에 대한 무시일까, 이 자존심 강한 거인은 운무의 베일을 펼쳐 일망무제의 파노라마를 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호’와 함께 나름대로 호연지기와 ‘별유천지비인간’의 감흥을 느낄 수는 있었다.

남천문을 통과하면 정상일대는 비교적 평탄하다. 또 조금 위에는 ‘하늘의 거리’를 상징하는 듯, 천가(天街)라는 돌문이 나온다. 하늘 위의 동네란 말인데 정말 태산 정상에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서 식당, 숙소, 기념품가게들이 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옆 바위를 보니 ‘더 이상 땅의 세계는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만물이 피어난다’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天門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그리 가파르지 않은 길이 이어지지만 정상까지는 약 800미터를 걸어야 한다.

티엔지에(天街)와 성중(升中), 위엔펑(元逢), 씨션먼(西神門)과 동션먼(東神門)을 지나 암석벽이 온통 서예 전시장인 따관펑(大觀峰)을 지나는 계단

에 이르면 해발 1,510미터라는 표시가 있다. 기기묘묘한 서체로 붉게 수놓인 암벽벽풍을 바라보노라면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픈 인간의 욕망이 무심한 세월을 향한 헛된 낙서만이 아님을 동감한다.

정상을 가까이 두고 계단 위에 있는 옥황정 문을 들어가니, 빨간색으로 ‘태산극정(泰山極頂) 1,545미터(米)’라고 쓴 표석(標石)이 나를 맞아주었다. 표석 앞에서 사진을 찍고, 몇 발자국 걸어가니 공자를 모시는 2000년 이상된 고찰 명나라 때 세워졌다는 옥황전(玉皇殿)이 있었다. 옥황전의 중앙에는 구리로 만든 옥황상(玉皇像)이 있고, 좌우에는 시위하는 선인상(仙人像)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전각 밖에서 향불을 사르며 절을 하고, 다시 전각 안의 옥황상 앞으로 가서 절을 하였다. 최고의 신으로 받드는 옥황신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이들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였다. 외국 관광객들은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드디어 태산의 정상인 해발 1,545미터 옥황정(玉皇頂)에 다다랐다. 산정 위에 지어놓은 건물과 산세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치를 물씬 풍겨낸다. 태산의 크기에 비해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는 케이블카의 움직임도 장관이다. 어쨌든 그렇게 흥분된 기분으로 정상에 섰다.

옥황전에서 나와 사방을 굽어보니, 가히 일망무제(一望無際)라고 할 만하였다. 산 아래에는 높고 낮은 산들이 연이어 있고, 산자락 끝에 넓은 들이 보이기도 하였다. 우뚝 솟은 태산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이 있어서 과연 천하 장관이라 할 만하였다. 나는 이곳에 서서 사방을 내려다보면서, 중국인들이 태산을 ‘동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른 곳, ‘천신인 옥황이 거처하는 신산(神山)으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연유를 알 것 같았다.

다시 남천문으로 내려와 흠뻑 젖었던 일행들을 만나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여 짧은 태산 등정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임치로 이동한다. 태안에서 임치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는 4차선과 6차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길은 끊임없이 평야로 이어져 앞뒤 좌우 어디에도 산은 보이지 않는다. 차창 밖으로 끝없는 화북 평원이 펼쳐지는데 산하나 없이 지평선이 보인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을 바라보며, 중국 고대 진시황 때 이미 4,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중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위해에서 임치까지는 무려 6시간 이상 걸렸다. 우리 일행을 이로써 중국 대륙의 광활함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20:00, 늦은 시각 치박 외국인들이 치박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다는 제도대주점에 도착하였다. 방을 배정받고 샤워를 한 후 짐을 대충 정리해 두고 저녁 10시에 일행들은 거리로 나섰다. 한참을 걸어 거리노점상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니 현지인들이 더위를 피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일행들도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음식이 중국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꼬치와 현지음식들뿐이라 도저히 먹을 용기가 나지를 않았다. 일행들은 발길을 돌려 호텔로 돌아와 맥주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12시가 넘어 방으로 돌아왔다.

#### 〈제4일, 2008년 8월 2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호텔 밖으로 나왔다. 중국의 아침 풍경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과 달리 생동 그 자체이다. 무엇보다도 특색 있는 모습은 다양하고 푸짐한 아침 음식의 물결이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아침을 밖에서 해결한다. 길거리 식당들은 만두, 빵 종류, 면 종류, 등 음식을 만

들어 놓고 손님들을 기다린다.

아침을 먹고 8시경에 치박(淄博)-강태공 사당(姜太公祠堂)을 찾았다. 강태공에 대한 일화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게 되니,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 수 있었다. 사당의 중앙에는 거대한 강태공상이 좌정해 있고 좌우로는 그의 아들과 신하를 함께 배향(配享)했다. 그는 산둥성 임치(臨淄) 사람이다.

강태공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선조가 여 나라에 봉하여 저서 여상(呂尙)이라고도 하였으나 그의 본명은 강상(姜尙)이라고 한다. 또한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고 하여서 태공망(太公望)이라고도 한다. 그는 주공 단의 아버지인 문왕(文王)을 도와 주나라를 일으킨 최대의 공신이 되어서 제나라의 제후로 봉하여진 후에 강태공(姜太公)이라고 부르게 되며 강자아(姜子牙)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공은 기원전 11세기(BC 1027년) 주나라의 개국공신이다[위수 강변에서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주나라의 문왕(周文王)을 만나 그를 도와 반란을 꾀하다가 문왕은 죽고 대를 이은 무왕을 도와 은(殷)을 멸망시켰다].

정말 그랬을까? 강태공이 세월을 낚고 있었을까? 강태공의 이야기는 '세월을 낚는' 은자(隱者)의 상징으로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동기와 과정이 어찌되었든 주 문왕은 결과적으로 강태공이 쳐놓은 구부러지지 않은 곤은 빈 낚시바늘에 물렸고, 이 때문에 강태공은 손자를 봐어도 한참 지난 나이에 세상에 나서서 주나라의 공신이 되었고 역사상에 유명한 군사전략가가 되었던 것이다. 혹시 강태공은 70이나 되는 나이에 주왕(周王)을 상대로 멋진 '쇼'를 펼쳤던 것은 아니었을까?

강태공 사당을 뒤로 한 채 고차박물관으로 향하였다. 고속도로 위에는 가끔 차량이 하나둘 마주칠 뿐, 텅 비어 있었다. 지금도 고대지명을 그대

로 쓰고 있는 임치구(臨淄區)의 고차박물관(古車博物館)은 현재 중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제일 정확하고 완전한 차마유적(車馬遺跡)과 문물이 일체화된 고차박물관이라 한다.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바로 밑 지하에 있었다.

이곳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우연히 발굴된 유적인데 춘추전국 시대의 마차와 함께 순장된 말의 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하로 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기묘한 나무뿌리의 형상을 살린 재미있는 사람의 형상이 우리를 맞는다. 먼 길을 온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웃음을 선사하려는 여유를 누가 부렸을까? 어둡한 전시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차 바퀴와 함께 길게 누워 있는 말들의 앙상한 뼈에 놀란다.

古車박물관에 들러 중국 고대 차량의 화려함을 느끼고 중국 10대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車馬坑을 통해 춘추전국시대의 흙먼지 내음을 느끼면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의 위대함이 곳곳에 스며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0:00, 고차박물관을 나와 청주로 이동하였다. 11시가 되어 청주에 도착하니 작은 지역이었고, 시골 마을에 온 느낌이 들었다. 청주박물관을 찾았다. 번진(藩鎭)세력의 중심지역인 중국 청주(淸州)시는 당나라의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다. 수려한 양계호수가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박물관은 고풍스럽고 늙름한 외관과 풍부한 소장품으로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청주박물관에서 나는 이정기의 이름을 보았다. 산둥성에서 ‘제’ 나라를 세운 李氏 일가는 765년부터 819년까지 55년간 산둥반도를 다스리며 당나라를 공략했었다. ‘齊’ 나



라는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李正己), 이납(李納), 이사고(李師古), 이사도(李師道)의 4대에 걸친 대제국이었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다. 민족의 후예는 선조의 얼을 이어 새 역사를 창조해 간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오늘날 얼마나 사실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동북아를 웅비했던 우리 한민족의 5천 년 역사는 철저히 유린되고, 왜곡되고, 말살되었다. 인류의 시원사와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한민족 9천 년 역사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재조명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고구려의 영웅 이정기! 어찌하여 이같이 찬란했던 민족의 영웅이, 민족의 정신이 1200년간 역사의 저편에 묻혀 있었던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한족(漢族)은 역사 이래 하북성(河北省), 산둥성(山東省), 강소성(江蘇省) 일대에 세력을 뻗은 일이 없으며 중국 동북 지방과 만주지역은 바로 한민족(韓民族)의 역사무대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중국 곳곳에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뻗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청주박물관을 나와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고 유방을 거쳐 위해로 향하였다. 치박과 청주를 둘러보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위해로 가는 길에 황하를 지나고 차는 쉬지 않고 달린다. 위해가 가까워지자 해송숲들이 도로 주변 가까이 멀리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산이 아닌 구릉지대에 이렇게 엄청난 소나무들이 자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푸른 군락지를 이루고 있었다. 방풍림으로 조성수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산둥반도의 북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도시 위해(威海, 웨이하이), 유엔이 인정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다. 예부터 신라방이 있었을 정도로 한국과는 아주 밀접했고, 중국에서 한국배가 가장 먼저 취향한



곳이다. 1200여 년 전 위해를 누볐을 해상 왕 장보고에 생각이 미치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진다.

위해시의 총 인구는 약 270만 정도이며 중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끝없이 펼쳐진 해송숲 사이로 난 길을 달려 연태시 속에 있는 현



급인 아름답고 깨끗한 산둥반도 동쪽 위해 시내로 들어서니 곧게 뻗은 8차선 도로 옆에는 녹색조경으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배롱나무 가로수 꽃이 일행들을 반기고, 거리는 휴지 조각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거리였다. 교통질서 또한 중국의 어느 도시와는 달랐다.

17:50, 잘 가꾸어진 고속도로 주변 환경과 이국의 정취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위해 시내 서울숯불고기뷔페에 도착하였고 동아일보가 주최한 만찬에서는 기막힌 삼겹살과 소주로 에너지를 보충하며 답사단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고조되어 갔다.

그날 밤은 모두가 잠을 이룰 수 없었는지 삼삼오오 모였다. 우리 4조도 8명이 한명처럼 威海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먼 산둥 지방을 한 바퀴 돌고 돌아 온 여행의 피로는 황해 밤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져 버렸다. ‘여행은 이래서 좋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지막 숙소인 啓明假日酒店(계명홀리데이 호텔)에서는 방마다 오랫동안 안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 〈제5일, 2008년 8월 3일〉

장보고를 만나는 그날 아침은 분주하였다. 장보고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 나섰던 지난 며칠과 오늘에서야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대감이 나의 기분을 설레게 하였다.

드디어 장보고 시대에 신라인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소가 있었던 적산을 찾아갔다. 서해가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의 신라방 터는 지금은 붉은 지붕을 한 중국식 집들과 채소밭들로 바뀌어 1000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오늘 일행들이 중점적으로 답사할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츠산파화위원)은 당(唐)대 교동반도에서 최대규모의 불교사원 중 하나로 꼽히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곳의 유래로 법화원은 불교의 경전 중 법화경을 많이 읽어 법화원이요, 뒷산이 붉어 적산이라한다. 법화원은 석도항 바로 뒤에 붉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 쌓여 있는 산과 바다를 접하는 곳으로 재당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교화를 담당하는 장소이며, 만남의 장이었다. 또한 교민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중심체였으며 신라 교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장소였다. 청해진을 세우고 해상교통로를 장악한 장보고도 적산에 사찰을 세우고 바닷길이 평온하기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다. 당시 법화원은 산동반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독경을 경청하러 오는 사람은 2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답사 마지막 날에 꿈에도 그리던 법화원을 찾은 우리는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경내로 들

어렸다. 통일신라시대인 820년 전후 동아시아 해상을 장악한 장보고(?~841). 역사 속에서 ‘모반을 획책한 반역자’((삼국사기)) ‘반란을 획책한 미천한 해도인’((삼국유사))으로 매도된 그가 1200년 만에 최인호의 소설 《海神》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전남 완도 청해진 바닷속에 잠든 그의 기백과 혼은 지금도 일본, 중국을 거쳐 베트남, 인도, 아랍 및 페르시아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유장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적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산둥성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 가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820년 장보고가 석도 적산에 세운 법화원은 나·당·일 삼국교역의 중심지였다. 과거의 절터에 중국정부가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만들었다. 법화원 본당 우측 법당에 장보고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주최한 ‘2005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를 실시한 것이다.

적산법화원에 다다르자 나는 커다랗고 화려한 외부의 모습에 압도되었고 다양한 건물과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인 내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먼저 장보고 기념탑을 찾았다. 기념탑에서는 장보고와 신라인들이 수시로 들고났을 산둥성의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 위험한 모습을 보면서 장보고의 세계를 향한 넓고 광활한 기상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기념탑 앞 잔디에 앉아서 세미나가 열렸다. 장보고와 법화원에 대해 학문적인 지식을 강의실이 아닌 장보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에서 장보고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설명을 듣는 순간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비단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기념탑을 내려와 장보고 기념관으로 향했다. 지난날 신라인들을 그려 보며, 한 계단 한 계단 발걸음을 옮기며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이 먼 곳



이국땅에서 얼마나 고국을 그리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장보고 기념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옛 신라인들이 닳을 올리며 마을 앞으로 바람결에 미

끄러지듯 달려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5개의 전시관은 통로로 잘 연결되어 있고 전시관 앞뜰에는 연못이 수양버들을 길게 늘어뜨리며 잘 가꾸어져 있었다. 기념관 중앙에 세워진 장보고 동상. 그 뒤로 보이는 건물에 장우성 화백이 그린 장보고 화상이 모셔져 있다.

기념관을 나와 적산명신이 있는 수많은 계단을 오른다. 날씨는 화창하다 못해 뜨거운 태양은 우리를 환영하듯 그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연신 땀을 닦으며 계단을 오른다. 적산명신상 위에 올라서니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게 부는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난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찰 아래로 마을의 집들이 아득하게 보이고 멀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검푸른 바다 위에 수십 척의 배들이 매어 있었다. 1200년 전 이곳 산동성 일대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일본까지 누비며 활약하였을 장보고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법화원에서 내려다보면 포구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이 가장 대표적인 신라인의 유적이 있는 곳이란다. 오늘날 장보고는 반도라는 지정학인 위치를 가진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해야 할 방법의 하나인 해상을 장악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나라와 시대는 부강했었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바다

활용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곳이 천여 년 전 신라인들의 발자취와 숨소리가 묻혀있는 곳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장보고는 시대를 앞서간 해상 경영의 선구자였다. 장보고

는 1200년 전 완도네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한 뒤 韓 中 日을 잇는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하였고 동남아와 인도 이슬람까지 시장을 확대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국가간 거래에 머무르던 공무역을 민간무역으로 바꿔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양부국을 이루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를 해상왕 장보고라고 부른다.

적산명신을 보고 영성민속관을 보고 숲길을 따라 걸으니 극락보살계가 나타났다. 극락보살계를 보고 마지막으로 적산명신지구에 있는 가장 오래된 법화원의 대웅보전을 보러갔다.

장보고가 세웠다는 적산법화원과 장보고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장보고 기념관을 보면서 그 엄청난 규모에 입이 썩 벌어졌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당시 중국과 일본을 오고가면서 상업제국을 꿈꾸었던 무역왕 장보고의 거대한 스케일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지중해가 청동의 발굴과 황금의 갈기가 휘날리는 명마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포세이돈을 낳았다면 우리의 다도해는 장보고를 낳았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배가 떠다니는 바다와 아버지의 땅, 그 신화를 남겨준 단 한 사람의 영웅 장보고. 그래서 나는 장보고를 감히 바다의 신, 해신(海神)이라 부른다(최인호, 《해신》의 서문에서). 무려 1200년 전에 이미 좁디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진출했던 해신 장보고. 나는 오늘 그



의 무한한 개척정신을 닮고 싶다.

법화원을 뒤로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점심은 석도항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하였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현지식이다. 점심을 먹고 이제 터미널로 이동하였다. 적산법화원을 등 뒤로하고 하산하는 착잡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었다.

적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항만으로 이동하여 여객선에 올랐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렇게 넓게만 느껴지던 산둥평

야도 한반도의 44배라는 중국의 전체면적에 비해서는 1.7퍼센트밖에 안 되는 산둥성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과, 대단히 높은 산으로만 알았던 태산도 우리 백두산의 절반 조금 넘는 산이라는 것을 눈으로 살피고 발로 더듬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수확은 실제적인 장보고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유적지를 직접 답사했다는 점일 것이다.

16:00, 출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가 타고 온 화동궈리 호에 몸을 실었다. 출국 수속에 마치고 갑판에 오르니 잠자리 떼들이 많이 날아다녔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가슴에 안고 갑판 위에 서서 중국해를 바라본다. 해상왕 장보고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다. 18:00, 선상식사는 닭육개장이다. 며칠 만에 맛보는 한국음식이라 무척 맛있게 먹었다. 깍두기랑 장아찌, 야채도 남김없이 먹었다. 해질녘의 쪽빛 바다 위 하늘은 무척이

나 아름답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일행들은 마지막 여정의 밤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갑판으로 모였다. 석도항 불빛이 아스라이 멀어져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일행들을 안내하듯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한참 이야기가 무



르익어 갈 무렵 안전요원이 갑판은 위험하다고 하여 자리를 휴게실 옆으로 옮겼다. 점점 무르익어가는 이야기꽃은 그칠 줄 모르고 뱃머리에 부딪히는 파도소리와 일행들이 부딪히는 잔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의 어둠 속으로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었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 행사는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직 선생님들께 직접 해상왕 장보고의 관련 유적지를 견학케 하여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업적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짧은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왜곡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는 장보고의 탁월한 업적을 직접 확인하게 되어 좋았던 기회이다. 이제 장보고에 대한 진정한 재조명과 평가를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21세기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의미 깊은 중국 유적지 답사의 기회를 마련해 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동아일보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30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찾아서

인천 중앙초등학교 김문경

작년 동 학년 선생님께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오셔서 매우 유익한 여행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래서 나도 올해 공문을 받고 담당자에게 열린 신청서를 냈다. 경쟁률이 치열할 텐데 내게 기회가 올까? 그러던 차에 답사자 선정 발표를 보고 난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행복했다.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답사 날짜를 기다렸다. 그리고 답사 며칠 전에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답사에 대한 안내 사항들을 확인하고 먼저 답사를 다녀오신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남겨놓으신 참고 사항을 읽어보면서 여행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8월 6일, 기다리던 출국 날이 되었다. 햇빛이 몹시 뜨거운 날씨였다. 인천에 살고 있는 나는 집결 시간 30분 전에 집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정확하게 도착하니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벌써 많은 선생님들께서 올라와 모여 계셨다. 여행사 가이드가 건네주는 답사여행에 관한 자료들을 받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기다렸다.



승선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인천항 국제선 사옥에 들어가 여행 가방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옥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우리 답사단 일행을 제외하고는 많은 중국인들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대개 커다란 가방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말로만 듣던 보파리 상인 들인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은 몹시 지쳐 보이기도 했다.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도 이들처럼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그것도 작은 배에 의지하여 무역을 했던 것이라.

드디어 승선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출입국 관리소에 줄을 섰다. 승선 티켓을 확인하고 짐과 가방을 검색대에 통과 시키고 여권 확인을 받고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셔틀버스를 타고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화동 웨리 호까지 가서 트랩 계단을 통해 배에 올랐다. 선실로 들어가 보니 마치 작은 호텔처럼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앉아 서로 통성명을 하다 보니 같은 방을 쓰게 된 여섯 명이 멀리 부산, 충주, 대전, 안양, 서울, 그리고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왔다.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여 얘기가 잘 통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배려하여 조를 짠 모양이다. 아직까지 서먹하던 분위기는 일시에 사라지고 금방 친숙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선상식당에서 저녁을 받아 자리에 앉으니 긴 뱃고동 소리와 함께 이제야 배가 출항을 하는 것이었다. 저녁 바다에 배를 띄우고 석양을 바라보며 선상에서 먹는 저녁 식사는 음식과 상관없이 정말 멋진 체험이었다. 잠시 뒤에 영종도에서 송도 신도시를 잇는 인천 대교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멀리 보이는 곳은 다리가 낮아서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지나갈까 걱정했는데 배가 통과하는 곳은 다리를 높게 하여 큰 배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저녁 해는 빠르게 서쪽 바다로 숨어버리고 곧 사방이 어두워졌다. ‘검은 빛 바다 위에 밤배 저 밤배~ 무섭지도 않은가봐 자꾸만 흘러가네’ 하는 노래가 절로 떠오르며 흥얼거려졌다. 잠시 쉬다가 저녁 세미나를 듣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다. 참가하신 분들의 소개를 받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선실로 돌아와 씻고 잠을 청하였다. 피곤해서인지 배의 작은 흔들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출이다!” 하는 소리에 눈을 뜨니 정말 어느새 창 밖이 환해지며 해가 뜨고 있었다. 망망대해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장관이었으며 감동이었다. 먼 옛날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했다는 장보고 선단도 이 바다를 항해하며 우리처럼 이렇게 바다에서 일출을 보았을까? 안내 방송에 따라 선상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짐을 챙기고 하선 시간을 기다렸다.

석도항에 도착하여 중국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 수속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국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검색대를 통과한 뒤에도 가방을 두 번이나 열어서 사람이 직접 검색을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북경 올림픽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보안을 더 철저히 하는 것 같았다.

입국장을 나오니 중국에서 여행할 버스가 도착해 있었고 현지 가이드는 조선족 청년이어서 한국말을 아주 잘 하였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처음으로 간 곳은 진시황 사당이었다. 이곳은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을 하며 머물던 행궁이었는데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의 사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은 성산두라는 곳인데 산둥반도에서 가장 동쪽 끝으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 바다 끝까지 와서 서복을 보낸 곳이라고 한다. 이곳이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이곳에서 면 한반도의 남양만에서 우는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럴까? 그리고 당나라 때 소정방이 백제를 치기 위해 13만 수군을 이끌고 출발한 곳이라고도 한다. 소정방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우리와 반대로 인천 송도에 있는 능허대로 가기도 하고 또 소래 포구로 가기도 했던 것이라.

성산두를 잠시 둘러보고 산둥반도의 동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한참 달리다 보니 풍력 발전소로 보이는 커다란 풍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중국도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봉래각으로 갔다. 봉래각 입구에 들어가서 나무 그늘에 모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냥 관광 여행이 아니고 이렇게 답사 여행을 오니 가는 곳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역사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또 다른 시각으로 유적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인데 중국의 한 무제가 이곳에 와서 경치가 아름다운 이곳을 봉래라 이름 지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 주변의 옛 등주항은 지금의 봉래 북쪽의 해안에 있던 곳으로 산둥 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노철산 수로의 출발지이며 고조선도 이곳을 통해 교역을 하였고 5천여 년 전부터 요동반도와 해운업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한나라가 위만 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견한 곳이기도 하며 고구려와 수·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때 대규모의 수군을 발진시킨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수군으로 공격하여 점령하고 자사인 위준을 죽인 곳도 바로 이 등주성이라고 한다. 그 후 등주는 이정기 세력이 장악하면서 발해 및 신라교역 등을 관장하였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많은 신라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

을 ‘신라방’이라 하고 그들을 접대했던 여관을 ‘신라관’, 무역기관은 ‘신라소’라 하였다.

신라관은 숙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라인을 위한 재외공관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한다. 장보고 이후에도 고려인들이 이곳을 통해 송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상인들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등주는 신라와 발해, 고려에 걸쳐 교린과 전쟁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이틀 만에 이곳에 와 있지만 옛 조상들은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곳까지 왔을까? 그리고 오늘날처럼 큰 배도 아니었을 테니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다시금 옛 조상들의 용기에 감탄해 본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운해에 쌓여 있을 때가 많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봉래각, 천후궁, 용오궁, 여조전, 삼청전 등으로 볼거리가 많다. 여러 개의 누각, 불상, 사원, 등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성벽을 따라 계단이 이어지고 해원이 펼쳐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성이 건축되어 있었다.

다시 입장권을 확인 받고 올라간 곳은 신선들이 주연을 베풀던 곳으로 이 누각에 오르면 마음이 후련하고 신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중국의 유명한 누각이라고 하였다. 건축이 웅장하고 멋질 뿐만 아니라 누각 안에는 여덟 신선이 모여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형상화해놓았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나도 함께 신선이 된 듯 마음이 즐거워지며 이곳에 한참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쉬움을 간직한 채 누각을 둘러보고 계단을 내려가니 뒤편으로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아래로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 정말 이곳이야말로 신선들이 놀만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와 이어진 등주수성을 둘러보며 위로 올라다보는 봉



래각의 모습 또한 장관이었다. 일행들과 몇 장의 사진을 찍고 고선박물관으로 들어섰다. 예로부터 이 일대의 항구들은 조선업과 해운업의 기지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주변 지역에서 선박관련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어 이곳에 고선박물관을 마련하고 그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다고 한다. 박물관 앞에는 이 고장 출신으로 명나라 때 척계광을 창설하여 왜구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 척계광의 동상을 세워놓았다.

근대에 이르러 등주항은 모래와 흙이 많이 쌓여 수심이 얕아져서 큰 선박들을 정박시킬 수 없게 되자 점차 중요한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다.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주변을 공원으로 꾸미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가까운 곳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나서 차를 타고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향하였다. 버스로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캄캄한 밤이었다.

드디어 유방시에 도착하니 가로등 기둥을 나비모양의 조명으로 장식

하여 멋진 밤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가로등의 나비모양은 나비연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숙소에 드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하루 종일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 몸도 피곤하여 여장을 풀고 몸을 씻고는 이내 잠을 청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곧바로 차에 올라 제나라 역사박물관이 있는 치박으로 향하였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고성 of 대성과 소성이 맞물리는 특수한 모양으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 모양이 윗부분만 성곽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 상자처럼 매우 단순하였다.

이곳에는 5개의 전시실에는 제나라의 탄생과 발전, 흥망성쇠를 설명해주는 300여 건의 진귀한 문물과 대량의 문물자료, 모형, 사판, 조각, 사진, 도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나라 때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인물은 안자(晏子)였다.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매우 청렴한 사람이었다. 임금이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것을 권했지만 가난한 시장 사람들과 이웃하여 살면서 세상물정을 파악하고 임금께 필요한 정책을 간하였으며 뛰어난 외교가로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던 훌륭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자와 같은 재상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나 또한 공직자로서 안자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함을 깨닫는다. 박물관 내부가 매우 어두운데다가 덥고 습도도 높은 날씨였는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관람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오늘이 북경 올림픽을 개막하는 날이어서 중국 전역에서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전기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박물관을 나와 다음으로 간 곳은 '제경궁 순마궐'이라는 곳이다. 춘추



시대의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으로 현재 대중형 묘지 20여 개가 남아 있는데 그중 5호분 주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순마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생전에 말을 너무 좋아했던 임금이 죽자 그가 아끼던 말들을 함께 순장했다는 것이다. 산 사람이나 동물을 묻다니 권력이란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보다.

순마는 두 줄로 나란히 병렬시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하였는데 지금 발굴한 것이 228필이며 순마갱의 전체 길이로 미루어 볼 때 약 600여 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이라 한다. 순장된 말들은 모두가 전쟁 시 사용하던 전마로 수말들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순장하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순마갱을 나와 다음으로 간 곳은 태안시에 있는 태산이다. 드디어 그 유명한 태산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점심을 든든히 먹고 태산으로 올라가는 셔틀버스로 갈아타고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 올라갔다. 줄이 길어



서 한참을 기다려야 할 줄 알았는데 금방 우리 차례가 왔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는데도 출입국관리소처럼 가방을 검색하는 것이었다. 이곳이 그만큼 중요한 곳인 모양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능선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며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워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함께 탄 남무희 교수님께서 케이블카를 탄 시간을 재셨는데 12분이 걸렸다고 한다. 이렇게 길게 케이블카를 탄 것은 처음이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니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좀 더 올라가니 ‘天街(천가)’라는 글씨를 쓴 문이 보였다. 글자 그대로 ‘하늘의 거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듯 많은 건물들을 지어 놓고 ‘天街(천가)’라 이름 지어 놓은 중국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가를 따라 한참을 가니 여러 개의 사당이 눈에 들어왔다.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오르니 태산 정상 가까이 절벽에는 많은 비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외에 꼭대기 사당 앞에는 한 무제가 태산에 올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며 아무 글자도 새겨놓지 않은 무자비(無字碑)도 볼 수 있었다.

꼭대기의 사당 안뜰에 ‘태산극정상’이란 표지석을 빙 둘러싸고 금빛에 붉은 글씨로 소원을 적은 자물쇠들이 주렁주렁 걸려있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소원을 간절히 빌고 갔으니 그만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하였는데 이 중에 동악인 태산은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진시황으로부터 역대 군주들이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명승고적과 절벽마다 새겨진 비문이 있어 세계에서 드문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가 되게



하였다. 태산은 자연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산으로 추앙받아 왔으며 가는 곳마다 옛 유적과 종묘 등이 있어 볼 것이 많은 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고 한다.

태산에 한 번 오르면 지상에서 적어도 10년을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태산을 등정하는 것이 숙원이라고 한다. 태산에 한 번 올랐으니 10년은 더 장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절로 젊어지는 듯 기분이 좋아진다. 태산 이곳저곳의 경치를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간직한 채 태산을 내려왔다. 차로 세 시간을 달려 치박에 도착하였다. 이제 동행한 여러 선생님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날짜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였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문왕과 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세우고 제나라의 초대 왕이 된 강태공의 사당에 갔다. 강태공은 제나라의 시조이며 주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역사적 인물로 139세까지 살았다고 한



다. 강태공이 죽은 후에 주나라의 관례에 따라 시신은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무덤 주위에 묻고 이곳에는 제나라 초대 왕으로 기념하기 위해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의 수도였던 이곳에 묻어서 의관총(衣冠塚)을 만들어 놓았고 그 앞에 사당을 지어놓은 것이라 한다. 사당 옆에는 강태공으로부터 파생된 성씨들의 계보를 적어 놓은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성씨들이 강태공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설이 있을 만큼 강태공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태공 사당을 나와 가까운 임치에 있는 중국 고차박물관으로 갔다. 이곳은 현재 중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제일 정확하고 완전한 차마유적과 문물이 일체화된 고차박물관으로 ‘춘추차마’ 전시실과 중국 고차진열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하에 있는 춘추순마갱에는 전쟁 시 사용하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며 장식품이 화려하여 당대 전국의 으뜸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고차진열실에는 후이차마갱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차량과 임치지구와 전국에서 출토된 각종의 고대 차량을 복원한 차량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중국 차량의 오랜 역사와 세계 차량 발전사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여러 전시품들을 둘러보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국으로 중국에 자동차 생산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에 있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며 역시 중국이 무서운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타고 다시 한 시간을 달려 다음으로 간 곳은 청주(靑州)박물관이다. 청주는 오래된 도시로 수·당 시대에는 중국 동쪽의 행정과 군사적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수도인 장안으로 가는 길목이었기에 일찍이 도독부를 두었고 절도사를 설치하기도 했다.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가 중앙 정부와 반독립적, 반당적 태도를 취하면서 55년 동안 사직을 독점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박물관의 건축설계는 고대 사하원(四合院) 건축모양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으며 3만여 건의 역사문화재가 있는데 전국 현급 박물관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중요한 전시물로는 명대 이 지역 출신인 조병충이 전시(殿試)에 참가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장원을 차지하였는데 그가 쓴 전시권(殿試卷)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동한 ‘의자손’ 옥벽(東漢 ‘宜子孫’ 玉璧)과 전국옥인(戰國玉人), 용흥사 유적지에서 출토된 불교 조각상 4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불교 조각상들의 대부분이 목이 잘리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던 정권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권력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달려 유방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차를 타고 네 시간을 달려서 위해에 도착하였다. 위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거리에서 한글로 쓰인 간판들로 간간히 눈에 띄어 무척 반가웠다. 저녁에는 모처럼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한식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바닷가에 자리 잡은 숙소로 향하였다.

벌써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호텔에서 아침으로 청국장이 나왔다. 청국장에 밥을 비벼 맛있게 먹고 차에 올라 첫날 도착했던 석도로 이동하여 이번 답사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답사지인 장보고가 세웠다는 적산 법화원으로 갔다. 날씨가 쾌청하였고 햇볕은 몹시 뜨거웠다.

옛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현재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은 산둥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 사회의 심장부일 뿐만 아니라 당 내륙 연해안으로 이르는 교통과 나·당·일 삼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고 한다. 북쪽으로는 적산이 우뚝 솟아 진산을 이루고 서남쪽은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며 동쪽은 활짝 열려 바로 아래 산둥 제일의 어항 석도만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820년대 초반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사찰인 적산법화원이 있었다.

그리고 법화원 앞 쪽에는 2007년 4월에 개관하였다는 장보고 기념관이 있었다. 해양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중국 영성시와 산둥적산수산그룹 그리고 일본에서 돈을 대어 건립하였고 (재)해상왕장보고기년사업회에서 전시물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복원하기 위하여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아마도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이러한 사업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보고 기념관을 둘러보고 계단을 따라 장보고 기념탑이 세워진 곳까지 올라가서 그늘에 모여 앉아 한 시간 반 정도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다.

적산법화원은 당시 이민생활을 하던 재당신라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곳이며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에 가는 신라 승려들은 물론 일본 승려들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일본 천태종 3대 좌주인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와 이 사찰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연간 5백 섬의 알곡을 수확하는 장전을 소유하였던 법화원은 장보고 휘하의 구당신라소와 압아인 장영과 임대사, 그리고 왕훈 등 세 명에 의하여 경영되었다고 한다. 법화원이 타국에서 이처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사원의 크기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839년 겨울, 《법화경》 강회에는 매일 40명 안팎의 남녀도숙, 노소준비 할 것 없이 강회에 참례하였고 강경의식은 신라 풍속과 신라 말에 의하여 거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간은 250명과 200명의 신도가 각각 참례하였다고 한다.

답사 기간 내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역사스페셜 프로를 보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장보고에 대한 기록과 취재 내용들을 보면서 장보고를 배웠다. 그는 완도에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활을 매우 잘 쏘아 궁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20대 초반에 당시 신라보다는 신분 차별이 적은 당나라에 건너가서 무령군에 입대하여 공을 세워 30세에 무령군 소장에 올랐다. 신라 양민이 해적에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을 보고는 828년에 다시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와 해적소탕을 주청하여 1만의 군사를 받아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서해의 해적들을 소탕하였으며 당시 신라와 당나라, 일본은 물론 멀리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아우르는 중계무역을 통하여 서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렇게 축적한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고통받는 겨레를 위해 흔쾌히 내놓을 줄 아는 인도주의자이며 박애를 실천한 사람으로서 매우 위

대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에서보다는 당나라와 일본에서 그 진가를 더 인정받은 세계인으로서 그의 진면목을 인정해야 한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과거의 우리의 역사가 소극적이고 늘 침략만 당해온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장보고와 같은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으며 그의 정신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도 그의 훌륭한 정신과 업적을 적극적으로 전하리라는 다짐을 하며 이번 답사 여행이 교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31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행문

부산 사남초등학교 이현주

2008년 8월 6일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전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눈이 번쩍 뜨여졌다.

3년째 신청했던 장보고 답사 여행을 드디어 떠나는 날.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은 '되기도 어려운 걸 참 꾸준히도 신청한다'라며 안쓰럽게 보셨지만, 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가기 어려운 이런 코스와 형태의 답사를 꼭 가고 싶었다. 며칠 동안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고 가방을 싸면서 아직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이 안 났는데, 드디어 출발하는 당일 이 된 것이다.

나는 부산에 있어서 인천이라는 곳이 상당히 낯설펀데, 아는 사람도 없이 부두까지 혼자 가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도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버스 편이 하루에 세 번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7시, 11시, 5시. 결국 내가 선택한 시간은 7시였다.

전날에 걸려온 인솔자의 얘기로는 인천터미널에서 부두까지는 버스로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고속버스로 가는 시간이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탓에 11시까지 가기에는 너무 빠듯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7시에 예약을 했지만, 아침잠이 많은 나로서는 사뭇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내 몸은 알아서 움직였고, 나는 여유 있게, 잠자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부산을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가족을 떠나서 혼자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없었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이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약간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줄 줄은 기대하지 못했었다.

생각보다 고속도로는 여유로웠다. 4시간 10분 만에 인천터미널에 도착하고 보니, 역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할 수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며칠 동안 못 먹게 될 한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눈요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모이는 시간인 3시 30분에 맞춰가려고 공지에 적혀 있는 대로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36번 파란버스를 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상하게 버스가 자꾸 부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한 25분쯤 가다가 버스기사 분께 물어봤더니, 반대쪽에서 타야 하는데 잘못 탔다고 하는 것 아닌가. 내려서 반대쪽에서 타야 하느냐고 물어보니, 친절할 기사아저씨는 그냥 계속 타고 있으면 버스가 돌아서 부두로 가지만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길로 좌석에 주저앉아 하릴없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시 인천터미널 앞에 오자, 장보고 여행의 일행으로 보이는 몇몇 분들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내가 탄 버스를 타시는 것이 아닌가. 역시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분들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은근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나만 지각하는 건 아니네' 하는.

모이는 시간에서 2분을 남겨두고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했다.

각지에서 모인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안내문과 이름표를 받고 대기하고 계셨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같은 조 선생님들을 만나고 서먹함을 감추지 못한 채로 인솔자의 지시를 따르며 부두에서 출국 수속을 마쳤다. 우리가 12~14시간을 타고 가야 하는 화동훼리 호는 생각보다 엄청 컸다. 아래에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가득 실리고, 배 칸칸마다에는 객실과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 여러 방들이 있었다.

짐을 정리하고, 같은 방에 묵게 되는 선생님들과 통성명을 하고 간단히 씻은 후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다. 난생 처음인 중국으로 가는 배에서 먹는 저녁은 추어탕이 나왔는데, 입맛이 별로 당기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간 우리는 거기서 객실담당하시는 분의 섬과 배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천을 떠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바닷바람을 맘껏 쐬며, 지는 노을을 사진기에 담았다. 바다의 수평선으로 사라지는 빨간 해가 뿜어내는 아름다움이 마치 작별인사를 하는 듯 웬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졌다.

시원한 에어컨과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밤을 보낸 후 드디어 중국에서의 아침이 밝았다. 일어나자마자 갑판으로 나가 중국의 바다를 보았다. 인천의 바다와 색깔과 파도의 모양이 약간 다르구나 하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돌려놓았다.

아침을 먹은 후 드디어 중국 석도항에 하선했다. 중국 입국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듯 보였다. 배에서 내릴 때부터 공안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사진을 찍으려는 분을 제지하기도 했다. 터미널에 가서는 대기 시간도 길 뿐 아니라, 엑스레이로 짐을 통과시킨 후에도 두 번이나 가방 속을 보여주어야 했다. 아마도 올림픽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전에 비행기로 중국 갔을 때보다 좀 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마치 까다롭게 검열하는 듯 보

이는 것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가방을 열어 보여도 그렇게 꼼꼼하게 검사하는 편은 전혀 아니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5일 동안 타고 다니게 될 버스에 올랐는데, 어떤 키가 작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마른 청년이 와서 배 티켓을 다 걷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중국에서 우리를 안내하게 될 연변 출신 조선족 가이드였다. 커다란 눈망울에 북한 말씨를 쓰는 순수해 보이는 청년은 중국에 있는 동안 박학한 중국에 대한 지식과 재밌는 이야기, 특유의 웃음과 말씨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

중국에서의 첫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부두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한 '성산두'라는 곳이었다. 성산으로 향해 가는 버스 안에서 본 풍경은 한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중국만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바퀴가 3개인 자동차들, 특이하게 흠이 있는 땅에다 바로 미역을 팔리는 모습, 해조류로 만들었다는 시골길의 지붕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군사요충지로서 소정방이 백제를 치기 위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자, 진시황을 멋지게 속여 넘긴 도사 서복의 선단이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는 진시황의 사당이 있는데, 원래는 진시황의 행궁인 것이 후에 사당으로 바뀌었는데, 중국에서는 유일하다고 한다.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의 도량형을 통일하고, 분서갱유를 저지르고, 불로초를 구하러 갔은 해프닝을 벌린 진시황이 중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인으로 비쳤으면 그 넓은 중국 전역에 사당이 겨우 하나밖에 없는지, 죽고 나서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성산두 진시황 사당에서 윤부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 웅장한 건물들과 엄청나게 큰 향,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도사들의 모습과 진시황의 생전 모습을 보는 듯 생생한 조각들을 보고 나서 바다 쪽으로 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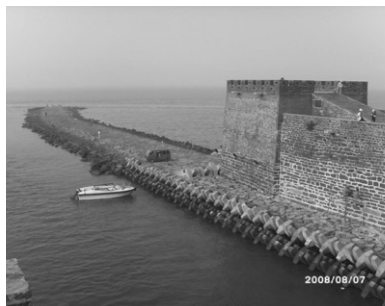
땡 뚫린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과 예전 서태후의 이화원에서 본 것 같은 장랑과 누각, 앞으로도 보게 될 엄청나게 큰 조각들을 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의 첫 점심으로 중국식으로 차려진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떠나기 전 장보고 홈페이지에서 고추장이나 김 등을 챙기라는 정보를 많이 들어서 챙겨오고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음식이 기름기가 많진 않았다. 특별히 주최 측에서 배려한 것이 느껴졌다.

다음 일정은 봉래로 가는 것이었는데, 봉래는 옛날 8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산의 이름인데, 중국 한 무제가 이곳에 와서 보려고 했지만, 이 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지금의 이곳을 봉래라고 명하였고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장보고가 중국을 오가던 시절에는 등주라고 불렀다고 한다.

봉래로 가는 길은 3시간 반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중국 사람들의 희한한 운전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의 가운데 있는 중앙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요, 때에 따라서는 아무데서나 유턴을 하고, 신호등의 모양도 화살만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 신호등에 우리나라 형





단보도에서나 볼 수 있는 남아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경보기를 엄청 올려대는 데에 비해 욕하는 모습은 볼 수 없는 등 참으로 특이한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사고가 날 텐데도 일정 동안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버스기사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으니 이것 또한 중국인의 천성이지 않을까 싶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통행료로 버스기사가 100위안을 내니까 요금을 받는 사람이 그 돈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살펴보는 모습에, 중국에는 돈도 가짜가 많은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큰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할 때 가짜 돈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무튼 어제 새벽부터 밤새 여러 교통기관에 시달린 탓에 이리 쿵 저리 쿵 줄다가, 장보고 DVD도 보다가, 가이드 설명도 듣다가 드디어 봉래에 도착했다. 한국말이 곳곳에 있는데다, 아직도 어로활동이 이루어지는 듯한 정박한 중국어선들, 그리고 중국의 4개 명루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봉래각에는 이모저모 볼 것이 많았다.

그들에 모여서 이유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곳저곳 돌아보았다. 특이한 것은 8신선들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신선들이 거처하는 침실과 거실을 만들어 놓았고, 술에 취한 신선들의 모습을 재연해 놓은 것이 흥미로웠다. 하필이면 술에 취한 모습일까? 이런 술과 취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유명한 서화가가 남긴 글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글을 반듯하게 적었다가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인지 글씨의 크거나 모양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그대로 도에 새겨놓은 것이었다.

아래로 더 내려와 등주수성에 이르니 예전에 전쟁 때 쏜 대포와 대포알이 있었고, 명나라 때의 척계광 장군의 동상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신라가 바닷길을 통해 당나라와 교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발해의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하는 선발대가 간 곳이기도 했다. 여기 등주는 신라와 발해의 교린과 전쟁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뒤로하고 예전의 중국의 배를 전시해 놓은 곳과 원나라 때의 배를 인양해 놓은 고선박물관을 살펴보고 또다시 3시간을 이동하여 유방으로 갔다.

이제 3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이 슬슬 적응되어 갈 정도로 중국 땅이 넓음을 실감하게 되는 중국에서의 첫날이었다. 우리가 둘러보는 산둥지방만 우리나라 전체의 1.5배라니. 총 1,400킬로미터 정도 산둥지방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이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듯했다.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야 호텔방에서 짐을 풀 수 있었는데, 매일 이런 일정이면 체력이 버틸까 슬슬 걱정도 되었지만, 피곤한 탓에 중국 TV를 이리저리 돌리다 잠이 들었다.

중국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다. 호텔 뷔페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치

박으로 이동했다. 제나라 박물관을 먼저 들렀는데, 우리가 9시가 되기 전에 도착하는 바람에 박물관이 문을 안 열어서 조금 기다렸다. 제나라 박물관은 제나라 황성유적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고성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제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살펴보고 제나라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마을의 모형들을 보면서 역사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진실을 가진 나라들도 많구나 하는 감회가 들었다.

결국 중국의 통일은 진나라가 했지만 진나라가 하지 않았으면 제나라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방대한 힘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였는데, 역시 나라의 운명은 경제라기보다는 정치와 지도자들의 능력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다.

박물관을 나와서 순마갱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는 산둥지방의 특산

물이라고 하는 옥수수 밭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었고, 아주 좁은 외길에 습기하나 없는 먼지가 폴폴 날리는 외진 곳에 있었다. 순마갱은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이었는데, 여기서 발견된 거의 600여 마리나 되는 말이 순장되어 있다고 한다. 발굴된 것은 200여 필 정도 되는데 모두 가지런히 누워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순장의 풍습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사람을 순장하던 풍습이 점차 말이나 부장품 등을 대신 무덤에 넣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이나 내세의 세상을 꿈꾸었던 권력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리고 이 말들을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벤츠를 600여 대를 문었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 허망한 권력자들은 죽어서도 백성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했나 보다.

점심을 먹은 후 다시 3시간의 장장 긴 버스로 태산에 도착했다. 태산으로 가는 길에 또 소설가 최인호가 장보고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DVD를 보고 점심을 먹은 후 다시 25인승 작은 버스에 나누어 타고 구불구불 좁은 길을 지나 태산 등정에 올랐다.

태산은 양사언의 시조에도 나오는 산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산이어서 도착하기 전부터 얼마나 높을까도 생각해 보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하제일의 명산이라 의미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었다. 태산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진시황 이후로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황제만이 신으로부터 태평세계의 실현을 허락받았다는데, 역대 황제로는 진시황, 한 무제, 당 현종이 봉신했다고 한다.

태산에는 황제가 제사를 드리는 곳인 만큼 여러 가지 건물도 많고 계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수가 무려 6,600여 개에다 사당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700여 개가 더 있다고 하니 어떻게 올라갈까 걱정이 되었는데, 막상 가 보니 그건 기우였다. 6,600개의 계단을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단숨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케이블카는 독일에서 만든 거라는데, 예전에 만리장성에서 탔던 케이블카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었다. 아마도 바람이 덜 불어서이지 않을까 싶다.

거기서부터 700계단을 올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계단의 폭이 생각보다 훨씬 좁고, 낮아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발과 보폭이 작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당으로 가는 길에는 엄청나게 크고 높은 바위를 평평하게 깎아서 글을 새겨놓았는데, 당 현종이 새긴 축문은 금으로 도색되어 있었다. 원래 황제가 읽는 축문은 태우거나 찢어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당 현종은 자기가 제사 지낸 후에 축문을 이렇게 바위에 새겨서 공개하였다고 같이 올라간 윤부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윤 교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니 태산에 대한 이미지가 더 확실히 와 닿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사당에 들어가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물쇠가 눈에 띄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정의 화평 같은 소원을 새겨 넣고 열쇠를 버리면 자물쇠를 열 수 없는 것처럼 부부나 연인사이가 갈라지지 않고 행복하게 죽어간다는 소원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신도 많고 사당도 많고 부귀영화를 비는 마음도 많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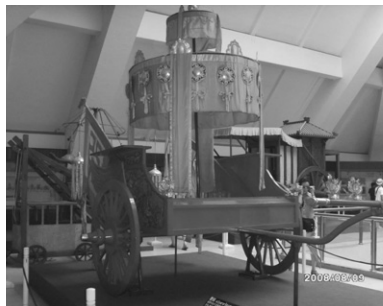
태산을 내려와 묵은 제도호텔은 치박 임치시에 있었는데, 이곳이 옛날 제나라 수도였다고 한다. 이 날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피곤했지만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방송을 계속 켜 놓았는데, 어찌나 늦게 나오는지, 이걸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나라크기 순서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 더 답답했다. 드디어 나중에서야 나온 한국 선수들의 입장을 보고는 바로 뺏어 왔는데,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된 사실은 입장순서가 중국에서 불리는 한자의 획순이라는 것이었다. 한국(韓國), 획이 많긴 했다. 그러니까 176번째인가 나왔지.

아침을 먹기 위해 내려간 뷔페에서 중국 사람들이 아침으로 즐겨먹는 다는 따뜻한 콩국물과 튀긴 빵을 발견하고 참 반가웠다. 개인적으로 부산에 살면서 어릴 적에도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런 음식을 팔았고, 사 먹었던 경험이 있던 터라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음식이 왜 그리 먹고 싶었는지, 그렇지만 구할 수가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던 터였다. 아무튼 배를 든든히 채우고는 버스에 올랐다. 이 날에는 버스를 1호차와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1호차 버스에는 장보고 DVD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2호차 버스에 익숙해 있다가 바꾼 버스는 공간도 넓고 앞에 주머니도 있어서 물병도 넣어둘 수 있어서 좋았다. 게다가 교수님도 다른 분이 잠시 바뀌 타시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세 번째 날에는 강태공 사당과 고차박물관을 들른 후에 청주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전 일정이었다. 이름만 듣던 강태공이 제나라 초대 왕인 줄은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이다. 단순히 지혜가 있으나 느긋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민한 사람의 대명사로만 알고 있던 인물이 제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도 재미있었다. 또한 나중 사람들이 강태공의 업적을 기려 이 사람을 도교의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고차박물관에서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가지 옛날 마차와 전차들을 살펴보았는데, 실물을 전시해 놓을 것도 있었고, 축소한 모형과 유물들이 많이 있었다. 보통 황제가 타는 4마리 말이 끄는 전차는 가운데 두 마리 말만 마차에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것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고, 3마리 말이 끄는 전차는 트로이카라는 말의 유래가 된 러시아에서 이용되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들었다.

지금까지 둘러본 유적지와 박물관들은 장보고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신라와 당의 관계와 무역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청주박물관부터는 장보고와 관련이 깊은 유물과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청주박물관에서는 불교학을 전공하신 안동대 남무희 교수님의 재치 있는 강의를 들은 후 둘러보았는데, 청주박물관 자리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의 유명한 승려 엔닌 대사가 머물렀던 신라원이 있던 용흥사의 자리라고 한다.

엔닌 대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진 장보고의 자료를 찾는데 결정적인 기록을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긴 사람으로 미국의 라이샤워 전 일본 대사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장보고와 많은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평로치청절도사였던 이정기의 초상과 함께 당시의 유물이 3만여 건이나 있는 방대한 박물관으로 이정기, 이납, 이사고, 이사도로 이어지는 60년간의 독점시대를 장보고가 무녕군 소장으로 있으면서 공을 세워 이사도의 난을 진압하면서 장보고의 시대가 열린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청주는 원래 불교가 융성했던 곳으로 돌과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불상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청주박물관을 둘러본 후에 1시간 이동하여 유방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항상 테이블마다 맥주 2병과 콜라 1병을 놔 둔 것이 특징이었다. 맥주와 콜라는 지역마다 조금씩 상표가 달랐는데, 맛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역시 우리나라 맥주가 좀 더 맛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점심 후 위해로 장장 4시간 30분의 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윤 교수님의 재미있는 중국의 미인 이야기와 가이드의 연변 풍속에 대한 이야기, 장보고 DVD를 줄지 않고 보고 휴게소를 두 군데 들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중국의 미인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시대순으로 미인을 4명을 꼽을 수 있는데, 서시, 왕소군, 조선, 양귀비 이렇게 4명이다. 각각 얹힌 이야기들이 재미있었다.

서시는 최초로 미인계로 희생당한 여성인데, 귀가 작은 것이 콤플렉스여서 귀걸이를 했다고 한다. 왕소군은 황제의 공녀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미모에 너무 자신 있는 나머지, 궁중 화가에게 웃돈을 주지 않아서 추녀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변방의 오랑캐에게 공주를 보내게 되어 있는 중국황실에서 공주대신 공녀를 보내게 되었는데, 황제가 제일 못 생긴 왕소군의 그림을 보고 왕소군을 보내게 되었는데, 떠나는 날 왕소군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너무 보내기 아까웠지만, 할 수 없이 보내고는 그 화가를 처벌했다는 얘기가 있다. 왕소군은 아름다운 대신 발이 현재 275정도 사이즈로 엄청 커서 그걸 가리려고 바닥을 끄는 긴 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다. 조선은 삼국지에서도 유명한 여포의 아내이며, 양귀비는 당 현종의 귀비로 액취증을 가리기 위해 향수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이드의 고향인 연변에서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한글을 기본으로 가르치고 중국어는 별도로 교과서를 두고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족이고 중국 국적이지만, 자기의 뿌리를 잃지 않고 두 나라를 아우르며 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한 느낌이었다.

위해는 현재 한국 기업이 3천 개 정도 있는 아주 한국과 밀접한 도시라고 한다. 인구나 면적은 산둥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금

까지 본 지역보다 훨씬 활기차고 상업적인 도시구나 하는 느낌이 와 닿았다. 여기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었다면 바로 며칠 만에 맛보는 한국식 저녁이었다. 삼겹살과 각종 한국식 반찬으로 가득 차려진 밥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식욕을 당기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 날은 올림픽이 시작되고 한국의 박태환 선수가 400미터 결승진출을 못 박은 경기가 있어서 더 흥분의 도가니였던 식사 시간이었다. 곳곳에서 퍼지는 선생님들의 ‘대~한민국’ 함성은 중국인 점원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뭉쳐지는 서로의 모습에서 또 하나임을 느끼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위해에서 묵은 호텔은 계명홀리데이 호텔인데, 지금까지 묵은 호텔 중에 제일 시설이 훌륭했다.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침실 바닥은 마루였으며, 규모자체가 컸다. 아예 한국어로 호텔 이름을 적어 놓은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 것 같았다.

호텔을 나와 1시간 30분을 이동하여 드디어 적산법화원으로 가게 되었다. 가장 장보고를 연상시키며 기대되었던 코스가 아닌가. 역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장보고 기념탑, 5전시관까지 있으면서 장보고가 당나라에 넘어오게 된 때부터 청해진을 설치할 당시의 모습과 당과의 무역뿐 아니라 신라, 일본, 아라비아까지 아우르는 활동모습을 재현해 놓은 장보고 기념관을 돌아보고, 적산명신상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았다.

아래에서는 적산명신이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올라가봤는데, 위해항과 적산법화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이었다. 적산법화원은 역시 장보고의 발자취를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내주듯, 전 여수시장과 인천의 청소년단체에서 기념식수와 기념비를 세워 놓은 것들이 보였고 우리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방문이 많았다.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일정에 따라 석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마트를 둘러 30분이  
라는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은 저마다  
선물을 한 꾸러미씩 사시고 석도항으  
로 출발했다. 석도항에는 우리뿐 아니  
라 한국으로 가는 중국의 상인들이 많  
이 있어서 사람뿐 아니라 짐이 특히 많  
았다.

출국 수속 역시 중국 사람들의 만만  
디 사고방식을 드러내주는 듯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배에 타서도 3~4시간  
정도를 출항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던  
차에 드디어 저녁을 먹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간은 중국의 2008 올림픽이  
개막되고 수영의 박태환을 비롯하여 유  
도의 최민호, 여자 양궁 단체전 등 많은  
경기들이 있어서 해가 있을 때는 장보  
고와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해가 떨  
어져서는 열심히 한국의 경기들을 지켜  
보며 이국에서의 일석이조의 경험을 했  
던 여행이었다. 또한 단편적으로만 알  
고 있던 장보고의 넓은 스케일과 도전  
정신,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길을 뚫  
고, 또 중국과 일본에게서까지 신뢰를  
얻었던 세계인 장보고의 위상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월주도자기를 다른 나라에 무역으로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향인 청해진과 해남강진에서 도자기를 생산함으로써 고려청자의 시발점이 된 장보고의 개척자 정신은 후대의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으로는 모반의 역적으로 몰려 염장에게 비극적으로 암살된 장보고를 통해 역사란 얼마나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는 오류를 범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역사야말로 그 시대를 돌아보며 진실로 그 사람의 삶을 오류 없이 알고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드는 답사였다.

인천터미널에 도착하여 또 긴 시간을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한국의 남자양궁단체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걸 보으며, 유도의 양기춘 선수와 펜싱의 남현희 선수, 수영 200미터에서 박태환 선수가 결승에 오르는 걸 보았다.

역시 집이 있는 내 고장의 모습은 낮익고 편안했다.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싶게 사람구경하기 힘들었던 지난 5박 6일의 시간과는 달리 바쁘게 움직이며 차로 가득 찬 도시가 더 푸근하게 느껴지는 건 웬 일인지. 부산의 맑은 파란 하늘을 올려보며 중국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

장보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뒀안길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연구와 답사가 앞으로 많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 새로 알게 되어 반가운 분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